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안동하회마을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지정유산 정책 : 범주를 넘어 통합으로

일시	2024년 10월 16일 (수) 13:00 ~ 10월 18일 (금) 13:00 / 3일간
장소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월천길 301)
주최	안동시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MOWCAP)
주관	한국국학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HCAP)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목 차

• 기조강연 I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	6
유네스코 지정유산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제언-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팀 커티스 (유네스코 남아시아지역 뉴델리사무소 소장)	20
유네스코 지정유산: 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30
유네스코 지정유산의 통합적 접근법	

• 기조강연 II

최재현 (건국대학교 교수,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48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 기조강연 III

서경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위원장)	60
세계기록유산 사업 : 국제자문위원회, 지역위원회, 국가위원회의 역할	

• 주제발표 I : 유네스코 유산 개관

가미니 위제수리야 (WHITRAP 상하이 특별자문관)	68
안동: 농촌/민속/민중 유산을 포착하는 유산 정의의 진화	
웨버 은도로 (ICESCO 이슬람 세계유산센터장)	84
세계유산해석, 자연과 문화를 연계한 접근법	
조이 스프링거 (세계기록유산 등재소위원회 의장)	92
세계기록유산: 시대를 위한 프로그램	
닐 카말 샤파게인 (인도 아메다바드대학교 교수)	102
유네스코 지정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통합 프레임워크에 대한 요청	

• 주제발표 II: 유산정책

- | **밍치앙**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세계유산본부 소장) with 시우 정 텅 114
1972년 및 2003년 협약의 시너지화: 세계유산 현장관리자의 관점
- | **미사코 이토** (유네스코 아프리카지역 CI 자문관) 132
아프리카 기록유산 보물과 개요
- | **마크 야콥스** (벨기에 앤트워프대학교 교수) 144
아카이브, 레퍼토리 및 '다른이름으로 저장'...
21세기 유산 정책과 실천을 구성하는 경로 의존성을 넘어서
- | **박범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인류세연구센터장) 158
인류세 시대의 기후 위기와 문화유산
- | **아흐메드 스쿠티** (모로코 국립고고학연구소 교수) 172
유네스코 문화협약: 세계유산협약(1972)과 무형유산협약(2003)의 사례
- | **레하프 가사스** (사우디 문화유산보존협회장) 184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사회의 지정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영향
- | **심혜승**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디지털헤리티지랩 연구원) 194
디지털 유산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여정-잃어버린 문화되살리기

- | **푸이 펭 호**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96
중국의 민속 마을과 건축 보존에 대한 심층 분석
- | **카트린 블록**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부의장) 322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지역 유네스코 기록유산 프로그램
- | **아이자킨 코조베코바**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대학교 교수) 338
얽힌 서사: 중앙아시아의 역사, 문화 그리고 기억
- | **허용호** (신경주대학교 교수) 346
유네스코 체제와 대한민국의 무형유산 정책

• 주제발표 III: 사례연구

- |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220
유네스코 지정유산의 보고 - 안동 하회마을
- |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238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와 국제 연대의 구축: 유네스코의 가치를 실현하는 조선통신사 기록유산
- | **미즈루 하가** (일본 도호쿠대학교 교수) 248
역사(iсторія)의 주요 원천으로서 세계유산(WH), 인류무형문화유산(ICH), 세계기록유산(MoW): 단지 수단이 아닌 항상 목적으로
- | **이맘 구나르토** (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장) 270
인도네시아에서 세계로: 기록유산에 담긴 문화 다양성의 조화
- | **호세 이그나시오 갈레고 레비야** (알울라 왕립위원회 자문위원) 284
알울라 사례 연구: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360도 모델을 향해
- | **시피리아노 네마니** (이타우케이 사무국, 문화·유산·예술부 디렉터) 292
태평양 섬의 지정유산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기조강연 I

유네스코 지정유산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제언-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정종섭

- 한국국학진흥원장

유네스코 지정유산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제언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하회마을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등재연도 : 2010년	봉정사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 전국 7개 사찰 등재연도 : 2017년	병산서원 한국의 서원 : 전국 9개 서원 등재연도 : 2019년	도산서원 한국의 서원 : 전국 9개 서원 등재연도 : 2019년
--	---	--	--

ANDONG 안동 _____ **UNESCO world heritage**

CONTENTS

- 1 - 안동의 유네스코 지정유산
- 2 - (안동의) 세계유산과 역사적 자취
- 3 - 역사적 자취와 기록유산
- 4 - (안동의) 세계기록유산
 - : 지역 공동체의 기록
- 5 - 문화유산과 무형유산 그리고 기록유산
 - : 상호 보완적인 필수적 관계
- 6 -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제언



하회별신굿탈놀이
 한국의 탈춤 :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국가무형문화재 13곳, 시도무형문화재 5곳
 등재연도 : 2022년

ANDONG 안동 _____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한국의 유교책판
유교책판 64,226점
등재연도 : 2015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한국국학진흥원 52점)
한국국학진흥원 외 9개 기관
등재연도 : 2017년

ANDONG 안동 — **UNESCO Memory of the World**

국가, 지역, 역사, 문화 공동체 그리고 유산

하회마을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증가길 2-1
봉정사 :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도산서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봉선사원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봉선길 386
한국국학진흥원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퇴계리 1997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

- 세계유산 : 하회마을 (한국의 역사마을을 2010년 등재)
봉정사 (한국의 산지승원 2018년 등재)
도산서원 (한국의 서원 2019년 등재)
봉선사원 (한국의 서원 2019년 등재)
- 세계기록유산 : 유교책판 (한국의 유교책판 2015년 등재)
인류무형문화유산 : 하회별신굿탈놀이 (2022년 등재)

1995-2019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지정유산

한국의 편액
189개 문종 및 서원 550점
등재연도 : 2016년

만인의 청원, 만인소
도산서원 1점, 옥산서원 1점
등재연도 : 2018년

내방가사(한국국학진흥원 224점)
한국국학진흥원, 국립한글박물관
등재연도 : 2022년

ANDONG 안동 — **UNESCO Memory of the World**
Asia-Pacific Regional Register

(안동의) 세계유산과 역사적 자취 1

조선시대(16세기)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인 쌔족 마을
마을에는 종가와 양반들이 살았던 크고 튼튼한 목조 가옥, 정자와 정사, 유교 서원과 서당 등이 남아 있다.
또한 평민들이 살았던 단층의 작은 흙집과 초가지붕을 엮은 초가집들도 있다. 정자와 휴식처에서 보이는 마을 주변의 산과 나무, 강의 경치가 건축물과 어우러져 그림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형성한다.

안동 하회마을

한국국학진흥원
보존관리

(안동의) 세계유산과 역사적 자취 2

지역의 향촌 지식인들에 의해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 이 유산은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다.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의 9개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도산서원 전교당

도산서원 병산서원

서원 건립 이후 향촌의 지식인들은 제향, 교육, 강학, 교류, 사회적 활동을 위해 이곳에 모였고 그때마다 글을 짓거나 기록을 남겼다



병산서원 만대루



한국국학진흥원
보존관리



(안동) 세계유산의 역사적 자취와 전통기록유산

안동의 세계유산들은 기록유산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곳에서 오랜시간에 걸쳐 제작 또는 생산된 고서, 고문서, 목판, 편액, 유물 등이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되어 있다.

15,096	59,398	6,664	73	478	218	81,927
--------	--------	-------	----	-----	-----	--------



고서	고문서	유교책판	편액	서화	기타	합계
205,328	364,745	67,636	1,413	6,133	4,267	649,522

하회마을,도산서원
기탁 자료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자료 현황

(안동의) 세계유산과 역사적 자취 3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형과 무형의 문화적 전통을 지속하고 있는 살아있는 불교유산이다. 7개 사찰로 구성된 유산은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로 대한민국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봉정사 템플스테이

봉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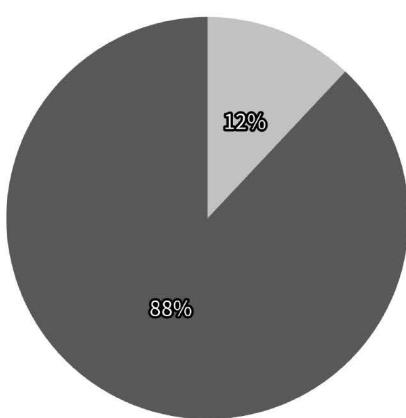
조선시대 사찰은 출판 인쇄 문화의 중심지. 봉정사에서도 불교 경전을 포함한 다양한 서적들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고 그 때의 일을 기록한 문서들이 다수 전해짐



한국국학진흥원
보존관리



■ 하회마을.도산서원 기탁자료 ■ 소장자료



8만 여점의 기록과 기억, 세계유산의 가치를 담다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에 전해지던 다양한 기록유산 봉정사를 드나들던 사람들의 기록 그리고 그곳에서 간행한 서책들 기록유산에 남은 인류의 기억은 역사 그 자체인 동시에 현전하는 유형 유산의 의미를 다채롭게 만든다



안동 하회마을
유교책판 수집 보존 관리



안동 하회마을 서애종가
'충효당忠孝堂' 편액
수집 보존 관리



봉정사 관련 기록 유산 보존 수집 관리



1824년 봉정사 간역소에서
제작한 '번암집' 책판(357장)

평강채씨 번암상공종택

1824년 봉정사에서 간행한 '번암집'



풍산류씨 화경당(복촌) 기탁



1824년 봉정사 '번암집' 간역소에서
작성한 '간소일기'



풍산류씨 화경당(복촌) 기탁

도산서원
'만인소' 수집 보존 관리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和敬堂의
상벽가 등 내방가사
수집 보존 관리

KOREAN STUDIES INSTITUTE

봉정사 관련 기록 유산 보존 수집 관리

류성룡(1542~1607)이
봉정사에서 공부하는
자식들에게 부친 편지
(1600년 전후 무렵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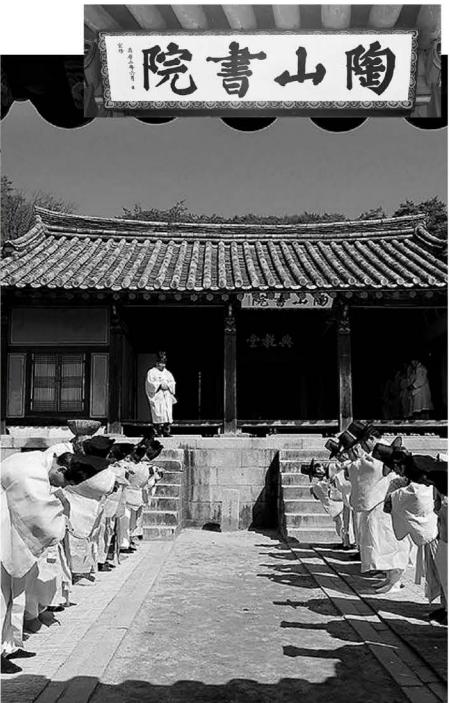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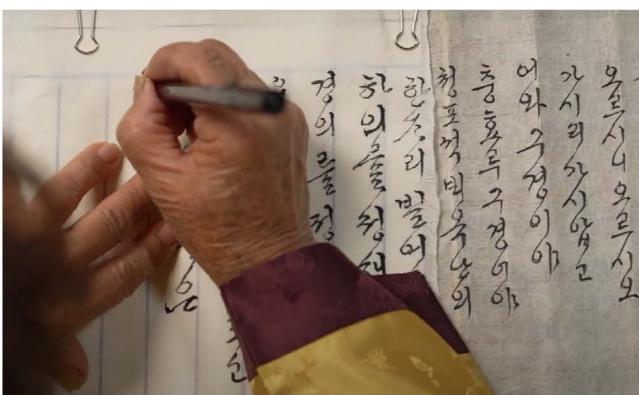
봉정사는 672년 창건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중
수되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극락전을 비롯해
다양의 귀중한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시간이 오래된 만큼 지역민들의 삶과 깊이 연동되어 있다.
불사이면서도 유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드나들었고,
때로는 승려를 포함해 지역민과 관계자들이 힘을 합해
불경 및 학자들의 저술을 간행하기도 했다.

12

13

내방가사 : 현재에도 일부 여인들이 모여서 가사를 쓰고 낭송한다



(안동의) 세계기록유산 지역공동체의 기록과 기억

한국의 유교책판, 한국의 편액, 만인의 청원 만인소, 내방가사는 모두 지역 및 문화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때 '지역 및 문화'는 좁게는 안동이면서 넓게는 한국을 가리킨다.

도산서원과 도산서원 편액 :
현재에도 이곳에서는 향사부터 강학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유산과 무형유산 그리고 기록유산 2

: 상호 보완적인 관계

3. 무형유산과 기록유산의 연계

기록유산은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형유산은 구술 전통, 공연 예술, 종교 의식 등을 직접 경험을 통해 전해지는 것 이지만, 이러한 전통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위험이 크다. 기록유산은 무형유산의 형태, 절차, 의미를 보존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한다.



문화유산과 무형유산 그리고 기록유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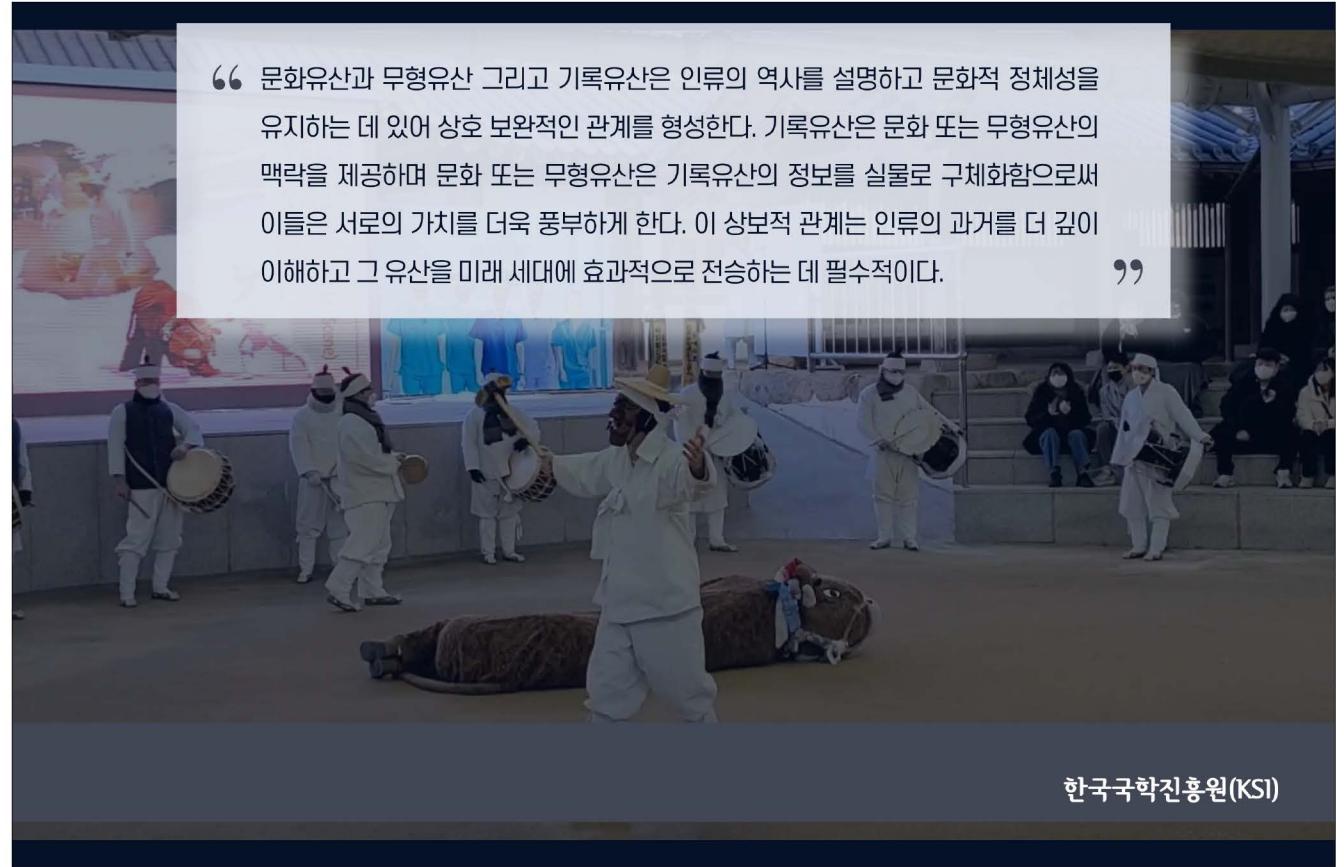
: 상호 보완적인 관계

1. 문화유산의 의미를 기록유산이 보완

기록유산은 문화유산의 배경과 맥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축물, 유적지, 예술품 등 물리적 문화유산이 단순히 그 자체로 남아있을 때는 그 깊은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록유산의 증거를 문화유산이 구체화

기록유산이 제공하는 정보와 내용은 때로는 물리적 문화유산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체화되고, 실물로서의 증거를 제시한다. 문서로만 존재하는 정보는 상상으로만 그리기 쉽지만, 실제 문화유산을 통해 그 기록된 정보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유산과 무형유산 그리고 기록유산은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기록유산은 문화 또는 무형유산의 맥락을 제공하며 문화 또는 무형유산은 기록유산의 정보를 실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들은 서로의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이 상보적 관계는 인류의 과거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유산을 미래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승하는 데 필수적이다.”

”

한국국학진흥원(KSI)

유네스코 지정유산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제언



- ◆ 1 통합적 시각으로 각 지정유산에 접근해 이들의 유기성을 연구하고 조명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한다.
- ◆ 2 유형별 개별적 보존 관리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긴밀학한 교류협력을 도모하며 전승과 보존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도모한다. 이때 본원과 같은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 3 세계적 관점에서 안동과 같은 지역 모델을 발굴해 인력을 포함한 다방면의 교류를 확대한다. 이러한 활동은 유네스코 지정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ANK
YOU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기조강연 I

유네스코 지정유산: 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팀 커티스

- 유네스코 남아시아지역 뉴델리사무소 소장

내빈 및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유네스코를 대표하여 유네스코 내부에서도 중요하게 논의해온 주제에 관해 강연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네스코 지정유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주신 안동시와 주관해 주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국학진흥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인도 아대륙의 고대 문헌에서 유래하여 자이나교, 힌두교, 불교 문헌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맹인과 코끼리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대 우화에서 맹인들은 코끼리를 만져보고 자신이 만진 부분을 통해 코끼리를 설명합니다. 코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가 뱀과 같다고 주장하고,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둥치 같다고 표현합니다. 꼬리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가 줄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 우화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의 관점이 이해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관점을 한데 모았을 때의 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의 세 가지 유산 등재 체계를 생각할 때, 기술진이자 전문가인 우리는 맹인이 자신이 만진 코끼리의 부분만을 인식하는 것처럼 종종 편협한 시각으로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않는지, 이러한 분절된 접근이 공동체에 귀중한 문화유산의 중요한 서사를 불완전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유산은 단순한 유물, 유적, 전통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대를 건너 우리를 연결하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유네스코 지정유산 국제학술대회를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저는 세계유산 협약, 무형문화유산 협약,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간의 시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알기 위해 맹인들이 각자의 통찰을 공유해야 했듯이, 우리 또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유산 분야 간에 협력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그러한 협력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하회마을과 한국 전통 탈춤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탈춤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삶의 표현으로 풍부한 문화적 중요성을 내재하여 2022년,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상징하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탈춤이라는 관습의 중심에는 하회마을에서 기원한 하회탈이 있습니다. 하회마을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세계유산과 무형유산의 연결은 인류 문화유산의 유·무형적 차원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회마을이 탈춤의 배경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번성하고 진화하는 문화적 관습의 살아 있는 보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간의 협업은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류의 전통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조명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집단적 정체성을 반영하며 활기차게 진화하는 서사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1972년 11월, 파리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유산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1959년에 시작된 국제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에서 비롯된 역사적인 협약입니다.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 덕분에 이집트의 아스완 하이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한 22개 유적을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적 보호 운동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50개국이 합심해 공식적인 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협약에는 194개국이 가입하여 유네스코의 주요 활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며 여기 등재된 유산의 형태와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2년 채택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목록은 인류 역사와 문화의 풍성한 태피스트리를 보여주는 유적과 장소 등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은 우리의 과거를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안내하는 등대 역할도 합니다. 이 유산은 인류가 공유한 경험을 되돌아보게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해 대체할 수 없는 문화재를 보존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의히 아시다시피, 1992년 유네스코는 선구적인 이니셔티브인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존과 접근성(보존을 장려하기 위한 접근성 향상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존 장려)을 통해 세계 기록유산을 보호하고 홍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집단적 기억 상실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집단적 기억 상실이란 귀중한 지식과 기록물이 영원히 유실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은 기록물과 장서를 보존하는 것이 인류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문서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 이야기가 인류의 집단적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프로그램은 기록물을 물리적 형태, 사진 및 삽화와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확장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식을 보존할 수 있는 매체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되고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몇십 년 후인 1990년대에는, 보다 넓은 범주의 문화유산을 인정하고, 공동체에서 세대를 거쳐 전수하는 무형 문화재, 관습,

의식 등도 문화유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마침내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채택으로 이어졌으며, 이 협약은 다시 공동체 정체성에 필수적인 역동적인 문화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등재 제도'를 통해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003년 협약은 세계 각지의 전통문화 관습이 세계화와 현대화의 영향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고자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가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영구적인 유적이나 유물의 형태로 남지 않는 고유의 문화 표현이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전통, 구술 표현, 공연 예술 및 사회적 관습을 포함한 무형문화유산이 문화 다양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문화유산의 개념을 형태뿐만 아니라 그 보호 철학과 방법론 면에서도 크게 확장한 것입니다.

이 협약의 중요한 측면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이 협약은 지역 공동체, 단체, 개인 등 무형유산과 관련된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특정 표현이 문화유산인가, 그렇다면 그 유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합니다. 이 협약은 지역사회가 유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통을 위협하는 외부 압력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에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속한 사회적 맥락에서 계속해서 변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주로 노하우와 기술의 성공적인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러한 무형의 전통이 현대 사회에서 그 의미를 지키려면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과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각기 다른 '등재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문화유산이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생계에 깊숙하게 얹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는 유산을 유·무형 또는 기록유산 등으로 분리하는 대신 일상의 핵심이자 사회적 정체성으로서 이러한 유산을 종합적으로 경험하고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 각 유형의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필요하다는 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유산에는 복잡한 건축 또는 고고학 보존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고, 무형유산은 공동체 차원에서 문화적 관습과 전통을 이해하는 데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유산은 역사적 기록이 접근 가능하고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아카이빙 및 보존 방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문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유산은 유산별 특성을 존중하는 알려진 관행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별 유산의 형태에만 집중하면 유산 간 상호 연결성을 간과하는 단편적인 방식으로만 접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유산을 구분하는 기술적이고 전문화된 기준—예를 들어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간의 구분—은 이러한 더 넓은 서사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의 온전성을 존중하는 보존 방식과 관습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문화유산의 다양한 요소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유산 보존에 대해 보다 더 통합된 접근 방식, 즉 모든 문화적 표현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그들 고유의 유산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유산 보호와 무형 문화유산 및 기록 유산 보존과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술적 보존의 수준을 높일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더 포괄적인 이해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종종 지역사회가 무형 문화유산의 관습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생활 공간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장소와 관련된 기술, 지식 및 전통은 지역 공동체에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반대로 무형유산은 세대를 거쳐 전수되기 위해 물리적 장소와 유물에 의존합니다.

또한, 기록에 포함된 역사적 증거는 기록유산이 지닌 막대한 가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목록은 명문(銘文), 사진, 삽화 원고 등 다양한 기록물을 포함하는데, 기록의 역사적 내용과 맥락뿐만 아니라 기록에 드러난 예술, 장인 정신 및 기술 혁신도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과거의 사람들, 사건들과 연결되게 하는 특별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삽화 원고나 명문을 만드는 데 관련된 예술과 공예는 기록유산과 무형유산에 모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미학을 넘어서는 심오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기술, 전통 및 서사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은 기록유산이 세대를 거쳐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동적인 힘이라는 인식의 폭을 넓힙니다. 그러므로 기록유산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창작 과정에서 사용된 장인 정신과 기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합니다.

유네스코는 이 점을 고려하여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유네스코의 협약과 프로그램 간의 시너지를 역설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는 2023년 11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21세기 문화유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1972년 세계유산협약의 50주년과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20주년을 기념하는 회의로, 회의의 목적은 이 두 가지 중요한 협약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 간의 시너지를 탐구하고, 문화유산이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 및 안정성을 위해 기여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12개 행동 사항을 중심으로 한 실행을 촉구하며 마무리되었고,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문화유산이 서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며, 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등재 체계의 대표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하였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 제가 앞서 논한 아이디어에 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기록유산과 무형유산 간의 강력한 시너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태국 전통 마사지인 **누아드 타이(Nuad Thai)**와 방콕 **왓 포(Wat Pho)** 금석문 아카이브 간의 관계입니다.

누아드 타이, 즉 전통 태국 마사지는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올라 있으며, 건강 관리 방법뿐만 아니라 태국문화 정체성의 근본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태국 정부는 다양한 문화유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누아드 타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누아드 타이가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고 전통 지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습은 고용을 창출하고 태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전통 기술이 세대를 거쳐 전수될 수 있도록 마사지 치료사 훈련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아드 타이와 왓 포 사원의 금석문 아카이브 간의 연결성은 무형유산과 기록유산 간의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아카이브는 태국 마사지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125개의 석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왓 포 사원 경내 곳곳에 이 석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카이브는 마사지 관습의 문화적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사 기록인 동시에 사원에 있는 유명한 전통 마사지 교육기관과 함께 학습과 전파의 지속적인 수단 역할을 합니다. 이 기록물은 기술을 보존하는 것과

더불어 태국 의학과 문화의 더 넓은 서사 속에서 이들을 맥락화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아카이브를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전통 관습이 현대 사회에 맞춰 계속해서 전수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문화유산 관리에 지역 공동체를 포함시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관리자 역할을 넘어서 보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입니다. 그들의 지식과 관습은 유·무형유산 모두에 맥락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지역 공동체가 관광, 교육 또는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문화유산 관리에 참여할 때, 그들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이러한 참여는 문화유산이 지속적으로 현대 사회와 관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박 시스템(Subak System)은 인도네시아 발리의 전통적인 관개 관리 시스템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역 공동체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 자연, 신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트리 히타 카라나(Tri Hita Karana)* 철학을 바탕으로 수박 시스템은 농업 관행인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박 공동체의 무형유산은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이며, 발리의 관광 산업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시스템의 특징인 아름다운 계단식 논에 매료되는데, 이는 발리인의 농업적 독창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유형(계단식 논), 무형(의식 및 공동체 관습), 기록(수박 시스템에 대한 역사적 기록 및 문서) 유산을 통합함으로써 수박 시스템은 관광객에게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습을 장려합니다.

또 다른 주요 사례는 스리랑카의 **역사 도시 캔디(Kandy)**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캔디에는 스리랑카의 역사를 자세히 담고 있는 *마하바사(Mahavamsa)*라는 연대기가 있으며, 이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문서는 캔디의 유산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캔디의 불치사리(부처 치아사리) 축제로도 알려진 **에살라 페라해라(Esala Perahera)**는 신성한 불치사리를 기리는 연례 축제로, 스리랑카 불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 활기찬 축제는 전통춤과 음악을 특징으로 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유치합니다.

캔디의 에살라 페라해라의 성공과 활기는 지역 공동체의 참여 덕분입니다. 주민들은 행렬 조직부터 전통춤 공연까지 축제의 여러 측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러한 집단적 노력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 소속감과 자부심을 키우며,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유산이 현대 사회에서도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캔디는 세 가지 중요한 유형의 유산(유형, 무형, 기록유산)을 통합함으로써 방문객에게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산 보호 및 보존 노력의 효과를 높이는 길을 열었습니다. 캔디는 무형유산 및 기록유산과 관련된 풍부한 문화적 서사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은 물론 더 넓은 문화적 토양 모두에 혜택을 주는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등재 과정이 문화유산과 그 유산이 존재하는 장소나 그 유산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한데 모으고 이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유산 관리에 대한 참여는 실제로 보존 활동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집단이 문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공통점을 찾고 공유된 유산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 과정은 유산이 특히 갈등 후 사회에서 중요한데, 유산은 화해와 평화 구축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리의 팀북투에서는 지역사회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무력 분쟁으로 훼손된 세계유산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전통 관습을 되살리고 종교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첨예한 갈등 중에 여러 역사적인 묘역과 필사본이 의도적으로 파괴된 이후, 이러한 문화유산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의 모든 단계에 지역 공동체가 참여했습니다. 유네스코는 말리 정부 및 지역 장인들과 협력하여 물리적 복원뿐만 아니라 이 장소와 관련된 전통 건축 기술 및 구술 역사를 기록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춘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지역 석공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훈련과 기술을 제공하며 복원 작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유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관광 실천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유산과 그와 관련된 무형유산과 관습 및 기록유산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은 지역문화의 특색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역사적 장소와 함께 전통 예술, 공예 및 요리가 펼쳐지는 지역에서는 관광의 핵심으로 무형유산을 홍보하는 것이 관광객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는 지속가능한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는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전통 관습이 유지되고 세대를 거쳐 전승되도록 합니다.

또한 유형, 무형, 기록유산의 통합은 더 지속가능한 관광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관광 전략의 개발 및 수행에 참여시킴으로써, 이해 관계자는 유산 관광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게 하고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협력을 위한 노력과 유네스코 나폴리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은 오늘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의해 정의된 인류가 직면한 많은 도전 과제에 대해 지역사회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산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론으로, 세계유산, 무형유산 또는 기록유산 등재 요소 간에 의미 있고 현실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연결성은 문화적 서사를 풍부하게 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 실천을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 혁신적으로 지역에서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는 인류가 공유한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를 위해 계속해서 기념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기조강연 I

유네스코 지정유산의 통합적 접근법

한경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유네스코 지정유산 통합적 접근법

An Integrated Approach to UNESCO-designated Heritage

2024.10.16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HAN, Kyung-Koo Ph.D.
Secretary-Genera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 유네스코 유산 제도의 역사

The History of UNESCO Heritag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1 유네스코 유산 제도의 역사

The History of UNESCO Heritage System

2 제도와 인식의 발전, 그리고 진화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System and Awareness

3 향후 전망과 시사점

The Outlook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유네스코 유산 제도의 역사

The History of UNESCO Heritage System

유형유산(세계유산)

Tangible Cultural Heritage (World Heritage)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72년

무형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인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03년

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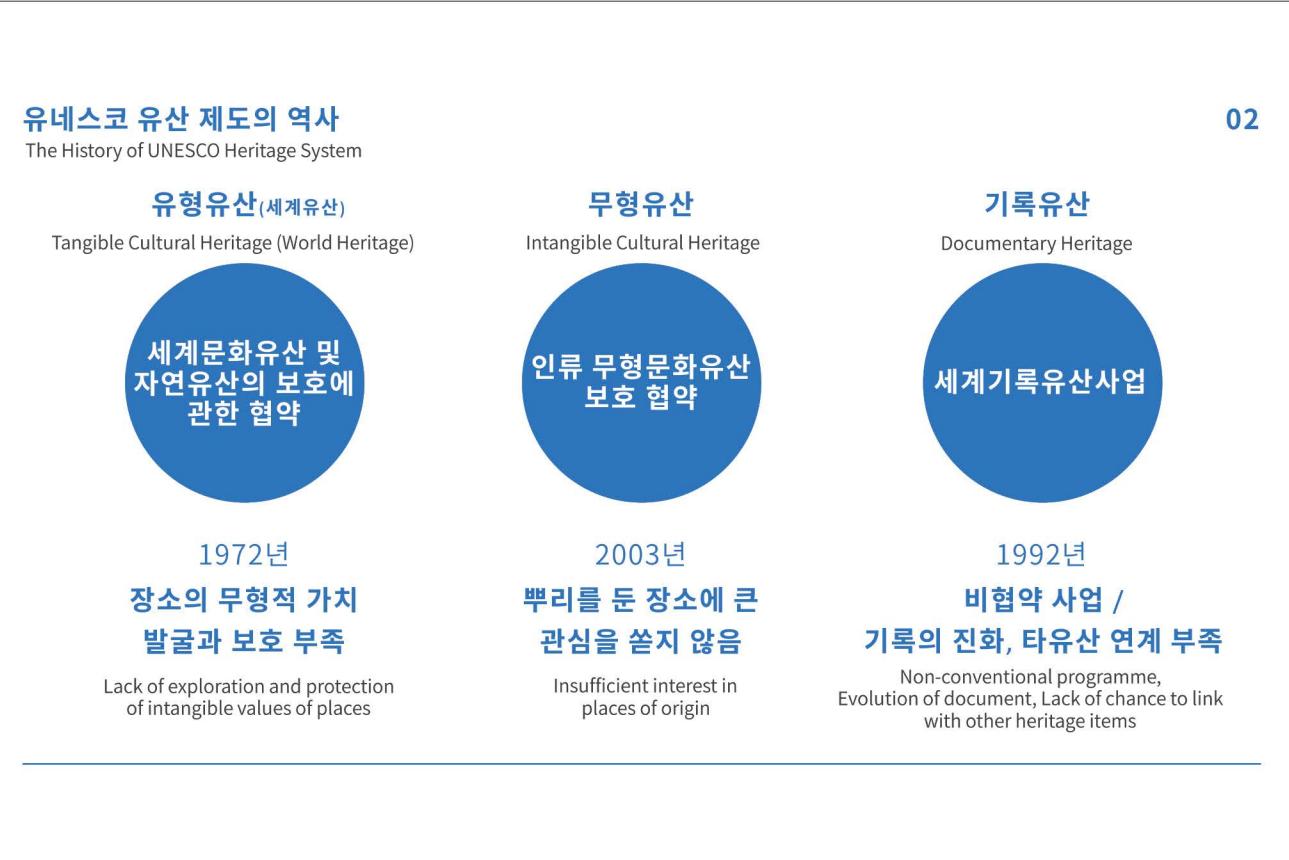
Documentary Heritage
(Memory of the World)

세계기록유산사업

1992년

각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 유지
Maintaining the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of each community

전 세계적으로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 증진
Promotion of understanding and
respect among cultures worldw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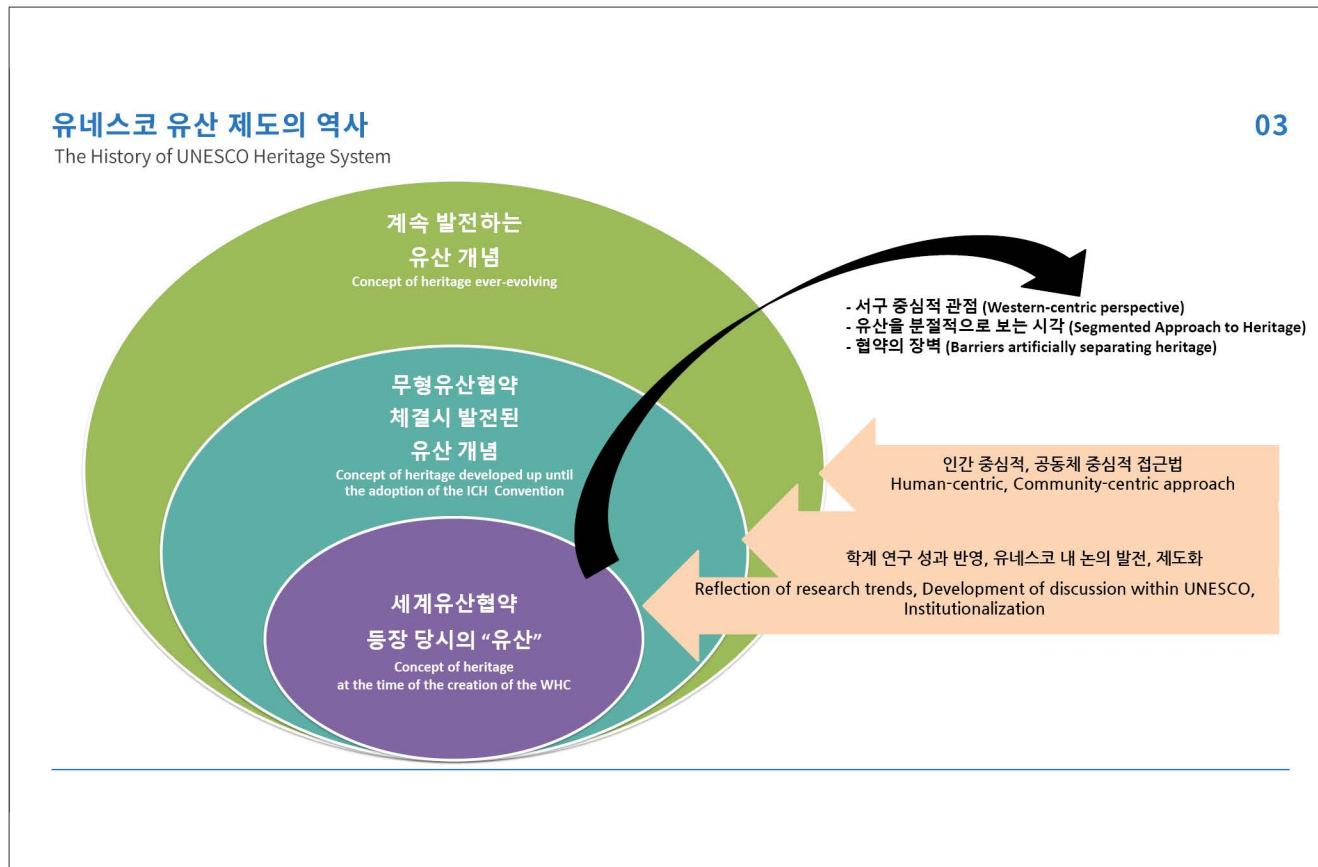
유네스코 유산 제도의 역사
The History of UNESCO Heritage System

04

“유형과 무형 유산 전문화 사이의 유감스러운 구분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많은 유형의 장소들이 무형의 가치에 의해 그 중요성을 가지듯이, 많은 무형 유산의 측면들도 특정 장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The regrettable split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specialisations should be brought to an end.
Just as many (tangible) places owe their importance to intangible values, so too many aspects of intangible heritage are grounded in specific places and cannot survive without them.”

Ned Kaufman, Putting Intangible Heritage in its Place(s): Proposals for Policy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Vol.8(eng), 2013, p20



유네스코 유산 제도의 역사
The History of UNESCO Heritage System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로벤섬’

South Africa's "Robben Island"



1999년 세계유산 등재

Inscribed as World Heritage in 1999

‘해방운동 영상자료 컬렉션’

‘Liberation Struggle Living Archive Collection’



로벤 섬의 수감자 목록, 편지, 정치적 활동 기록 등

List of prisoners on Robben Island, letters, records of political activities, etc.

200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Inscribed as Memory of the World in 2007

06

유네스코 유산 제도의 역사

안동, 상호 연계된 유산의 도시
The History of UNESCO Heritage System

Andong, Republic of Korea, the city of Heritage where all items are indispensable and interconnected



한국의 전통마을: 하회마을
Historic Villages of Korea : Hahoe Village
2011년 등재 (Inscribed in 2011)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 봉정사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Bongjusa Temple
2018년 등재 (Inscribed in 2018)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Dosan Seowon
2019년 등재 (Inscribed in 2019)

한국의 유교책판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in Korea
2015년 등재 (Inscribed in 2015)

한국의 탈춤: 안동별신굿
Tae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 Hahoe Byeolsingut
2022년 등재 (Inscribed in 2022)



유네스코 유산 제도의 역사
The History of UNESCO Heritage System

대한민국 종묘 Republic of Korea's "Jongmyo Shrine"



1995년 세계유산 등재 Inscribed as World Heritage in 1995

종묘제례악

Republic of Korea's "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Jongmyo shrine and its music"



2001년 무형문화유산 등재 Inscrib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1

07

대한민국 해인사 장경판전

Republic of Korea's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the Depositories for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1995년 세계유산 등재 Inscribed as World Heritage in 1995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Republic of Korea's "Printing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and miscellaneous Buddhist scriptures"



200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Inscribed as Memory of the World in 2007

2001년 무형문화유산 등재 Inscrib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1

유네스코 유산 제도의 역사
The History of UNESCO Heritage System

K-Heritage System



2 제도와 인식의 발전, 그리고 진화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System and Awareness

11

제도와 인식의 발전, 그리고 진화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System and Awareness

1989년 - 유네스코 총회가 '전통문화와 민속에 대한 보존 장치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1993년 -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회원국에게 인간문화재제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s'

1998년 -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결작 선정에 대한 규약 마련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 인류학적인 문화 개념

Anthropological concept of culture

- 지역민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무형문화유산을 결작으로 보는 것

The locals consider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masterpieces

제도와 인식의 발전, 그리고 진화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System and Awareness

10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년 채택 (Adopted in 1972)

유형문화유산에 국한

Limited to Tangible Cultural Heritage

지적된 문제점

Identified Concerns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는 서구 중심적이며 엘리트 문화 중심적

The concep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s Western-centric and elite culture-centric

유럽이 세계유형유산의 55% 이상을 독점함에 따른 상대적으로 그러한 '위대한'유적을 갖지 못한 나라의 박탈감

The sense of deprivation experienced by countries that lack such 'great' monuments due to Europe's domination of over 55% of the world's tangible cultural heritage

12

제도와 인식의 발전, 그리고 진화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System and Awareness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한 문화집단의 전통에 기반을 두어 창조된 것을 말한다'

'It refers to what is created based on the traditions of a cultural group'

하나의 문화유산을 둘 이상의 집단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깊은 배려 부재

A lack of deep consideration for the possibility of shared ownership of cultural heritage by multiple groups

제도와 인식의 발전, 그리고 진화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System and Awareness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

Knowledge and technology, performing arts, cultural expressions

13

제도와 인식의 발전, 그리고 진화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System and Awareness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필요한 인식
Necessary Awareness

하나의 문화유산이 다수의 집단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

A single cultural heritage may be shared by multiple groups

개인들이 다수의 문화나 다수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

Individuals may have multiple cultures or identities

국내적 지역 문화와 국내적 소수 문화를 발견·재발견함으로써 국민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There is a need to strive for the enhancement of cultural diversity within the national culture by discovering and rediscovering domestic regional cultures and domestic minority cultures

14

제도와 인식의 발전, 그리고 진화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System and Awareness

유네스코의 문화개념

Concept of culture in the perspective of UNESCO

문화예술 및 교양으로서의 문화 vs. 문화인류학적 문화

Culture as a part of liberal arts
vs. Culture in anthropology

문화인류학적 전환과 유네스코 문화 사업의 발전: 문화다양성, 무형유산...

Anthropological turn and following development of UNESCO culture programmes
: Cultural diversi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문화는 공유되는 것”
시공간에 따른 다양한 문화 형태, 모든 창조적 특질의 총체

UNESCO cultural diversity: Sharing humanity
Various forms of culture in time and space,
Aggregation of all creativity

15

제도와 인식의 발전, 그리고 진화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System and Awareness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필요한 인식
Necessary Awareness

하나의 문화유산이 다수의 집단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

A single cultural heritage may be shared by multiple groups

개인들이 다수의 문화나 다수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

Individuals may have multiple cultures or identities

국내적 지역 문화와 국내적 소수 문화를 발견·재발견함으로써 국민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There is a need to strive for the enhancement of cultural diversity within the national culture by discovering and rediscovering domestic regional cultures and domestic minority cultures

14

제도와 인식의 발전, 그리고 진화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System and Awareness

유네스코의 문화개념

Concept of culture in the perspective of UNESCO

유네스코의 문화 정의:
지나치게 포괄적; 인식전환에 기여

Definition of culture in UNESCO:
Too inclusive, but contributed to the awareness shift

고전적 문화인류학 문화개념 사용
: 국가 중심적, 개인<집단
→ 개인의 문화적 권리 강조 필요

Adoption of classical cultural anthropology concept of culture: nation-state-centrism
↳ Needs to emphasize individual cultural rights

지속가능발전과 문화
: SDG, Post-SDG 상 문화의 기여 증진
유네스코 문화 개념 및 유산 개념의 진화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Culture's contribution to the SDGs and Post-SDG framework
Advancement of discussion in UNESCO (MONDIACULT...)

16

제도와 인식의 발전, 그리고 진화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System and Awareness

문화

Culture

교류와 모방 등 상호작용의 산물

Byproduct of interactions such as exchange and imitation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국민국가의 자존심에 의존
Rely on self-esteem

동시에 문화에 대한 이해나 국제적
상호 이해와 우호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유지
Maintain balance for healthy relations

국민국가적 문화 이해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개인이나 공동체의 문화적 주체로서의 입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Importance of individuals or communities as cultural agents

17

제도와 인식의 발전, 그리고 진화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System and Awareness

몬디아컬트 2022(세계문화정책 지속가능발전회의)

MONDIACULT 2022 (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문화 개념 재정의

Redefine the concept of culture

국제 의제로서 문화 중요성 재확인

Reaffirm the importance of culture as a global agenda

유산 포함 문화 영역간 상호 협업

Promote more intersectoral cooperation in culture including heritage

문화 정책의 국제 정합성 제고

Enhance alliance and coherence in cultural policies at global level

제도와 인식의 발전, 그리고 진화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System and Awareness

문화

Culture

교류와 모방 등 상호작용의 산물

Byproduct of interactions such as exchange and imitation

포착한 특정한 기능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에 매몰될 시:

When fixated solely on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창작정신을 억제하거나 문화를
화석화 시키는 위험

Suppressing creativeness;
Fossilization

상황의 변화에 부응하여 변화하지 않는 문화유산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문화유산

“Dead Heritage” - Cultural heritage that does not adapt to change

18

제도와 인식의 발전, 그리고 진화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System and Awareness

나폴리 회의 2023(21세기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법)

Naples Conference on Cultural Heritage in the 21st Century (November 2023)



유산 본연의 상호의존성 확인

Recognize the intrinsic interdependence of heritage

전체론적 접근방식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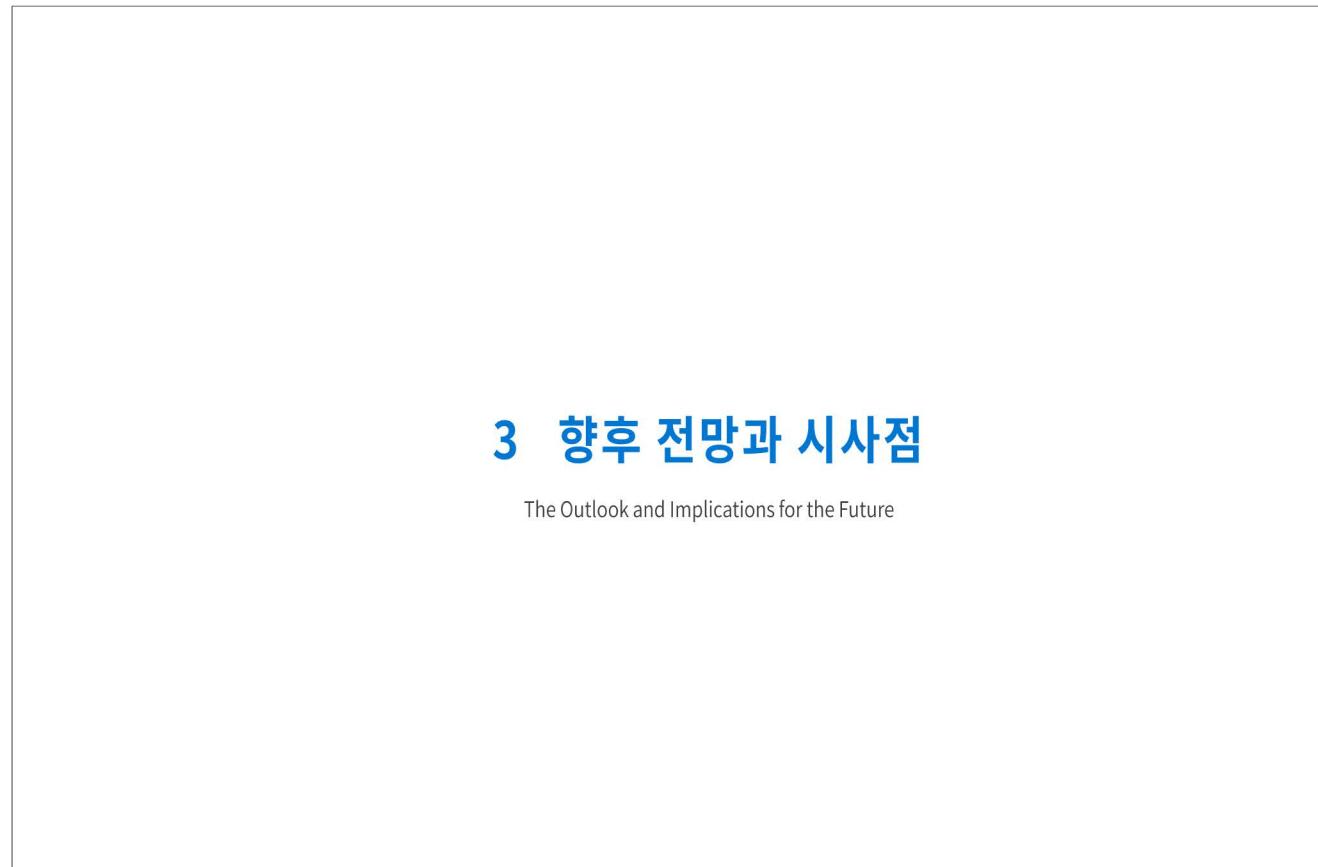
Pursue a holistic approach to heritage-related issues

유형-무형-자연유산의 연계와 통합 접근

Integrate tangible-intangible-natural heritage as human heritage

협약상 제약 극복, 실질적 상호연계, 시너지효과 창출

Overcome conventional limits; Strengthen mutual linkage and synergies



21

향후 전망과 시사점
The Outlook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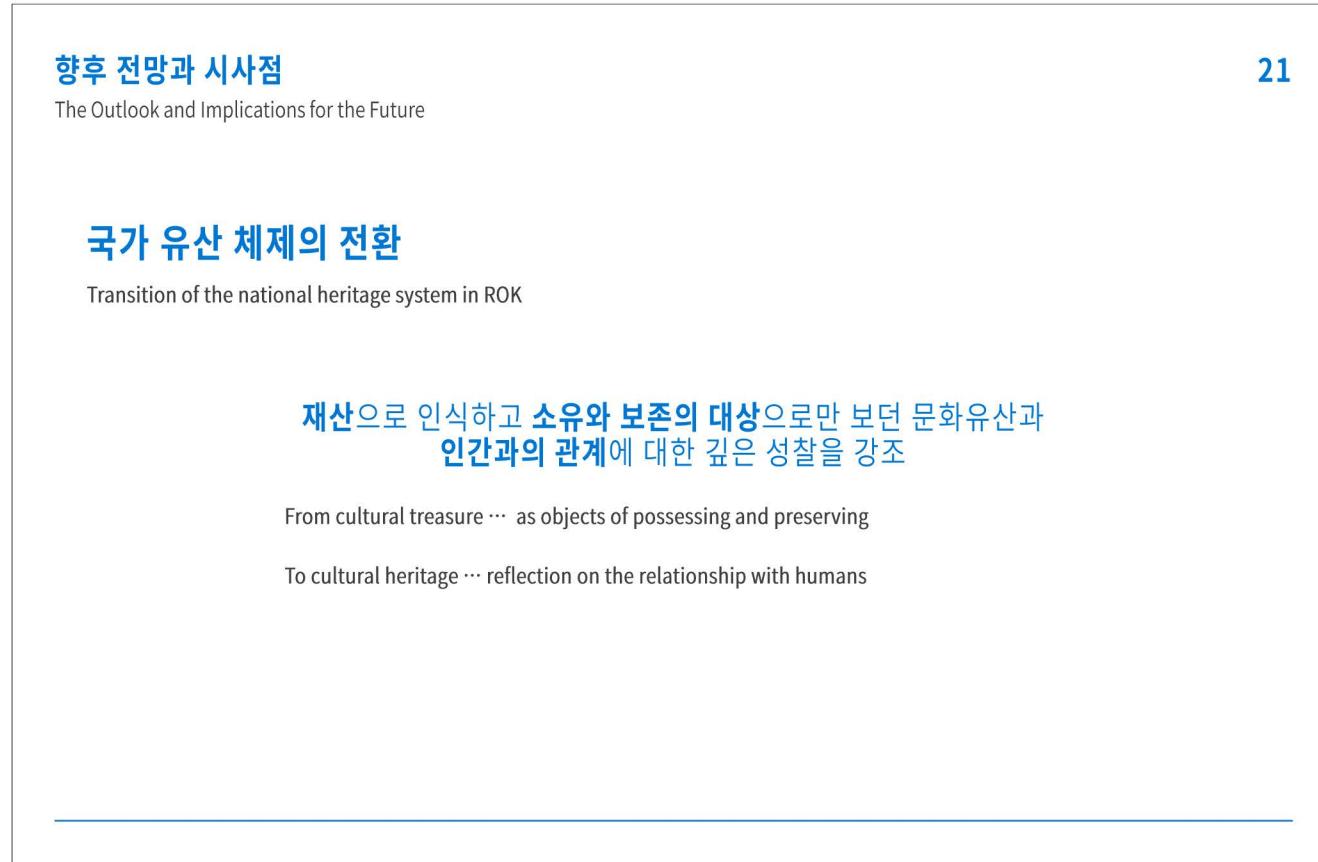
「국가유산기본법」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
「National Heritage Act」 in ROK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다양한 형태의 유산 보호
Protection of various forms of heritage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 강화
Enhancement of roles for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새로운 방법 모색
Exploration of new methods for preserving and promoting cultural heritage through digital technology

22



향후 전망과 시사점
The Outlook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국가유산기본법」
「National Heritage Act」

기록유산이 별도의 범주로 구분되지 않고 유형문화유산의 범주 안에 포함
Documentary heritage is included within the category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문화분야 사업이 아닌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
Memory of the World
Classified as the work of the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ctor

23

문화를 대하는 총체론적 관점

A holistic view of culture



다양한 개별 사례들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도출

Reviewing various individual cases and deriving implications



사람 중심의 정책 수립·이행

Human-centered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감사합니다

Thank You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기조강연Ⅱ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최재현

- 건국대학교 교수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UNESCO World Heritage and
Local Revitalization Strategies

2024. 유네스코 지정유산 국제학술대회
기조발표

2024년 10월 17일 (목)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지리학과/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최재현 교수
choijh@konkuk.ac.kr

1. 세계유산이란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운영하는 제도

등재 대상

- 문화유산은 기념물(monuments) 유적지(sites), 건물(군) (buildings), 자연유산은 자연경관, 자연기념물, 생물 서식지, 생태계 등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은 옮길 수 없는 부동산 유산

- 1개 이상 등재기준 충족, 진정성과 완전성 요건, 보호와 관리 체계

세계유산목록

- 2024년 제46차 인도 델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4건의 신규 등재
- 168개국에서 1,223개의 세계유산 등재 – 문화유산 926건, 자연유산 232건, 복합유산 65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56점, 삭제 3점
- 국가 순: 이태리, 60, 중국 59, 독일 54, 프랑스 53, 스페인 50, 인도 43, 멕시코 35, 영국 35, 러시아 32, 이란 28, 미국 26, 일본 26, 브라질 23, 캐나다 22, 터키 21, 호주 20, 그리스 19, 포르투갈 17, 폴란드 17, 한국 16 (21번째 보유 수)

3

발표 내용

1. 세계유산이란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2. 세계유산의 제도적 근간: 전략적 목표와 5Cs' 와의 정합성
3. 지속가능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왜 중요한가?
4. 세계유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정리 및 시사점

OUV와 세계유산 유형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 문화적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이 매우 탁월하여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고, 현세와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가치
- 위원회에서 채택한 OUV 진술문은 미래 효율적인 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핵심 기준
- 국가적 및/또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자동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됨

등재 기준	
문화 유산	(i) 인간의 창조적 걸작품 (ii) 한 문화권 안에서의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 증거 (iii)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현재나 과거 문화 전통의 예외적인 증거, 또는 살아있는 전통 (iv)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적, 기술적 총체 사례 (v) 열악한 환경에서의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증거, 토지이용 (vi)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 전통, 문학·예술작품과의 직·간접적 연관성 (vii) 최상의 자연이나 뛰어난 자연현상 (viii) 지형학, 지질학, 자연지리학적 지구 역사상 주요 발전 단계 (ix) 생태학적 주요 진화 사례, ecosystem (x)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사례, 희귀 동식물
자연 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KU KONKUK UNIVERSITY

no.	유산명	등재연도	등재기준
1	해인사 장경판전	1995	iv, vi
2	종묘	1995	iv
3	석굴암과 불국사	1995	i, iv
4	창덕궁	1997	ii, iii, iv
5	수원화성	1997	ii), iii
6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2000	iii
7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	ii, iii
8	제주 학산성과 용암동굴	2007	vii, viii
9	조선왕릉	2009	iii, iv, vi
10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2010	iii, iv
11	남한산성	2014	ii), iv)
12	백제역사지구	2015	ii), iii)
13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2018	iii)
14	한국의 서원	2019	iii)
15	한국의 갯벌	2021	x)
16	가야고분군	2023	iii)

75%에 해당하는 12개가 연속유산, 개별 구성요소는 112개

5

(계속) 2. 전략적 목표와 5Cs의 정합성
KU KONKUK UNIVERSITY

세계유산협약 실행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1972) 및 유산 보호와 관련한 국제협약과 프로그램 (예: 2003 무형유산협약, 1954 해이그 협약, 1970 문화유산불법거래 방지협약, 2001 수중유산보호협약, 1992 생물다양성 협약 등)
-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 전략적 목표(Strategic Objectives)와 정책(Policies),
- 총회의 결의안과 세계유산위원회 의결사항(GA Resolutions and COM decisions)
- 총회의 절차법(rules of procedure)

전략적 목표 ("the 5Cs") (OP 26 참조)

지속 가능한 세계유산

• 세계유산 목록의 신뢰성 강화

• 세계유산의 효율적 보전 보장

• 당사국의 효율적 역량 강화 발전 촉진

• 소통을 통한 세계유산의 대중의식, 참여, 지원 형성

• 세계유산 협약 실행을 위한 공동체 역할 강화

7

2. 세계유산의 제도적 근간

KU KONKUK UNIVERSITY

- 세계유산 협약 관련 기구와 기능

기구명	주요 기능	비고
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의사결정기구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출 	
세계유산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유산지정 세계유산 등재 기준 결정 세계유산 기금 사용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유산협약사업 주도
세계유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네스코 사무총장 소관

자문기구명	주요 기능	비고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IUC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자연유산 신청 현지조사 자연유산 분야 제반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8년 설립, 스위스 글랑 소재 1998년 IUCN 한국위원회 설립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문화유산 신청 현지조사 문화유산 분야 제반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5년 설립, 프랑스 파리 소재 1999년 ICOMOS 한국위원회 설립
국제문화재보존복원센터 (ICCR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9년 설립, 로마 소재 1968년 한국가입(정부간 기구)

6

(계속) 전략적 목표와 5Cs
KU KONKUK UNIVERSITY

(1) 세계유산목록의 신뢰성 (Credibility)

- 세계유산의 등재 절차 - 갈등해소를 위한 예비평가 도입(Preliminary Assessment)
-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등재 기준 정교화
- 진정성과 완전성 - 무형적 측면 확대 적용
- 보호와 관리: 법적 수단, 관리체계, 지속 가능한 사용, 유산 영향 평가(HIA)
- 유산 경계와 완충구역의 설정
- 대표성과 균형 · 신뢰성이 있는 목록을 위한 글로벌 전략
- 업스트림(upstream)
- 잠정목록
- 비교연구

8

(2) 세계유산 보전(Conservation)

- 세계유산의 보호, 보전, 관리의 과정
- 모니터링 – 정기보고, 대응모니터링, 강화모니터링
- 유산 영향 평가
- 재해 관리
-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관광과 방문객 관리
- 지속 가능한 발전: “2015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각을 세계유산 협약의 과정과 통합하는 정책”

The diagram illustrates the four phases of World Heritage Conservation:

- Diagnosis:** Using non-invasive and non-destructive investigation methods to diagnose the current condition using satellite data, aerial data and field survey techniques.
- Monitor:** Monitoring cultural heritage sites using non-destructive impact techniques through the use of UAVs, sensors, cameras, spectroradiometers and other field surveying techniques.
- Mitigation:** Further damage to the site is minimised through a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strategy based on the specific type of geo-hazard.
- Preservation:** Using non-invasive strategies, sustainable practices as well as local knowledge and materials to repair the existing site.

9

WORLD HERITAGE CONSERVATIO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LINKING NATURE AND 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LAUDE CAVE AND ELENE NEGUSSE

(4) 의사소통(Communication)

- 교육과 인식 제고, 유산 가치 해석
- 가치 공유, 유산 지식과 보존 상태 이해를 통해 상호존중과 이질성 극복, 평화로운 사회발전 기여 기여
- 세계유산 운영지침 5-2항에서 방문자 시설에 홍보과 해석센터를 포함 권고
- 방문자를 위한 종합적인 유산 홍보와 해석프로그램 필요
- 한국에 세계유산해석센터 설립(WHIPIC)

unesco whipic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11

(3)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 세계유산의 시행자, 기관, 공동체,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모든 지역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운영지침 213~214조에서 명시
-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 계획, 개발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분석하고 적절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
- 세계유산의 미적 정신적 차원에서 공정한 접근권은 장소정체성 형성, 사회적 응집력 형성에 중요
- 전통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연 역사 환경 보존은 재해에 대한 회복탄력성 제고 가능

10

(5) 공동체 (Community)

- 지역공동체와 이해당사자의 참여
- 인권과 권리 기반의 접근
- 성평등
- 원주민
- 젊은 세대
- 평화와 안정 추구

WORLD HERITAGE LEADERSHIP

12

3. 세계유산 지속가능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왜 중요한가?

- 세계유산 지속가능성은 경제, 환경, 사회적인 특성, 문화유산 보존 행위(action), 역사적 장소(the territory), 문화적 생산 (the people), 유산을 둘러싼 정체성(identity)과 소속감(belonging)의 영향

- 유산의 해석, 활용, 보존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세계유산을 둘러싼 문화적 지각, 사회적 가치, 문화 행위에서 왜곡이 없이 기본적인 지역정체성과 집단의 기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지속가능성을 유지를 위해 전통을 유지하면서 지역에 공유된 가치를 강화하고 관리하고, 이해당사자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포용적으로 아우르며 유산의 가치에 반영
- 유산보존은 개발의 반대가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 형성, 더 나아가 공동체 발전으로 연결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디자인, 생태계 다양성과 문화경관, 역사도시 등 지역 문화유산 자산은 투자 유치, 녹색 성장 동력,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에 중요한 자산
- 세계유산은 단순한 문화적 자산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 수행.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참여 촉진,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확보

13

4. 세계유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 세계유산 관광 개발: 세계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ex. 유산 해설 투어, 체험형 관광(전통 공예))
- 주민 중심의 관광 개발과 운영: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지역 가이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통해 관광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주민 경제적 자립 일조

2. 지역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를 통한 장기적 경제 자립

- 지역 고유의 전통 무형 문화과 연계: 세계유산과 연계해 지역 고유 전통 문화 홍보와 차별화 된 체험 프로그램 제공 (전통 예술 공연, 전통 음식 체험 등)
- 지역 공예 및 특산품 활성화: 세계유산과 연계한 지역 공예품이나 특산품 개발과 홍보, 지역 경제에 기여.

3. 전통문화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기여

- 지역경제와의 연계 강화: 세계유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역홍보와 해외 관광객 유치 촉진.

4. 세계 유산과 지역 경제 연계 강화로 상생 도모

- 이해 당사자 사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정부, 민간 단체, 세계유산 관리기구 등이 협력하여 공동 목표와 발전 방안 마련

5. 글로벌 문화 교류와 협력망 구축

-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역홍보와 해외 관광객 유치 촉진.
-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세계유산 관련 프로젝트 참여, 문화적 영향력 확대.

15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핵심 요소

지역 주민들이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유산 관리 운영

- 유산 관리 위원회에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 반영
-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주민에게 교육, 역량강화를 통해 유산해설사, 문화재 관리 전문가 등 양성
- 유산 보존 및 정비 활동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사례: 마을 축제, 스토리텔링 공모전, 유산 지킴이 활동, 유산해설사 프로그램

환경 보호와 문화 다양성 보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 실천

- 유산의 자연 환경을 보호,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진하여 유산의 훼손을 최소화
- 지역의 전통 문화를 보존, 현대 사회와 조화롭게 발전시켜 문화적 다양성 확보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 생활 안정

- 세계유산을 테마로 한 다양한 문화 상품 개발, 지역 주민이 직접 생산 및 판매에 참여하도록 지원
- 주민 중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고유의 세계유산 관련 이벤트 활성화를 통한 홍보와 관광객 유치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

14

5. 정리 및 시사점

세계유산은 지역주민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 삶의 공간, 경제적 이익, 주민 복지, 사회 문화 지표 중요

유산 이해를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 지역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행위에 대한 가치화가 전제: 세계유산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식 제고를 통해 개인, 가족, 공동체 수준에서 유산에 대한 보존, 가치 부여, 평가
-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기억은 청조적인 능력과 모든 영감의 근원이므로, 주민 역량 강화는 기억과 정체성 강화와 병행.
- 지역공동체 유산가치에 대한 해석, 공유된 가치를 발굴하여 새로운 지역정체성 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성취
- 공동체 정체성과 유산가치 해석, 보존과, 해석, 활용 사이에 균형 유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경제적 이익 도모

- 지속가능성은 국지적 수준에서 사람의 필요와 지역 자원, 시민의식 사이에 균형을 찾아가는 것
- 주민 삶의 방식과 전통을 보존, 세계유산과 전통무형유산의 조화
- 주민에게 수익 환원과 실질적 혜택 제시: 외부 투자자본과 대규모 상업시설의 유치로 인한 지역주민과 단절 문제 해결
- 관광 형태를 다각화하고, IT 등을 활용하여 유산의 매력도 향상
- 세계유산의 이미지를 패션과 상품에 반영 마케팅에 활용하며, 주민들의 시선으로 세계유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 주민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잠재력, 기회, 장점, 문제, 위협, 장애 요소 등을 확인하고, 최고의 방법을 택하여 지속적인 유산에 대한 계획과 관리
- 이해 당사자 간에 노출되는 갈등 관리와 갈등 해소 과정은 서로의 문제점을 깨닫고, 새로운 해결책과 시각을 찾는 기회
- 정부 기관,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동체로 대표되는 이해당사자들이 공유하는 목표를 찾아 보존 과정에 반영

16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기조강연 III

세계기록유산 사업 : 국제자문위원회, 지역위원회, 국가위원회의 역할

서경호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위원장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

(1) 국제자문위원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구조

(2) 지역위원회

(3) 국가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 참여국
(총14개국)

네덜란드, 폴란드, 라트비아, 베트남, 남아프리카, 이집트,
마다가스카르, 카보베르데, 멕시코, 리투아니아, 수리남,
모로코, 인도, 스페인

• • •

목차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
2. 세계기록유산 목록
3.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4. 지역위원회
5. 한국위원회 신청서 심사 목록



2. 세계기록유산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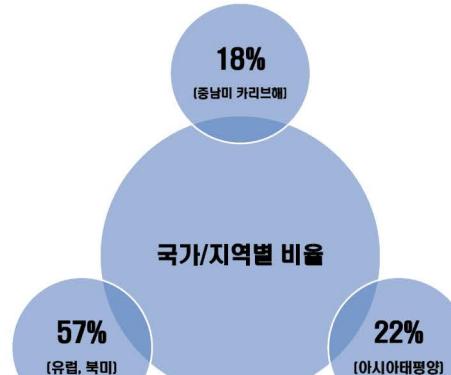
(1) 국제목록

(2) 지역목록

(3) 국가목록



3.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세계기록유산 등재 상위 국가					
독일	23	영국	22	폴란드	17
네덜란드	16	대한민국	16	오스트리아	15
러시아	14	중국	13	프랑스	13
멕시코	13	스페인	11	미국	11
브라질	10	이란	10	포르투갈	10

4. 지역위원회 아시아태평양(MOWCAP), 중남미카리브해(MOWLAC), 아프리카(ARCMOW)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별 등재 현황 (27개국 84건)

호주	4	투발루	2	중국	17
쿡 제도	1	캄보디아	2	피지	2
인도네시아	5	북한	1	일본	1
라오스	1	이란	5	몰디브	1
몽골	5	말레이시아	3	뉴질랜드	2
파푸아 뉴기니	1	미얀마	3	필리핀	4
대한민국	6	사모아	1	싱가포르	2
솔로몬 제도	1	우즈베키스탄	3	태국	1
베트남	9	방글라데시	1	인도	3

*국가간 공동 등재 2건 포함

3.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심사 신청 현황 및 등재 비율

연도	신청서	등재	비율
1997	71	38	53%
1999	20	9	45%
2001	42	21	50%
2003	41	23	56%
2005	53	29	55%
2007	53	38	72%
2009	55	35	64%
2011	84	45	54%
2013	78	55	71%
2015	87	47	54%
2017	132	78	59%
2023	88	64	73%

5. 한국위원회 신청서 심사 목록 (1)

연도	목록
2005	임성루 (서울대 규장각) 내각일elic (서울대 규장각) 비변사동루 (서울대 규장각) 해동지도 (서울대 규장각) 해인사 고려각판 [애인사] 해인사대장경판 및 제경판 [애인사] : 2007년 국제목록 등재
2007	일설루 (서울대 규장각) 영남지역 유교목판 (한국국학진흥원) 충의보감 (보건복지부/한국한의학연구원) : 2007년 국제목록 등재
2009	월설루 (서울대 규장각) : 2011년 국제목록 등재 단종불기 [연종사] 천상열차분야지도각식 (국립고궁박물관)
2011	난중일기 [현종사] : 2013년 국제목록 등재 새마을운동기록물 (국가기록원) : 2013년 국제목록 등재 KBS영상을 : 이산가족을 찾습니다[한국방송공사] 전성률지분야지도각식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의 금속활자 (국립고궁박물관)
2013	이재난고 (횡병관, 소장자) 영행록 [임기종, 동국대 명예교수] 4·19혁명 관련 기록물 [4·19혁명 UN/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및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대웅루 [김영록, 고종박물관] 동학동민혁명기록물 [정을시청]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한국방송공사] : 2015년 국제목록 등재 한국의 음교책판 (한국국학진흥원) : 2015년 국제목록 등재 박씨가 일기 [애천군] 지구전요 [김영철, 소장자] 기미독립선언서 (천도교중앙총부)

5. 한국위원회 신청서 심사 목록 (2)

연도	목록
2015	<p>4.19혁명 기록물 [4.19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김금식 4.19 사랑방회] 기려수를 [기려사승상도시시기념사업회]</p> <p>조선왕조 군영등록 [한국학중앙연구원]</p> <p>한국 총보 「경복」 봉화군 법전마을 법전문중 읍교공 종회 강정기] : 2017년 국제목록 등재</p> <p>국제 보상운동 기록물 [국제보상운동기록물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 : 2017년 국제목록 등재</p> <p>일제 강제동원피해 기록물 [국무총리 소속 대일양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p> <p>조선왕실의 어보와 액자 [국립고궁박물관] : 2017년 국제목록 등재</p> <p>경주동국학교당 기록물 [경상북도]</p> <p>한국의 종가을식조리서 [경상북도]</p> <p>임시 김용률 「나전칠기 도학」(원주시)</p> <p>한국 전통문화학술교류학회 [총연·한국음악연구소]</p> <p>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충북농민혁명기록물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p> <p>삼국사 [한국우리민족사연구회]</p>
2017	<p>4.19혁명기록물 [4.19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및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 2023년 국제목록 등재</p> <p>동학농민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 : 2023년 국제목록 등재</p> <p>아시아태평양전쟁기아 한국인 강제동원피해 원본 기록물 [행정자치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p> <p>조선의식자시 - 수운집팅과 음식디미방 [경상북도]</p> <p>조선왕조 군영등록 [한국학중앙연구원]</p> <p>산림녹화기록물 [한국사립정책연구회 등]</p> <p>돗저워치 협파 및 혐역 기록물 [국립고궁박물관]</p> <p>조선왕실 어벌 각식 [국립고궁박물관]</p> <p>예전 맞걸 박씨가 일기[예천군]</p> <p>상주 동학교당 기록물 [상주시]</p>
2023	<p>만인의 정원, 만인소 운동 기록물 [한국국학진흥원]</p> <p>산림녹화기록물 [한국사립정책연구회] : 2025년 국제목록 등재 추천</p> <p>제주 4.3사건 기록물 [제주특별자치도/제주4.3 평화재단] : 2025년 국제목록 등재 추천</p> <p>한국전쟁 포로 지원송환원칙 관련 기록물 [거제시]</p>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 : 유네스코 유산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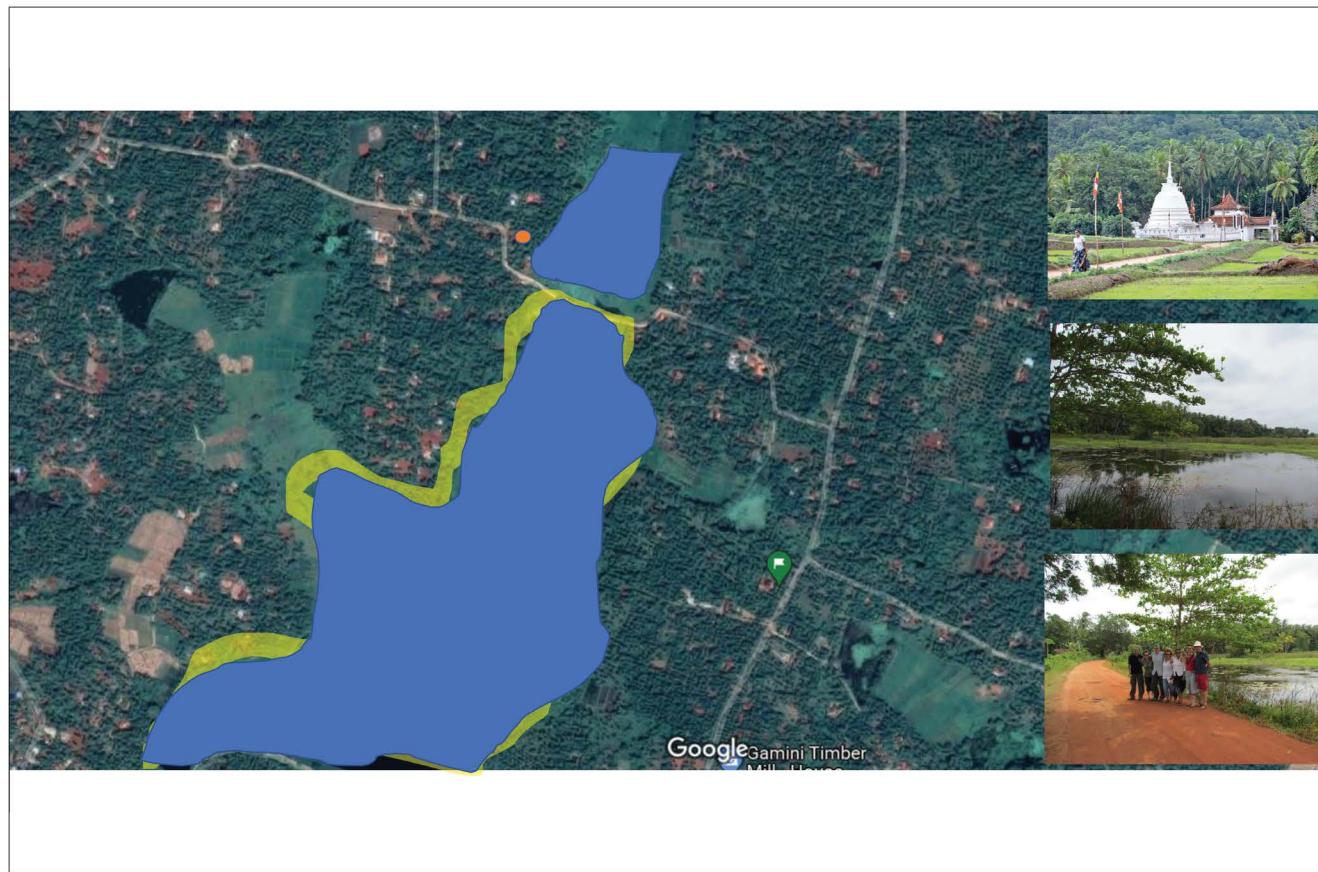
안동: 농촌/민속/민중 유산을 포착하는 유산 정의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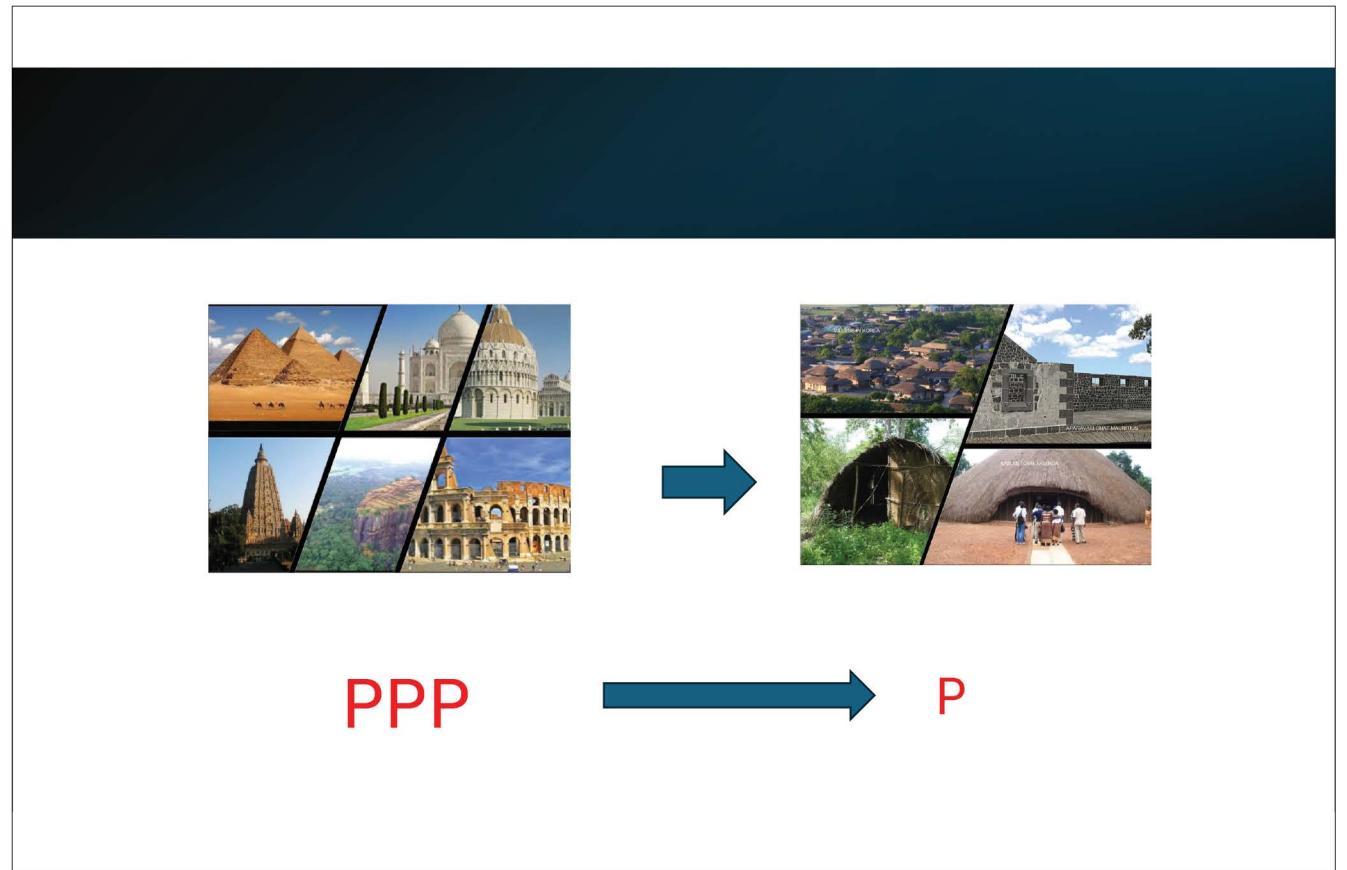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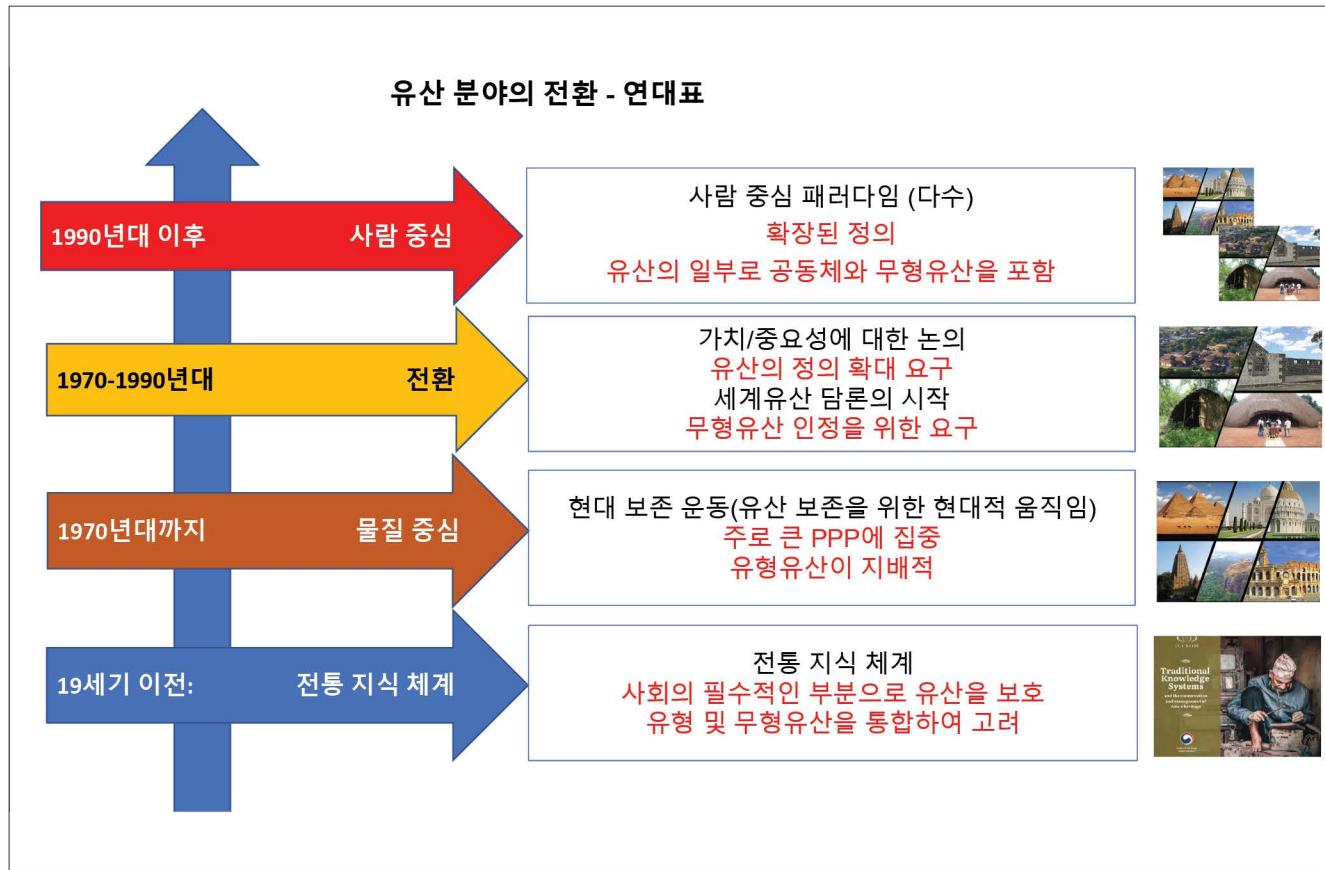
가미니 위제수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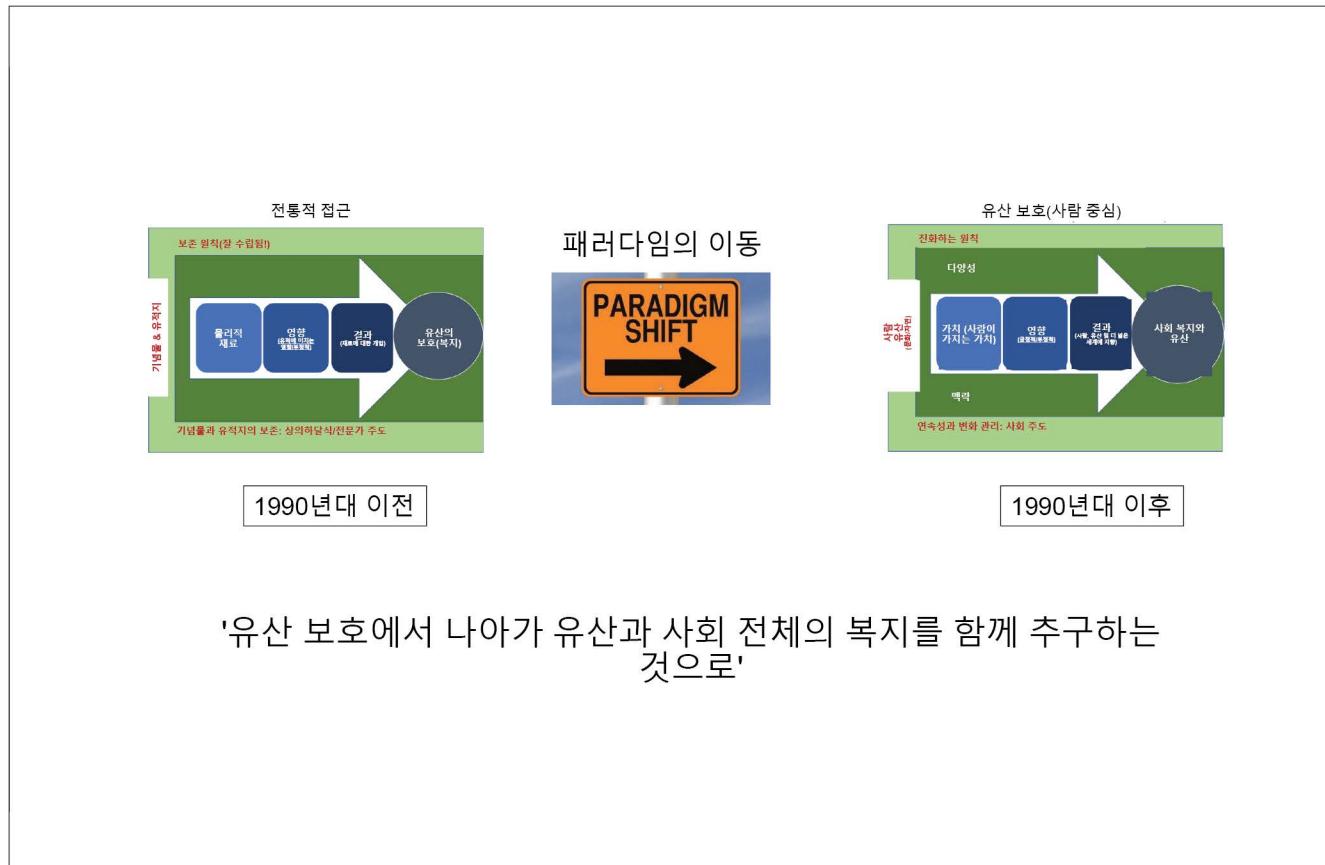
- WHITRAP 상하이 특별자문관

하회: 사람들의 유산을 담아내는
유산 정의의 진화
(농촌 및 토착 문화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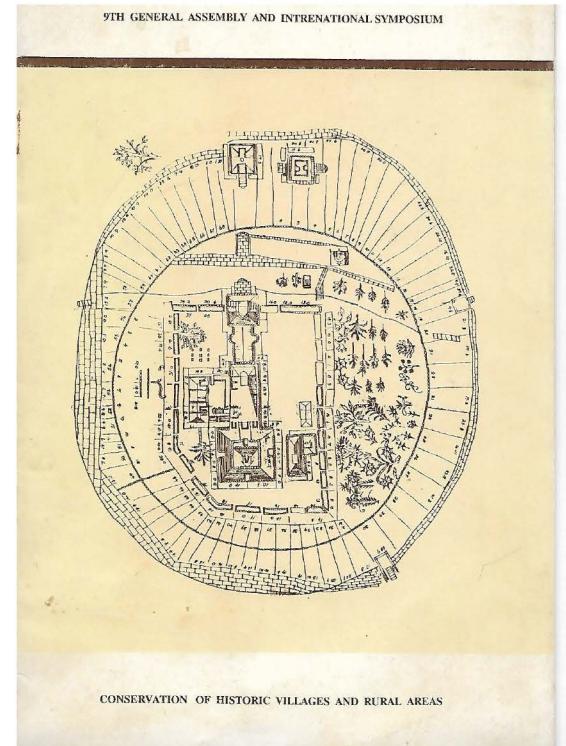
가미니 위제수리야
Gamini Wijesuriya







워싱턴 협정(1987) 회의에서 스리랑카의 제안:



카야 문화경관

- 카야(Kaya) 숲
- 금기를 통해 숲을 보존
 - 비강고스(Vigangos)의 고향



운영지침에서의 지역 가치

- 111항
- 위에서 언급한 다양성을 인정함에 있어,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의 공통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a) 지역 공동체와 원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해당 유산과 **보편적, 국가적, 지역적 가치와 사회생태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
- 2023
- 111항
- 위에서 언급한 다양성을 인정함에 있어,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의 공통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a) 참여형 계획 및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해당 유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
- 2015



하회



시라카와고 및 고카야마 역사 마을

2023 운영지침에서의 무형유산

82 진정성

112 관리 체계

137b 연속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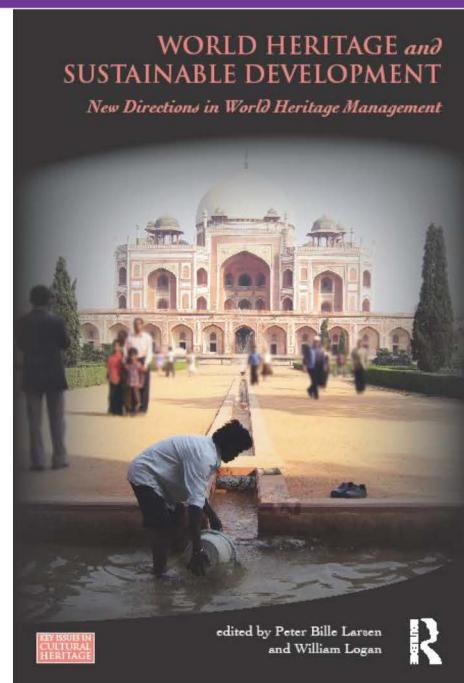
214(두 번째 항목) 역량 강화

등재 형식: 4.b (iii)

운영지침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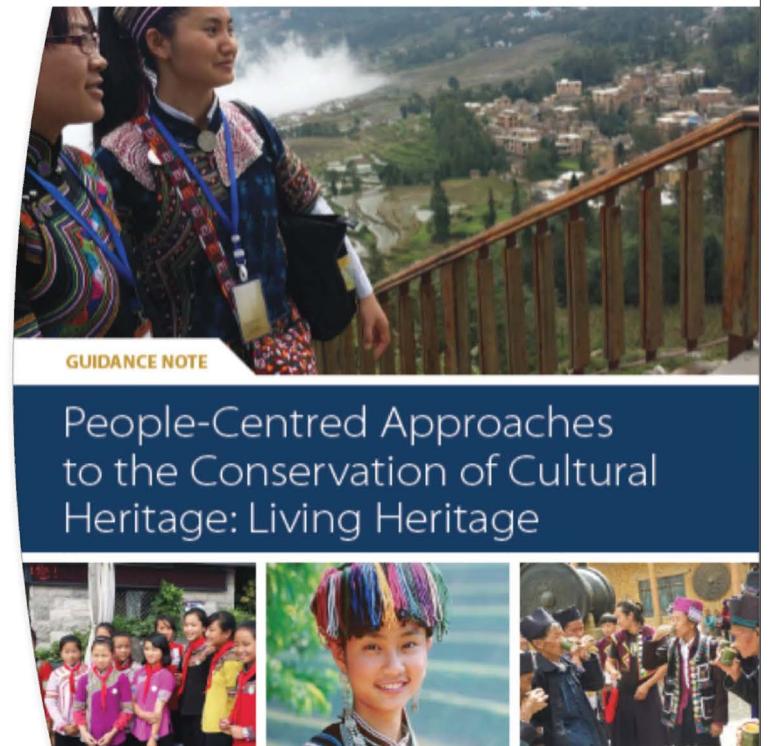


2015 세계유산 협약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유네스코 정책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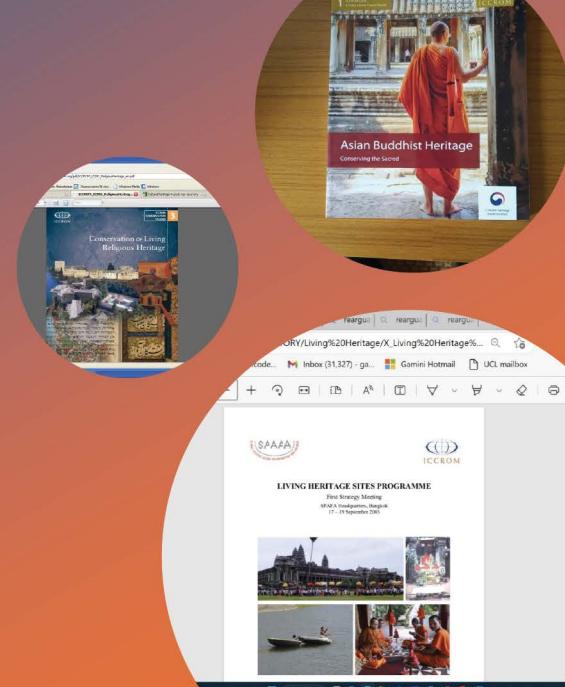


사람 중심 접근 (2008)

- 사람 중심 접근방식의 원칙은 사람을 유산 담론의 중심에 두고, 유산과 사회 모두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
-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의 구분이 없음



살아있는 유산 프로그램 (ICCROM) 2023



자연-문화 연계 2013

- 상호의존성
- 주로 무형유산에 반영



자연-문화 연계 역량 강화 워크숍: 농업 경관에 대한 첫 워크숍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i Twin



筑波大学
University of Tsukuba

UNESCO Chair on
Nature-Culture Linkages in Heritage Conservation
University of Tsukuba, Japan



농촌/
농촌 유산이
얽혀있는

- 농촌이란 무엇인가?
- 농촌 유산이란?
- 따라서 농촌은 아시아 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농촌 유산은 농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촌과 그 유산은 모두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존재로, 서로 분리되거나 시공간에 고정될 수 없기 때문에 위협과 기회를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접근해야 한다

2021 HERITAP WEBINAR ON CONSERVING THE HEARTS OF ASIA

RURAL HERITAGE

November 18-19 2021, UTC/GMT+8

Theme 1: Recognition of rural heritage, understanding relevant conventions and programmes and explore building synergies

Theme 2: Community empowerment and multiple stakeholders' involvement

Theme 3: Linking metropolis and rural areas

WHITRAP 활동



일본

- 사토야마는 2차 산림, 농경지, 관개 연못, 초지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가 모자이크처럼 구성된 경관을 묘사하며, 인간 정착지가 이와 함께 관리되어 인간의 복지에 필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토우미는 해양 및 해안 생태계에서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Duraiappah et al.(eds), 2012).

농촌 유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유망한 현재의 추세

i) 유산의 정의가 확대되어, 과거의
웅장함이나 오래됨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ii) 지역 공동체를 유산 담론의 중심에
두어, 그들의 생계와 유산과 환경의
복지 모두를 고려하는 것. 이러한
목표가 활성화 목표와 동등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통합된다면 더
나은 보존을 기대할 수 있음

• 감사합니다



결론

- **하회마을이 추진할 수 있는 것:**
- **유산 보존의 포용성:** 유산의 정의를 넓히면 문화 다양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 포용을 추진함.
- **지역사회 중심 접근:** 지역사회를 적극적인 참여자로 참여시키면 유산 보존이 관련성 있고, 존중심을 갖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보장됨.
- **유형 유산과 무형유산의 통합:** 물리적 장소와 문화적 관습의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면 보존 노력이 더욱 풍성해짐.
- **복지 촉진제로서의 유산:** 유산 보존은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결속, 그리고 경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복지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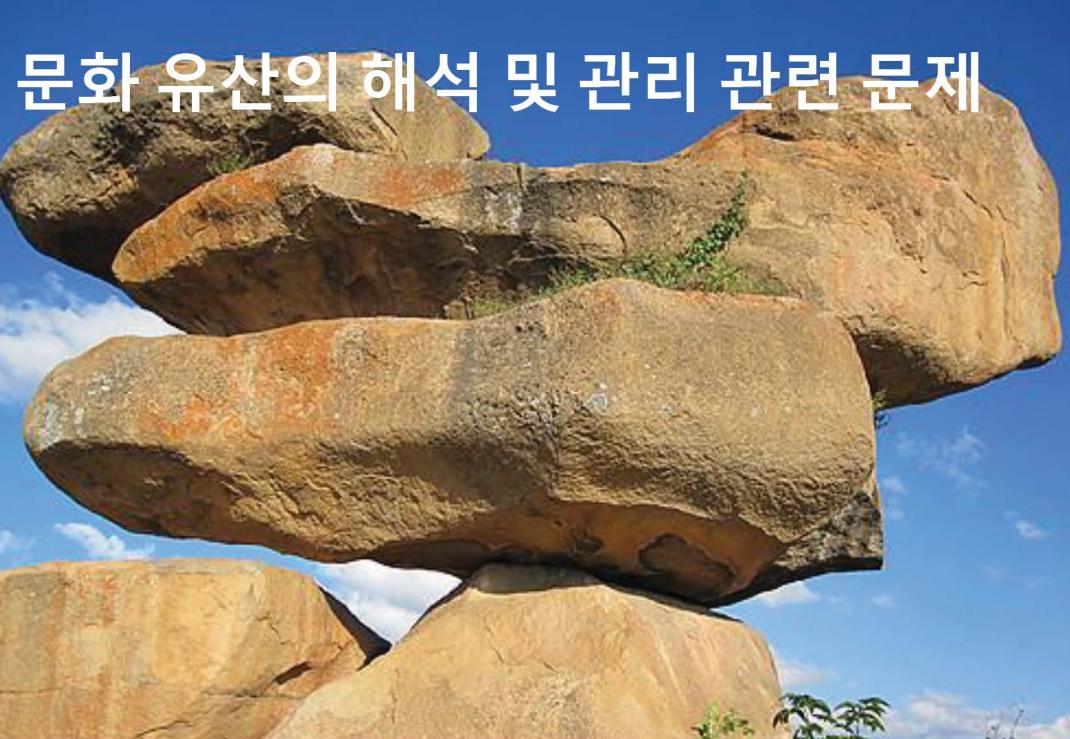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 : 유네스코 유산 개관

세계유산해석, 자연과 문화를 연계한 접근법

웨버 은도로

- ICESCO 이슬람 세계유산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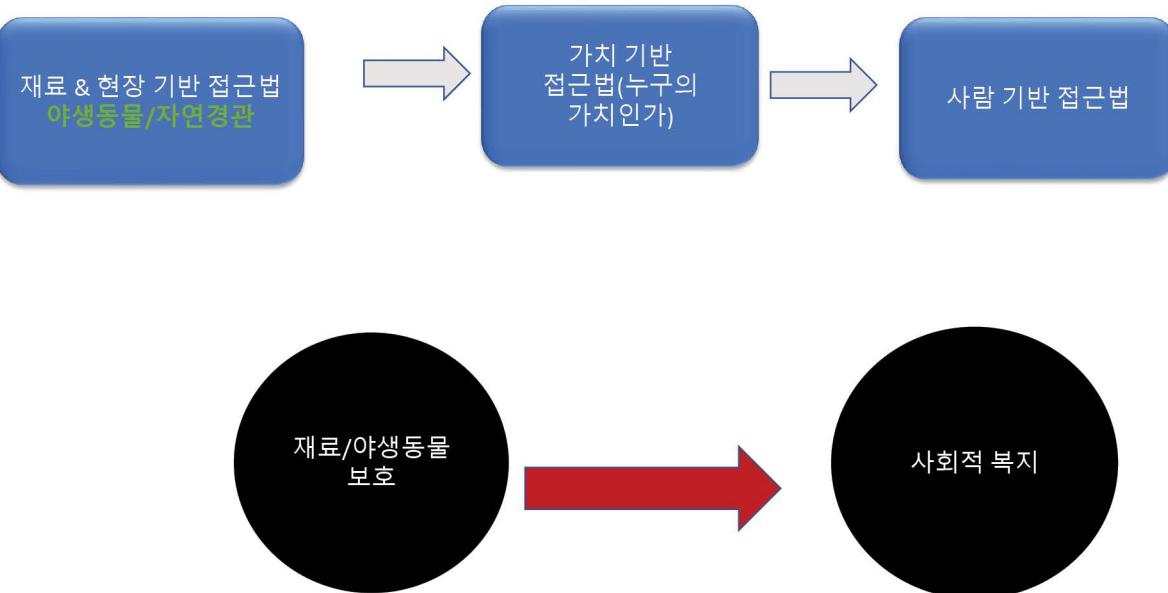


문화 유산의 해석 및 관리 관련 문제



문화유산 지역은 주변 환경과 분리된 고립된 섬처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적 역학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산 지역을 더 넓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정치적, 문화적, 재정적 과정이 이들의 보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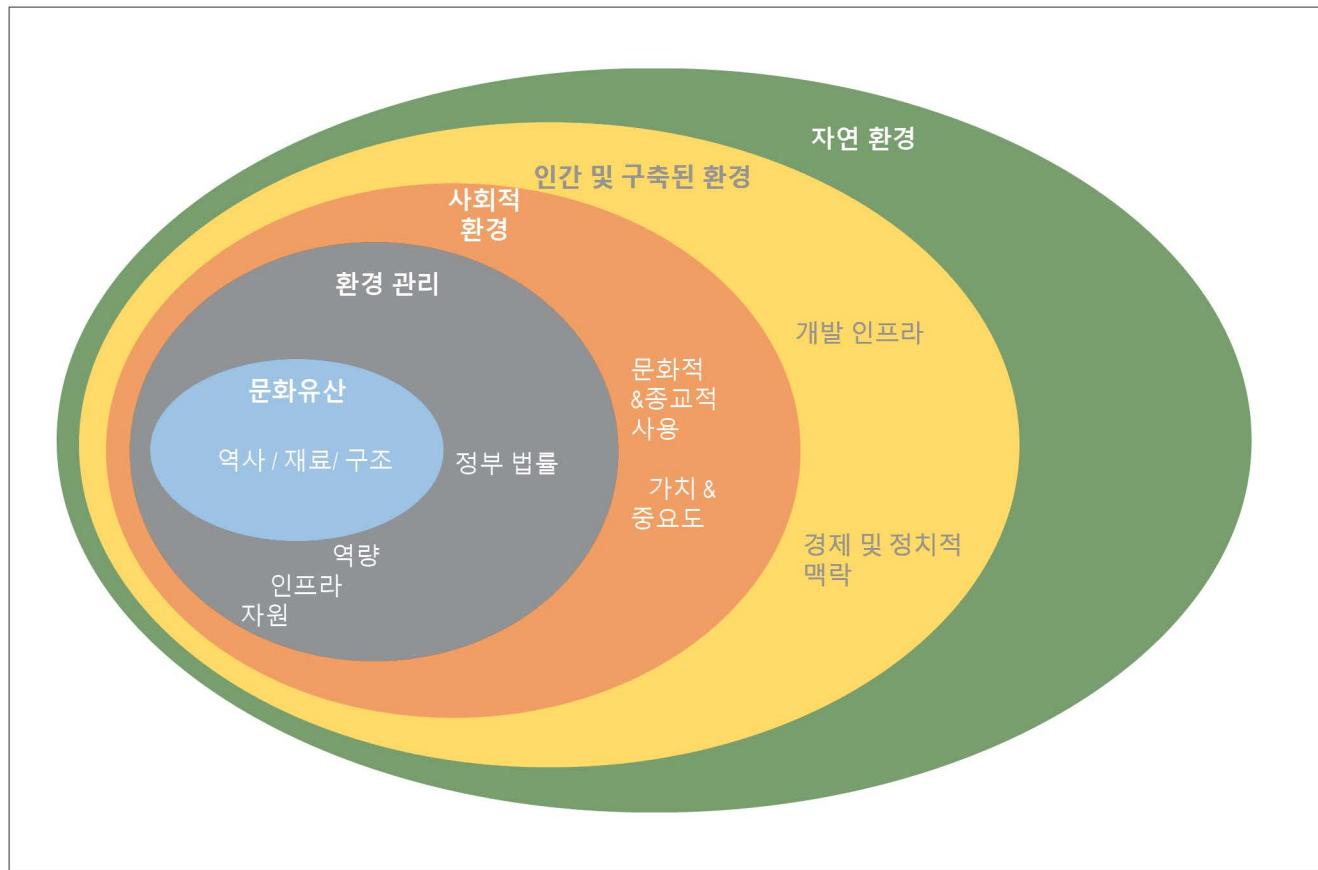
패러다임의 이동 – 접근법의 진화



-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에 위협이 되는 상황 (아프리카를 아프리카인들로부터 구하기)
- 문화유산은 관리되고 격리되어야 하는 과학적 표본이 되었습니다.
- 접근 통제, 사용 및 해석의 독점
- 모든 관리와 보존 활동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춤
- 토지 문제와 문화유산 지역에서 공동체의 강제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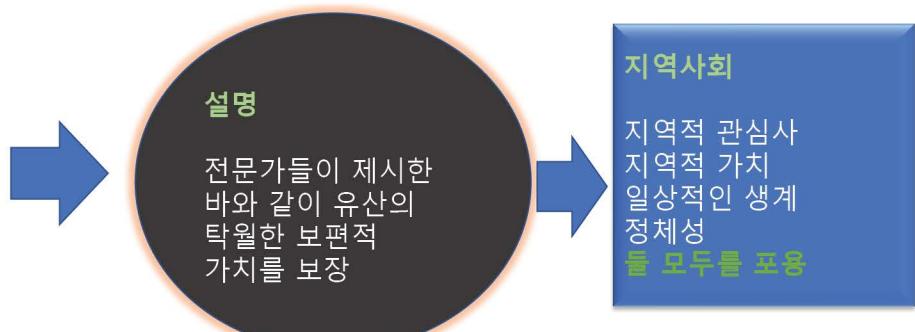


보호 지역



MIND THE GAP

전문가
전문성에 따라
자연 또는 문화



문화유산에서의 사람 중심 접근

유산은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산이 없으면 사람들은 정체성, 공동체
의식,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반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유산을
관리하고 보호합니다.

자연과 문화의 구분도 없고, 무형과
유형의 구분도 없습니다.

유산은 그들에게 생명과 생계의 기반이
됩니다.



- 자연과 문화를 분리하는 유산 보존
- 사람들의 역할 배제, 전문가 중심
- 경제적 가치에 의해 희생되는 유산 가치



자연과 문화를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

➤ 사람 중심의 접근 – 포괄적 관리 체계

➤ 유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 방안 개선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 : 유네스코 유산 개관

세계기록유산: 시대를 위한 프로그램

조이 스프링거

- 세계기록유산 등재소위원회 의장

세계기록유산: 시대를 위한 프로그램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MoW)의 창설을 둘러싼 흔히 알려진 이야기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립대학교 도서관이 파괴되면서 그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냉전의 영향에서 벗어난 국가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보다 민주적인 제도의 부상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이 프로그램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롭게 찾은 자유의 결과 중 하나는 과거 잔혹 행위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 기록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대표단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각국이 보유한 기록 보관소와 기타 기록 기관에 보관된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문서에 담긴 정보로 인해 고의적인 파기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 매체의 취약성도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의 매일 관리해야 하는 화학적, 기술적 문제와 함께 자격을 갖춘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재난의 결과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의 창설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행동을 통합하고, 방대한 문서에 담긴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세계기록유산'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주요 원칙 중 하나는 과거의 기록을 보존하여 특정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현장에 명시된, "인류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세우는 것"이라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세계 상황을 보면 인간으로서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기를 꺼리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기록유산은 기존 체제를 위협한다고 여겨질 때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않기 때문에,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정부에 의해 간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환영받았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실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기록유산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제안하는 데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1992년 초에 열린 첫 기획회의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여러 원칙들이 수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의 지도 아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록유산 분야의 주요 전문 NGO 및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의 기본 철학도 정의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초기에 마련된 원칙들은 의도적으로 정치적 요소가 아닌, 전문가와 전문직 종사자들의 지침에 의존하는 유연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고정되거나 미리 정해진 의제에 따르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는 데 폭넓은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별 또는 공유된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상명하달식 구조 대신 3단계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과 지역별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들은 세계기록유산의 영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일부 위원회가 다른 곳보다 더 성공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모두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몇몇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잠재력을 빠르게 인식하고 채택한 반면,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다른 유네스코 유산 프로그램에 비해 세계기록유산의 '브랜드 인지도'가 여전히 낮다는 인식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를 권장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중요한 기록들을 등재하는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기록의 지리적 범위를 관리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목록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국제목록(International Register)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었고, 동시에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국제목록이 세계기록유산 자체라고 알려진 것은 일종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오해로 일부 기관이나 심지어 일부 국가는 목록에 항목이 등재된 것을 기회로 삼아 기록유산의 중요성을 기념하고 널리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몇몇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되었고, 기록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소장품이 분산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록은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전체 목표 중 하나에 불과하며, 프로그램 자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은 기록유산의 모든 형태를 보호하는 데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다른 측면은 이처럼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년 동안 디지털 유산의 영구성 문제, 낮은 젠더 표상 문제, 한정된 자원, COVID-19 팬데믹 대응 등과 같은 시의적절한 문제들이 프로그램의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세계기록유산이 유네스코의 다른 두 주요 유산 프로그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립된 상태인 점을 극복하려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기록유산의 위상과 재정을 개선하는 데 협약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주제들은 프로그램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를 통해 다루어졌고, 때로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수용 가능한 대표적인 해결책이나 공통점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2015년경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재를 제안한 항목들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고, 일부에서는 세계기록유산 목록이 특정 국가의 과거 행동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또는 다른 회원국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악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록물에는 기록된 증언으로써 텍스트, 구전, 시각 미디어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경험을 전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정적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창의성의 아름다움, 발명의 기발함, 또는 갈등의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등재 목록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후보들이 항상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집단학살이나 인권 침해의 기억을 보존하는 기록들은 국제목록에 등재될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 기록도 많습니다.

정치적 현실을 피할 수 없지만, 폭력이나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면 그 결과로 인해 정부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문서에 대한 해석도 크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문서의 중요성을 정의하는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역사 속 중요한 사건의 모든 측면을 충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록을 위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 등재목록이 '좋은' 기록 혹은 '나쁜' 기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등재가 유네스코가 해당 문서의 내용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등재목록은 단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기록유산 항목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동시에, 일부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서가 등재되었다고 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목록에 정치적 편향이 있다는 공개적인 비난으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논란의 결과로,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전문가 주도로 운영될지 혹은 정부 간 위원회로 전환될지를 결정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대 정치적 관점의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잘못된 이분법은 더 많은 정부의 개입이 관리의 해결책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다양한 선택지들이 논의된 긴 공백기 후에, 개정된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s)이 합의되었고, 현재 이 지침이 프로그램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결책은 추가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미래¹를 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싱크탱크 그룹은 "현재의 등재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위압적이며 비민주적이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회원국이 다른 국가가 제출한 기록유산의 평가나 등재를 방해할 수 있는 정치적 통제 활동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지침의² 부수적 절차를 통해 기록유산에 대한 분쟁이 있는 회원국은 등재 절차를 진행하려면 불합리한 요구라도 모두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논란 해결 과정에서 요구 사항의 종류나 범위, 그리고 분쟁 해결에 대한 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은 세계유산 프로그램에서 채택한 정책, 즉 최근 갈등과 관련된 기록지에 대해 개방형 워킹 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³의 공식적이고 시간 제한적 접근 방식을 따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¹ https://heritagestudies.eu/en/wp-content/uploads/sites/9/2023/07/The-Future-of-the-MoW-Programme_Discussion-Paper.pdf

² MoW 프로그램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s of the Memory of the World (MoW) Programm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8405>

³ UNESCO (2023). 최근 갈등과 관련된 기록지에 대해 개방형 워킹그룹 보고서(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WHC/23/18.EXT.COM/INF.4) <https://whc.unesco.org/archive/2023/whc23-18extcom-INF.4-en.pdf>.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민족주의가 현대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기록유산 및 기타 유네스코 유산 프로그램의 정치화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이 국가 정책을 반영하면서, 그 결과 유산지나 기록에 담긴 본래 의미가 왜곡되거나, 이를 통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력화될 위험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네스코 프로그램들은 공통된 정치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일한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산의 선정과 그 중요성을 결정하는 과정은 주관적이며, 해석이나 편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사'의 창조는 종종 단일한 서사에 기반하며, 이는 '공식적인' 의견 외에는 다른 의견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려는 양극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증언으로서 세계기록유산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가 많아 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 및 국가 목록도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정치적 압박이 덜한 상황에서 목록에 등재된 기록의 가치성을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프로그램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유산은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자산으로 인식되며, 문화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같은 현재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아랄해(Aral Sea) 재해 기록물, 인도양 쓰나미와 체르노빌 기록물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 및 위기 관리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후 화해, 외국인 혐오에 대한 저항 등 세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유산 프로그램은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영향을 받으며,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그 영향 범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 접근 방식을 촉진함으로써, 문화, 박물관학, 유산 연구, 역사, 다중언어주의, 심지어 정치학 분야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와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협력을 확장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협력은 정부와 다른 공공서비스 기관, 민간 부문, 산업계까지 확장되어 기록유산을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특히, 세계기록유산(MoW), 세계유산(WH), 무형문화유산(ICH) 프로그램 간의 공통점은 이들 각각이 인류의 노력에 기여하는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기록은

다른 역사적 요소를 맥락화하거나 해석을 돋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무력 충돌 시 다른 유산과 마찬가지로 기록유산도 명확히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력의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8년 유네스코 방콕사무소는 세 가지 유네스코 프로그램 간의 시너지를 보여주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용어와 초점은 다르지만, 세계유산은 '결과물(product)'로, 무형 문화유산은 '관행(practice)'으로, 세계기록유산은 '의도(intent)'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인류의 존재, 지식 및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서로 다른 렌즈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며, 각 프로그램이 개별적인 이야기에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이들은 함께 우리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는 바르샤바 역사 중심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바르샤바 재건 사무소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폰테네 시토 수도원이 세계유산으로, 피에르 드 빌레이(1472년)의 클레르보 시토 수도원 도서관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곳 안동에서도 각각의 유산 프로그램에 등재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등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촉진하기보다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지(철강, 조선, 석탄 산업)'의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야마모토 사쿠베이의 탄광 그림의 기록적 중요성이 확인되어 이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유산지(sites), 관행(practices), 기록(documents)이 공통의 유산으로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인식될 때 강화될 수 있는 연계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어떤 항목이 유산 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가능한 요소를 식별하여 다른 프로그램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정해진 절차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다른 유산과 관련된 중요성 평가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이유로, 유네스코의 세 가지 주요 유산 프로그램 간에 더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류의 공통 역사를 완성하고, 홍보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산의 어떤 형태로든 보존하는 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작업이 당장의 이익보다는 본질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헌신이 후세에게 이 유산을 전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유 유산에 대한 홍보는 세 개의 유산 프로그램에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지식에 대한 접근은 점점 현대 기술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가진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문화적 포용성을 증진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유산 보호 방식과 더불어, 우리 지역 사회에 가장 잘 맞는 현대적 방식을 탐구하고 선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동이 앞장서서 끌어 나가길 바라며,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권고안들이 전 세계에 등대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 : 유네스코 유산 개관

유네스코 지정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통합 프레임워크에 대한 요청

닐 카말 샤파게인

- 인도 아메다바드대학교 교수

서론

유네스코 지정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통합 프레임워크에 대한 요청

· 닐 카말 샤파가인(Neel Kamal Chapagain) & 우샤 뉴파네(Usha Neupane)

네팔(Nepal)

한 지역 사회는 때때로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도시, 이웃, 건물, 전통 또는 유물 등이 국가적 또는 국제적 체계에 따라 공식 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갑작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일부는 이러한 인정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경제적 이익의 기회로 축하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유산이라는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보호, 보존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유산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보존을 약속하더라도, 대중과 유산 관리 기관 간에는 갈등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유산 등재 제도 또한 예외는 아니며, 때로는 지역 사회가 유산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식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 즉 유형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간의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여러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 정책 또는 등재 제도에 대한 오해
- 유산에 대한 기대와 활용의 불일치
- 이념과 정체성의 갈등
- 보존 및 관리 책임에 대한 혼란

본 발표에서는 네팔과 인도에서 등재된 유산 사례를 통해 이러한 인식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유산(세계 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의 등재 사례가 포함됩니다. 또한 유산의 식별과 관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기관의 접근 방식을 분석하여, 통합적인 유산 관리에서 놓치고 있는 잠재적 기회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비교하면서 유네스코 등재 절차를 상호 연결하는 통합적 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아마다바드(Ahmedabad) 공항에 도착하면 ‘아마다바드 세계유산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대형 벽화나 포스터가 여행자들을 맞이합니다. 이를 통해 아마다바드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세계유산 도시가 여행자들을 환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거리에는 특정 유산지를 안내하는 표지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사절단이 같은 경로를 이동한다고 하면, 이들은 안내판이나 대중이 이야기하는 아마다바드의 모든 유산지를 방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아마다바드의 유산과 아마다바드의 ‘세계유산’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에는 무형 문화유산 요소인 가르바(garba, 아마다바드뿐만 아니라 구자라트(Gujarat) 전역에서 인기 있는 축제 춤)가 2003년 협약에 따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유산 홍보 활동에서도 가르바가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비교할 또 다른 사례는 네팔의 카트만두 밸리 세계 유산지(KVWHS, Kathmandu Valley World Heritage Sites)입니다. 이곳에는 카트만두 밸리가 7개의 기념물 구역으로 이루어진 유산지임을 알려주는 명확한 표지판이 없고,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사원과 행렬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각국이 유네스코 등재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리고 대중의 인식과 참여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실제 관찰된 현상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기회를 논의합니다. 특히 ‘협약 이후’의 유산 관리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네스코의 다양한 문화 협약들, 특히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¹ 실제 발표 내용은 슬라이드에 사용된 특정 이미지나 실제 회의에서 이 발표에 앞서 진행되는 다른 발표와의 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마다바드: '인도의 첫 세계유산 도시'

2017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아마다바드 구시가지'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자 아마다바드와 인도 전역에 큰 축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아마다바드는 마치 스포츠 대회에서 메달을 따거나(우승하거나) 미인 대회에서 왕관을 획득(역사적 도시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것과 같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인도 내에서 세계유산 지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은 대중에게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으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유산 도시'라는 타이틀이 주는 자부심은 복잡해진 구시가지 거리를 방문하는 일반적인 방문객이나 연구자들이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시가지 주민과 주택 소유자들의 신도시 아주 경향은 세계유산 등재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세계유산 등재로 인한 자부심이 생긴 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다바드 시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도시에 대해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부심의 원천은 세계유산 등재 자료에서 언급되는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도시의 속성들은 세계유산으로서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OUV)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여 대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축하 행사에서는 '세계 유산지'나 '세계유산 자산' 같은 기술적인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대신 '인도의 첫 세계유산 도시', '인도의 첫 유산 도시', '세계유산 타이틀' 같은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유네스코가 아마다바드를 '첫 세계유산 도시'로 직접 선정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 과정은 각 국가가 제출한 유산 후보 지역 목록에서 특정 지역을 선택해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다바드에서 열린 몇몇 공개회의에서는 세계유산 등재에 포함된 특정 유산지와 그 경계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브르마티(Sabarmati) 강 양쪽에 있는 도시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믿었고, 일부는 간디 아쉬람(Gandhi Ashram), 아달라즈(Adalaj) 계단식 우물, 사르케즈 로자(Sarkhej Roza)와 같은 주요 유적지가 모두 세계유산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등재된 것은 동쪽 강가까지 확장된 구 시가지였으며, 앞서 언급된 다른 유적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유산 도시'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세계유산 자산'이라고 해야 할지에 대한 학계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세계유산 도시'는 아마다바드 전체를 의미하지만, '세계유산 자산'은 현재 사라진 성벽으로 구획된 구시가지만을 가리킵니다. 도시 전체가 세계유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이나 등재 경계에 대한 대중의 이해 부족은 여전히 세계유산 자산의 관리 방식과 관련된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구시가지와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와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구시가지에서 유산에 대한 애착과 관리 방식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연구하는 많은 학생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아마다바드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OUV)로 평가되는 폴(Pol) 지역의 전통 공동주택은 주민들에게 유지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시가지에는 소유주들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비어 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건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이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도시'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 내에 세계유산 자산이 있는 경우 해당 도시를 '세계유산 도시'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아마다바드를 '세계유산 도시'로 인정함과 동시에, 인도의 다른 여러 도시도 '세계유산 도시'로 간주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대중의 인식과 유네스코의 담론이 맞물리면서 서로 혼란을 일으키는 흥미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카트만두 밸리 세계 유산지(KVWHS, Kathmandu Valley World Heritage Sites)

같은 시기, 인접 국가인 네팔은 2015년 대지진 이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카트만두 밸리 세계 유산지가 큰 피해를 보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카트만두 밸리 세계 유산지를 위험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뛰어난 보편적 가치(OUV) 요소들이 물리적으로 파괴된 상황과 구조 및 복원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들을 고려했을 때 카트만두 밸리 세계 유산지를 위험 목록에 포함하자는 제안은 타당해 보였습니다.

많은 유산 전문가와 기관들은 네팔 군대가 불도저로 세계 유산지의 잔해를 정리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은 기념물 구역에서 조각된 목재와 벽돌을 복원할 수 있도록 잔해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직접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생명 구조와 구호가 우선이어야 했고 실제로 그랬지만, 기념물과 기념물 구역이 있는 주변 지역의 잔해를 처리하는 후속 작업에는 더 세심한 접근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 상황은 유산에 대한 대중과 정부 기관의 인식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지만, 처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유산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고, 때로는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이라는 도구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경고 도구와 절차가 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인식 역시 국가 당사자들과 세계유산 시스템 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2003년 카트만두 밸리 세계 유산지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보우다나트(Boudhanath)와 파슈파티나트(Pashupatinath) 주변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건축물들 때문이었습니다. 본 발표에서 자세히 다를 수는 없겠지만 이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OUV)와 어울리고 바람직한 개발이란 무엇인가"라는 복잡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유산 보존'과 '개발'이라는 용어가 종종 상충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트만두 밸리 세계 유산지를 구성하는 기념물 구역의 완충 지대에 있는 주거용 건물들은 특정한 건축 양식, 재료, 또는 기술을 따르도록 규정되어야 할까요? 카트만두 밸리 세계 유산지가 위험 목록에 등재되었을 당시, 네팔 정부의 고위 고고학자는 유네스코 사절단에게 완충 지대 내 건물에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다양합니다. 박타푸르(Bhaktapur)의 경우, 지역 정부가 주민들의 재산 유지를 지원하는 메커니즘이 있어 카트만두 밸리 내 다른 지역이나 공동체에 비해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다바드 구시가지와는 확연히 대조적입니다. 아마다바드에서는 많은 건물 소유주와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이 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 내용은 세계 유산지와 그 경계 및 완충 지대 문제, 특히 유산지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사회와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KVWHS의 사례에서, 이를 위험 목록에 등재하게 만든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관리 계획(Integrated Management Plan, IMP)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경계 조정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계 조정은 독특한 사례가 아니지만, 유산 경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점은 '주민들'을 경계 밖으로 배제하거나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경계에 따른 규제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희망 사항이 유산 경계 설정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세계유산협약에서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즉 오늘날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이라 부르는 영역으로 연결됩니다.

KVWHS는 주로 사원과 전통 건축물의 도시로 묘사되고 이해되지만, 살아있는 문화와 전통이 숨 쉬는 곳으로, 축제와 문화 행사, 공예와 음식 문화가 여전히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구조와 배치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문화적 축제, 그리고 신념 체계와의 연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카트만두 밸리에서는 계곡 전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렬이 전통적인 이웃 관계와 도시의 거리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2003년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카트만두 밸리는 2003년 협약에 따른 등재 사례가 아직 없어, 두 협약의 이행을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3년 협약에 따른 등재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아마다바드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도 아마다바드와 구자라트주는 올해, 인도의 주요 축제 기간 동안 9일간 열리는 매우 인기 있는 연례 춤 축제인 '가르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기념했습니다. 이 축제는 인도와 네팔 전역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2017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열기에 비해 이번 가르바 등재에 대한 반응은 상대적으로 덜 뜨거웠습니다. 이번 가르바 등재는 그 자체로 충분히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아마다바드와 구자라트주에는 이 축제 춤 외에도 수백만 명의 장인들과 무형 문화유산(ICH) 실천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인도가 처음으로 무형문화유산 요소를 등재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열린 두르가 푸자(Durga Puja) 축제가 등재되었을 때도 제기된 의문입니다. 이러한 등재의 목적이 단순히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인가, 아니면 이미 잘 보존되고 번영하는 무형 문화유산 요소에 대한 인정인가? 만약 후자라면, 오히려 '우수 보호 사례 목록'에 등재되는 것이 더 적절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도에서 등재된 가르바와 두르가 푸자 모두 각각의 방식으로 잘 보존된 활기찬 무형문화유산 요소이지만, 지나친 홍보와 인파 관리 문제가 앞으로의 보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재는 대중, 국가, 전문가, 유산 관리자 및 무형 문화유산 전승자들 간의 인식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등재의 핵심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미 잘 보존된 유산을 단순히 홍보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자원을 집중해야 할 곳에 주의를 환기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인식과 활용에 관한 논의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대표 목록과 긴급 보호 목록을 제공하고 있지만, 남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대표 목록 등재에 의존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대표성'에 관한 것입니다. 대표 목록에 등재된 요소들은 이미 충분한 대중적 인지도가 있어, 사실상 추가적인 홍보나 대표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목록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기억할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 목록 신청 시 '이 등재가 유산 보호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도시에서 자주 제기된 또 다른 질문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이 등재로 인해 어떤 혜택이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입니다. 주민들이 세계유산이나 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 같은 등재에 대해 찬성하거나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었는지,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중요합니다.

아마다바드의 가르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기존 등재된 세계유산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등재를 통해 무형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의 효과적 관리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트만두의 경우, '남아시아 최초의 세계유산 등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카트만두 빨리 세계 유산지가 가진 뛰어난 보편적 가치(OUV)가 있다면, 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살아있는 전통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리 과정에 포함한다면 그 가치가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요? 만약 네팔에서 2003년 협약에 따른 첫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 예를 들어 KVWHS, 사가르마타(에베레스트산), 룸비니(부처의 탄생지), 또는 치트완 국립공원의 OUV를 구성하는 무형 문화유산 요소와 관련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반면, 현지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이나 지역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등재 과정은 유산을 공동체와 분리된 '외부의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유산을 유형과 무형, 자연과 문화, 또는 역사적이거나 현대적인 것으로 구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공동체에 유산은 대부분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으며, 반복되고, 살아 있으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각 협약이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다른 협약과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이들을 통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훌륭한 협약들이 만들어진 좋은 의도를 살리면서 놓친 기회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유산 체계와 등재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어느 정도 통합하여, 현장에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대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협약이나 문화적 도구들을 단편적으로 채택하기보다는, 동시에 조정된 방식으로 통합하여 활용하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유산과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살아있는 도시의 맥락에서 유산을 지속 가능하고 세심한 개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유네스코 등재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비록 각 도시는 지역 차원에서 각 협약마다 지정된 국가 기관을 통해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도시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이러한 통합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통합적 접근을 위한 초기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입니다.

통합적 접근의 실현

유네스코 협약의 역사적 맥락과 채택 과정을 통해 공식화되고 채택된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 협약들과 등재 과정을 대중과 국가의 인식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도구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듯이) 국가 당사자들과 전문 그룹 간에 서로 다른 해석과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들은 여러 협약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 발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협약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협약을 동시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의의 취지와 더불어, 안동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안동시는 실제로 여러 유네스코 등재 도구들을 동시에 조정된 방식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아시아 도시는 아직 이러한 협약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도시 행정가들과 유산 전문가들이 도시 계획에 여러 협약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도시 유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두 영역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전통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유산을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특히 20세기 이후 현대 사회에서 나타난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는 유산을 유형과 무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들을 다시 하나의 통합된 개념과 체계로 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논문은 세계기록유산 목록의 사례를 다루지는 않지만,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논의는 기억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기록이나 문서 형식으로 남아 있지 않은 기억에 관한 문제와 연결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고, 특정 문화적 관습이나 축제의 일부를 이루는 집단적 기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2003년 협약은 관습 자체를 등록할 뿐, 반드시 그와 관련된 기억을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2003년 협약과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간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발표의 초점은 그 부분이 아니므로, 다시 두 가지 주요 협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03년 협약의 내용과 취지는 이미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03년 협약에서는 무형 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위에서 무형유산이 고립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맥락과 사람들과 함께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72년 협약도 이러한 정신을 따라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주목할 만한 발전으로는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무형 문화유산 국제 과학 위원회가 주도하는 ICOMOS 무형 문화유산 헌장의 개발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과 살아있는 유산 탐구'라는 이니셔티브가 최근 아랍 국가들에서 시범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두 중요한 도구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whc.unesco.org/en/dive-into-heritage/>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협약의 등재 절차와 기준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유산협약과 운영 지침에 대한 수십 년간의 검토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과정(1972년 협약)이 2003년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2005년 문화 다양성 협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시스템의 자문 기구 중 하나인

ICOMOS가 최근 무형 문화유산에 관한 자체 헌장을 채택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및 그 과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정기 검토에서는 다양한 협약과 절차를 상호 참조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웹사이트에서 세계유산 및 무형 문화유산 부문은 다른 협약의 등재 사례라도 관련성이 있는 경우 상호 참조를 제공하도록 최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가 이러한 협약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자료에서도 무형 문화유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별 전문가가 이미 1972년과 2003년 협약을 동시에 다루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협약을 함께 활용하고 유산을 상호 연결된 방식으로 등재하며, 통합 관리 체계를 계획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무리한 주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구와 전문가들이 유산을 통합적인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서로 다른 협약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이러한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가입니다. 본 발표의 결론으로, 유산 관리의 통합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아직 모든 문화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 국가 당사자들이 모든 문화 협약을 함께 비준하도록 장려합니다.
2. 유산을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상호 연결된 전체적 관점으로 인정하고 목록화 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를 위해 각 협약에서 정의한 경계를 강요하지 않고, 각 협약의 체계가 유산의 전체 목록과 그 상호 연결된 존재 중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존의 등재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때, 관련 협약에서 이미 명시된 내용이나 등재된 유산이나 요소와의 상호 참조를 통해 가치나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장려합니다.
4. 보존 상태 보고서, 관리 계획, 또는 보호 계획에서 다른 협약의 메커니즘과 그에 따른 시스템을 인정하고 상호 참조하도록 요구합니다.

5. 장기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공식적인 유산 체계를 대부분 지역 사회가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유산 인식에 맞추어 통합하도록 합니다. (위의 2 번에서 제안한 대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 위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유산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과 기관의 역량 강화 및 교육을 통해 이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유산 관리를 달성하도록 합니다.
7. 더 중요한 점은, 국가 당사자나 지역 사회,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유산을 유네스코 협약 중 하나에 등재하는 것이 유일한 인식과 보호 방법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산은 이러한 목록에 등재하지 않더라도 인정받고, 홍보되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유산이 이러한 글로벌 등재 시스템에 등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등재만으로 그 유산의 보호나 홍보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협약과 유산 관리의 책임은 지역 사회와 지역 관리 체계에 있으며, 반드시 유네스코 등재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의 등재와 관련 협약들이 제공하는 체계는 유산에 대한 대중과 국가의 참여를 다양한 수준에서 촉진하고, 글로벌 기회와 연결되는 전략으로서 효과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구들의 범위와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도구와 등재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 역시, 사회의 이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유산을 관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 : 유산정책

1972년 및 2003년 협약의 시너지화: 세계유산 현장관리자의 관점

밍 치 앙 with 시우 징 텅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세계유산본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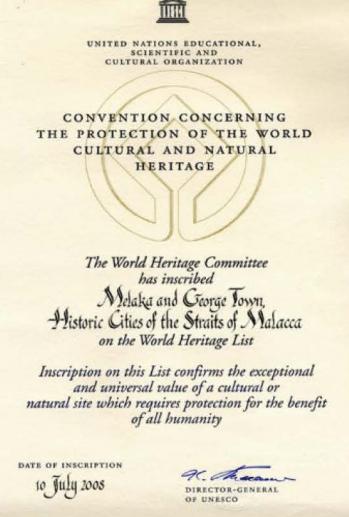
유네스코 지정유산 국제학술대회, 안동 하회마을
 2024년 10월 16-18일 | 대한민국 안동

세계유산협약(1972)과 무형유산협약(2003)의 시너지 효과: 세계유산 현장관리자의 관점에서

양 링 치 박사 & 텅 시우 징
 조지타운 세계유산 관리공사, 말레이시아
 2024년 10월 1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조지타운
 “믈라카 해협의 역사 도시, 물라카와 조지타운”
 2008년 7월 7일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목차

-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조지타운
- 세계유산도시 관리자로서의 조지타운 세계유산 관리공사(GTWHI)
- 1972년 및 2003년 협약의 시너지 효과
- 통합 관리 전략
 - 공동체 기반 사업
 - 삶과 생계에 녹아든 유산
- 세계유산도시 관리자가 이끈 글로벌 운동
 - 조지타운 선언
 - 세계유산도시 관리자 글로벌 네트워크
- 향후 계획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 기준 II

물라카와 조지타운은 동남아시아 내 **다문화 무역 도시**다. 두 도시는 약 500년 기간 동안 말레이, 중국, 인도 문화 및 세 차례에 걸친 유럽 식민지 세력 간의 상업과 교류를 통해 형성되었다. 그 흔적은 **건축과 도시 형태 및 기술과 기념비**에 남아 있다. 두 도시는 긴 세월 동안 각기 다른 발전 단계와 **연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으며, 그 결과 상호보완적이다.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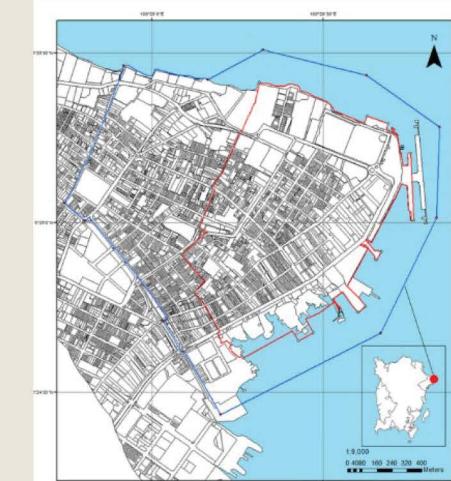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 기준 III

믈라카와 조지타운은 아시아의 다문화 유산과 전통, 그리고 유럽 식민지 영향의 살아있는 증거이다. 이 **다문화적 유무형 유산**은 다양한 종교 건축물, 각 민족 지역, 다양한 언어, 종교적 예배 및 축제, 춤, 전통 의상, 예술과 음악, 음식, 그리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세계유산도시 조지타운 지도



© 2022년 조지타운 세계유산 관리공사 발행 지도
페낭 및 국가계획부, 페낭 지리정보시스템 센터에서 기본지도 제공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유산구역 112 Ha. (43%)
완충구역 150 Ha. (57%)
총 면적 262 Ha.

Category	Number of buildings and sites	%
Category I	82	1.66
Category II	3771	76.54
Infill Development	573	11.43
Replacement	587	11.71
Total	5013	100.00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 기준 IV

믈라카와 조지타운은 동남아시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 문화, 도시 경관**을 보여준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상점가와 타운하우스**를 독특하게 선보인다. 이러한 건축물에서 다양한 유형과 발전 단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일부는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다.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1972 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체계

당사국
193
(2017년 1월 31일 기준)

유산도시 관리자



총회
세계유산협약의 국가당사국
총회

운영지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선출된 21개국의 당사국
대표단

시민사회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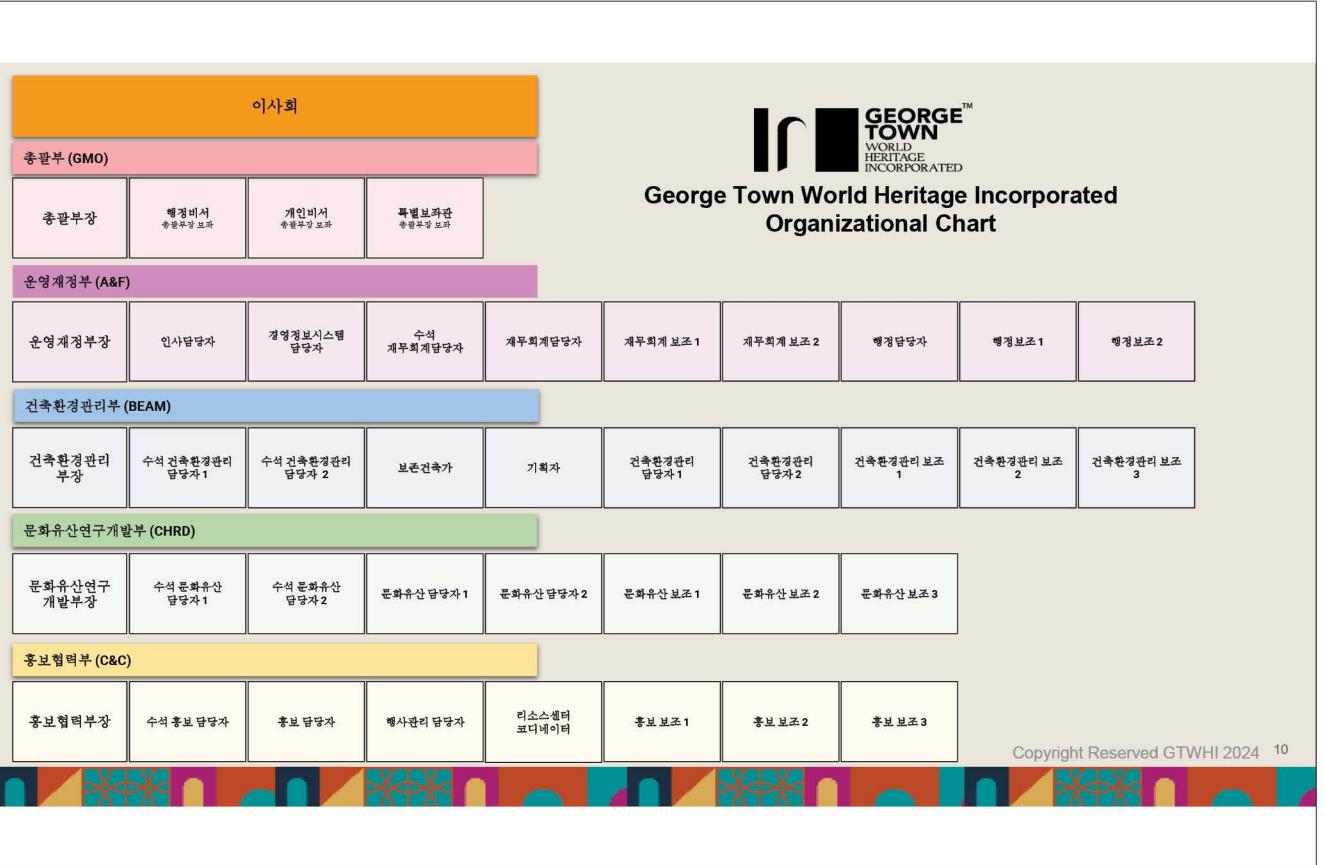
조지타운 세계유산도시 관리공사 (GTWHI)

- 유산도시 조지타운의 관리자
- 폐낭 주정부 소속
-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의 관리, 보호 및 홍보
- 세계유산도시 내 사무실 소재
- 임직원 40명
- 연간 약 60여개 사업 수행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Page 9/39



- 2010년 4월 21일
- 보증책임회사, 기업법 (1965)

PERAKUAN PEMERADANAN SYARIKAT AWAM
Dengan ini dipersetuh bahawa
GEORGE TOWN WORLD HERITAGE INCORPORATED
telah objektifadik di bawah Akta Syarikat 1965, pada dan mula dari
21 berbelas April 2010, dan bahawa syarikat ini adalah sebuah syarikat
berhad menurut jemuanan.

Diberi di bawah tandatangan dan matlamat saya di Seberang Jaya, Pulau Pinang
pada 22 berbulan April 2010.

NOR 'ANI BINTI IBRAHIM
PENOLONG PENDAPAT SYARIKAT
MALAYSIA

YAB TUAN CHOW KON YEOW
Chairman
Chief Minister of Penang

YB DATO' HAI ROSU BIN ISA
Setiausaha Kerajaan Negeri Pulau Pinang

YB ZABIDAH BINTI SAFAR
Pegawai Kewangan Negeri Pulau Pinang

YB WONG HON WAI
Penang State EXCO for Tourism & Creative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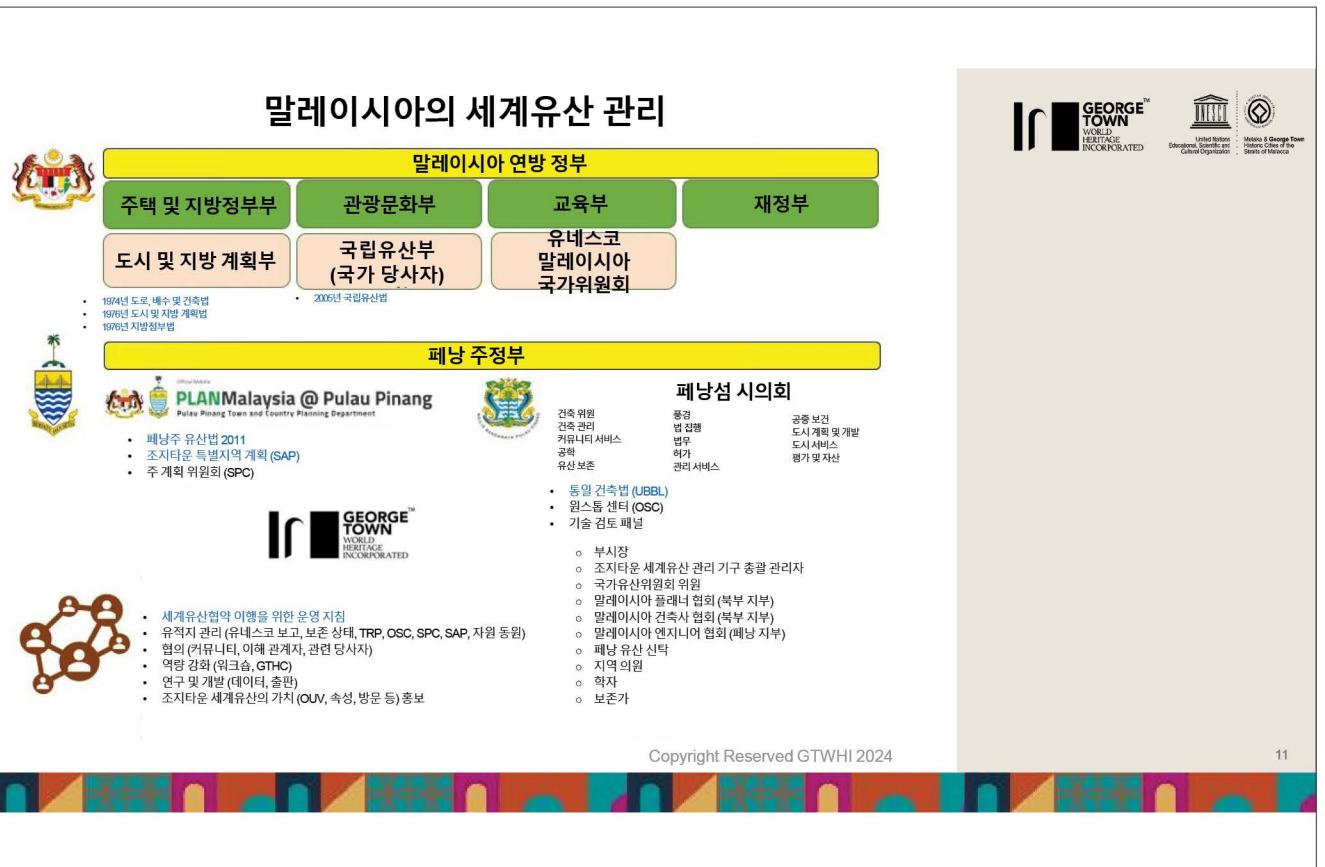
DATO' IR. RAJENDRAN A/P ANTHONY
Mayor of Penang City Council (M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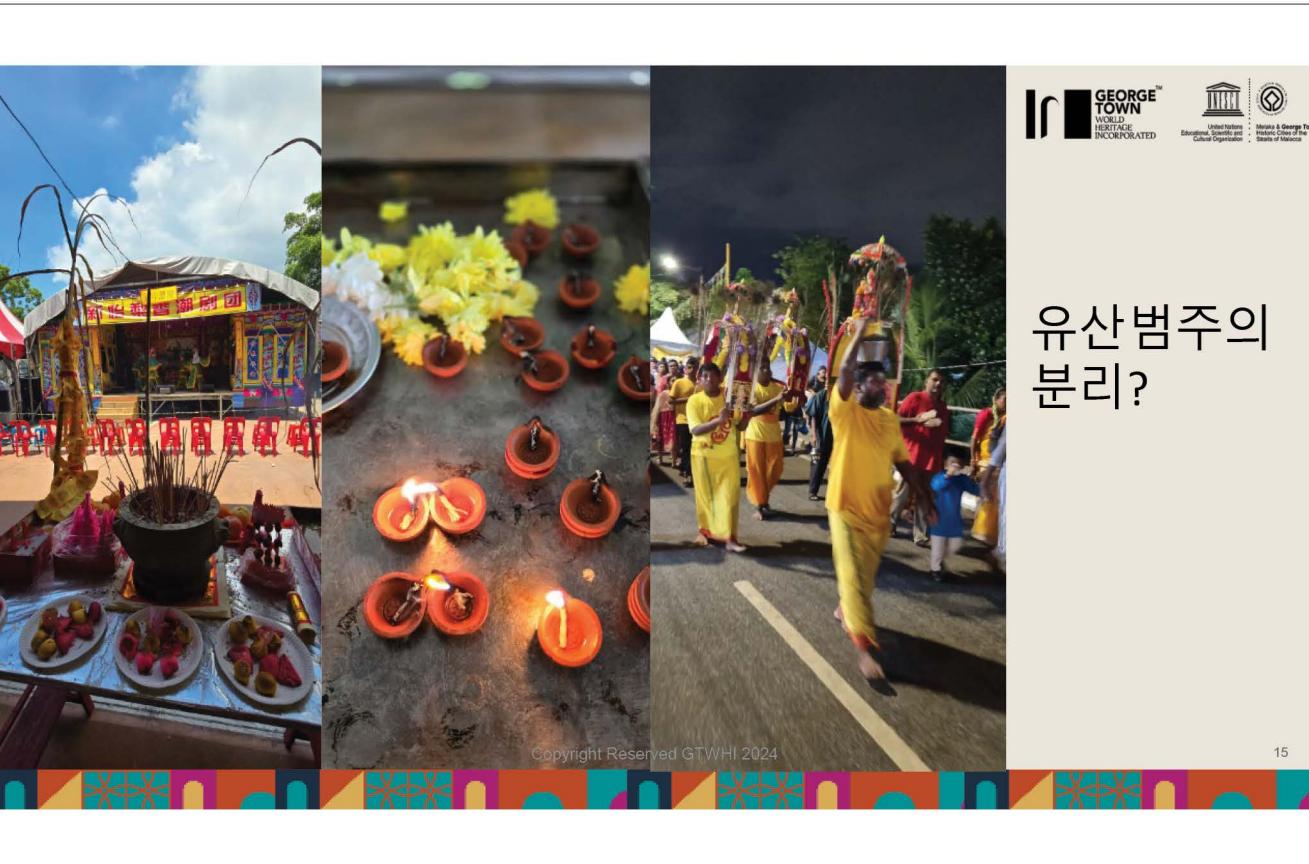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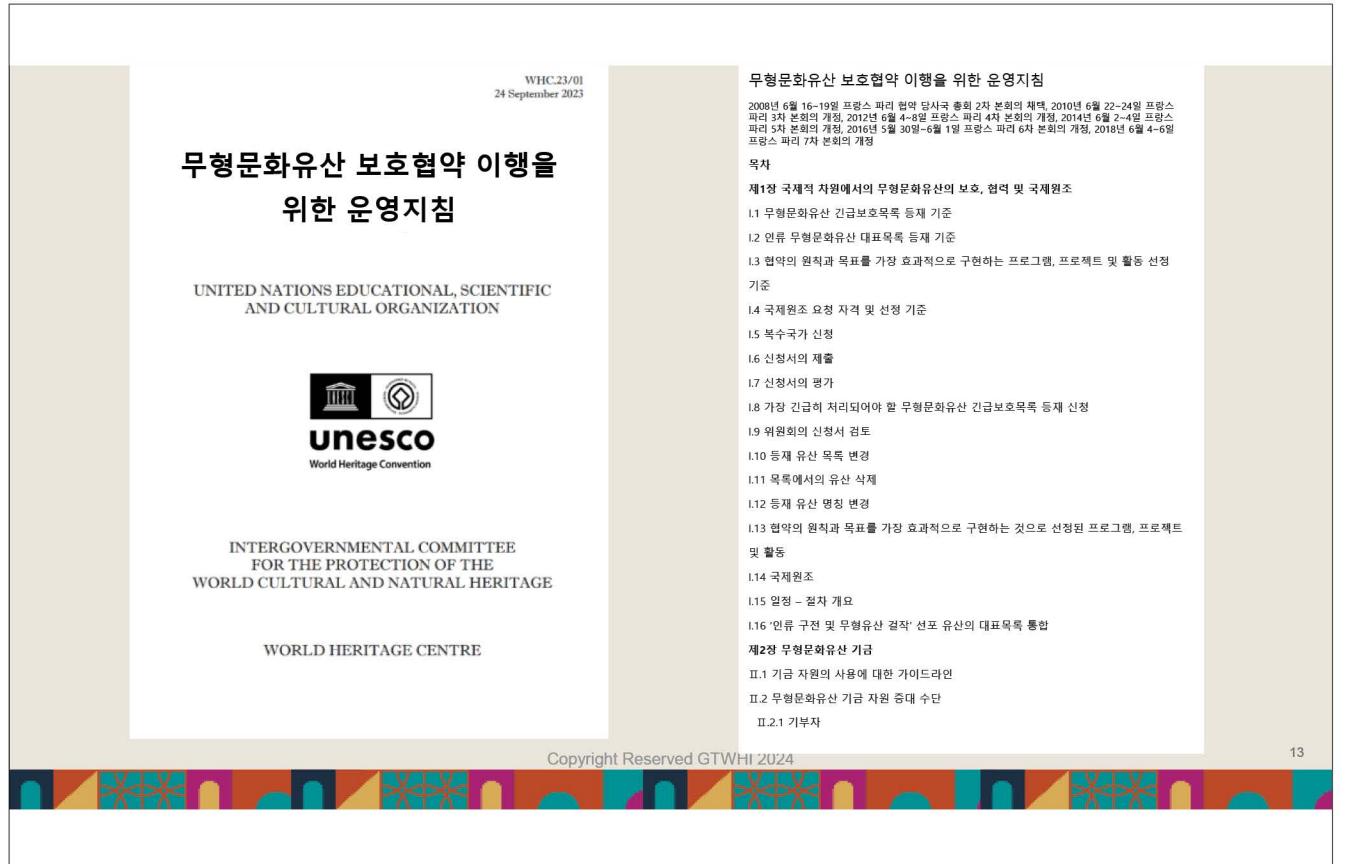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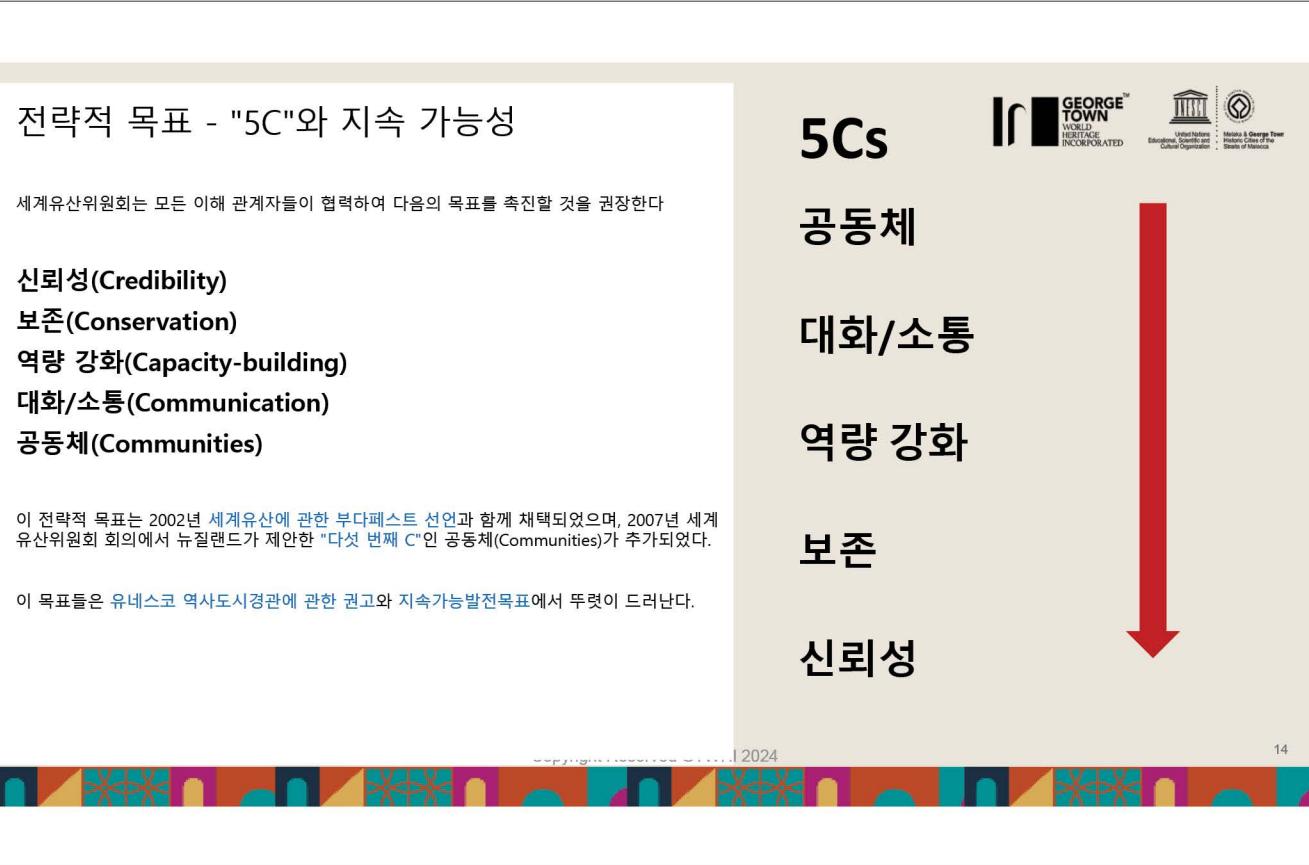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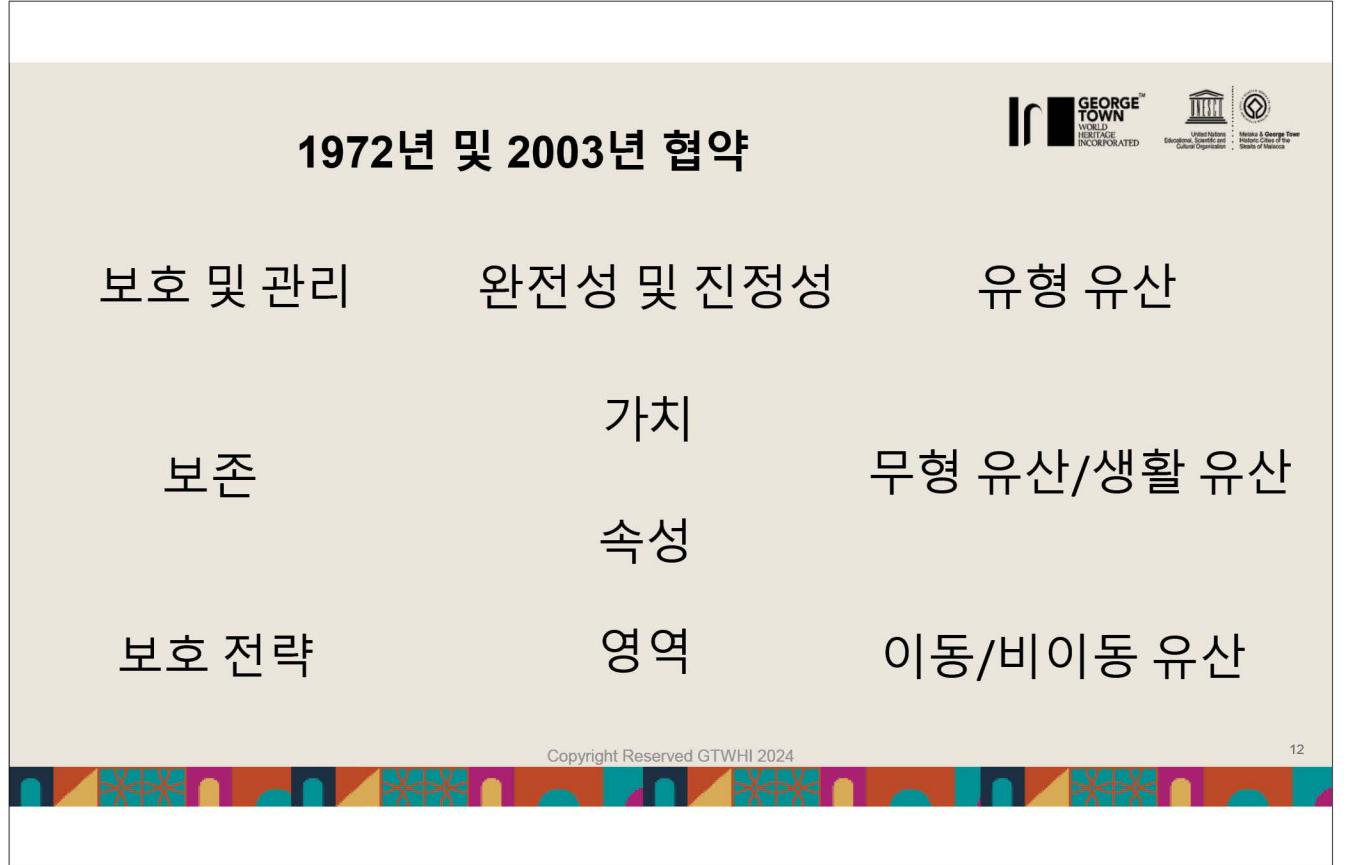
YB TEH LAI HENG
State Assemblyman for KO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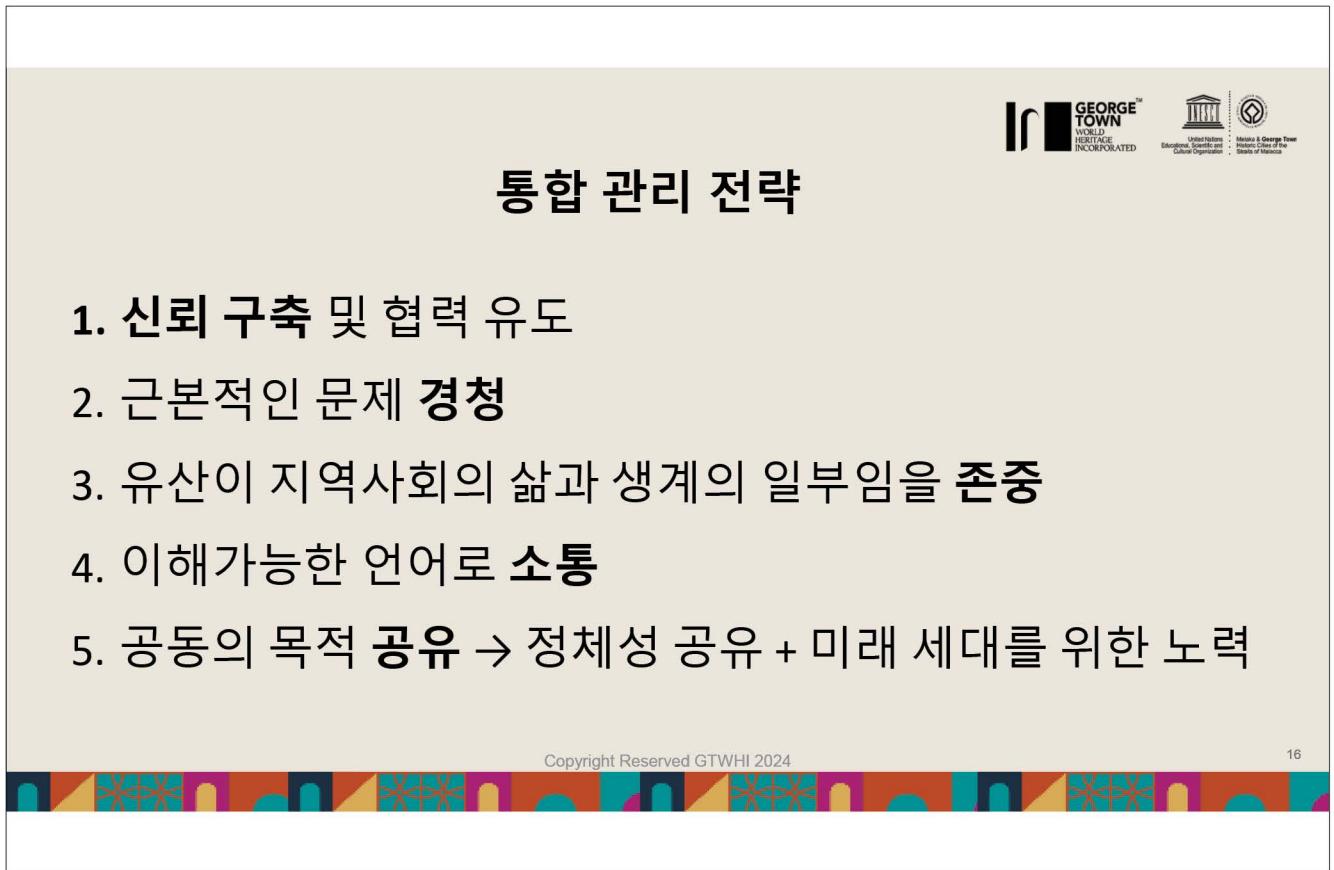
YB WONG YUEE HARNIE
State Assemblyman for Pengkalan Kota

DATIN BHARATHI A/P SUPRIAH
General Manager for Chief Minister of Penang Incorporated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건축 유산 보존



BULETIN MUTIARA

Historic moment as George Town, Melaka Unesco World Heritage Sites receive RM25 million funding each

乔治市世遗区古迹建筑
可申请多20万维修奖掖

即日起開放申請
古蹟建築維修獎掖計劃

(檳城) 8日訊 世遺機構邀請古迹业主及授权人，向该古迹建筑单位申请开放申请。

第一类古迹类别单位可申请最多20万令吉，每个第二类古迹建筑单位的申请上限是5万令吉。

洪敏芝：
助业主维护古迹建筑

乔治市世界遗产机构总经理洪敏芝表示，此次拨款将用于加强古迹建筑的维护和修复工作，同时促进当地旅游业的发展。她强调，此次拨款将有助于保护和传承历史文化遗产，提升城市形象。

她说，此计划执行期间，古迹建筑业主及承包商也可获得古迹修护的免费培训及其他相关工程。

维修工程须遵守规定

她说，维修工程必须遵守以下规定：建筑清拆、建筑外部粉刷、扶手安装、闭路电视安装（限第一类古迹建筑申请）、自动体外心脏除颤器安装（限第一类古迹建筑申请）、空调压缩机与管道设置、附生植物移除、建筑附属屋面维修、建筑附属屋面维修、建筑附属屋面维修、内外墙维修、灰泥木地、底层楼板维修、窗户维修、门户维修、建筑装饰维修与粉饰、天井维修、电气系统升级、雨水排水系统升级。

她说，为鼓励更多承包商参与古迹建筑维修，在建筑行业参展局（CIDB）B03（修复与维护）及B04（建筑工程）组别下让别的承包商，皆有资格成为此计划下的承包商。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20

George Town World Heritage Incorporated

청소년 및 미래세대 역량강화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22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21

유산도시 관리자에 의한 글로벌 운동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laka & George Town Historic Cities of the Straits of Malacca

GEORGE™ WORLD HERITAGE INCORPORATED

유산도시 관리자 국제 심포지엄
말레이시아 페낭 조지타운
2024년 3월 1~5일

SITE MANAGERS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124

125

유산도시 관리자 국제 심포지엄

말레이시아 페낭 조지타운

2024년 3월 1~5일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24

조지타운 선언

- 11개 언어로 게시
 - 영어 (main document)
 - 아라비아어
 - 인도네시아어
 - 말레이시아어
 - 중국어 (간체, 중국)
 - 중국어 (간체, 말레이시아)
 - 체코어
 - 프랑스어
 - 일본어
 - 신디어
 - 스페인어
- 여러분의 언어로 조지타운 선언을 번역하여 이메일(secretariat@gtwhi.com.my)로 보내주십시오. (번역자 및 수정관련 연락처 표기)
- 영문버전을 주요 참고자료로 첨부해 주십시오.
- 각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동 선언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QR코드 스캔



(<https://gtwhi.com.my/we-are-site-managers-international-symposium/>)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26



We Are Site Managers International Symposium
1-5 March 2024 @ George Town, Penang, Malaysia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25

세계유산도시 관리자 글로벌 네트워크

-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담당자, 유산지역, 연락처)
- 유산도시 관리자에 의한, 유산도시 관리자를 위한 집단 행동
- 정보 공유
- 현재 → 자발적 참여 기반
- 국가 → 지역 → 글로벌
- 향후 더 공식적인 조직으로 성장 가능
- 세계유산도시 관리자 글로벌 네트워크 사무국으로서의 GTWHI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27

향후 과제

유산도시 관리자 글로벌
운동에 동참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보호에
앞장서 주십시오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28

Thank you Terima Kasih 謝謝 ഫംഗി



angmingchee@gtwhi.com.my



gtwhi



gtwhi



wearegtwhi



George Town World Heritage Incorporated



info@gtwhi.com.my



http://gtwhi.com.my



siewjing@gtwhi.com.my

Copyright Reserved GTWHI 2024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 : 유산정책

아프리카 기록유산 보물과 개요

미사코 이토

- 유네스코 아프리카지역 CI 자문관

unesco

세계기록유산(MoW)

아프리카의 기록유산 보물

유네스코 지정유산 국제학술대회: 안동 하회마을
2024년 10월 16일~18일, 안동, 대한민국

unesco

세계기록유산 국제등록부

- ▶ 세계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MoW) 국제 목록은 199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2년마다 새로운 등재가 이루어지며,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등재됩니다.
- ▶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은 세계적 중요성과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록 유산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목록에 등재되면 다음이 공개적으로 보증됩니다:

- 문서 유산의 중요성
- 이를 더 널리 알림
- 더 큰 접근성을 허용함

이를 통해 연구, 교육, 엔터테인먼트 및 장기 보존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unesco International Register

unesco

세계기록유산 - 아프리카의 기록유산 보물

- ▶ 2023년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oW) 국제목록에 등재된 아프리카의 26개기록 유산을 소개하는 첫 번째 지역 출판물
- ▶ 유익한 설명과 고품질 이미지를 통해 등재된 유산을 생동감 있게 전달
- ▶ 프랑스어 및 영어로 제공 가능

unesco

MoW 국제목록의 글로벌 대표성

섰겼긋렵원사 곱짓몇렙을 즐엣벼 긋럽원사 봄유

지역	비중
아프리카	18%
아시아 및 태평양	22%
유럽 및 북미	52%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5%
아랍 국가	2%
기타	1%

아프리카는 전 세계 494개의 문서유산 등재 중 단 5%에 해당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9개국만이 국가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unesco International Register

출판물 개요

CONTENTS

09 FOREWORD	Tewlik Jitson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Conservation and Information, UNESCO
10 FOREWORD	Papa Mamor Diop Chairperson, Africa Committee for Memory of the World (ACMoW)
14 BENIN	Colonial Archives
17 ETHIOPIA	Treasures from National Archives and Library Organizations
21 MADAGASCAR	Royal Archives (1824-1897)
24 MALI	Kab Shifa al-Zohra al-Aridat min al-Zohra wa al-Batin min al-Ajdat The Royal Decree of the Queen Mother and External Diseases of the Body
26 MALI	Tafsir al-gölin 'arqibihillat al- mu'min
29 MAURITIUS	Records of the French Occupation of Mauritius
31 MAURITIUS	The Records of Indentured Immigration
33 MAURITIUS	The Archival Collections on the Bienheureux Père Jacques-Désiré Laval - The Apostle of Mauritius
35 MAURITIUS	The Slave Trade and Slavery Records in Mauritius (1721-1892)
38 NAMIBIA	Letter Journals of Hendrik Witbooi
41 SENEGAL	Fonds de l'Afrique occidentale française (AOF)
43 SENEGL	William Ponty School Collection of Papers
45 SENEGAL	Collection of Old Postcards from French West Africa
49 SOUTH AFRICA	Archives of the Committee for A Democratic Africa (CODESA) 1991-1992 and Archives of the Multi-Party Negotiating Process 1993
53 SOUTH AFRICA	Collection of Old Postcards from French West Africa
57 SOUTH AFRICA	The Bleek Collection
59 UNITED TANZANIA	Arabic Manuscripts and Books
61 BURKINA FASO & FRANCE	Archives of the International Movement AIDS Fourth World from 1957 to 1992
64 ZIMBABWE	German Records of the National Archives
69 ANGOLA & PORTUGAL	Arquivos dos Demônios Vidembo Archives
71 GHANA, THE NETHERLANDS, BRAZIL, GUYANA, NETHERLANDS ANTILLES, SURINAME, UNITED KINGDOM & UNITED STATES OF AMERICA	Dutch West India Company (Westindische Compagnie) Archives
74 MALI & NIGERIA	Nomads and Fossil medium's judgement documents of Adjameya of Adoba
76 GHANA, THE NETHERLANDS, INDIA, INDONESIA & SRI LANKA	The Invents of the Human Being Religious and Bodies
79 SOUTH AFRICA	Criminal Court Case No. 253/1963 (State Versus N. Mandela and Others)
82 APPENDIX	



이 출판물은 아프리카 48개국 중 14개국의 기록유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 이민 기록

모리셔스(Mauritius) 국가기록원, 마하트마 간디 연구소(Mahatma Gandhi Institute)

DOCUMENTARY HERITAGE TREASURES OF AFRICA

Records of Indentured Immigration

MAURITIUS
YEAR OF INSRIPTION: 2015
IMAGE COPYRIGHT: NATIONAL ARCHIVES DEPARTMENT OF MAURITIUS, MAHATMA GANDHI INSTITUTE

In 1834, the British Government selected the island of Mauritius to be the first site for what is today known as indentured immigration. It was used to determine the viability of a new system of "free" labour for the British colonies. Mauritius had a million people from India, China, Indonesia, Southeast Asia and other parts of Africa were moved around the world to work in plantations. When the experiment yielded positive results, the British replicated it in colonies around the world. This migration became crucial in significant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transformations of communities around the globe.

ABOUT THE DOCUMENTS

While most of the Records of Indentured Immigration originate from Mauritius, a few are from England, India and other British colonies. The Royal Commission of Enquiry into the Conditions of Indian Immigrants and Management of Aspergus Ghaut, the first immigrant depot outside India for the processing of immigrants, date back to the early 1800s.

THREAT

The documents are under threat of deterioration due to the age, acidity and quality of the paper, as well as other biological factors like mould.

REPOSITORY

The records on Indentured Immigration covering the period 1834 to the 1950s are housed at three institutions: National Archives Department (NAD), the National Library and the Mahatma Gandhi Institute (MDGI).

ACCESS

The documents are accessible to the public at both the National Archives Department and the National Library. At the Mahatma Gandhi Institute, permission is granted to research scholars who wish to consult the documents for research purposes after submission of an official letter from their respective institutions containing detailed details of their research. Efforts to digitise deteriorating newspapers are underway. The documents are in English.

MEMORY OF THE WORLD

Buildings of Aspergus Ghaut are a symbolic site of memory for millions of descendants whose families left their countries of origin to work in foreign lands. They are inscribed on the UNESCO register for World Cultural Heritage.

ROYAL COMMISSION OF ENQUIRY
BY BRITAINS

On November 2 every year, Mauritius commemorates the arrival of indentured labourers with a public holiday. Citizens assemble in the Aspergus Ghaut area to pay their respects and lay a wreath to their indentured ancestors. The contents of the commemoration are based on information from the Royal Commission of Enquiry of Indentured Immigration, which provides the historical information necessary for present-day Mauritians to understand and trace their origins.

OLD IMMIGRANT'S TICKET

ROYAL COMMISSION OF ENQUIRY
BY BRITAINS

RECORDS OF THE PRESIDENT OF THE MARCHY - COMMISSEUR SPÉCIAL EN CHARGE DE LA MIGRATION DES INDIENS ET DES CHINOS. THIS DOCUMENT IS ON THE BASIS OF THE LAW OF 1834, IN THE MARCHY OF THE PRESIDENT OF THE MARCHY. THIS DOCUMENT IS ON THE BASIS OF THE LAW OF 1834, IN THE MARCHY OF THE PRESIDENT OF THE MARCHY.

OLD IMMIGRANT'S TICKET

THREAT

The documents are under threat of deterioration due to the age, acidity and quality of the paper, as well as other biological factors like mould.

REPOSITORY

The records on Indentured Immigration covering the period 1834 to the 1950s are housed at three institutions: National Archives Department (NAD), the National Library and the Mahatma Gandhi Institute (MDGI).

ACCESS

The documents are accessible to the public at both the National Archives Department and the National Library. At the Mahatma Gandhi Institute, permission is granted to research scholars who wish to consult the documents for research purposes after submission of an official letter from their respective institutions containing detailed details of their research. Efforts to digitise deteriorating newspapers are underway. The documents are in English.

모리셔스의 프랑스 점령 기록 모리셔스 국가기록원

Records of the French Occupation of Mauritius

MAURITIUS
YEAR OF INSRIPTION: 1997
IMAGE COPYRIGHT: NATIONAL ARCHIVES DEPARTMENT OF MAURITIUS

FRENCH occupation in Mauritius began in 1712, when the French East India Company took over the island – abandoned by the Dutch after several unsuccessful attempts of colonization – and turned it into a sugar plantation. Slaves were brought to the island, where the French established sugarcane as the main cash crop. During French colonial rule, slaves accounted for more than 80 per cent of the island's population, largely brought over from Madagascar and the western coast of continental Africa. Later, Anglo-French warfare at the beginning of the nineteenth century led to British capture and subsequently sovereignty of the island.

THE TH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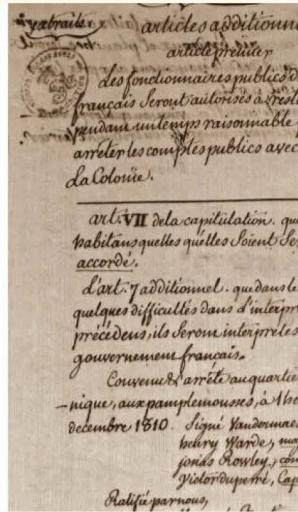
The National Archives Department is not purpose-built and lacks environmental controls for document preservation. Fluctuating temperature and humidity levels speed up material deterioration. Preventive conservation management efforts have been undertaken.

REPOSITORY

The documents are held at the National Archives Department.

ACCESS

The documents are accessible to users for consultation at the Archives. Digitization of the oldest and most damaged documents is underway and will soon be accessible online. The documents are in French.



왕립 기록 보관소 (1824-1897) 마ダ가스카르(Madagascar) 국가기록원

DOCUMENTARY HERITAGE TREASURES OF AFRICA

Royal Archives (1824-1897)

MADAGASCAR
YEAR OF INSRIPTION: 2009
IMAGE COPYRIGHT: NATIONAL ARCHIVES OF MADAGASCAR

The nineteenth century was a watershed moment in Madagascar's history as the Kingdom of Madagascar and the Merina state entered into the modern era. The unification of the Merina kingdom at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meant that a single authority was exercised over the whole territory for the first time. Later, the crown would become increasingly centralized, and the Merina state gradually taken over by the Hova order, represented by the Prime Minister who held full executive authority. Culturally, the country witnessed growing western influence through language, the spread of Christianity, education and later political control.

ABOUT THE DOCUMENTS

Madagascar's royal archives bear witness to events from 1824 to 1897, from the adoption of the Latin alphabet by King Radama I to the proclamation of Madagascar as an independent state. The language used in the documents is mostly Malagasy, though French, English, Indian and German are also present. They provide a glimpse into the fascinating inner world of Madagascar's





헨드릭 위트부오이(Hendrik Witbooi)의 편지 일기 나미비아(Namibia) 국가기록원

NAMIBIA
YEAR OF INSCRIPTION: 2005
IMAGE COPYRIGHT: THE NATIONAL ARCHIVES OF NAMIBIA

THREAT
The documents are in good condition. However, the spine of the binding of journal I is slightly damaged and requires restoration. There are no identified threats to their condition.

REPOSITORY
The papers are stored at the National Archives of Namibia, Windhoek.

ACCESS
Digital copies are available to the public but access to the original papers is restricted for reasons of preservation. They are available on request via email or post and a fee is charged for submission. The documents are in German, though there is a partially translated English publication of the Hendrik Witbooi papers by Annemarie Heywood and Eben Maseepap. A complete transcription, new scholarly translation and a critical digital edition are planned.

ABOUT THE DOCUMENTS

The archive consists of four (possibly more) books in which Witbooi and his secretary entered incoming and outgoing diplomatic and administrative correspondence, treaties and proclamations. Written in Cape Dutch, lingua franca of diplomatic correspondence in 19th century Namibia, these documents offer African attitudes towards the encroaching colonial powers, but also insights into the internal affairs of the Nama and Herero trib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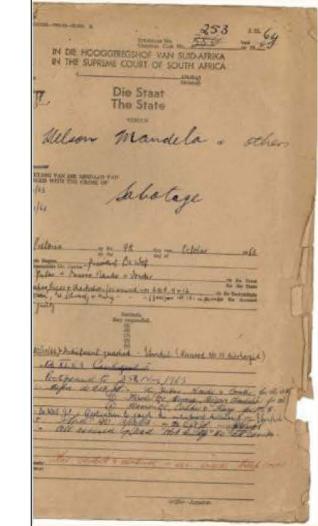
Cover of Henry Witbooi's letter journals.

Documents in the books are handwritten in German.

A portrait of Hendrik Witbooi.



형사 재판 사건 번호 No. 253/1963 (국가 대 N Mandela 및 기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기록원 및 기록 서비스



Criminal Court Case No. 253/1963 (State Versus N Mandela and Others)

SOUTH AFRICA
YEAR OF INSCRIPTION: 2007
IMAGE COPYRIGHT: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OF SOUTH AFRICA

"I have cherished the ideal of a democratic and free society in which all persons live together in harmony and with equal opportunities. It is an ideal which I hope to live for and achieve. But if needs be, it is an ideal for which I am prepared to die."

■ NELSON MANDELA, at the Rivonia Trial of 1963.

unesco

**윌리엄 폰티(William Ponty) 학교 서류 모음
Institut Fondamental d'Afrique Noire Cheikh Anta Diop**

William Ponty School Collection of Papers

SENEGAL
YEAR OF INSCRIPTION: 2015
IMAGE COPYRIGHT: INSTITUT FONDAMENTAL D'AFRIQUE NOIRE CHEIKH ANTA DIOP (IPAF/ONU/DR)

IN 1903, a Teacher Trainee College was created in Saint Louis, Senegal, to train teachers for French Upper Africa. This school, attached to the French Government, was called William Ponty School. In 1933, it became an African education center. During the summer holidays, students, teacher trainees, doctors and administrative officers were tasked with conducting practice field surveys and preparing documentaries on the history, folklore and traditions of Africa.

■ Musical Instruments, by Male Babba

■ The Animals of the Bush around Bobo Dioulasso, by Diallo Tiemko

unesco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기록 보관소
웨스턴 케이프(Western Cape) 기록 보관소 및 기록 서비스**

Archives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SOUTH AFRICA, THE NETHERLANDS, INDIA, INDONESIA AND SRI LANKA
YEAR OF INSCRIPTION: 2003
IMAGE COPYRIGHT: WESTERN CAPE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About 25 million pages of VOC records have survived, mostly in Batavia, Colombo, Chennai, Cape Town, and The Hague. Data on th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religious, and social circumstances over broad areas of Asia and Africa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circulated between hundreds of VOC posts and trading posts. Some notable examples include descriptions of various peoples of southern Africa like the Khoikhoi and San, information on the Arabian seas, the slave trade of Mombasa, as well as the only major surviving record of early Taiwan, which describes in detail the original Austronesian society and the early Chinese settlements of the seventeenth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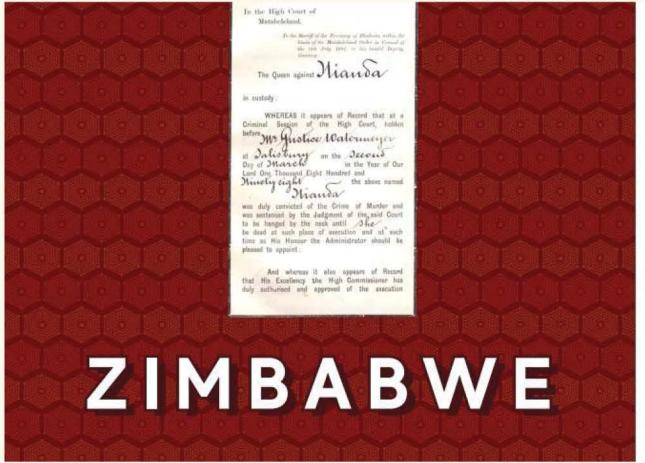
■ Estate accounts of the former slave Angela van Bengalen.

■ A boat on the water.

영감이 되는 역사적 여성 인물

- ▶ 여성들은 역사를 만드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잊혀집니다.
- ▶ 이 출판물은 전통적인 성 역할의 경계를 변화시킨 세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블리크(Bleek) 수집품”에서의 루시 로이드(Lucy Loyd)와 도레테아 블릭(Dorethea Bleek)
 - 짐바브웨의 “Nehanda와 Kaguvi 매체의 판결 기록 (1897년 4월)”에서의 네한다(Neha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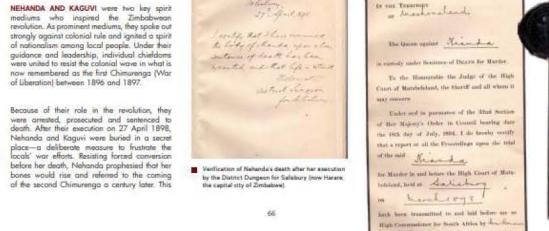
Nehanda와 Kaguvi 매체의 판결 기록 (1897년 4월) 짐바브웨(Zimbabwe)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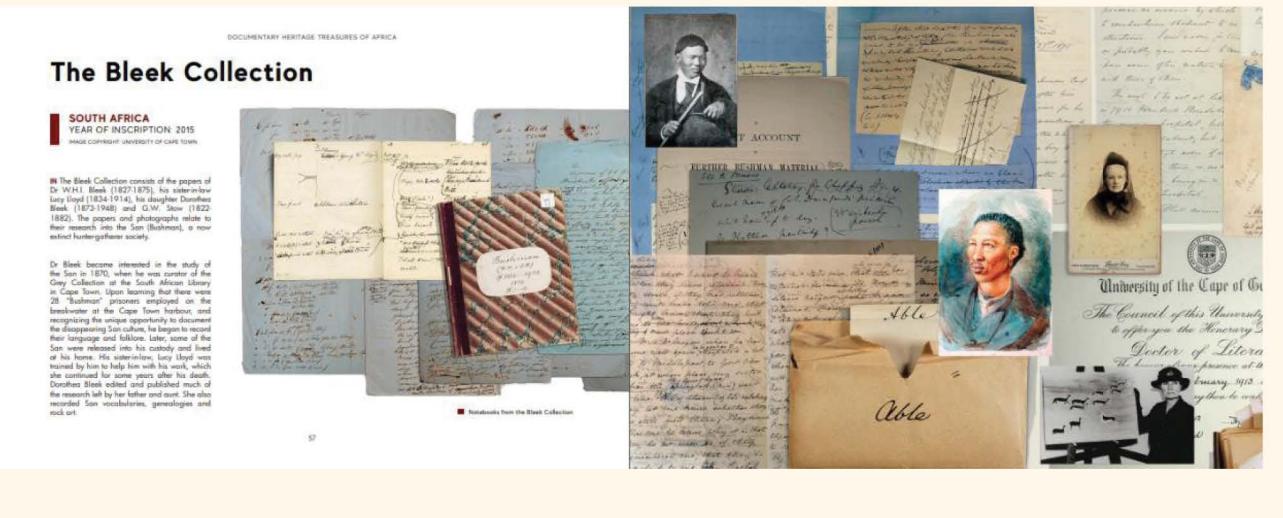
Nehanda and Kaguvi mediums' judgement dockets (April 1897)

Case between State versus Nehanda and Kaguvi spirit mediums leading to their execution

ZIMBABWE
YEAR OF INSCRIPTION 2015
NATIONAL ARCHIVES OF ZIMBABWE



블리크(Bleek) 수집품 케이프 타운 대학



문서유산의 수호자 및 출판 기여자

CONTRIBUTORS & CREDITS

ANGOLA	Arquivo Nacional de Angola
BELGIUM	Christopher Okigbo Foundation
BENIN	Directorate of the National Archives
BRAZIL	Arquivo Nacional
BURKINA FASO	ATD Quart Monde Burkina Faso
GHANA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dministration Department
GUYANA	Walter Rodney Archives
ETHIOPIA	National Archives and Library Organization of Ethiopia
NETHERLANDS	National Archief
FRANCE	THE Joseph Wresinski Memory and Research Center
INDIA	Tamil Nadu Archives
INDONESIA	Aspirasi Nasional Republik Indonesia
MADAGASCAR	Instituto de Investigação Científica Tropical
SENEGAL	Archives du Sénégal Association d'Histoire et Géographie Institut d'Etudes et de Recherches Monastère et Valorisation des Manuscrits pour la Défense de la Culture
MAURITIUS	Asprovarzi Ghaf Trust Fund Centre for Documentation and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Western Cape Digital Imaging South Africa at the University of KwaZulu-Natal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of South Africa South African Library University of Cape Town Western Cape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SRI LANKA	Department of National Archives of Sri Lanka
NAMIBIA	National Archives of Namibia
PORUGAL	Arquivo Histórico Ultramarino Instituto de Investigação Científica Tropical
UNITED REPUBLIC OF TANZANIA	Tanzania National Archives Zanzibar National Archives
UNITED STATES OF AMERICA	Albany County Hall of Records Municipal Archives New York New York State Archives

ALL IMAGE CREDITS in this publication
go to the owners and custodians of the
inscriptions.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x
@UnescoEast

Facebook
@unescoeastafrika

Youtube
@unescoeastafrika

최신 뉴스 & 이야기

www.unesco.org
UNESCO Nairobi 검색

Representation for:
Comoros, Djibouti, Eritrea, Ethiopia, Kenya, Madagascar, Mauritius, Rwanda, Seychelles, Somalia, South Sudan, Ugand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NESCO Nairobi was created in 1965 to serve as a regional hub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in Sub-Saharan Africa. Since UNESCO reformed the field network in 2011, the office covers are: Comoros, Djibouti, Ethiopia, Eritrea, Kenya, Madagascar, Mauritius, Rwanda, Seychelles, Tanzania, Somalia, South Sudan and Uganda.

In addition, UNESCO Nairobi host and coordinate 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the intergovernmental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 and The Programme on Man and the Biosphere (MAB) to enhance its capacity to deliver intellectual and humanist responses to globalization and emergencies, and with the extraction and transfer of knowledge needed to influenc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 member state's legal, policy and implementation frameworks.

More about us → Check out our action themes →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 : 유산정책

아카이브, 레퍼토리 및 ‘다른이름으로 저장’…
21세기 유산 정책과 실천을 구성하는 경로 의존성을 넘어서

마크 야콥스

- 벨기에 앤트워프대학교 교수



아카이브, 레퍼토리, '다른 이름으로 저장'...

21세기 유산 정책과 실천의 틀을 정하는 경로
의존성의 한계를 극복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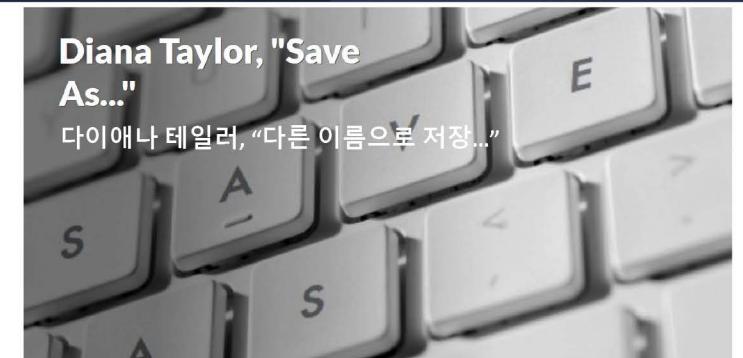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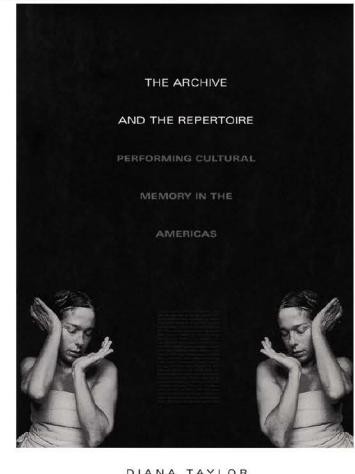
마크 야콥스(Marc Jacobs)

앤티워프 대학교

브뤼셀 자유 대학교, 비판적 유산 연구 및 무형유산 보호
유네스코 석좌 교수

1

기억에 남는 모델 다이애나 테일러(Diana Taylor)



다이애나 테일러의 2010년 *Imagining America* 특별 연설 PDF 파일:
다이애나 테일러, “디지털 기술 시대의 지식과 전승: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xGurF1RfjOU>

3

세 가지 접근 방식 / 기여

기억에 남는 모델
(D. Taylor)

2020년대 문화유산학 석사
통합 과정을 설계하며
얻은 교훈

몬디아컬트(Mondiacult)
2022년 선언에서의
세계기록유산(MOW)/2015
권고안: 잊힌 것인가?

2

“아카이벌(archival) 메모리”는 문서, 지도, 문학 텍스트, 편지, 고고학적 유물, 갑골문, 비디오, 영화, CD 등과 같이 변화에 저항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항목으로 존재합니다.
‘아카이브’는 어원적으로 그리스어에서 ‘공공건물’, ‘기록이 보관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아르케(arkhe)’에서 유래하여 ‘시작’, ‘최초의 장소’, ‘정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 아카이벌 메모리는 처음부터 권력을 유지하고, (...) ‘지식’의 근원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분리하여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것은 아카이브의 가치, 관련성 또는 의미와 아카이브에 담긴 항목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심지어 구현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Diana Taylor, “디지털” 부문)

“반면, ‘레퍼토리’는 몸에 체화된 기억을 실행합니다. 이는 공연, 제스처, 구술, 움직임, 춤, 노래와 같은, 쉽게 사라지고 재현 불가능한 지식으로 여겨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레퍼토리’는 어원적으로 ‘보물창고’나 ‘목록’을 의미하며, 개인의 주체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 레퍼토리는 참여해야 하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 지식의 생산과 재생산에 참여하고 전승 과정의 일부가 됨으로써 존재합니다.
아카이브의 고정된 객체와 달리, 레퍼토리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대로 남아 있지 않고 변화합니다.”

4

장소/물건



다른 이름으로 저장...

구현화



5

“확장되고
학제적인
문화유산
개념”



University of Antwerp
I Faculty of Design Sciences

프로그램 개편 및 업데이트

2022-2023학년도부터 앤트워프 대학교의 2년제 문화유산학 석사 과정이 철저히 개편되고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아래 인용된 최근 유럽 정책 문서의 내용을 통해 대학의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05년 파로(Faro)에서 채택된 '사회적 가치로서의 문화유산에 관한 유럽 평의회 프레임워크 협약' 서문에서 발췌한 인용문:

- '확장되고 학제적인 문화유산 개념의 중심에 사람과 인간적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며...'
-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위해 문화유산이 자원으로서 지닌 가치와 잠재력을 강조하며...'
- '문화유산의 정의와 관리 과정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신하며...'
- '모든 문화유산을 공평하게 다루는 유산 정책 및 교육적 이니셔티브의 타당성을 확신하며...'

<https://www.uantwerpen.be/en/study/programmes/all-programmes/master-heritage-studies/>

7

세 가지 접근 방식 / 기여

기억에 남는 모델 (D. Taylor)
(D. Taylor)

2020년대 문화유산학 석사
통합 과정을 설계하며
얻은 교훈

몬디아컬트(Mondiacult)
2022년 선언에서의
세계기록유산(MOW)/2015
권고안: 잊힌 것인가?

6

유럽연합 이사회(2014)의 인용문:

- '문화유산은 유형, 무형, 디지털(디지털 원본 및 디지털화된 형태) 등 모든 형태와 측면에서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자원으로, 기념물, 유적지, 경관, 기술, 실천, 인간 정의성의 지식과 표현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와 같은 공공 및 민간 기관에 의해 보존되고 관리되는 수집물도 해당됩니다. 문화유산은 사람과 장소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에 큰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이들의 지속 가능한 관리는 21세기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 2014)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대적 통찰을 고려하면 **왜 그리고 어떻게 프로그램이 변경되었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학년도에는 광범위한 유산 패러다임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가 제공됩니다. 2학년(2023-2024학년도부터)에는 학생들이 문화유산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자연 및 경관
2. 건축 유산
3. 고고학적 유산
4. 박물관학
5. 아카이브
6. (유산) 도서관
7. 무형유산 보호 및 민속학
8. 디지털 유산
9. 유산과 정책
10. 복합 물체의 보존 및 복원

8

모델 과정 1부

60 ECTS 학점

유산 패러다임과 틀
15 ECTS 학점

유산: 글로벌 및 유럽적 틀
학점: 3 ECTS 1학기
강사: 마크 야콥스(Marc Jacobs)

유산: 계보와 선구자들
학점: 3 ECTS 1학기
강사: 마크 야콥스(Marc Jacobs)

유산: 정책 및 법적 측면
학점: 3 ECTS 2학기
강사: 그레고리 베르카우테伦(Gregory Vercauteren)

유산: 비판적 연구
학점: 3 ECTS 2학기
강사: 마크 야콥스(Marc Jacobs)

유산: 기후와 지속 가능성
학점: 3 ECTS 2학기
강사: 팀 드 콕(Tim De Kock)

유산 영역
18 ECTS 학점

건축 유산
학점: 3 ECTS 1학기
강사: 윤카 에르칸(Yonca Erkan)

유산: 경관
학점: 3 ECTS 1학기
강사: 닐스 다보(Niels Dabaut)

박물관, 아카이브 및 도서관: 수집물과 기억 기관
학점: 6 ECTS 1학기
강사: 울리케 뮐러(Ulrike Müller)

무형유산
학점: 3 ECTS 1학기
강사: 소피 엘퍼스(Sophie Elpers)

디지털 유산
학점: 3 ECTS 2학기
강사: 피라예 하취귀젤러 (Piraye Piraye Hacigüzeller)

9



University of Antwerp
Faculty of Design Sciences

세 가지 접근 방식 / 기여

기억에 남는 모델 (D. Taylor)
(D. Taylor)

2020년대 문화유산학 석사
통합 과정을 설계하며
얻은 교훈

몬디아컬트(Mondiacult)
2022년 선언에서의
세계기록유산(MOW)/2015
권고안: 잊힌 것인가?

11



2005년 문화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01년 수중문화유산 보호 협약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

1970년 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 협약

1954년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 협약 (제1 의정서 및 제2 의정서)

unesco International Register

“문서 유산의 보존 및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접근성에 관한 권고안” (유네스코, 2015)

“박물관 및 소장품의 보호와 증진, 그 다양성 및 사회적 역할에 관한 권고안” (유네스코, 2015)

10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 제18차 회의

Registration Preliminary list of participants Accreditation of NGOs Review of NGOs Calendar of events

Meetings
18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04/12/2023 - 09/12/2023
Kasane (Botswana)

Practical

제18회 정부 간 무형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위원회 회의가 2023년 12월 4일 월요일부터 12월 9일 토요일까지 보츠와나 공화국 카사네에 위치한 와일드 뷰 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개막식은 2023년 12월 3일 일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보츠와나 공화국 유네스코 상임 대표 대사 각하 무스타그 무라드(Mustaq Moorad) 씨가 주재합니다.

2023년 10월 2일,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위원회의 업무 수행 방식과 실질적인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 교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The drummer, Florah Olebeng Letsholo, with the Council of Elderly Women © Sylvester Rampete and Bakgatla ba Kgafela, Botswana, 2015

149

일시 의제 항목 7.c:
협약 정기 보고서의 지역별 주기 업데이트 및 운영 지침 관련 수정안 제안

요약

이 문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첫 번째 주기의 정기 보고서 이행 현황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며, 국제 표준 및 법무국(Offi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Legal Affairs)의 제안과 MONDIACULT 2022선언에 따라, 문화 분야의 다른 협약 및 권고와 메커니즘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결정 필요 사항: 27항 참조

1. 이 변경에는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a) 2025년 첫 번째 '문화 정책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 (b) 2029년과 그 이후 두 번째 '문화 정책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지원을 위한 조정, (c) 운영 지침을 수정하기 위한 일정에 대한 논의

MONDIACULT-2022/CPD/6
Original: English/French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회의 - 몬디아컬트 2022 (2022년 9월 28일~30일, 멕시코시티)

최종 선언문

우리 유네스코 회원국의 문화부 장관들은 2022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회의인 몬디아컬트 2022에 모였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1982년 몬디아컬트 회의 40주년 및 1998년 스톡홀름 회의 24주년을 맞이하는 행사로, 모두 유네스코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우리는 문화 정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직면한 긴급하고 복잡한 현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헌신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의 우선순위를 통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가 미치는 변혁적 영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의제를 담은 이번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unesco.org/en/mondiacult2022

MONDIACULT 2022: States adopt historic Declaration for Culture

몬디아컬트 2022: 각국, 문화에 관한 역사적인 선언 채택

Read more →

La cultura como bien público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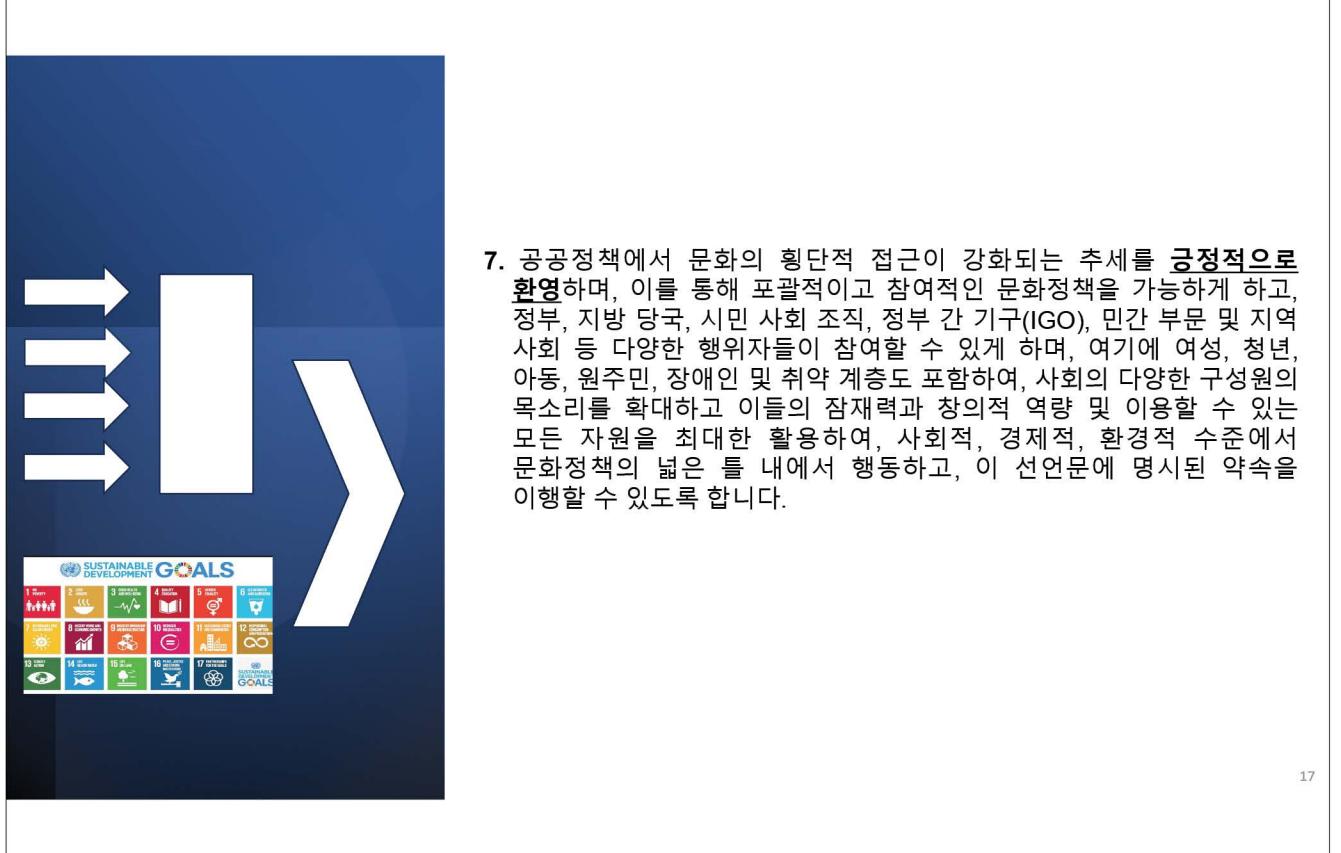
Acopo, MEXICO CITY

Explore UNESCO

14

무엇이 빠졌는가? 이유는? ...

6. 유네스코의 선언, 권고안, 국제 협약의 광범위한 발전을 인식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문서들이 점진적으로 문화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의 보호, 보존 및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해 왔음을 인정합니다. 특히, 국제 문화 협력 원칙 선언(1966년), 유네스코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세계 선언(2001년), 문화유산의 의도적 파괴에 관한 선언(2003년),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리(1980년), 전통문화와 민속 보호에 관한 권리(1989년), 역사 도시 경관에 관한 권리(2011년), 박물관 및 소장품 보호와 증진, 그 다양성 및 사회적 역할에 관한 권리(2015년), 세계 저작권 협약(1952년), 무역 총돌 시 문화재 보호 협약(1954년) 및 두 개의 의정서(1954년, 1999년), 불법 문화재의 수입, 수출 및 소유권 이전 금지와 예방을 위한 협약(1970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1972년), 수중 문화유산 보호 협약(2001년),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2003년), 문화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2005년)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원에서 문화 보호, 보존 및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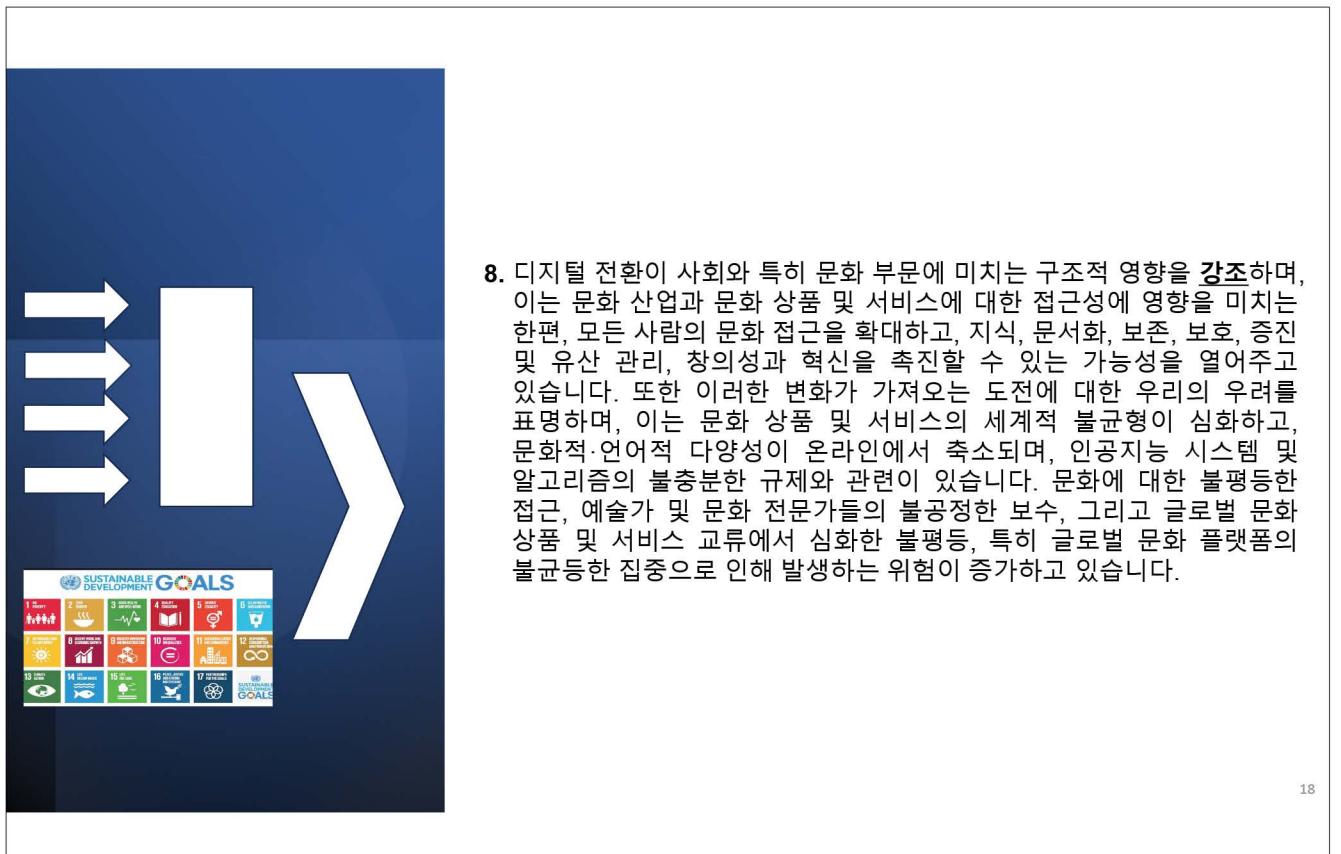
7. 공공정책에서 문화의 횡단적 접근이 강화되는 추세를 **긍정적으로 환영**하며, 이를 통해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문화정책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 지방 당국, 시민 사회 조직, 정부 간 기구(IGO), 민간 부문 및 지역 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여기에 여성, 청년, 아동, 원주민, 장애인 및 취약 계층도 포함하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이들의 잠재력과 창의적 역량 및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수준에서 문화정책의 넓은 틀 내에서 행동하고, 이 선언문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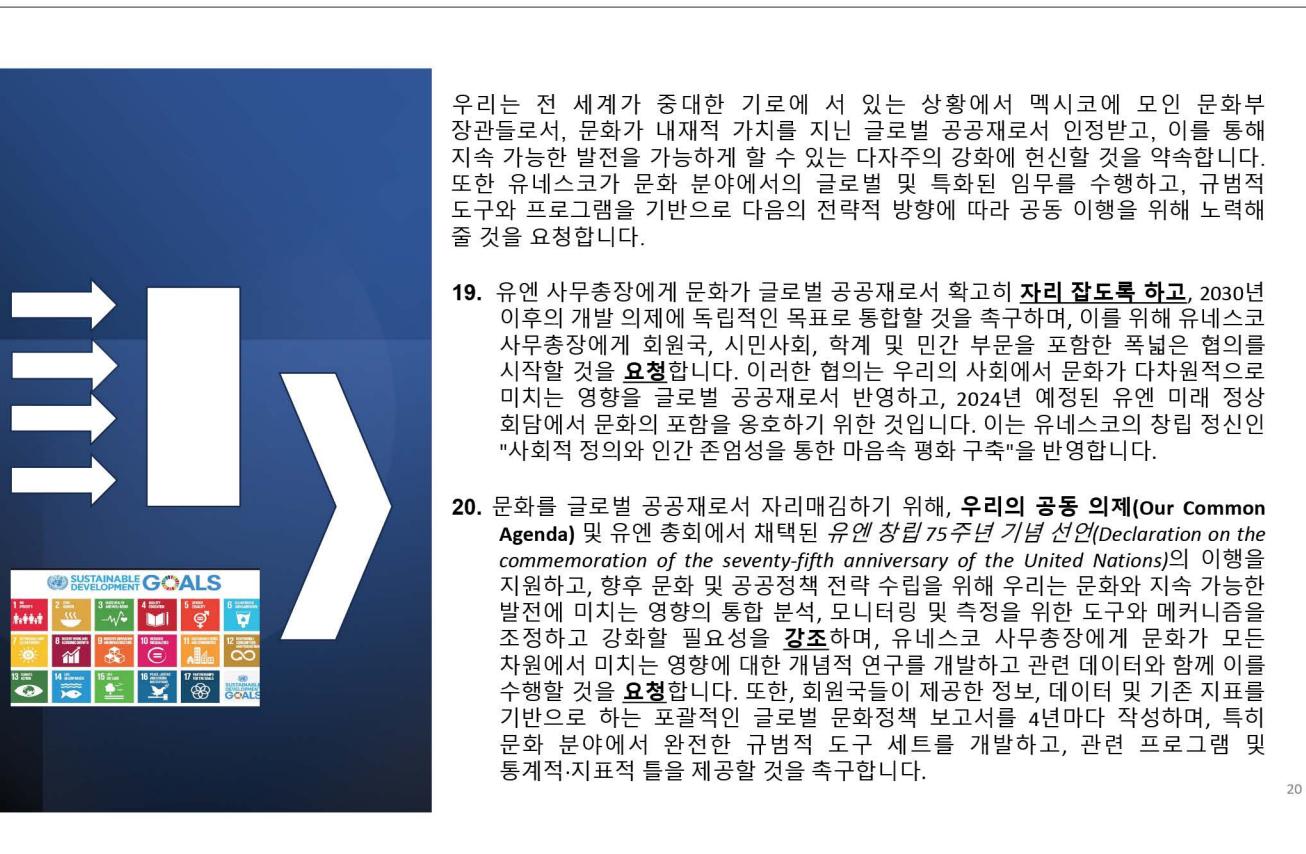
15. 문화유산과 창의성을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는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과 표현의 보호에 미치는 다차원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기후 행동에서 문화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통적 및 원주민 지식 체계를 통해 이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에 유네스코가 이 주제에 대한 운영 지침을 개발할 것을 **권장**하며, 이는 유네스코의 1972년, 2001년, 2003년 및 2005년 협약과 2011년 및 2015년 권고안을 포함한 문화 분야의 협약 및 권고안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기상기구(WM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환경계획(UNEP),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IPCC) 등 관련 국제기구, 틀 및 메커니즘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문화적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다루기 위한 2020년 유엔 메커니즘(Flexible Mechanism)의 목적에 따라, 회원국들이 기후 변화의 극단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문화유산, 수중 및 자연유산, 문화 및 창의 산업, 생계 수단 등 문화 부문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회원국들과의 대화를 심화하여 문화 부문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9



8. 디지털 전환이 사회와 특히 문화 부문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강조**하며, 이는 문화 산업과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모든 사람의 문화 접근을 확대하고, 지식, 문서화, 보존, 보호, 증진 및 유산 관리,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가져오는 도전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세계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이 온라인에서 축소되며, 인공지능 시스템 및 알고리즘의 불충분한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예술가 및 문화 전문가들의 불공정한 보수, 그리고 글로벌 문화 상품 및 서비스 교류에서 심화한 불평등, 특히 글로벌 문화 플랫폼의 불균등한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8



우리는 전 세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에 모인 문화부장관들로서, 문화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 글로벌 공공재로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자주의 강화에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문화 분야에서의 글로벌 및 특화된 임무를 수행하고, 규범적 도구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다음의 전략적 방향에 따라 공동 이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9. 유엔 사무총장에게 문화가 글로벌 공공재로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고, 2030년 이후의 개발 의제에 독립적인 목표로 통합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회원국, 시민사회, 학계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폭넓은 협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협의는 우리의 사회에서 문화가 다차원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글로벌 공공재로서 반영하고, 2024년 예정된 유엔 미래 정상 회담에서 문화의 포함을 응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유네스코의 창립 정신인 '사회적 정의와 인간 존엄성을 통한 마음속 평화 구축'을 반영합니다.

20. 문화를 글로벌 공공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리의 공동 의제(Our Common Agenda)** 및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창립 75주년 기념 선언(Declaration on the commemoration of the seventy-fif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의 이행을 지원하고, 향후 문화 및 공공정책 전략 수립을 위해 우리는 문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통합 분석,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한 도구와 메커니즘을 조정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문화가 모든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념적 연구를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와 함께 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회원국들이 제공한 정보, 데이터 및 기준 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문화정책 보고서를 4년마다 작성하며, 특히 문화 분야에서 완전한 규범적 도구 세트를 개발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통계적·지표적 틀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20



21. 우리는 문화 분야에서 진전, 영향 및 기회를 측정하기 위해 장관급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며, 이를 위해 유네스코에 2025년부터 4년마다 문화 정책에 관한 세계 포럼을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포럼은 기존의 적절한 절차와 메커니즘을 통해, 모든 관련 주체가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 문화 정책의 우선 과제를 다루고, 국가 간 다자간 협력, 협업 및 연대를 강화하며, 유네스코의 운영 기구를 내에서 글로벌 문화정책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네스코의 전략적 업무 라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2.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본 선언문의 조항 이행을 가속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일정표를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유네스코의 중기 전략 (Medium-Term Strategy)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1



21세기 유산 정책과 실천의 틀을 정하는 경로 의존성의 한계를 극복하며

2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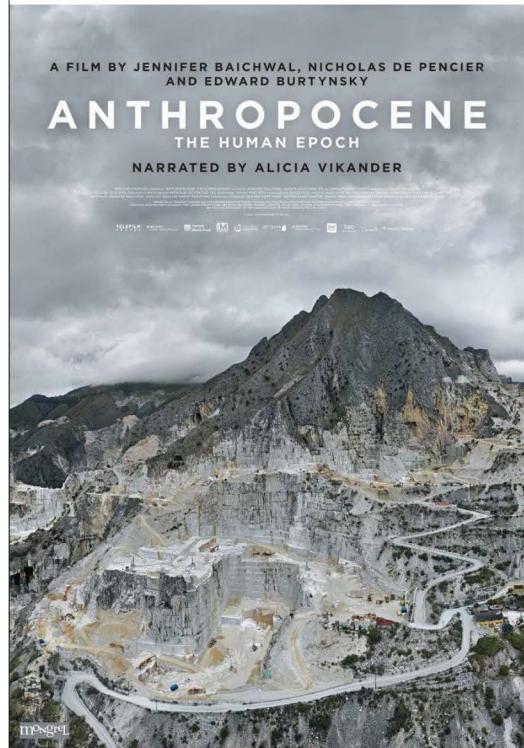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 : 유산정책

인류세 시대의 기후 위기와 문화유산

박 범 순

-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인류세연구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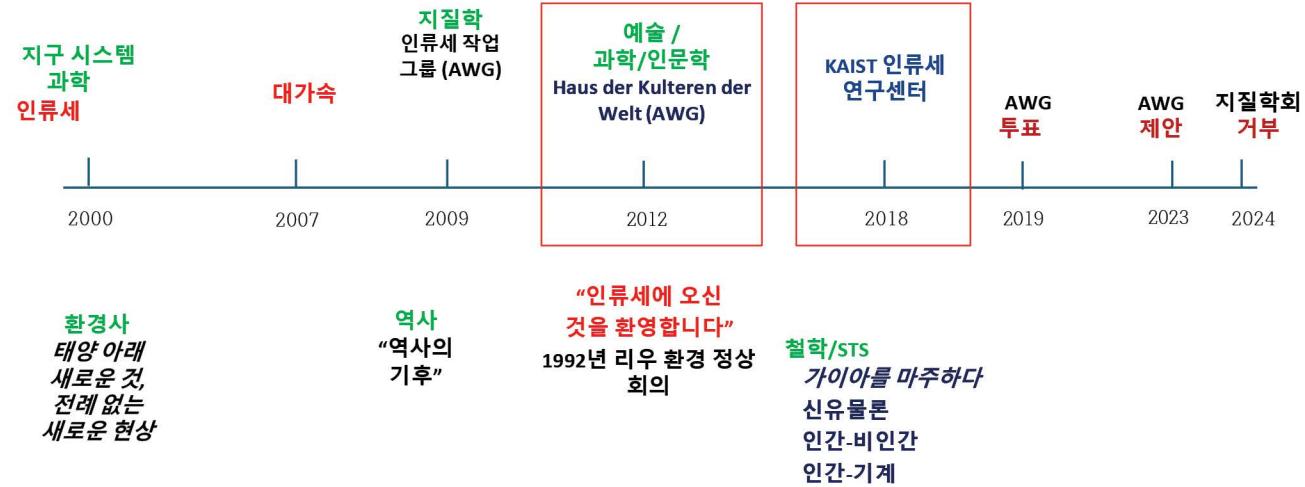
인류세에서 문화 위기로서의 기후 위기

박범순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인류세 연구센터 소장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유네스코 지정유산 국제학술대회:
안동 하회 민속마을
2024년 10월 24일

KAIST STP CENTER FOR ANTHROPOCENE STUDIES NRF 한국연구재단

인류세 – 학제 간 이루어진 담론



인류세, 人類世(Anthropocene)

“[명사. 2000년대~] 지질학적 시간의 한 시기로, 인간 활동이 환경, 기후, 생태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대를 말하며, 공식적인 연대기 지층 단위로서 그 기점은 20세기 중반으로 잠정적으로 정의되었다.”

-- 옥스퍼드 영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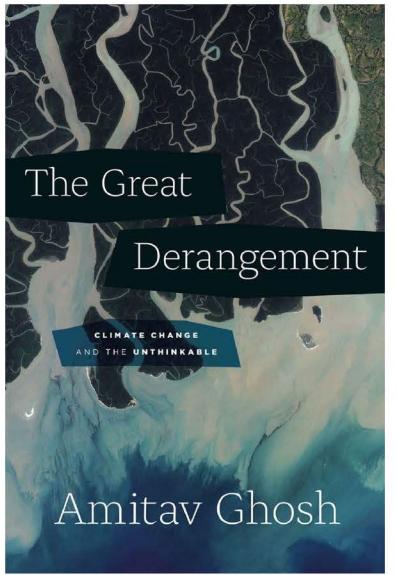
“‘인류세’는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환경 문제’, ‘오염’ 등 지구의 변화를 표현하는 기타 용어와 **동일하지 않다**. 인류세는 그 자체로 **지질학적 개념**이다. 이 개념은 이러한 현상들과 그 외의 많은 현상을 통합하여, **지구의 최근 급격한 변화**를 심오한 행성적 시간의 맥락 안에서 설명한다.”

-- J. A. Thomas, M. Williams, J. Zalasiewicz,
The Anthropocene: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Polity, 2020)

심층적인 유산 연구 x 인류세

- 미래의 화석은 인류세를 위한 것인가?
-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미래를 위해 현재를 바라보는가?
- 포스트 휴머니티(Post-humanity)에서 ‘유산’이란 무엇인가?
- 과거에 대한 비판적 관여





...독자와 박물관 방문객들이 우리 시대의 **예술과 문학**을 들여다볼 때, 그들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자신들이 물려받은 **변화된 세계의 흔적과 징조**를 찾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 그들이 내릴 결론은 우리 시대의 예술과 문학이 대부분 **온폐하는 방식**에 빠져 있었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는가...?

어쩌면, 이 시대는 '**대혼란의 시기**'로 불리게 될지도 모른다."

- Amitav Ghosh, 2016, p. 11.

대응 방식 (1) – ‘자연’ 유산 보존



The Frozen Ark: Saving the
프로즌 아크(Frozen Ark): 전 세계
멸종 위기 종의 DNA와 생존 가능한
세포를 보존



- 노르웨이의 씨앗 저장고 (2008년~)

- 스발바르(Svalbard) 국제 종자 저장고
- 세계 작물 다양성을 위한 바이오뱅크
- 공공·민간 협력

- 영국의 동결 예술(2004년~)

- 멸종 위기 종의 유전자 물질을 보관하는 바이오뱅크
- 민간 컨소시엄:
런던 동물학회 + 자연사 박물관 + 노팅엄 대학교

인류세는 예술과 인문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적 이해와 더 나아가 **현대 문화** 전반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 실제로, 이는 아마도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화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기후 위기는 문화의 위기**이기도 하며, 따라서 **상상력의 위기**라는 점이다.

동일 서적(Ibid.), p.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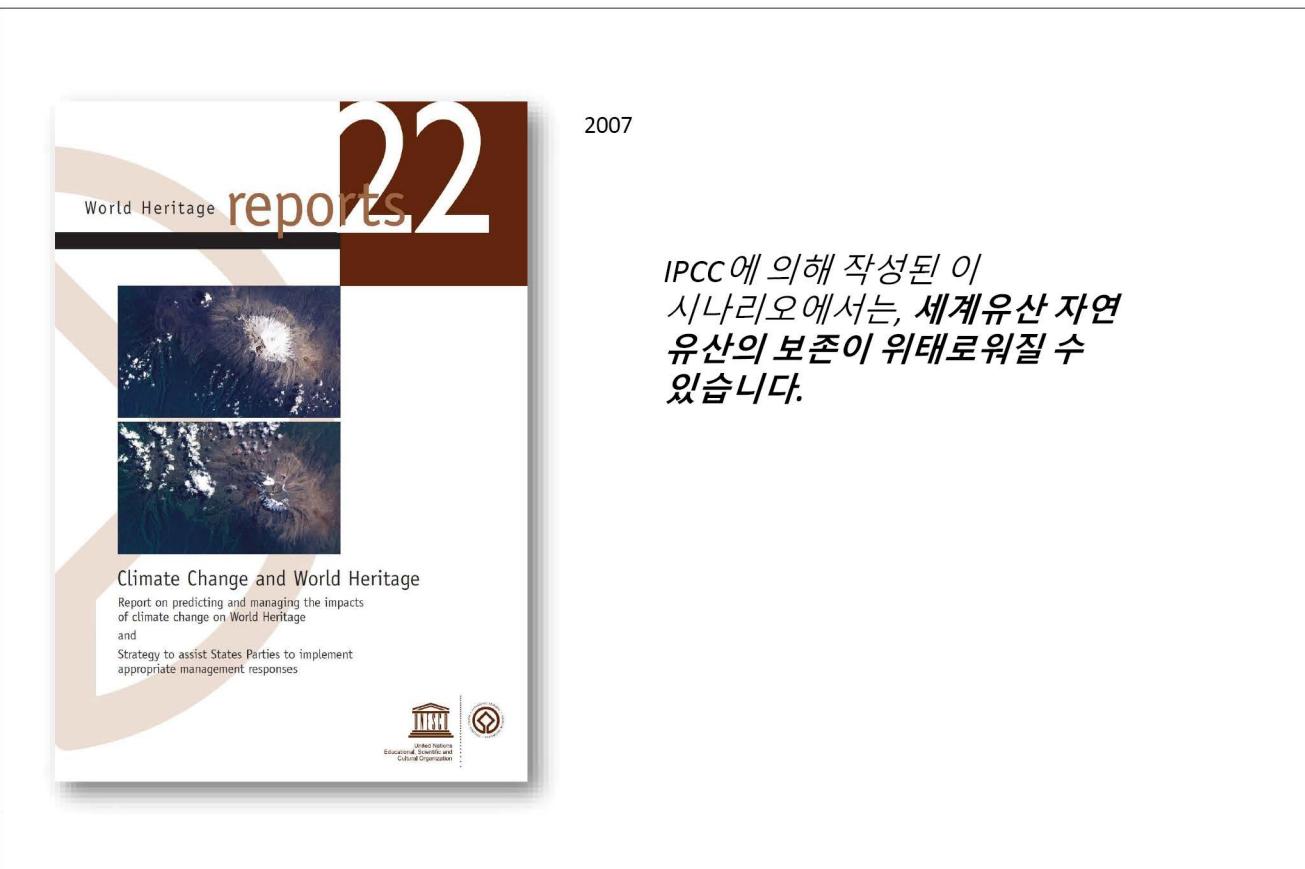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세계자연유산

Natural World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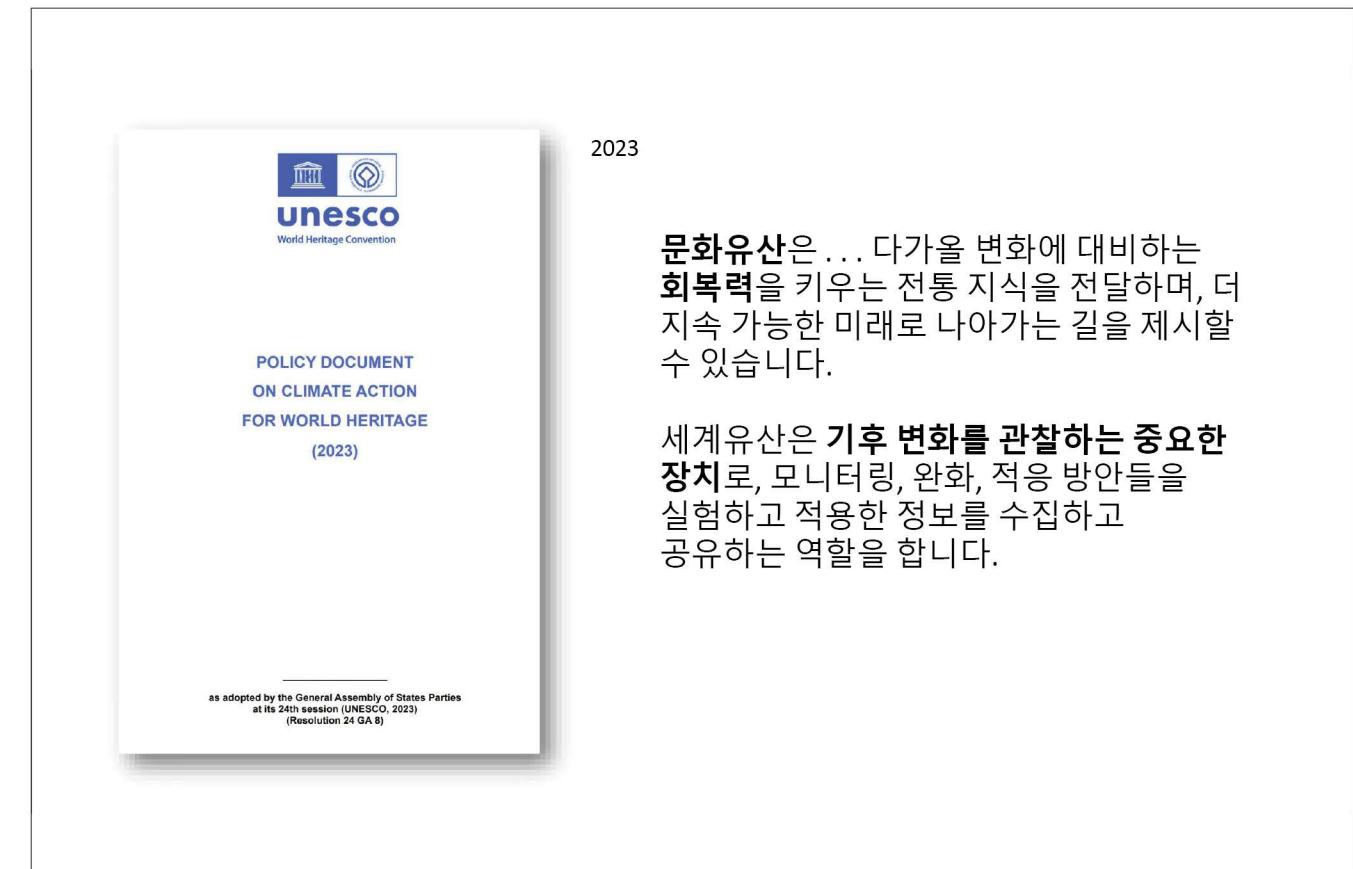
Nature's most precious gifts to humanity
인류에게 주는 자연의 가장 값진 선물

세계유산협약은 지구
상의 가장 뛰어난
자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성공적인 국제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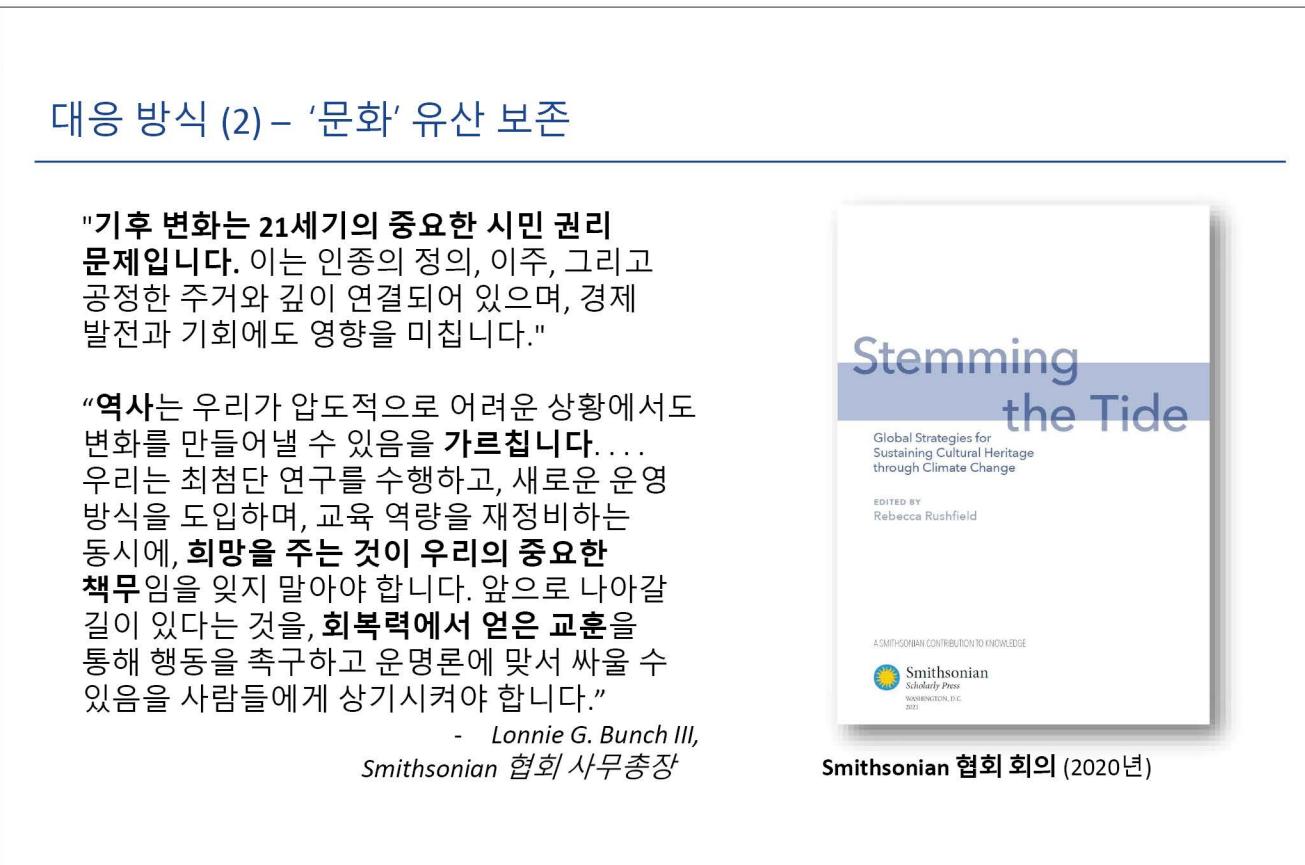
IPCC에 의해 작성된 이
시나리오에서는, 세계유산 자연
유산의 보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2023

문화유산은 ...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회복력을 키우는 전통 지식을 전달하며, 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기후 변화를 관찰하는 중요한
장치로, 모니터링, 완화, 적응 방안들을
실험하고 적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응 방식 (2) – ‘문화’ 유산 보존

“기후 변화는 21세기의 중요한 시민 권리 문제입니다. 이는 인종의 정의, 이주, 그리고 공정한 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경제 발전과 기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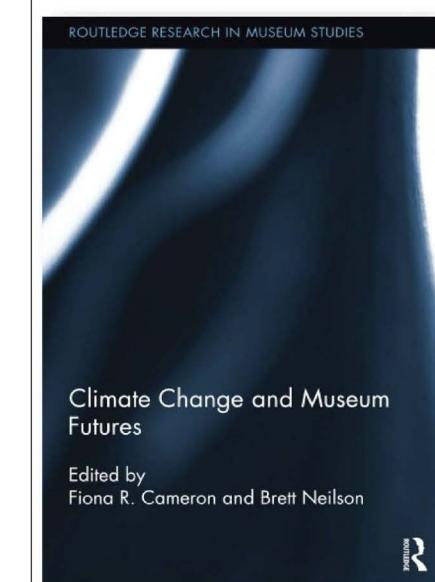
“역사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최첨단 연구를 수행하고,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하며, 교육 역량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회복력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행동을 촉구하고 운명론에 맞서 싸울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 Lonnie G. Bunch III,
Smithsonian 협회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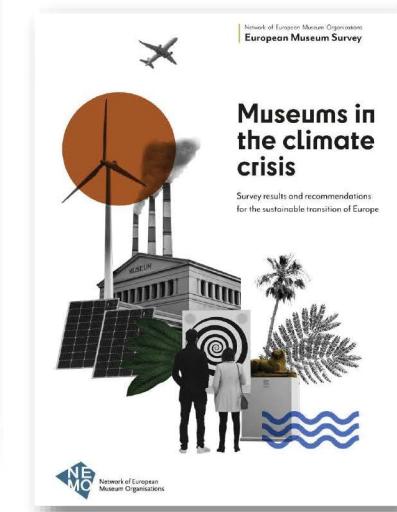
Smithsonian 협회 회의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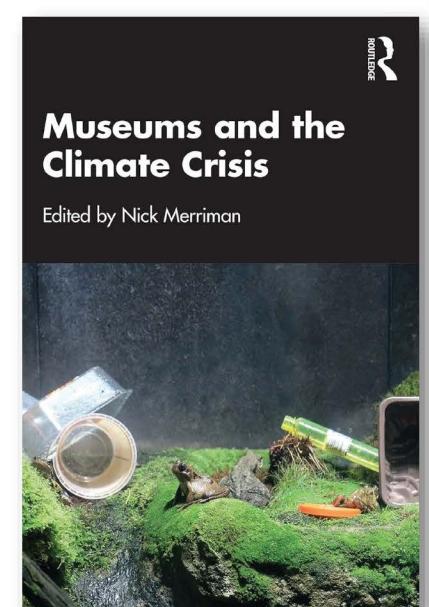
(2014)



2022



2024



The Guardian (2023. 11. 6)

영국 박물관들,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한 공동 행위에 합의

Tate Modern에서 열린 UK Museum Cop에서 해당 분야는 '기후 및 생물 다양성 위기에 대해 목소리를 낼 책임이 있다'고 언급



The Guardian (2024. 9. 28)

반 고흐 그림에 수프를 던진 'Just Stop Oil' 활동가 세 명 기소

런던 국립 미술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같은 단체의 다른 회원들이 유사한 시위로 수감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발생했다.



대응 방식 (3) – 인류 유산 그 이상

질문:

- ... **Posthuman(포스트휴먼)** 철학에서 **유산**을 논하는 것이 가능할까?
- **인간**을 넘어선 기억과 기록 보관소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것은 단지 **미래의 화석**일 뿐인가?
- 우리는 어떤 생명체와 사물을 함께 물려받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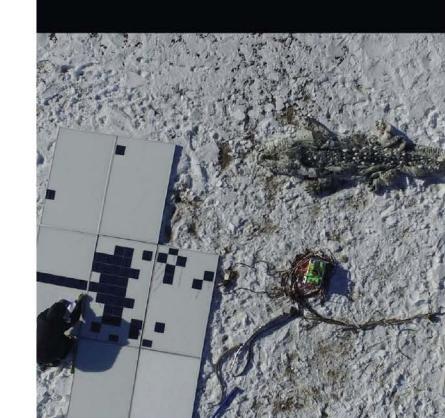
제안:

- 유산의 시간적 흐름(temporality)과 공간적 범위(territory)를 다르게 사고하기
- 유산을 기원 신화를 떠올리게 하는 도구로 보지 않고(즉, 연속성과 향수를 불러일으켜 세계 관광을 조성하는 대신), 영토화 행위(식민지화와 세계화 포함)가 가진 사회적-물질적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공정한 미래**를 상상하기

Deterritorializing the Future

Heritage in, of and after the Anthropocene

Edited by Rodney Harrison and Colin Sterling



2019년 서울
Dear Amazon
2022년 서울
미술관-탄소-프로젝트
The Museum-Carbon-Project
2022.8.19-10.30.

2022년 광주
2021년 부산
2024년 대구
반디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걸음
전시회

비판적 유산 연구 x 인류세

인류세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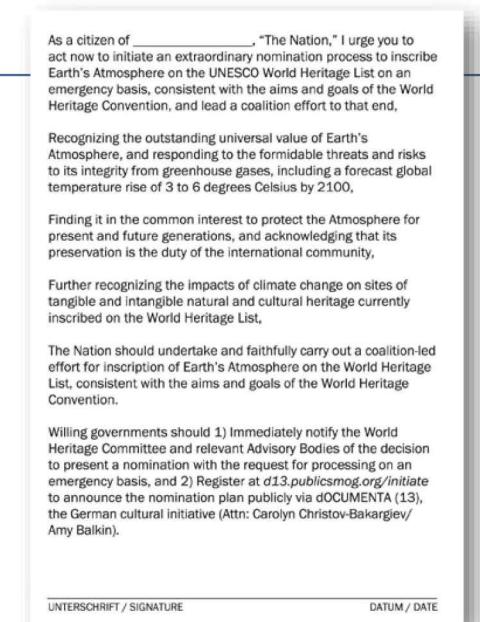
1. **기후 행동 그 이상을 고려하다**
 - 행성 차원의 집단적 재고를 촉진할 것
2. **유산과 함께 생각하며**
 - 지구에 거주하기 위한 주변부적, 대안적, 실험적인 방식을 살펴볼 것
3. **유산이 인간의 산물로만 축소되지 않도록 인식하며**
 - 모든 유산 과정이 얹혀 있는 본질을 이해할 것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 (1) – 대기

- 지구의 대기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제안

- “**지구 대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대기를 보호하고 보존하려 하는 국제 사회의 “**공동 이익**”을 찾기를 기대한다.

H. David and E. Turpin, *Art in the Anthropocene* (2025), p.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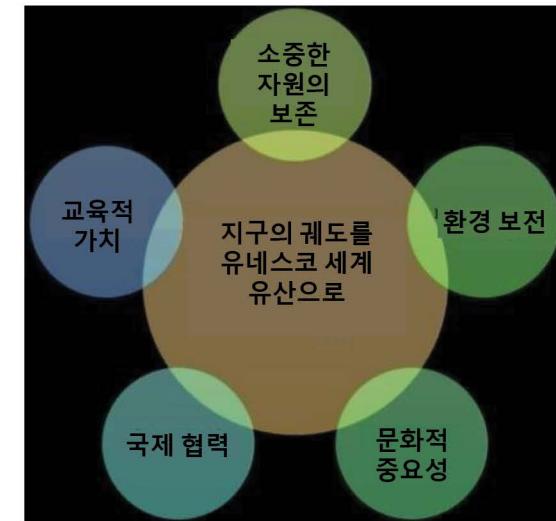


지구 대기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구역으로, 포스트카드, 2012년

제74회 국제우주대회(IAC), 아제르바이잔 바쿠, 2023년 10월 2일~6일
© 2023 Space Generation Advisory Council. 모든 권리 보유

지구의 궤도를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Selene Cannelli ^{*a}, Frank de Veld ^{*b}, Mahima Gehlot ^{*c}, Taylor K. Nugent ^{*d}, Kathiravan Thangavel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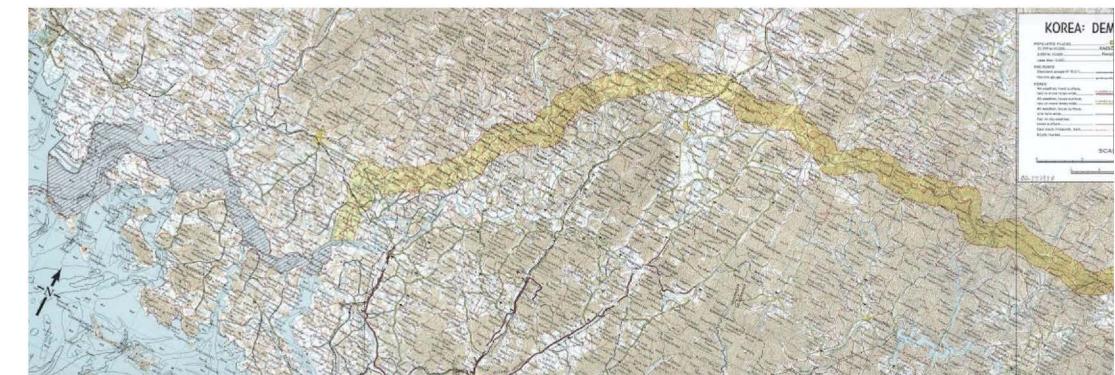
2023



퍼블릭 스모그, 내일의 변화를 위한 오늘의 실천. Billboard, Isenbeck, Douala, Cameroon, 2009; photo by Benoit Mangin.

H. David and E. Turpin, *Art in the Anthropocene* (2025), p.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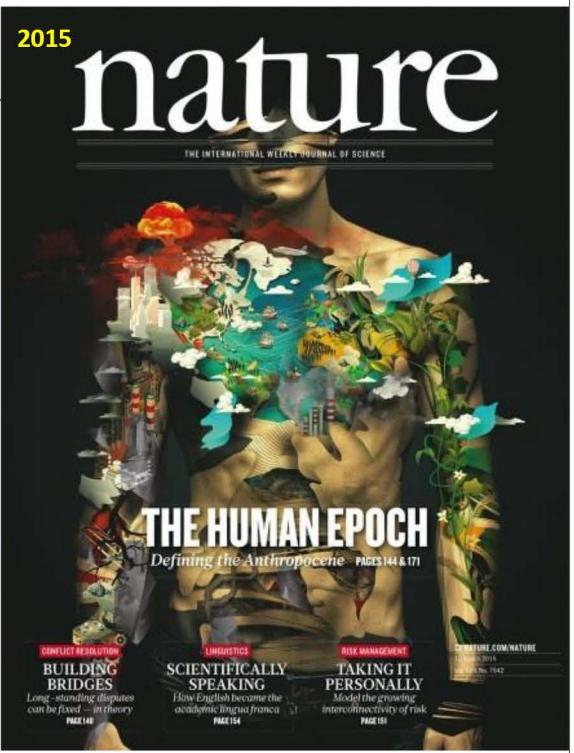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 (2) – 분쟁 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



최근 이루어진 시도: “한국, 북한과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공동 등재하기 위한 프로젝트 착수” (연합뉴스, 2019. 7. 12)

결론

- 인류세에서 인류와 지구에 대하여 재고하기
 - 우리는 20세기 중반 이후로 크게 변화한 지구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공식적인 지질학적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임.
 - 이러한 상황은 인간 활동에 의해 초래됨
- 유산에 대하여 재고하기
 -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을 허물기
 - 얹혀 있는 유산
 - 인류세를 이해하는 도구
 - 서식 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유산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 : 유산정책

유네스코 문화협약: 세계유산협약(1972)과 무형유산협약(2003)의 사례

아흐메드 스쿠티

- 모로코 국립고고학연구소 교수

모로코, 에사우이라: 3대 국제 인정

아흐메드 스쿤디(Ahmed Skounti) 모로코 고고학 및 유산 국립 연구소(INSAP), 모로코

에사우이라(Essaouira)

- 에사우이라는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모로코 도시이다.
- 에사우이라 유적지에는 기원전 7세기까지의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 에사우이라(옛 모가도르)는 알라워 왕조의 시디 모하메드 벤 압델라 왕(1757-1790)이 건설했다.
- 78,000명 주민이 거주한다. (2014년 인구조사)
- 지역 경제는 어업, 관광업, 공예 및 문화 중심으로 운영된다.



발표 소개

- 에사우이라(Essaouira)
- 세계유산지
- 그나와(Gnaoua) : 무형문화유산 요소
- 창의 도시 : 음악
- 3대 인정 관리
 - 현황
 - 협력 관리 강화 방안

에사우이라 메디나: 세계유적지

- 에사우이라 메디나(옛 모가도르)는 18세기 중반 요새 도시의 탁월한 사례로, 유럽 보방 군사건축 형식에 영향을 받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유럽과 전 세계로 연결해주는 주요 국제 무역 항구도시이다.
- 도시 건설 이후, 다민족(아마زي그족, 아랍인, 아프리카인, 유럽인)과 다종교(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가 공존하는 다문화 중심지의 대표적 사례이다.
- 기준 (ii)와 (iv)에 근거하여 2001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지



© Conservation de la médina d'Essaouira

그나와(Gnawa) : 무형문화유산



© Conservation de la médina d'Essaouira



©A3 Communication

그나와(Gnawa) : 무형문화유산

- 그나와는 수피(Sufi) 형제애 음악으로서 조상과 혼령을 불러들이는 종교적 가사를 담고 있다.
- 그나와는 모로코의 형제애적 관습, 세속과 신성이 어우러진 치유 의식과 관련된 일련의 음악행사와 공연이다.
- 본래 16세기부터 노예제도와 관련된 개인과 집단들이 행했던 문화가 오늘날 다양한 모로코 문화와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
- 화려한 자수 의상을 입은 에사우이라 그나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프리카의 관습, 아마지그족(베르베르족) 공연 문화, 아랍-무슬림의 영향이 결합된 것으로 밤을 지새우며 연주되는 리듬과 함께 가수(假睡) 상태로 치유의 접신을 거행하는 의식이다.
- 그들은 협회로 조직되어 지역, 국내, 국제 축제에 참여하며, 매년 6월에 열리는 에사우이라 그나와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 그나와는 2019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 음악

- 에사우이라는 음악이 본래의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문화적 표현의 탁월한 공간을 자랑한다.
- 에사우이라는 문화 소통의 주요 중심지로, 지역 및 국제적 범위의 다양한 문화적 이니셔티브로 유명하며,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포용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현재 에사우이라에는 12개의 정기 음악 페스티벌과 도시의 문화산업 부문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창업한 11개의 음악 이벤트회사가 있다.
- 그나와 월드뮤직페스티벌(Gnaoua World Music Festival)과 아틀란틱 안달루시아 페스티벌(Atlantic Andalusia Festival)을 포함한 여러 주요 행사들이 열리고, 여기에는 혼종 정체성을 반영하는 역사적 전통에 근간하여 기여한다.
- 곧 완공될 모하메드 6세 예술문화도시는 브라질 건축가 오스카 니마이어(Oscar Niemeyer)가 설계했다.
- 연간 문화 예산의 상당 부분은 특히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데 여러 보조금을 통해 음악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에사우이라는 지역 예술가에게 영감과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제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다.
- 에사우이라는 2019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음악부분에 선정되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 음악



© Conservation de la médina d'Essaouira



3대 인정 관리

➤ 현황

➤ 협력 관리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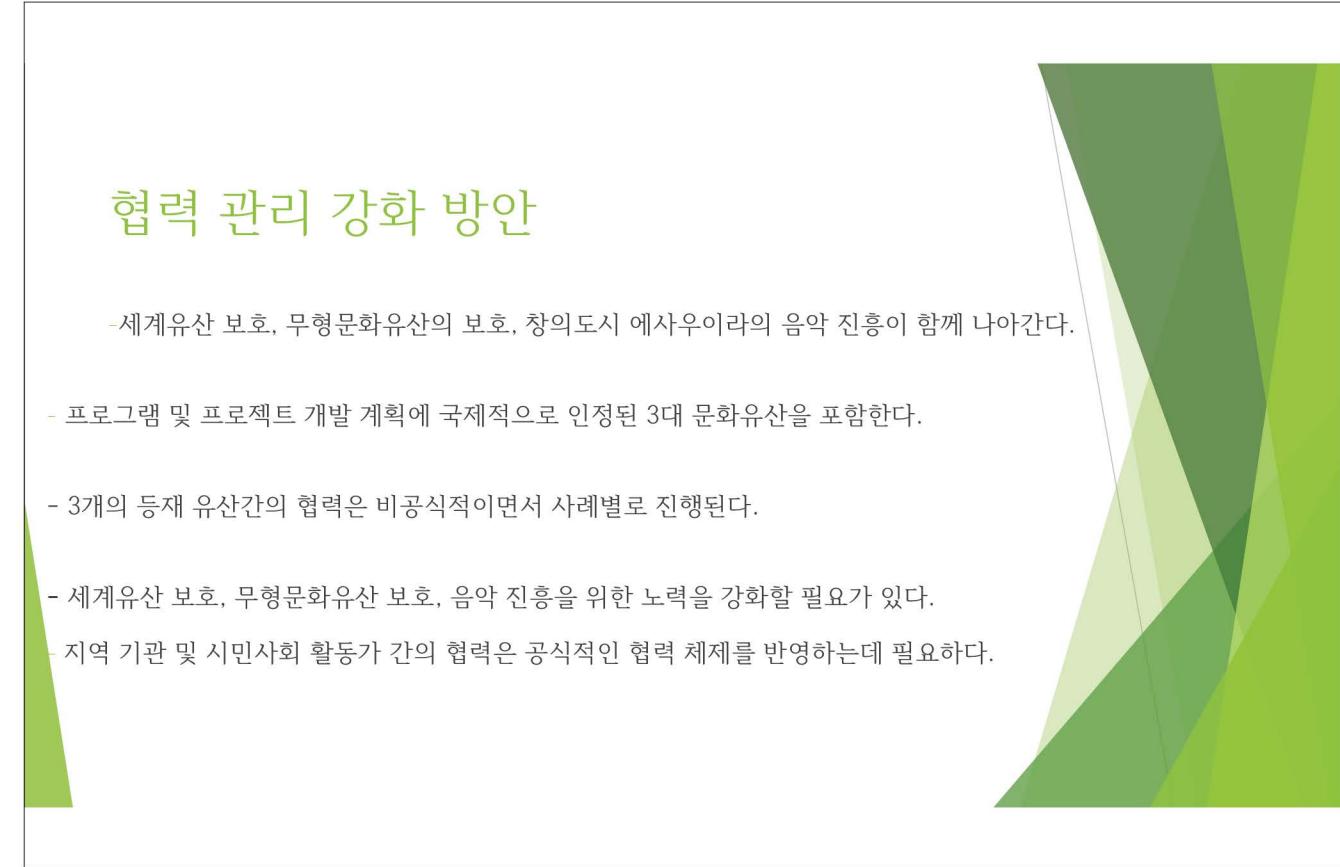
현황

- 3대 국제 인정 관리를 담당하는 지역 주체는 다음과 같다.
 - 에사우이라 시의회 (지역발전협회(SDL)를 통해)
 - 에사우이라 주
 - 에사우이라 메디나 보존 및 역사 기념물 및 유적지 조사(문화부)
 - 에사우이라 모가도르 협회 및 기타 NGO 기구들
-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3대 국제 인정 주체 간의 효과적인(아직 비공식적이지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주요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문화행사를 조직 및 주최하는 단체 중 일부는 세계유산도시 내에 본부를 두고 있다:
 - Bayt Dakira, Dar Souiri, SMBA 민속박물관
 - 갤러리(Bab Marrakech)나 유산해석센터(Douiria of the Sultan)로 사용되는 세계유산 기념물
 - 페스티벌 및 문화행사 기간 동안 음악행사를 주최하는 세계유산 기념물과 공간들
 - 역사 도시에 내에 위치한 악기 공방과 상점들

문화기관: 시디 모하메드 벤 압델라 민속박물관



© Conservation de la médina d'Essaouira





감사합니다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 : 유산정책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사회의 지정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영향

레하프 가사스

- 사우디 문화유산보존협회장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사회의 지정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영향

유네스코 지정유산 국제학술대회

세션 정책: 유산 정책

발표자: 레하프 가사스(Rehaf Gassas)



사우디아라비아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 요소	문화사회적 공간, 마즐리스	매사냥 (Falconry)	하리스 (Harees)	알메즈마르, 북연주와 악기를 들고 추는 춤
칼라니 커피 원두	아랍커피	아랍어 캘라그라피 :지식, 기술 및 관행	금속 조각	대추 야자
알 카트 알 아시리 <small>사우디아라비아 아시르 지방 여성들의 전통적 벽 장식</small>	사우디아라비아 의 북/춤 연주시, 알아르다 알나즈디야	전통 알사두 직조	알헤다아 (Alheda'a)	13 Elements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통한 전통적 관습 보호

문화적
영향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통한 전통적 관습 보호

문화적
영향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통한 전통적 관습 보호

문화적
영향



세대 간 전승과 사회적 결속

사회적
영향



세대 간 전승과 사회적 결속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



알 카트 알 아서리



경제적 기회, 공예 및 문화 제품

환경적
영향



칼라니 커피 원두

지속가능한 관행



경제적
영향



아랍어 캘리그라피

경제적 기회, 공예 및 문화 제품

과제 및 위험의 완화

과도한 상업화와 문화상품화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에 역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주변의 모든 것에 감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이야기할 것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권고사항

정책수립

+
지역사회
참여

→
무형문화유산

과제 및 위험의 완화

다음을 추가로 개발:

- 인식제고
- 정책
- 규제
- 지침



결론...

유산은 공동체의 영혼입니다. 공동체가 유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줌으로써, 우리는 함께 과거를 존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 : 유산정책

디지털 유산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여정-잃어버린 문화되살리기

심혜승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디지털헤리티지랩 연구원

UNESCO 디지털 유산의 보존을 위한 여정:

옳어버린 문화 되살리기

심혜승

“유네스코 지정유산 경과 범주를 넘어
통합으로” 국제학술대회 2024.10.16~18, ADCO |
대한민국 안동시

ICOMOS Korea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유산융합학부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디지털 헤리티지 랩(Digital Heritage Lab)
2024년 10월 17일 (목)

ICOMOS-KOREA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주최자: 안동시 준비자: 한국국학진흥원
제작: UNESCO WHAP ICAP UNESCO

01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대한 유네스코 접근법의 기초

유네스코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유네스코 2003년 현장과 2015년 권고 | 새로운 로드맵

목차

01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대한 유네스코 접근법의 기초

:유네스코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유네스코 2003년 현장과 2015년 권고 | 새로운 로드맵

02 유산 보존과 관리의 맥락에서 디지털 유산 보존에 대한 세계적 담론

:국제 선언, 문서 및 원칙의 출현과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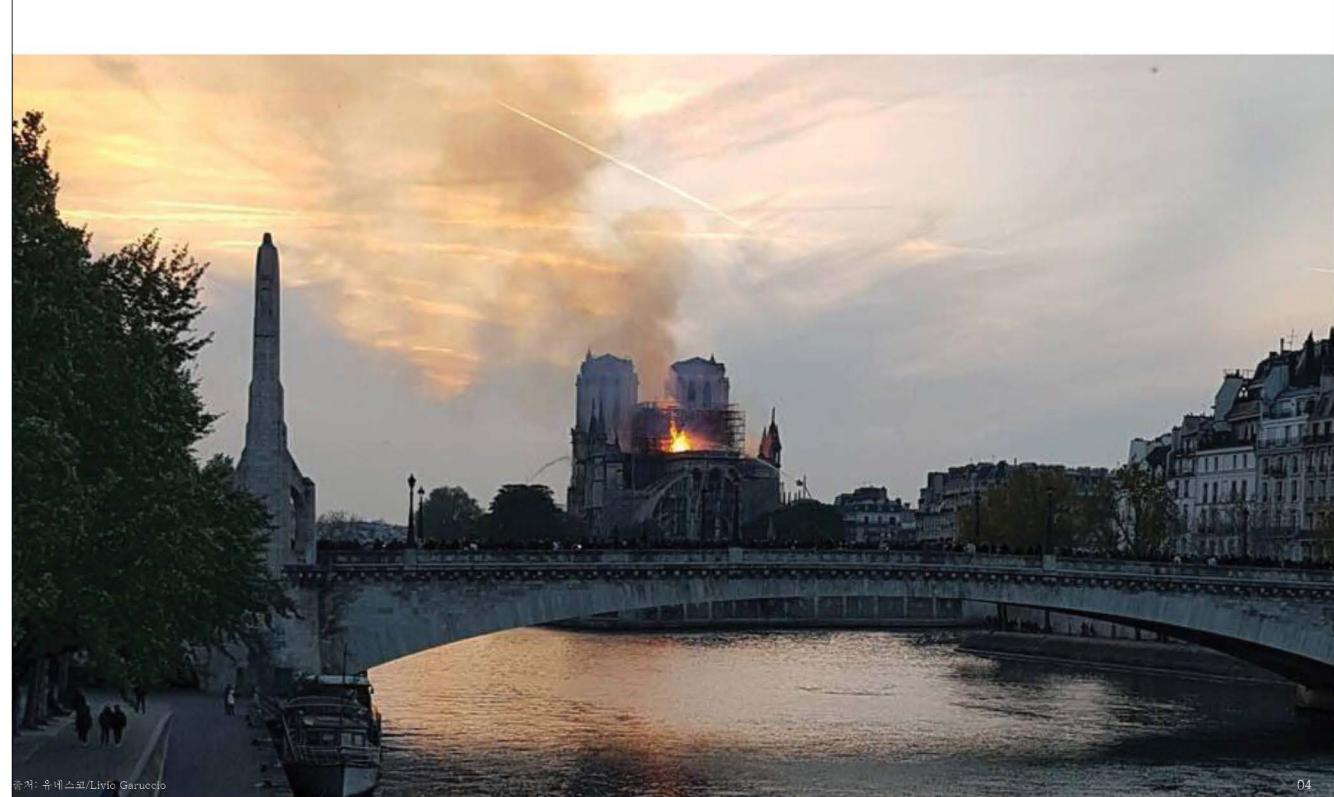
03 보존과 관리에 디지털 유산의 활용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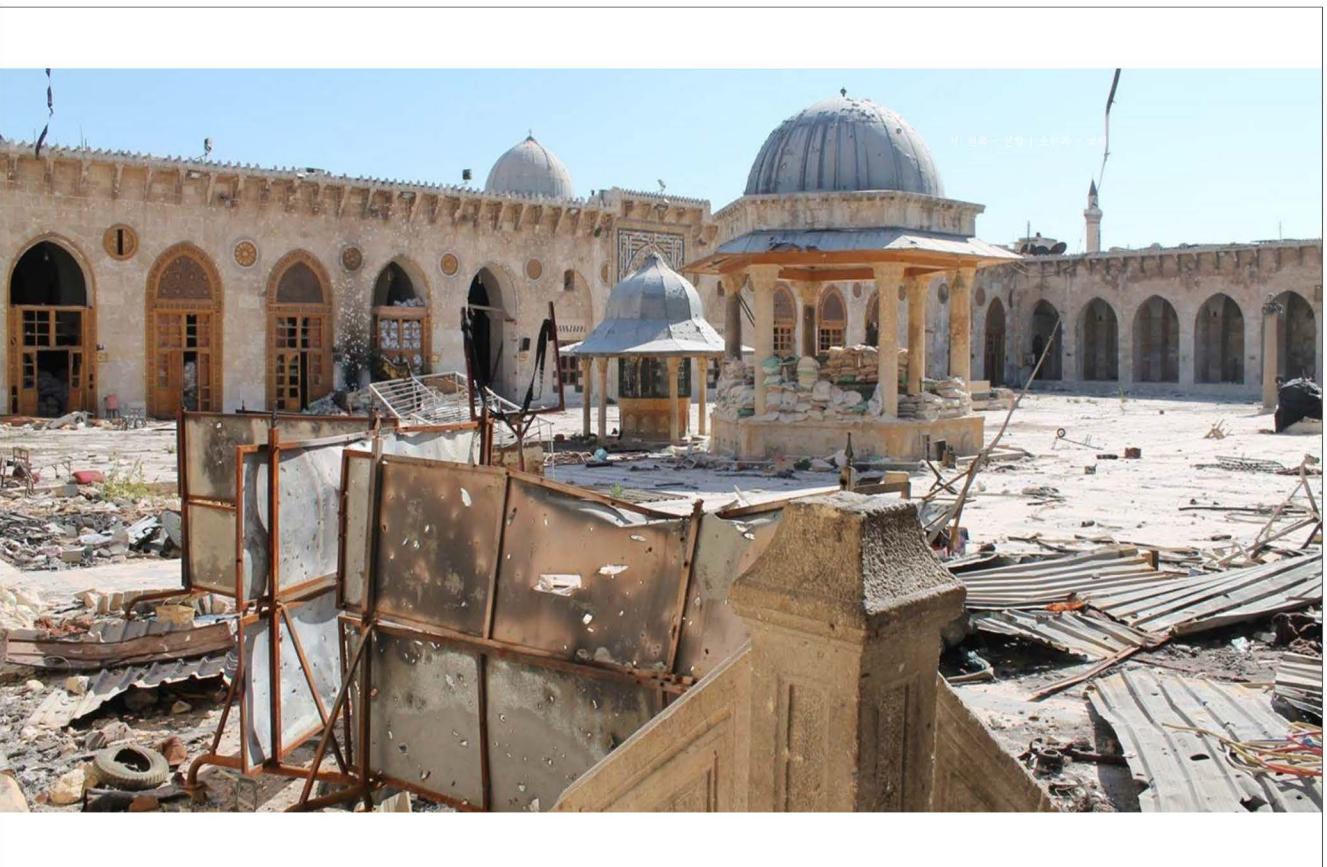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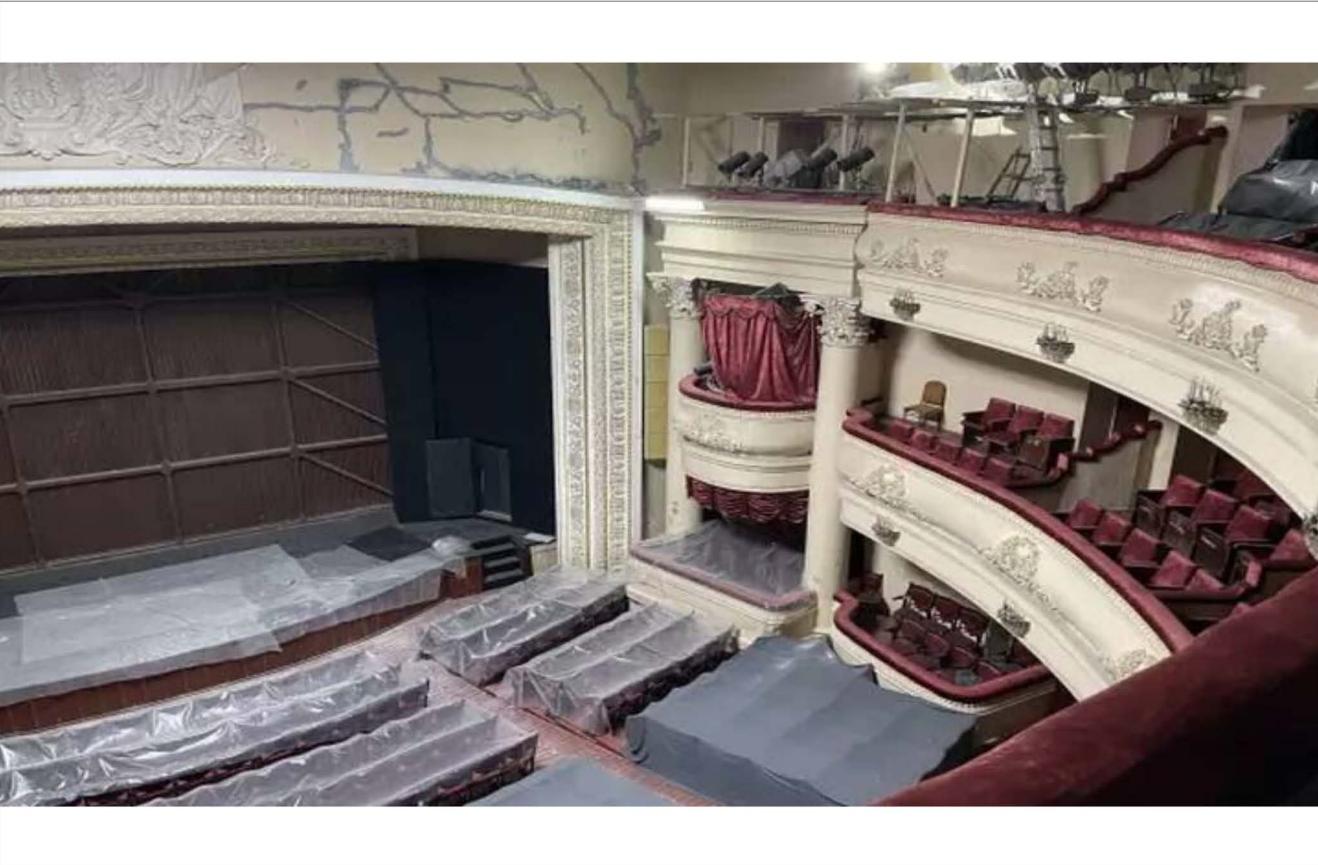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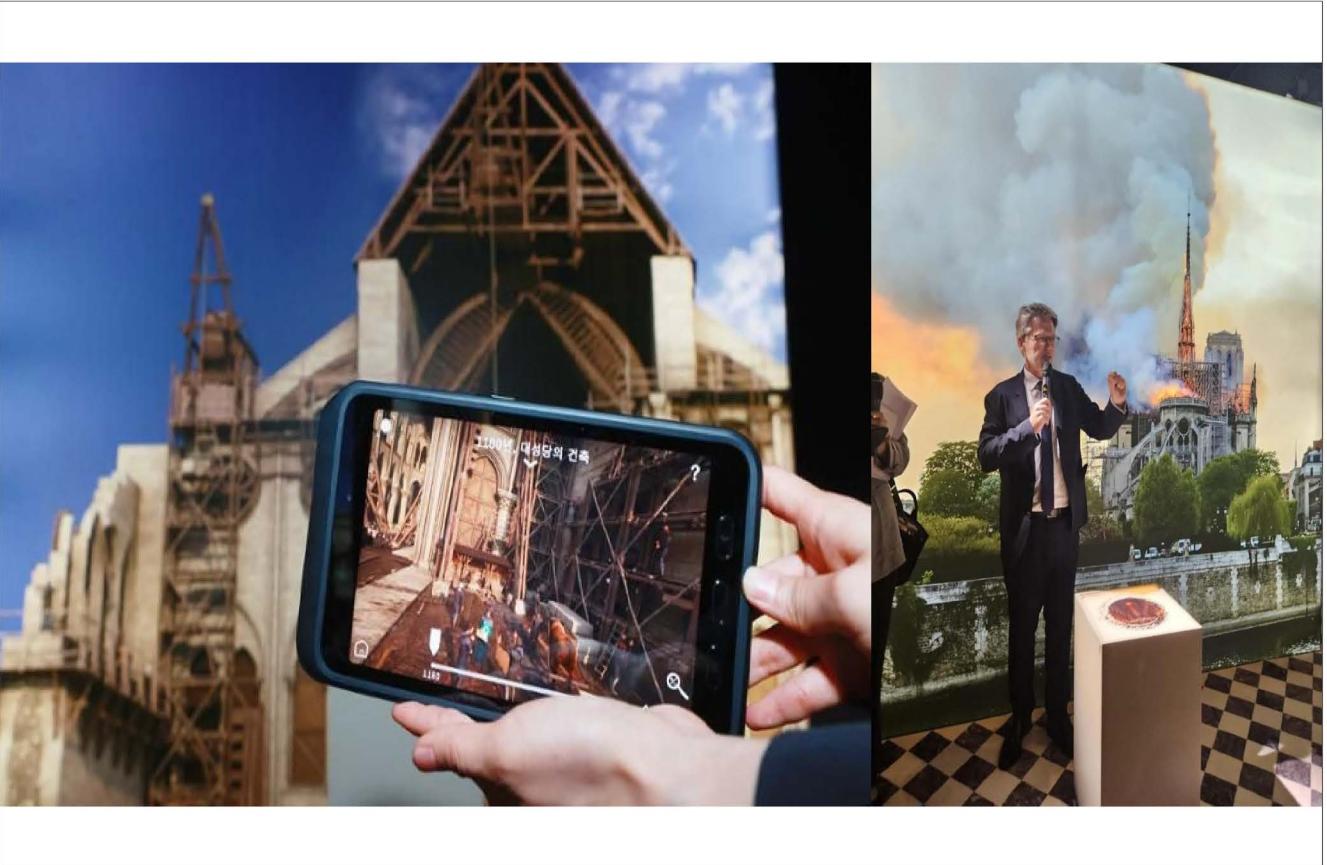
04 디지털 유산 보존과 관련된 새로운 도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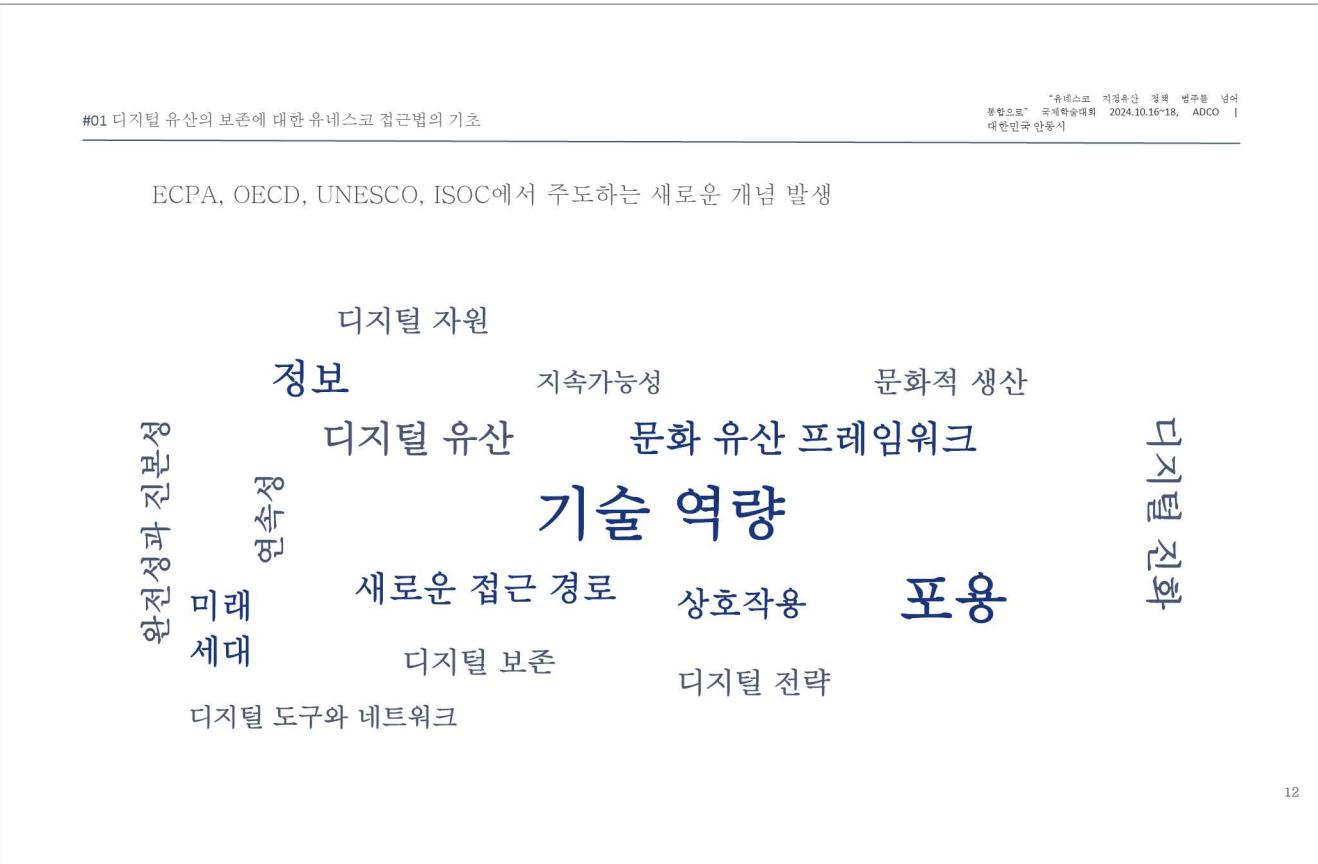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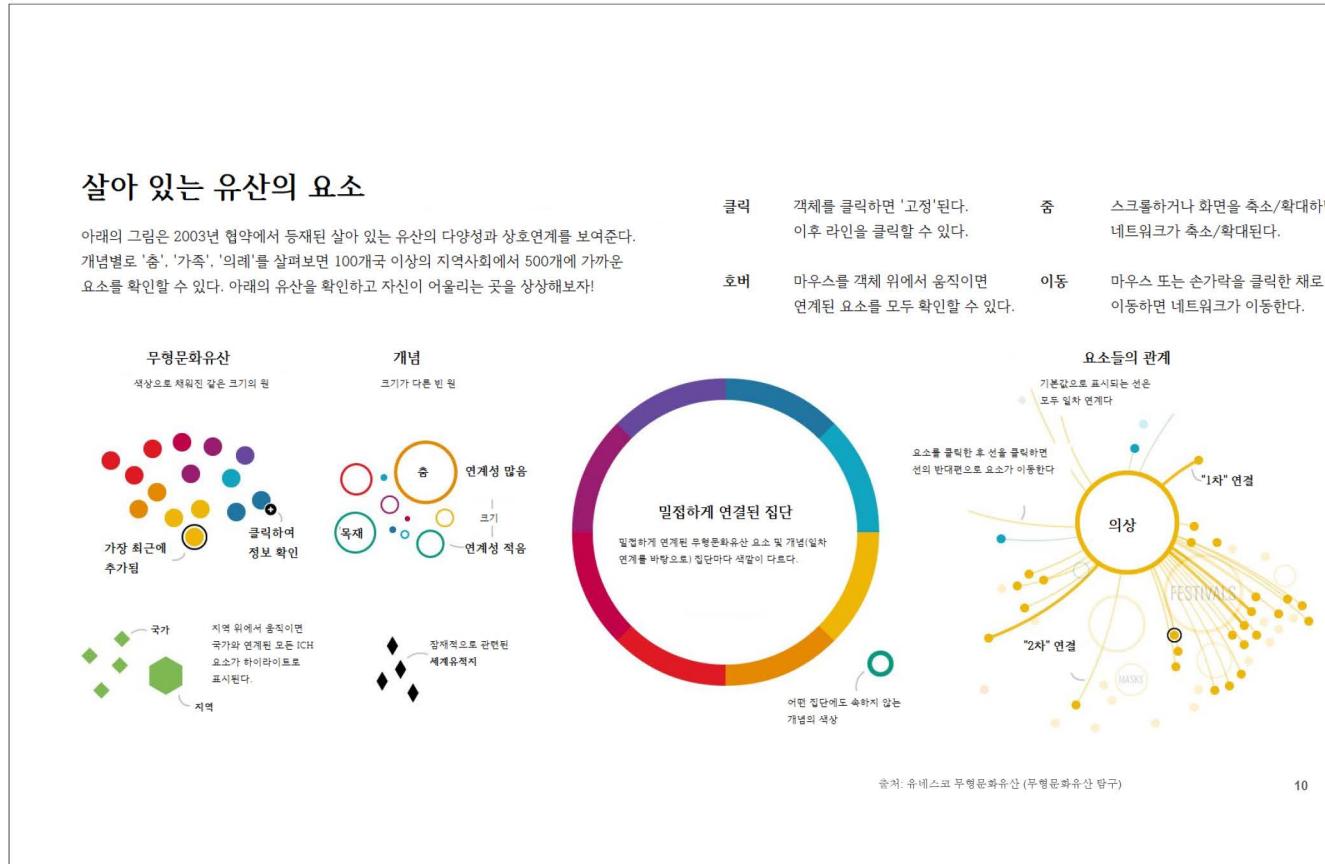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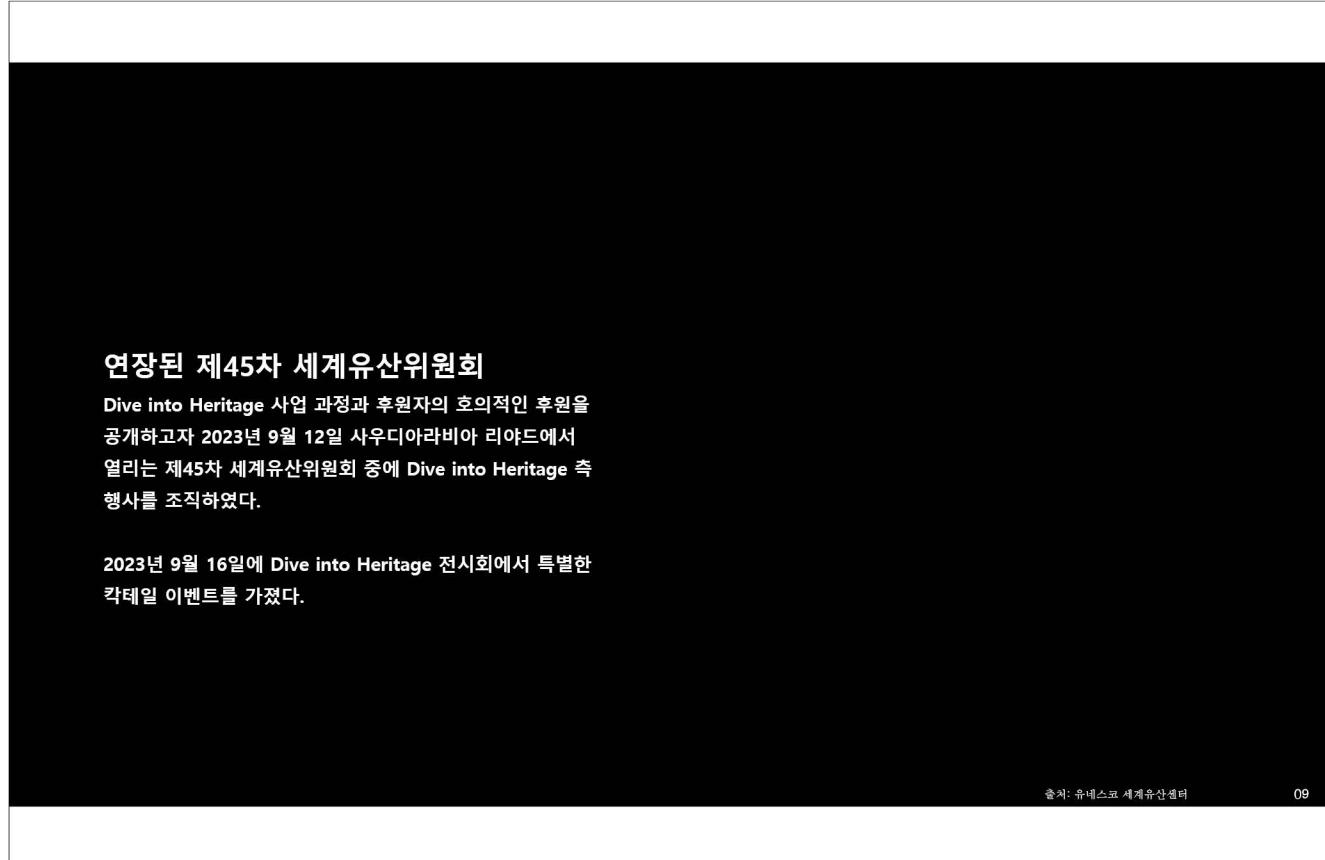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유산 보존에 대한 집단적 노력의 필요성

02



04





#01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대한 유네스코 접근법의 기초

“유네스코 지정유산 정체 범주를 넘어
통합으로” 국제학술대회 2024.10.16~18, ADCO |
대한민국 안동시

unesco 공동 유산으로서 디지털 유산의 개념

“디지털 유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중요해지고 널리 퍼질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개인, 기관 및 지역사회들이 중요시하는
것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기록, 표현하고 있다.”

출처: 유네스코 - 디지털 유산의 개념 13

#01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대한 유네스코 접근법의 기초

“유네스코 지정유산 정체 범주를 넘어
통합으로” 국제학술대회 2024.10.16~18, ADCO |
대한민국 안동시

유네스코에서 주도하는 기준 설정 도구 준비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현장(2003)

2002	2003
01 현장 예비 조안 발표됨 예비 조안 현장 (2002): comments and observation through a round of four regional experts meeting.	02 두 번째 서류 준비됨 호주 국립 도서관에서 유네스코를 위해 작성한 세부 기술 지침(현장 자료집으로 작성)이 열거된 2차 문서(2002).
03 세계 자문 80개국에서 총 150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다양한 지역 회의 (2002).	04 조안 발전 자문 과정을 거쳐 초안이 발전되었다.
05 수정 조안 제출됨 수정된 현장 조안 on the Preservation of the Digital Heritage was submitted to the General Conference at 제32차 총회(2003).	06 승인 승인자 UNESCO GC (2003).

15

#01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대한 유네스코 접근법의 기초

“유네스코 지정유산 정체 범주를 넘어
통합으로” 국제학술대회 2024.10.16~18, ADCO |
대한민국 안동시

unesco 공동 유산으로서 디지털 유산의 개념

“디지털 유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중요해지고 널리 퍼질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개인, 기관 및 지역사회들이 중요시하는
것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기록, 표현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의 조정 ↑
↑
개념적 인식 증진

출처: 유네스코 - 디지털 유산의 개념 14

#01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대한 유네스코 접근법의 기초

“유네스코 지정유산 정체 범주를 넘어
통합으로” 국제학술대회 2024.10.16~18, ADCO |
대한민국 안동시

unesco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현장(2003)

“디지털 유산은 인간 지식과 표현에 대한 독특한 자원으로 구성된다.
디지털로 생성되거나 기존 아날로그 자료에서 디지털로 변환시킨 기술,
법률, 의학 및 기타 정보를 비롯하여 문화, 교육, 과학, 행정적 자원을
아우른다.”

제1조 - 범위

출처: 유네스코 - Legal Affairs: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현장 16

unesco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현장 (2003)

: 디지털의 새로운 과학 분야 또는 새로운 유산에 중요한 기본 프레임워크

“디지털 유산은 인간 지식과 표현에 대한 독특한 자원으로 구성된다.

디지털로 생성되거나 기준 아날로그 자료에서 디지털로 변환시킨 기술,

법률, 의학 및 기타 정보를 비롯하여 문화, 교육, 과학, 행정적 자원을

아우른다.”

제1조 - 범위

태생적
디지털

디지털화
된 유산

출처: 유네스코 - Legal Affairs: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현장

17

unesco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기록유산의 보존과 접근에 관한 권고

(2015) : 2003년 유네스코 현장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의 급격한 진보와 디지털 유산 자체의 보존을 위한 모형 및 과정을 확립하는 도전과제를

고려하며, 여기에는 복합 시스템, 모바일 컨텐츠, 미래의 새로운 포맷으로 된 멀티미디어 작품, 대화형 하이퍼미디어, 온라인 대화 및 동적 데이터도 포함된다.”

최신 변경사항 반영

전문

개방성 & 타 협정 및 단체와의 시너지

출처: 유네스코 - Legal Affairs: 2015년 유네스코 권고 (유네스코 GS 제38차 총회)

19

unesco 디지털 형태를 포함해 모든 기록 유산의 보존 및 접근성에 관한 권고 (2015)

“기술의 급격한 진보와 디지털 유산 자체의 보존을 위한 모형 및

과정을 확립하는 도전과제를 고려하며, 여기에는

복합 시스템, 모바일 컨텐츠, 미래의 새로운 포맷으로 된

멀티미디어 작품, 대화형 하이퍼미디어, 온라인 대화 및 동적

데이터도 포함된다.”

전문

출처: 유네스코 - Legal Affairs: 2015년 유네스코 권고 (유네스코 GS 제38차 총회)

18

unesco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기록유산의 보존과 접근에 관한 권고 (2015) : 2003년 유네스코 현장을 보완하기 위해**I. 유네스코 협약과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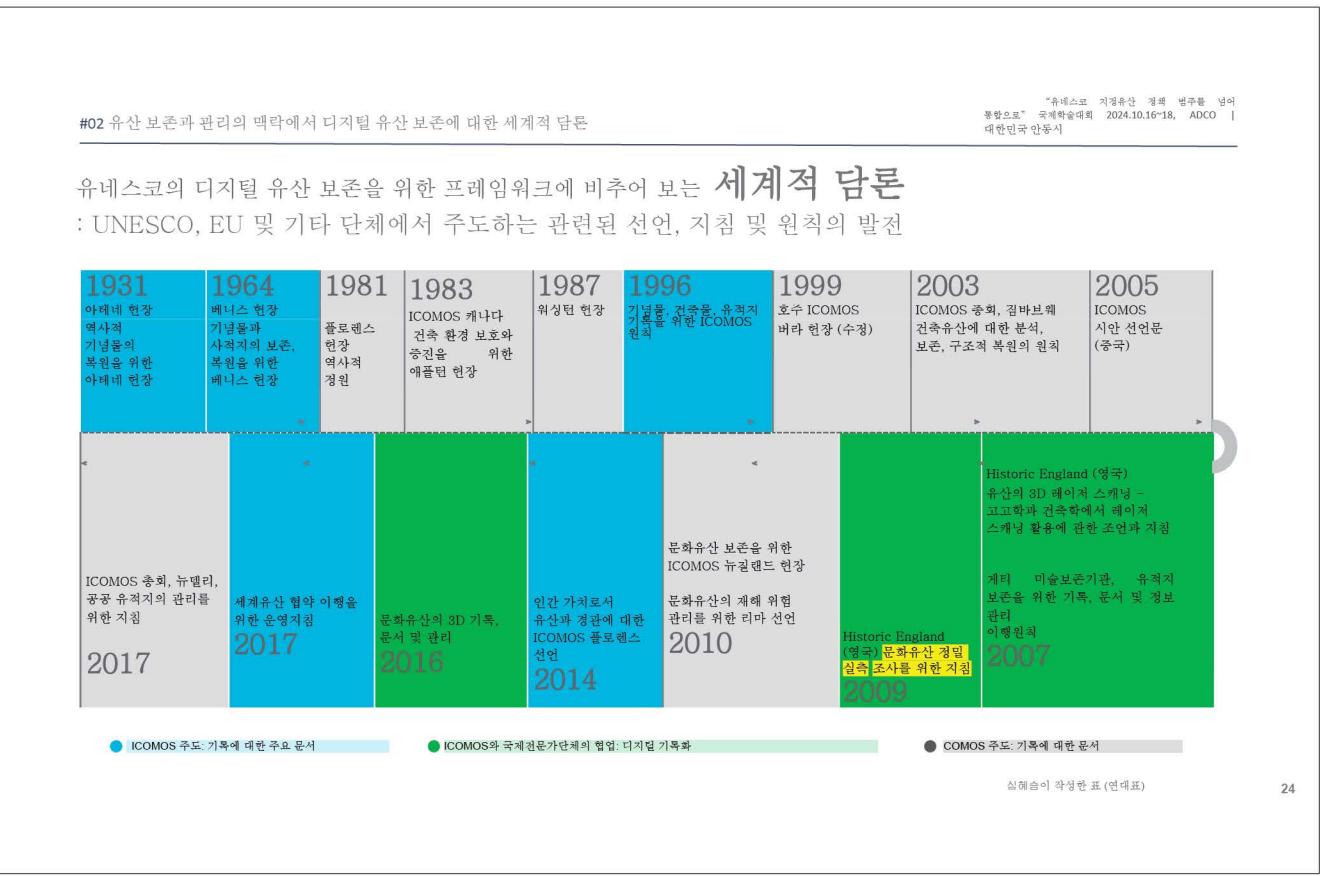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1954);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 협약(1970);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1972);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2003);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2005); 동영상 보호 및 보존을 위한 권리(1980);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다언어사용 증진 및 보편적 접근에 관한 권리(2003);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현장(2003).

부록:

출처: 유네스코 - Legal Affairs: 2015년 유네스코 권고 (유네스코 GS 제38차 총회)

20





“디지털화는 문화유산과 과학 자원의 보존 및 유지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육의 기회가 생기고, 관광을 장려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유산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2004년 DigiCULT (디지털 유산에 관한 기술적 도전과제)

출처: DigiCULT (<https://www.digicult.info/pages/info.php>) 25

세비야 원칙(2011)

가상 고고학의 국제 원칙

“아래에서 논하는 원칙은 산업 고고학 유산을 포함해 고고학 유산 분야에서 런던 현장의 이행을 개선하도록 런던 현장의 활용 조건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

출처: 런던 현장 (<https://londoncharter.org/introduction.html>) 27

런던 현장 (2009)

문화유산의 컴퓨터 기반
시각화에 관해

“(...) 런던 현장은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네트워크에서는 고고학적 해석, 재현 및 복원에 3D 시각화 활용에 관한 한 이러한 문서와 관련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과 목표

출처: 런던 현장 (<https://londoncharter.org/introduction.html>) 26

EU 권고사항 (2011)

문화 자료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접근성과 디지털 보존

“아래에서 논하는 원칙은 산업 고고학 유산을 포함해 고고학 유산 분야에서 런던 현장의 이행을 개선하도록 런던 현장의 활용 조건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

출처: 런던 현장 (<https://londoncharter.org/introduction.html>) 28

유네스코 PERSIST 지침 (2016)

장기 보존을 위한 디지털
유산 선정을 위해

“디지털 유산의 장기 보존은 **오늘날**
유산 기관들이 직면하는 가장
부담스러운 도전과제일 것이다. 현
세대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중요한
유산 자료를 보존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는 선별 기준과 수집 방침을
발전시키고 이해하는 것이다.” 결론

출처: 런던 협정 (<https://londoncharter.org/introduction.html>)

29

세계 유산 이니셔티브 (2021)

정보기술의 변혁적 영향

“정보기술의 변혁적 영향이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탄탄한 조직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같이 세계유산위원회에 정책 권고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담론을 갖도록 영감
을 주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유적지를 감독하고 다양한 해석
도구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제시할 수 있을지
탐구하고 있다.” 서론

출처: 우리의 세계유산 이니셔티브 (<https://www.ourworldheritage.org/>)

31

EU 기본 원칙과 팁 (2019)

유형문화유산의 3D 디지털화와
기타 문화유산의 관리인을 위한

“3D 문화유산자산에 관한 지침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다. (...) 과거 유럽의
문화유산을 책임지는 문화유산 전문가,
기관 및 지역 당국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 10가지와 수많은 팁을
포함한다.” 보고서

출처: 유럽의 디지털 미래 구축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basic-principles-and-tips-3d-digitalisation-cultural-heritage>)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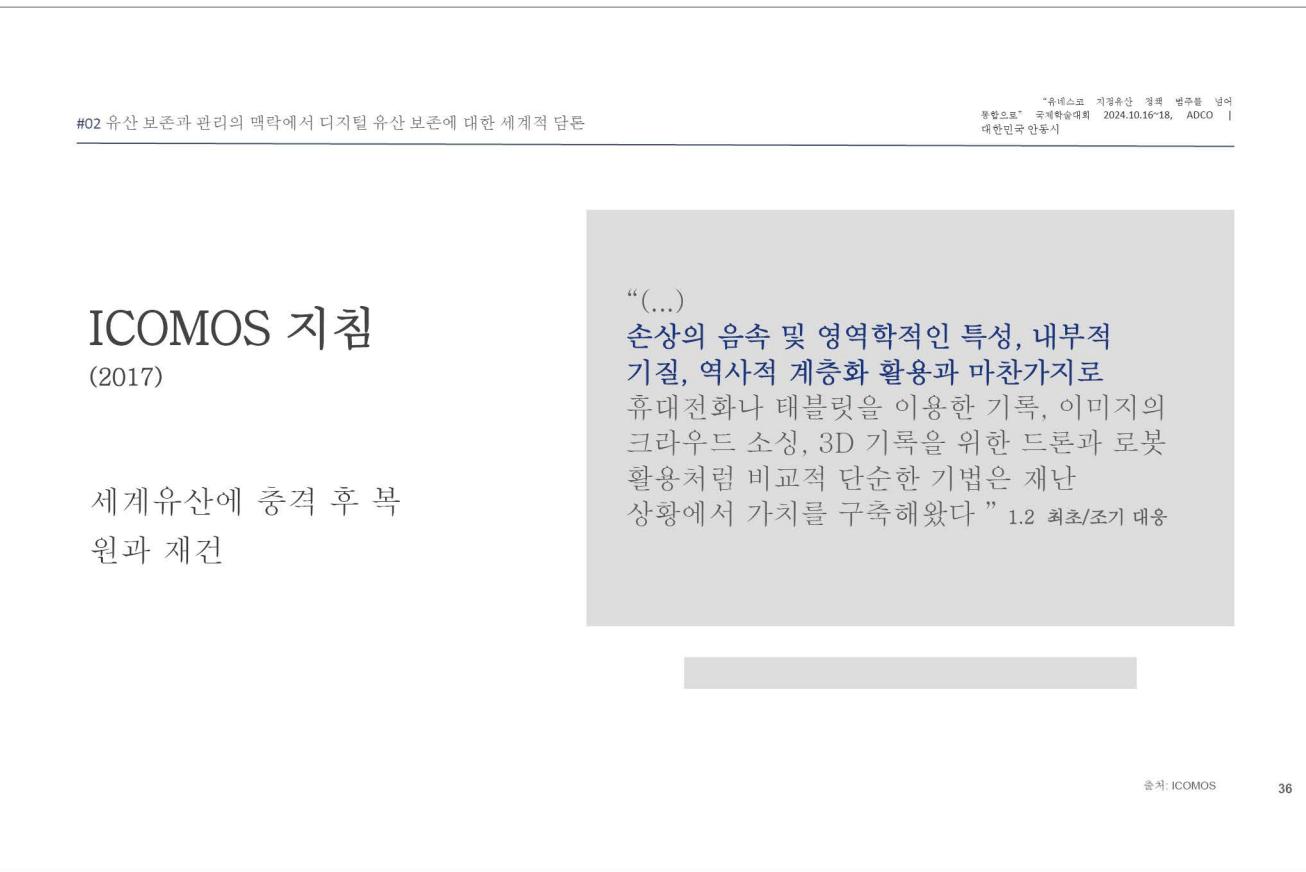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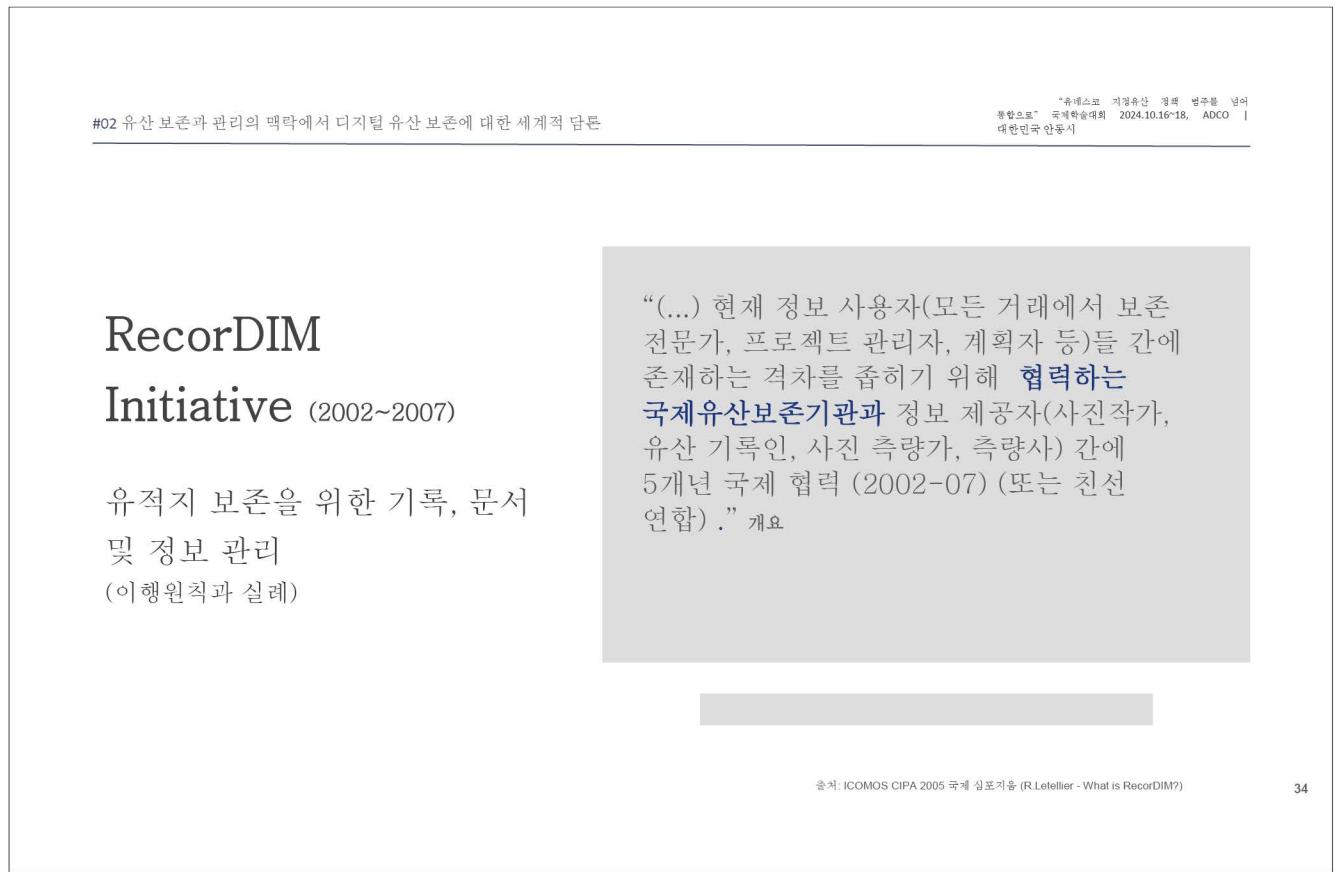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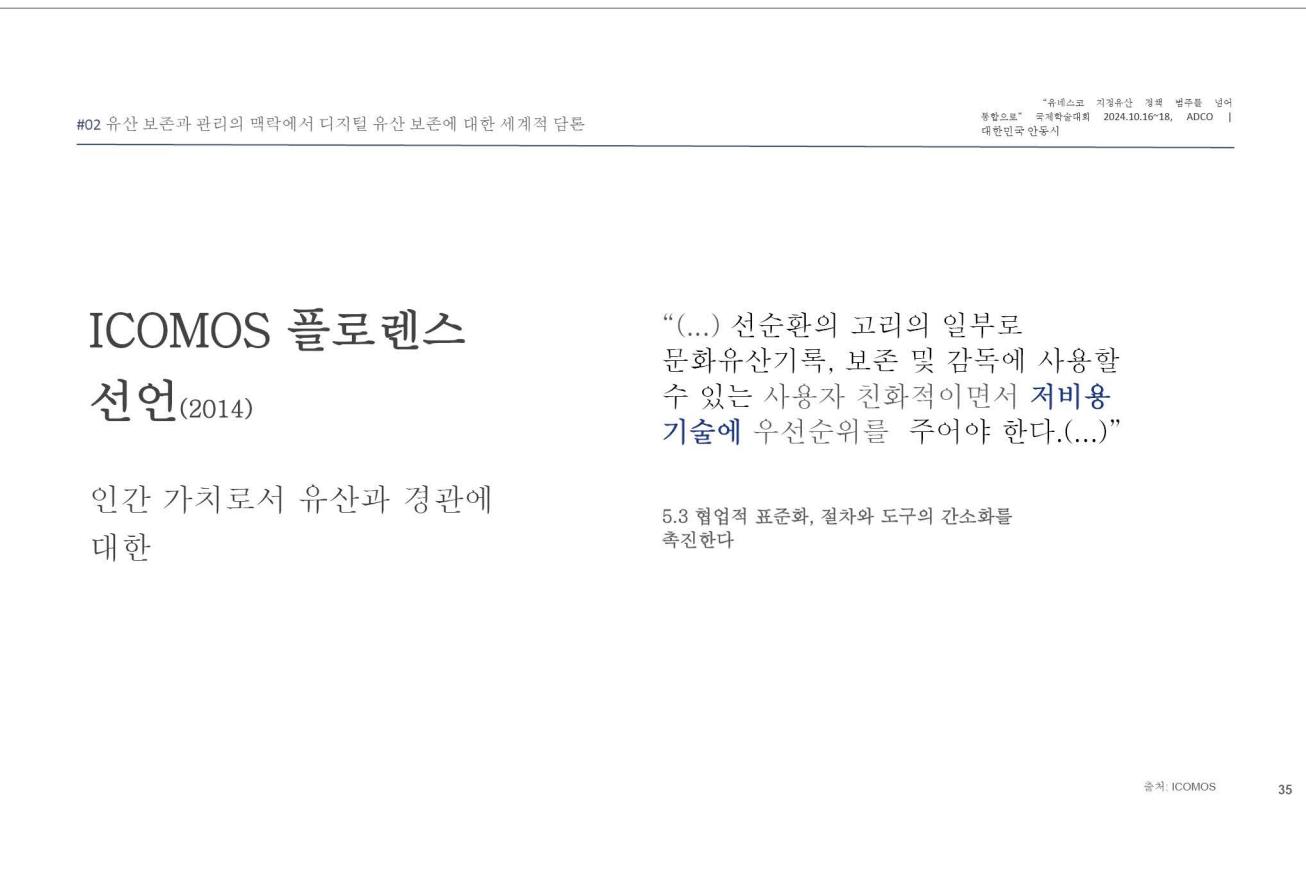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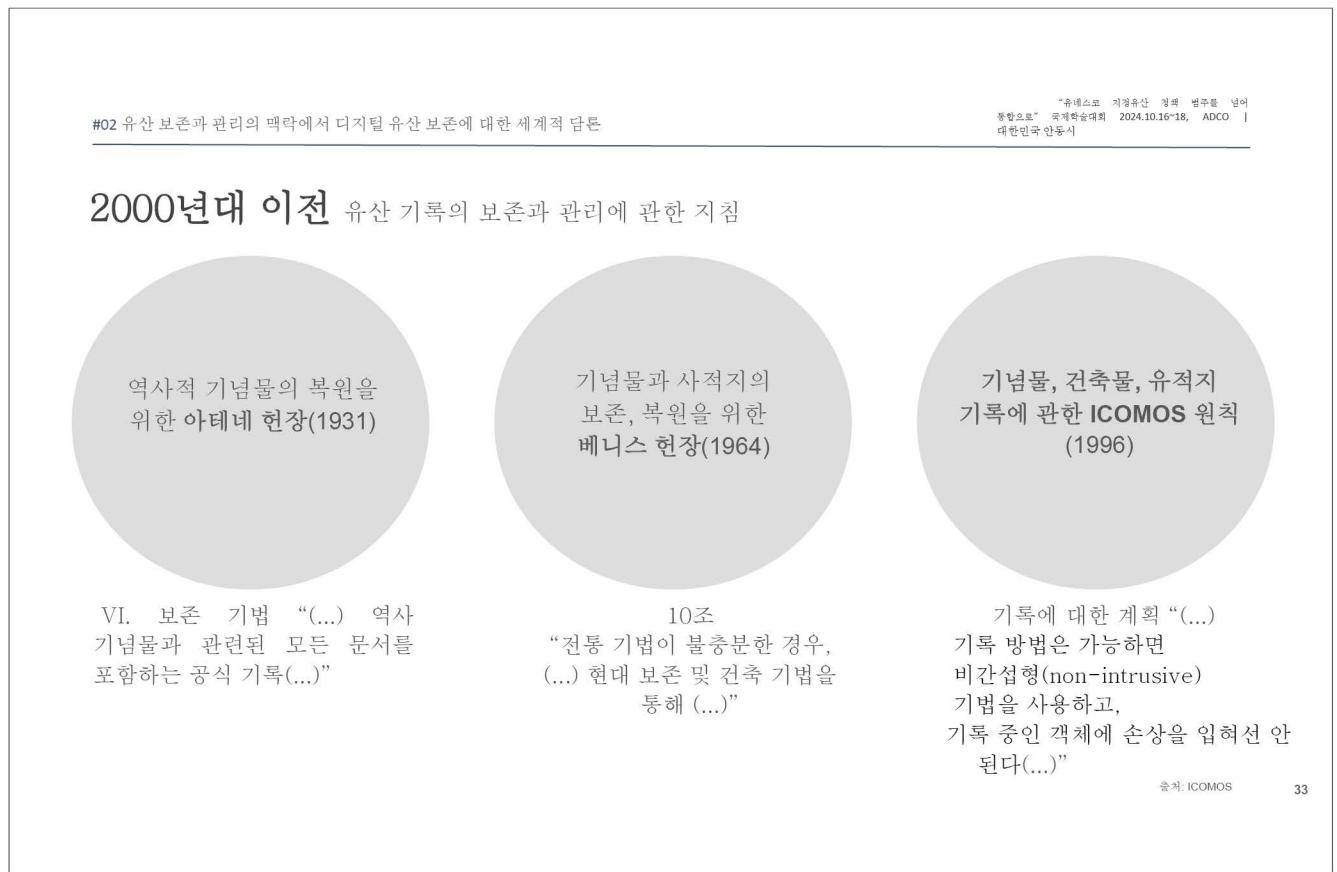
유네스코의 디지털 유산 보존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비추어 보는 **세계적 담론**
: ICOMOS 주도의 디지털 문서를 위한 선언, 지침 및 원칙 발전

- 2003
 - 유네스코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현장
- 2009
 - 문화유산의 컴퓨터 기반 시각화에 관한 런던 협정
- 2011
 - 세비야 원칙 가상 고고학의 국제 원칙
 - 문화 자료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접근성과 디지털 보존에 관한 EU 권고
- 2012
 - 유네스코/UBC 벤쿠버 선언 디지털 시대의 세계기록유산: 디지털화와 보존
- 2016
 - 유네스코/PERSIST 장기 보존을 위한 디지털 유산의 선별 지침
- 2019
 - 유형문화유산의 3D 디지털화와 기타 문화유산의 관리인을 위한 EU 기본 원칙과 팁
- 2021
 - 세계유산 이니셔티브 정보기술의 변혁적 영향

- 유네스코 주도
- 국제적 차원의 EU, 지역 및 소지역 이니셔티브
- 시민사회/역사사회 주도 (국제운동과 담론 구성)

실험승이 작성한 표 (연대표)

32



03

보존과 관리에 디지털 유산의 활용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주요 사업

#03 보존과 관리에 디지털 유산의 활용

“유네스코 지정유산 정체 범주를 넘어
통합으로” 국제학술대회 2024.10.16~18, ADCO |
대한민국 안동시

보존과 감독: 세계유산 온라인 맵 - 디지털 모니터링 틀



출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39

#03 보존과 관리에 디지털 유산의 활용

“유네스코 지정유산 정체 범주를 넘어
통합으로” 국제학술대회 2024.10.16~18, ADCO |
대한민국 안동시

상호연관: 전략적인 협력 프레임워크



정치 방향: 유네스코
프레임워크와 전략적 실행



다양한 부문을 통한
국제적 담론

구체적인 협약 이행:
세계유산협약



출처: 1, 2번재 이미지 - UNESCO | 3번재 이미지 - 작가

38

#03 보존과 관리에 디지털 유산의 활용

“유네스코 지정유산 정체 범주를 넘어
통합으로” 국제학술대회 2024.10.16~18, ADCO |
대한민국 안동시

보존과 감독: 유산 탐구 - 디지털 기록 이니셔티브



출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40

#03 보존과 관리에 디지털 유산의 활용

“유네스코 지정유산 정책 범주를 넘어
통합으로” 국제학술대회 2024.10.16~18, ADCO |
대한민국 안동시

관리와 전파: 유네스코 도시유산 아틀라스 – 도시유산 관리를 위한 디지털 툴

출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41

#03 보존과 관리에 디지털 유산의 활용

“유네스코 지정유산 정책 범주를 넘어
통합으로” 국제학술대회 2024.10.16~18, ADCO |
대한민국 안동시

보존과 관리: 세계유산 방침 개요

출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43

#03 보존과 관리에 디지털 유산의 활용

“유네스코 지정유산 정책 범주를 넘어
통합으로” 국제학술대회 2024.10.16~18, ADCO |
대한민국 안동시

보존과 전파: 세계유산 여정

출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42

04

디지털 유산 보존과 관련된 새로운 도전과제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유산 보존에 대한 집단적 노력의 필요성

214

215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처:

심혜승 박사 카이스트

디지털 헤리티지 랩 이메일:

hs.shim@kaist.ac.kr

hyeseungshim16@gmail.c

om



32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I: 사례연구

유네스코 지정유산의 보고 - 안동 하회마을

이상호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유네스코 지정 유산의 보고, 하회마을

- 지정 유산 3개 카테고리 등재의 의미

한국국학진흥원 이상호
2024.10.17

한국의 전통마을, 하회



하회(河回) : 역사와 물이 도는 마을

- 천혜의 자연환경이 만든 풍산 류씨 집성촌
 - 500년 이상 유지된 동성同姓 마을
 - 물들이가 만든 넓은 풍산 들을 경제적 기반으로, 사람과 역사, 문화가 침략되어 있는 전통마을
 - 물길과 큰고개로 인해 독립된 문화가 만들어져서, 독특한 문화와 민속을 고스란히 간직
- 한국의 전통마을(인물, 역사, 문화)
 - 인물 : 풍산 류씨 중심의 공동체 – 입향조 류종혜 입암 류중영, 겸암 류운용, 서애 류성룡 등
 - 역사 : 600년의 느티나무(삼신당)와 역사성
 - 문화 : 삶과 기록, 그리고 무형과 유형의 유산 (2종의 국보, 5종의 보물, 1종의 국가무형문화유산, 10종의 국가민속문화유산, 1종의 사적 등)

한국의 전통마을 하회, 그리고 유산

한국의 전통마을, 하회

하회(河回) :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유산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2010년 : 한국의 전통마을, 하회와 양동
 - 2019년 : 한국의 서원(병산서원 포함)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2015년: 유교책판(하회마을 책판 2,644점 등재)
 - 2016년: 한국의 편액(하회마을 편액 20점 등재)
 - 2022년: 내방가사(하회마을 소장 20점 등재)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 2022년 : 한국의 탈춤(하회별신굿탈놀이 포함)

☞ 유네스코 지정 유산 3개 분야에 모두 등재!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보존 노력: 유형, 무형, 그리고 기록



유네스코의 문화 분야 사업 : 인류가 만든 유산에 대한 보존 노력(기억과 전승)

- 세계 문화유산 :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 기념물과 유적지 등의 문화유산(화성, 하회마을, 가야고분군 등)
 -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과 같은 자연유산 포함 16종
- 인류무형유산 :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 등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농악, 제주해녀문화 등 22종
- 세계기록유산 : 세계의 기억 / 종이 기록을 포함한 모든 매체의 기록
 - 훈민정음해례본, 조선왕조실록 등 18종

한국의 전통마을, 하회

세계문화유산, 하회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보존 노력: 유형, 무형, 그리고 기록

유네스코 지정 유산 범주

구분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근거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1972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2003년)	기록유산 보호 일반 지침(1995)
시작 연도	1975년	2006년	1992년
지정대상	문화, 자연, 복합유산	무형적 표현방식, 기술 등	기록 및 정보, 정보매개물
사업분야	문화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속성	협약사업	일반→협약사업	일반사업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하회

등재기준 - 문화유산

구분	기준	사례
문화 유산	1 인간의 정의성으로 빛어진 결작을 대표할 것	오주 오페라 아우스
	2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원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 이 성당
	3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짙어도 특출한 풍토를 가질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4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에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중묘
	5 특이 번복할 수 없는 문화의 영향으로 퀴역에 있을 때 완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에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디마스 옛도시
	6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이로시마 원폭돔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세밀,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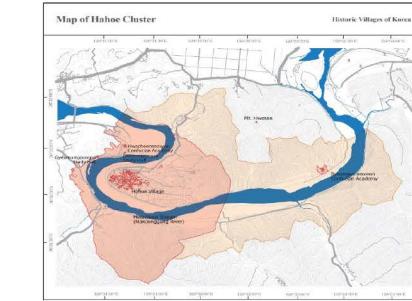
하회마을의 등재 조건 : OUV



- 등재 기준 III과 IV를 동시에 충족
 - 등재 기준 III :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거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
 - 등재 기준 IV :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하회

하회마을의 등재 조건 : OUV



- 등재 기준 IV :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
 - 하회마을에 적용 : 인류 역사의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 건축적 경관의 탁월한 사례
 - 의미 : 자연과 잘 조화된 뛰어난 경관과 그 속에 지어진 유교적 건축물은 조선시대 건축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예술적 가치를 잘 보여줌
- ☞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하회'라는 특징에 대한 인증이면서, 동시에 하회의 다양한 건축물이 가진 중요성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음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하회

하회마을의 등재 조건 : OUV



- 등재 기준 III :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거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
 - 하회마을에 적용 : 씨족 마을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 전적과 고문서, 유교의례, 마을신양, 민속놀이 등 양반문화와 마을 문화를 살피는 증거
- ☞ 인류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초기에 씨족 중심이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씨족 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완성된 사례라는 점에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인증을 받음
- ☞ 특히 기록 및 의례, 민속놀이 등의 무형적 요소가 지금까지 특정 문화로 전승되고 있는 데 초점을 맞춤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마을, 하회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마을, 하회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마을, 하회

● 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등재기준

기준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 2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치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기준 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기준 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푸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 5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마을, 하회

한국의 탈춤 등재 이유



- 탈춤은 ‘무형유산의 매개체로서 언어를 포함하는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의식과 축제행사 / 전통공예 기술’을 포함
- 등재 이유(등재 결정문) : 탈춤은 춤,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면서 보편적 평등을 주장하고 계급제의 모순을 비판/ 사회 비판 역할 외에도 지역 방언과 지역 민요를 포함한 지역 정체성 강화에도 영향을 미침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마을, 하회

하회별신굿 탈놀이



- 2022년 11월 30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17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
- <한국의 탈춤>은 13곳의 국가무형문화유산과 5곳의 시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18곳의 탈춤들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하회별신굿탈놀이’가 포함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마을, 하회

하회별신굿탈놀이

-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하회마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분적 질서를 해학으로 비판함으로써, 보편적 평등성을 강조하고 계급제 모순을 비판 :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가능하도록 유도

- 양반 계급에 의해 보장되고 지원된 탈놀이를 통해, 신분제의 갈등을 해소하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 → 500년 이상 씨족 공동체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기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보고, 하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

1.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 : 진본인지와 기록물 구성의 완전성
2. 독창성과 대체불가성: 특정 시대/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이 기록을 손실 혹은 훼손했을 경우 인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만큼 중요한 유산인가?
3. 세계적 중요성 : 다음 세 가지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은 충족
 - 역사적 중요성 : 정치 및 경제적 발전, 사회적 또는 정신적 운동/ 인물/ 중대한 사건/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 / 독특한 현상이나 관습/ 삶과 문화의 변화/ 역사적 전환 / 예술, 문화, 과학, 기술, 스포츠 또는 삶과 문화에서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
 - 형태와 양식 :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졌거나, 형태 및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되는 경우
 - 사회적, 공동체적 또는 종교적 중요성 : 특정 공동체가 해당 기록유산에 갖는 정서적 애착, 또는 현재 시점에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회적 응집에 기여하는 경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목적



1. 세계의 중요한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여 잘 보존한다
2. 기록유산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향상 시킨다
3. 기록유산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을 제고한다

“세계기록유산사업”의 목적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시작된 **세계기록유산목록화 사업 (Memory of the World Register)**을 1995년부터 시작

기록유산 등재 제도는 한 국가의 문화와 역사의 우수성을 공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록유산이 담고 있는 특별한 기억(정보, 지식, 경험 일체)을 세계와 공유하는 사업
- 국가 문화재 지정과 다름

하회의 기록들이 포함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2015년 등재된 <유교책판>(국제목록)
- 718종 64,226점의 책 간행을 위해 판각한 목판(305개 문종에서 기탁)
- 공론을 통해 출판이 결정되고, 공동으로 책을 출판했던 ‘공동출판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기록물로 인정을 받음
- 유교적 집단 지성의 결과물로, 기록을 전승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대표
- 2016년 등재된 <한국의 편액>(지역목록)
 - 특정 건물이나 공간을 2~3개의 글자로 규정하거나 이름붙여 써 놓은 나무판 550점
 - 2~3개의 글자에 인문학적 가치를 포함함으로써, 특정 공간을 유교적 가치를 전승하는 공간으로 변모 : 인문학적 가치 전승의 증거
 - 당대 최고의 서예가들이 남긴 글씨들이어서, 서예미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보고, 하회

하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유교책판
- 하회마을이 소장해했던 유교책판은 총 718 종 64,226점 가운데 35종 2,644점
- 중요 인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개인문집(겸 암선생문집, 서애선생문집, 수함선생문집 등)과 중요 저작(징비록, 침경요결 등), 그리고 유학 경전 등의 책판
- 마을의 인물을 기억하고, 그들의 정신과 삶을 전승하는 기저로 작동

- 한국의 편액
- 전체 550점의 등재 유산 가운데, 하회마을에서 소장했던 편액은 총 20점
- 전서체의 대가였던 미수 허목의 글씨로 쓰여진 '충효당'을 비롯한 서원 및 누정, 당호 등 의 다양한 편액들이 등재
- 유교적 이념을 2~3개의 글자로 전승함으로써, 마을의 정신을 유지하려는 노력

한국 중요 등재 유산의 특징 - 다중 카테고리 등재

유사사례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에 포함된 도산서원 사례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국제))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편액
(세계기록유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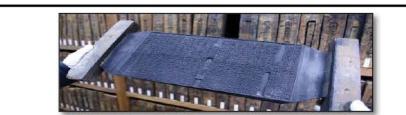
만인의 청원, 만인소
(세계기록유산(지역))

하회마을의 유네스코 지정유산

하회마을의 유네스코 지정유산

하회마을-다중 카테고리 등재의 대표적 사례

하회마을 : 3대 카테고리에 모두 등재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국제))



하회의 편액
(세계기록유산(지역))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



하회탈춤
(인류무형문화유산)

다중 카테고리 등재 유산을 가진 하회의 특징



하회 _ 카테고리별 등재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음[기록과 무형이 세계유산의 이유로 작용]

세계유산 _ 한국의 전통마을(하회와 양동) : 한국의 대표적 씨족 마을로, 500년 이상 동성마을이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고수하며 이어진 대표적 사례 / 오늘날까지 삶과 문화가 존재



기록유산 _ 유교책판과 편액 : 500년 간 학문적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고, 마을의 정신이 유교문화와 도덕정신을 잊게 하는 요소(씨족 마을의 역사와 정신을 만든 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_별신굿탈놀이 : 단위 씨족 마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씨족 마을을 유지해 온 문화적 자산이 무형유산으로 등재)

다중 카테고리 등재 유산을 가진 하회의 특징



유네스코 유산 정책에서 하회마을이 갖는 의미[3대 카테고리 등재 의미]

유네스코 유산 정책의 개념을 넘은 사례

- 3대 카테고리는 유산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 각 카테고리는 독립성을 갖는다고 생각(유네스코)
- 이러한 카테고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 : 각 카테고리별 엄밀성과 중요성 제고

3개 카테고리에 등재? : 유네스코 지정 유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 3개 카테고리에 모두 등재된 희귀한 사례 : 각 카테고리 등재 이유가 서로 연결되어 하회마을을 구성
- 하회마을에 대한 유산 정책 방향 그 자체가 유네스코의 유산 정책의 첫 걸음(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방향



하회마을의 유네스코 지정 유산에 따른 정책 방향

정책 방향



기본 방향



기록이 만드는 장소(공간)의 가치 : 기록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 기록유산이 가진 많은 스토리를 통해 하회마을이라는 공간이 가진 가치 제고
- 이야기로 이해하는 세계유산, 기록이 만드는 새로운 가치 공유



무형이 만든 하회의 문화 가치 : 무형이 만든 세계유산의 OUV

- 500년 간 동성 마을을 유지시켜온 문화적 힘_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공간
- 몸으로 배우고 눈으로 보는 새로운 문화유산_부동산 유산에 사람의 숨결 불어 넣기



카테고리별 유산 개념을 넘어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서의 하회

- 3대 카테고리가 만들어 낸 하회의 고유성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사람과 삶의 공간)
- 살아 숨쉬는 유기적 존재로서의 하회를 그대로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 필요



- 정책 방향**
- 정책의 핵심**
1. 유형과 무형, 그리고 기록이 살아서 함께 움직이는 유기적인 유산으로 새롭게 가치를 재조명해야 함
 2. 통합과 연대, 그리고 다양한 현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활용성 높은 유산 정책 : 통합 관리 기구
 3. 하회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유산 정책(하회에 대한 정책이 유네스코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음)
 4. 세계가 인정한 가치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이를 현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해석, 공유, 그리고 활용)



감사합니다.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I: 사례연구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와 국제 연대의 구축:
유네스코의 가치를 실현하는 조선통신사 기록유산

조정윤

-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新朝鮮通信使
UN SDGs의 문화적 실천
문화예술에 의한 평화와 연대
Cultural implementation of the UN SDGs
Peace and solidarity through culture and arts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조정윤
operagoer@gmail.com
Cho Jung Yun, Executive Director
operagoer@gmail.com

유네스코 문화정책
UNESCO Cultural Policy

유네스코 협약과 문화다양성
The UNESCO Charter & cultural diversity

유네스코는 문화 다양성에 기반 '평화 증진', '상호 이해와 존중 증진', '지식 공유 및 보급', '인권 존중'에 역점
UNESCO is mainly concerned with 'promoting peace',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knowledge sharing and dissemination'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based on cultural diversity

유네스코 정책 동향
Trends in UNESCO cultural policy

2018년 'Culture for the 2030 Agenda'를 공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5개 분야에서 문화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을 선언
In 2018, the Culture for the 2030 Agenda was released, declaring culture'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five area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부산문화재단 정책 어젠다
Busan Cultural Foundation Policy Agenda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연대·협력'이라는 유네스코 협약의 중요한 가치를 전 세계 발신
Promoting the UNESCO Charter's overarching value of 'Sustainable Peace, Solidarity and Cooperation through Culture' to the world

문화예술에 의한 평화와 연대의 배경
Background on peace and solidarity through the arts

1 UN SDGs의 문화적 실천 Cultural realisation of UN SDGs
유엔은 2015년 17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채택함. 문화 분야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문화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계에서 SDGs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사례 증가
The UN adopted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5. While the cultural sector isn't directly included, the SDGs are increasingly embraced by the cultural community, especially UNESCO, to enhance culture's social impact

2 문화의 역할과 파트너십 Role of culture and partnerships
국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포럼(WEF)은 2023년 주제를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으로 설정
As efforts for peace and solidarity intensify across various secto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has chosen the theme 'Cooperation in a Disjointed World' for 2023.

3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Busan Cultural Foundation's Vision 2030
2019년 발표된 부산문화재단의 비전 2030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아시아 해양문화 허브 구축'을 전략 과제로 둠
The Busan Culture Foundation's Vision 2030, released in 2019, sets out 'Creating a sustainable urban environment' and 'Building an Asian maritime culture hub' as strategic issues.

Culture for the 2030 Agenda

사람(PEOPLE)
문화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
The aim is to improve people's quality of life through culture and to create a society in which no one is left beh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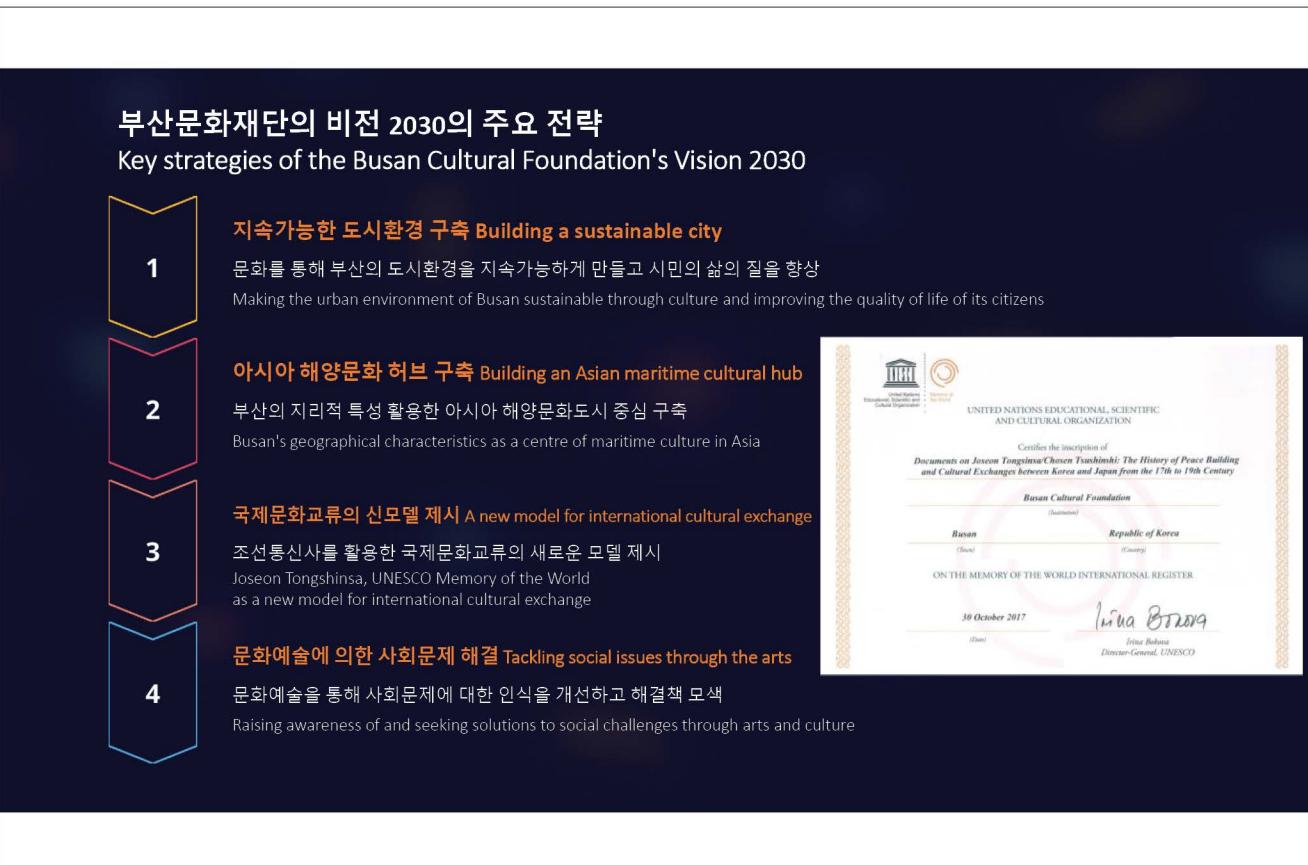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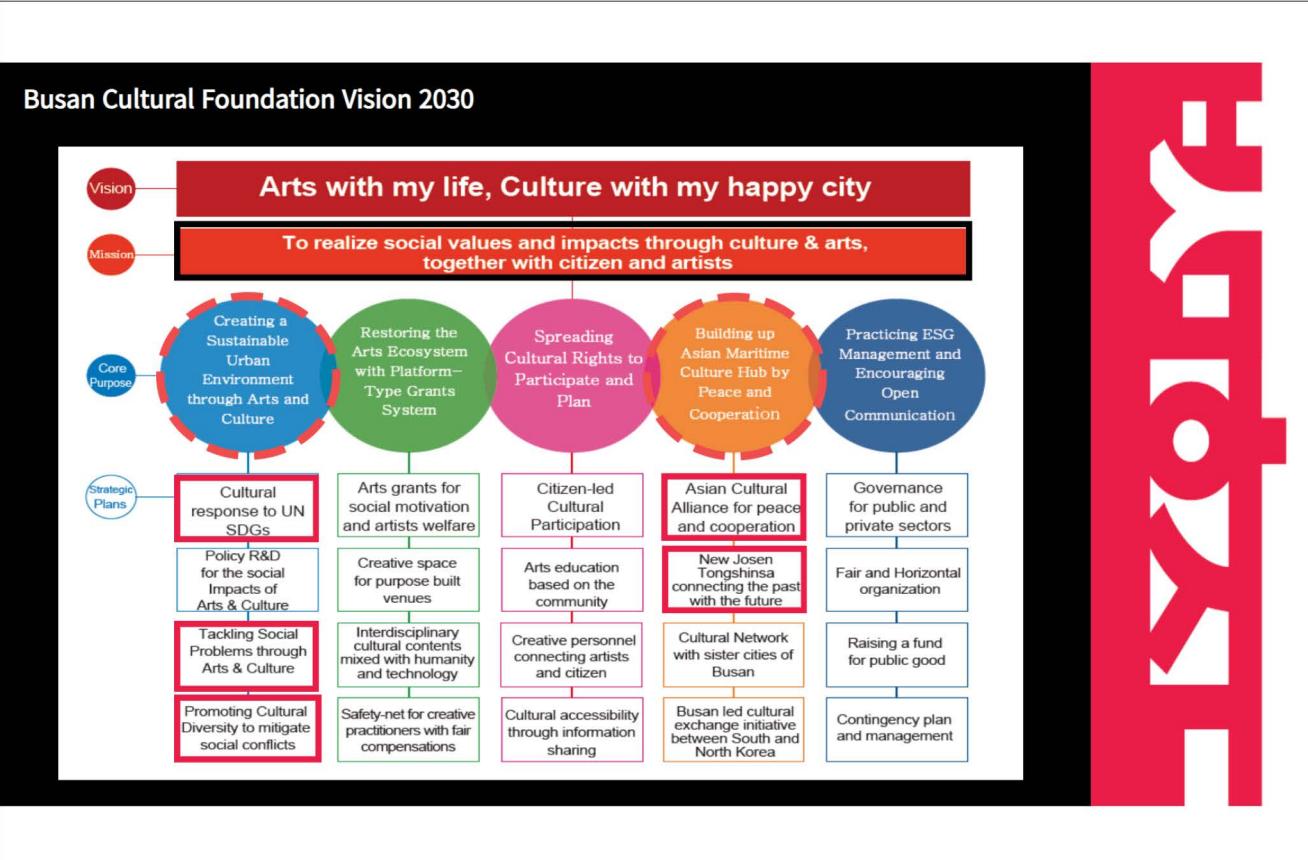
세계(PLANET)
문화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Promot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ulture

번영(PROSPERITY)
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적 번영 실현
Achieve economic prosper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ies

평화(PEACE)
문화 교류를 통해 국제 평화와 상호 이해 증진
Promote international peace and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cultural ex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世界を変えるための17の目標

1 貧困をなくす	2 健康を確保する	3 すべての人に機会と選択権を	4 質の高い教育をみんなに	5 ジュニアサミットを実現しよう
6 幸福な命をとくらしを実現する	7 こどもや青年の安全と保護を	8 働きがいも経済成長も	9 産業と创新の基盤をつくり	10 全ての人の不平等をなくす
11 持続可能な都市と人間居住地を	12 つくる責任つかう責任	13 経営資源に持続可能な開発	14 海の豊かさを守る	15 植生を守り育てる
16 文化と多文化尊重のための平和な社会をつくる	17 ハーバル・ツール・リソースを保全する	18 男女の差別をなくす	19 気候変動に取り組む	20 すべての人に持続可能な開発目標を達成する





정책제안 및 향후 과제 Policy proposals and future issues

- 지속 가능한 협력 채널 구축 Creating sustainable cooperation channels**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유네스코 일본 국내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정책적 연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논의의 장 마련
Establishing a sustainable discussion forum for policy solidarity with UNESCO Headquarters, the Asia-Pacific Commission for UNESCO, the Japanes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the Korean Commission for UNESCO
- 부산 문화 컨퍼런스 정례화 Regularisation of the Busan Cultural Conference**
국내외 주요 예술문화기관과 연계, 국제 문화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부산 문화 컨퍼런스 정례 개최
Promotion of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s hosting of the Busan Cultural Conference to focus on international cultural policy in collaboration with key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ts and cultural organizations
- 문화 실크로드 구상 Envisioning a cultural silk road**
아시아와 유럽 도시를 연결하는 예술문화 교류의 플랫폼으로서 '문화 실크로드' 구상에 대한 협력과 논의
Cooperation and discussion on the 'Cultural Silk Road' concept as a platform for artistic and cultural exchange linking Asian and European cities.
- 문화외교 어워드 제정 Establishment of the Cultural Diplomacy Award**
평화와 협력을 위한 문화이동(cultural mobility)과 문화연대(partnership)에 기여한 세계 문화관계자를 대상으로 '문화외교 어워드 (cultural diplomacy award)' 제정
Cultural diplomacy award for world cultural figures who have contributed to cultural mobility and partnership for peace and cooperation.

新朝鮮通信使에 의한 한일문화교류 플랫폼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Platform by New Joseon Tongshinsa

한일 유네스코 연설회의 정례화
Regularisation of joint UNESCO-Korea Japan meetings

한일 공동 세계기록유산인 조선통신사를 계기로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한일 유네스코 학동회의를 양국이 상호 개최

Korea-Japan UNESCO conferences alterna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promote 'peace and cooperation through cultural exchange' using the Joseon Tongshinsa and the joint UNESCO Memory of the World.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강화
Expansion of youth exchange programmes

한-일 양국 유네스코위원회 역사문화교류 프로그램 확대 추진 및 청소년 대상 역사문화교류 캠프 지속 개최로 양국의 상호 이해 증진

Expand and sustain UNESCO history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s for youth to foster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아티스트 교류 지원
Artist exchange support

부산문화재단의 비전 2030에 따라 한일 예술가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조선통신사 문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한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확대되는 예술 국제교류 지원

Support exchanges and joint project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artists, and expand international art and culture exchanges based on the Japan-Korea network from the Joseon Tongshinsa programs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I: 사례연구

역사(iστορίā)의 주요 원천으로서 세계유산(WH), 인류무형문화유산(ICH),
세계기록유산(MoW): 단지 수단이 아닌 항상 목적으로써

미츠루 하가

- 일본 도호쿠대학교 교수

역사에 관한 주요 원천으로서
세계유산(WH), 인류무형문화유산(ICH), 세계기록유산(MoW)
: 단지 수단이 아닌 항상 목적으로써

유네스코 지정유산 국제학술대회:
안동 하회마을

주제 세션 3: 사례연구

2024년 10월 17일, 안동

미츠루 하가 (Mitsuru HAGA)

일본 도호쿠대학 교수

유네스코 MOWCAP 부의장

일본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 위원장

일본학술회의 이사회 회원

일본 사례 연구: 특징

- 강우대로 덮인 일본 → 자연이 무성한 녹색을 띠고 파릇파릇하다

“도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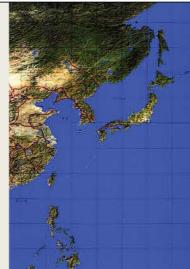
젖은 식물과 같은 도시 또는 문명:
자연은 언제나 돌아와서 만물을
다시 자라게 한다

“뉴욕”

마른 암석을 쌓는 것 같은 도시 또는 문명:
진압되어 사망한 자연



일본 사례 연구: 특징



- 일본 군도 – 본토 아시아:
멀진 않지만 바다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 외부 세계와 최소한의 접촉:
특히 한반도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수입 또는 침범

예: 인력, 쌀 경작, 금속 공예품, 철기류, 한반도를 통한 불교, 한자, 중국법, 중국 도시계획과 서구 문명 등

- 해외문화 요소를 흡수, 모방, 복제, 이해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에 뛰어나다.
- 예: 들여온 중국 한자에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만들었다
- “섬에 있으면 좋고 벗어나면 그렇지 않다”
- (교수 겸 초대 문화부 장관, 李御寧 이어령 Yi Oryeong 『縮み』 志向の日本人 축소지향의 일본인 1982)

일본 사례 연구: 종교적 관점

- 강우대로 덮인 일본 → 비옥하고 파릇파릇한 자연은 다음을 발생시킨다.
애니미즘 또는 다신교와 더불어 선조들의 숭배, 혈족과 영토 연결로
유대가 생긴 지역사회의 신념

술배자의 수

- 신도 신자	102,756,326.
- 불교 신자	84,652,539.
- 기독교 신자	2,773,096.
- 기타	9,435,317.
- 총계	199,617,278.
일본 인구	128,057,352.

일생에 4가지 종교

출생 전후: 신도

삶에 대한 태도나 윤리: 유교

결혼:

기독교 (儒教 문화)

장례:

불교



Kitty-chan 신사
고후시 야마나시현(Yamanashi-ken) 쇼핑거리에서,
2013.1.27.



만화 “세인트 영메”
(Saint Young Men)
『聖 (セイント) おにいさん』 예수와 부처가 도쿄
댄킨방서 함께 산다면



만화 “세인트 영메”
(Saint Young Men)
『聖 (セイント) おにいさん』 예수와 부처가 도쿄
댄킨방서 함께 산다면



신도 정화
F35A 라이트닝

일본 사례 연구: 종교적 관점



나치폭포
신 자체로서

Nachi Taki Zu (나치폭포圖), 13세기 말,
나조 미술관, 天賜瀑布圖
「萬木草堂藏」, 朝鮮美術

신들의 연회



- 일본식 불교 개념
Soumoku-kokudo-shikkai-jyoubutsu
(草木国土悉皆成仏)
= "풀, 나무, 대지– 모든 것이 마땅히 성불한다."
= 자연세계의 모든 것, 풀, 나무, 대지, 심지어 살아 있지 않은 물체, 그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불성(仮性 부처의 본성)" , 모든 존재와 사물 안에 깨달음 또는 성불하고자 하는 내재된 잠재력 또는 본성.

G7 정상회담 지도자들에게 (이탈리아, 일본,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https://www.sci.go.jp/ja/info/kohyo/pdf2/kohyo-26-gs2024.pdf>)

제시할 세계적 문제에 관한
권고와 관련해 G7 Academies의 공동성명서
(2024.4.11-12 발표, 린체이 국립아카데미, 로마).

6개 성명서 중

- 6번째 성명서 : 문화유산의 과학통신. 집단적 뿌리의 지식과 대중 인식
- "문화유산" 의 정의에 대한 논쟁: 일본 vs. 6개의 서양 국가
 -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1947), 제9조" 공화국은 문화 발달과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한다. **공화국은 자연경관과 국가의 역사적 및 예술적 유산을 보호한다.** (La Repubblica promuove lo sviluppo della cultura e la ricerca scientifica e tecnica. Tutela il paesaggio e il patrimonio storico e artistico della Nazione.)"
 - 성명서 6-1번: "문화유산" 은 자연에서 인간 문화의 유무형적 산물을 **비롯해** 문화적으로 중요한 경관을 생성하는 자연 세계에 그러한 문화가 미치는 변혁적 효과와 인간의 유해에서 수집한 정보(과거 인간의 생물학적 기록물로 간주)도 포함한다." ~문화가 자연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연은 어째선지 문화로부터 분리되어 그 대상으로 남아 있다.
 - 6-9번: "문화유산의 접근성과 기쁨은 국제인권규범을 기초로 하며, 개인과 지역사회가 문화유산을 인지, 이해, 유지 및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로 포함한다. 문화유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 6-9번: "문화유산의 본국 송환 역시 G7 프레임워크를 넘어 국제적인 맥락에서 **다를 필요가 있는 민감하면서 자주 논의되는 문제다.**"

일본의 사례연구에서:

정확히 무엇이 기념물인가? 자연과 문화의 관계에 관한 질문

- 일본의 기념비적 인공 기념물은 중국, 이집트, 인도, 그리스 등 국가의 것들과는 다르다
- 후지산은 (WH) 기념비적이다. 하지만 자연산에 해당한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쉬모어산이 아니다. 오히려 와이오밍주의 악마의 탑에 가깝다.)
- 우리는 자연산에 대한 종교적 및 역사적 의식을 보호하고 있다.



→자연유산은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새로운 용어

문화재 (文化財 Cultural Property) (1962~)

= 물질적 대상으로서 **인공물**에 집중

→

국가유산 (国家遺産 National Heritage, K Heritage) (2024/5/17~)

= 한국의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역사, 예술, 학문, **경관**의 가치를 의미.

세 가지로 분류된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현대 일본은 「課題先進國」이다:

자연재해, 환경문제, 출생률 감소, 인구감소, 인구 고령화, 에너지 공급 문제, 방사선 위험, 다른 국가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타 문제 등 고유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선구자적 상태

자연 재해 (自然災害)

2011.3.11
도호쿠 지진과 쓰나미



인간에 의한 재해 (人災、「文明災」)

2011.3.1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재난 예방과 완화



브라질 국립 박물관 (2018)



복원 건물,
슈리 성(WH), 일본(2019)



노트르담 대성당(WH)
파리(2019)
스테인드 글라스 리뉴얼?

일본에서는 국립문화재기구가 2020년에 문화유산재난위험관리센터를 설립하였다

발생 가능한 모든 종류의 재난으로부터 문화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센터는 문화유산재난위험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계획을 작업 중이다.

재난 영향 관리에 대한 기록 보존

태안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한 기록물:
사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 (한국) (MOWCAP 2022)

재난 예방과 완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 쓰나미 → 전체 전력 손실 → 폭발
→ 방사선 오염된 문화재.

→ 구소련 체르노빌 이후 보고 없음

→ 일본, 있음

C. Sano, Y. 야마모토, "구조된 역사적 사물: 후쿠시마 접근제한 구역의 지역사회 활성화", ICOM 국제박물관협의회 65권, 1-4호, 2015년 5월.

● 공기중 방사선오우드의 반감기는 8일이다.

방사능 오염 구역은 최소 8일, 되도록이면 3차 반감기(=24일)까지는 접근하지 않는다.

● 토양 내 방사능 세슘, 공기의 흐름, 비, 토양의 지리적 특징을 연구하고 분석한다. 오염상태의 지도 표시와 정부의 공식 발표가 필요하다.

● 벽은 20 cm 이상 두께여야 한다. 공기정화를 중단한다.

● 기록 보관소, 도서관, 박물관은 훌륭한 피신처다.

● 가이거 월러 카운터가 필요하다. 1,300cpm 이상의 문화재는 버린다.

● 근로자(남성)는 50대 이상이어야 한다. 방사능 노출을 통합한다.

● 방사능 오염 문화재 관리 보고서;



새로운 개념: “재난 추모” (震災遺構)



일본의 실패와 성공으로부터 배운다. 일본은 여러분과 공유할 의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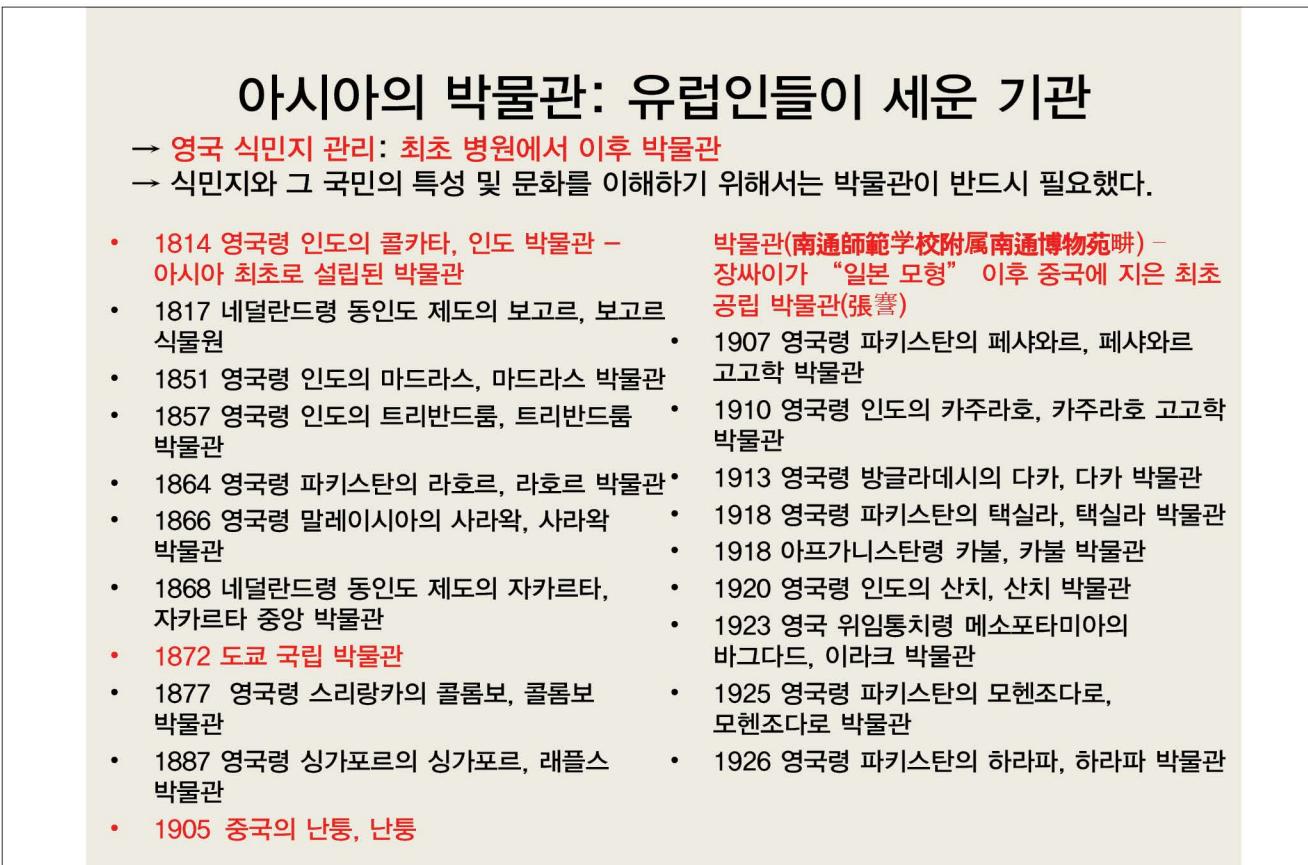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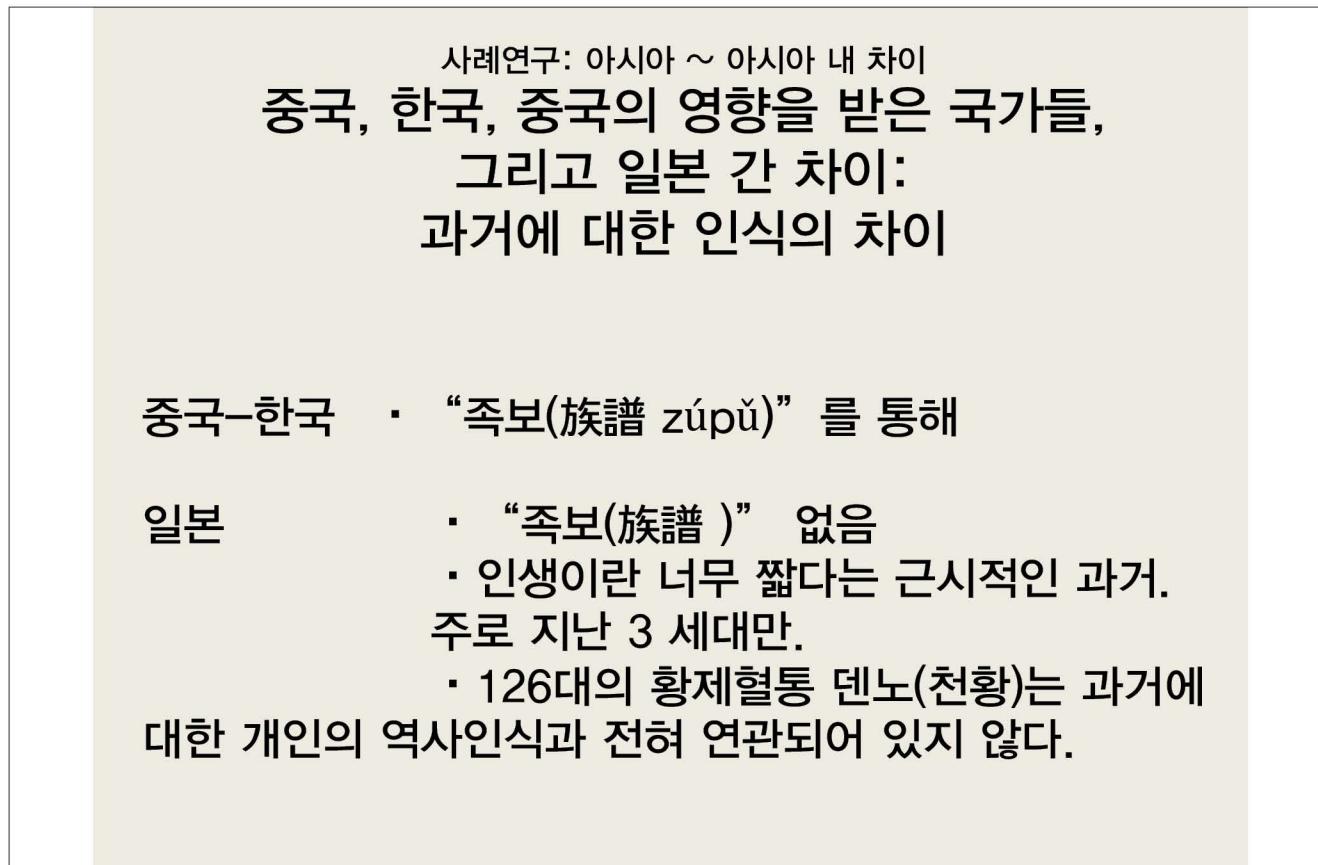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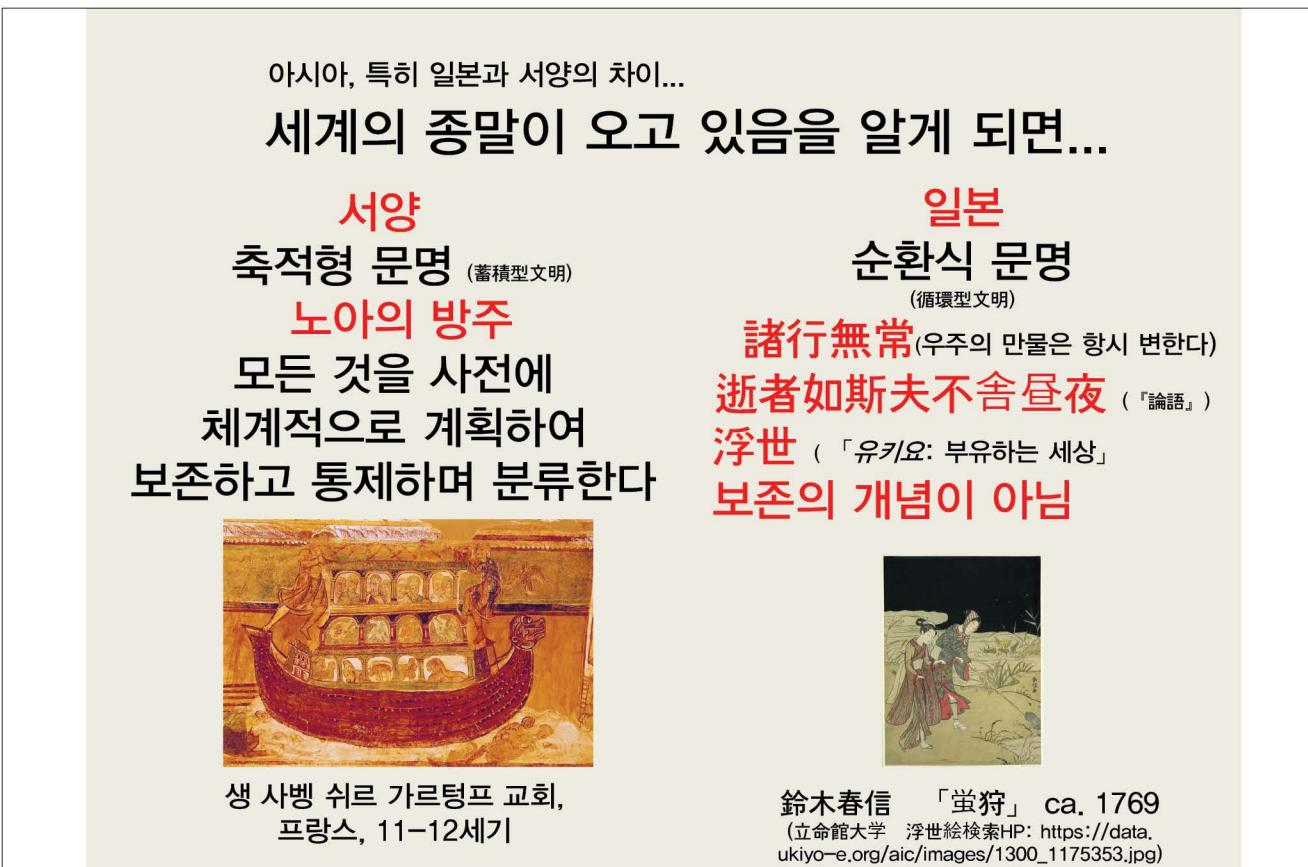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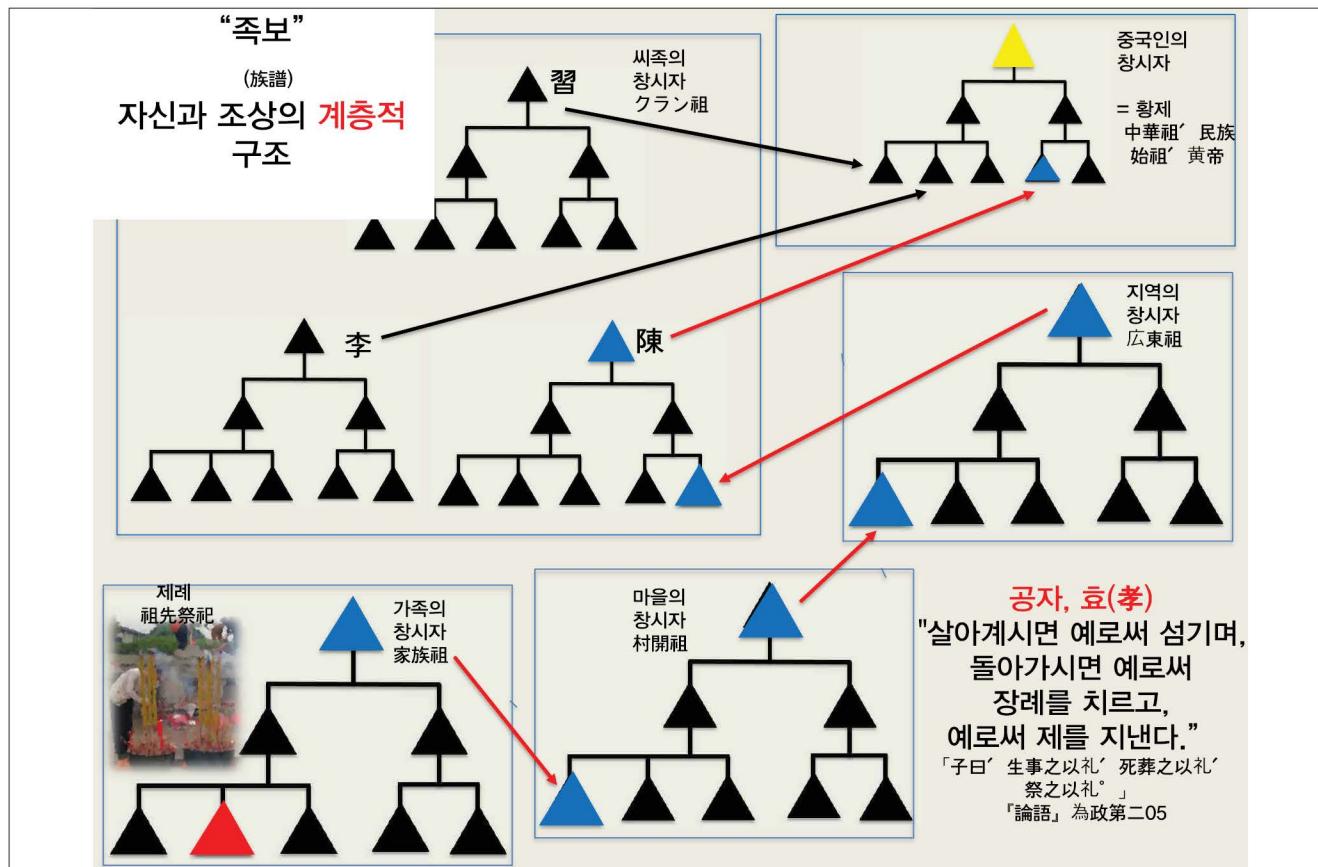
사례연구: 아시아 ~ 아시아 내 차이

중국, 한국, 기타 유교 국가들, 그리고 일본의 차이:
과거에 대한 인식의 차이

중국-한국 · “족보(族譜 zúpǔ)” 를 통해



한국국학진흥원(韓國國學振興院收蔵庫)



현대 서양과 현대 아시아의 차이

공통된 “고대 그리스·로마” 유무.

서양: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원한 “유럽 역사”

- 파르테논 신전 (WH “아크로폴리스”): 그리스 신전→기독교 교회, 모스크→베네치아 군의 포격으로 탄약창 폭발 → 나치에 대한 저항의 상징→ 사적지와 관광 자산 → WH
- 파르테논 신전 (WH “로마 역사의 중심”): 로마 신전 ”FECIT”
“M · AGRIPPA · L · F · COS · TERTIVM” 작품 → 라파엘로 무덤이 있는 로토나(La Rotonda) 교회.
- 튀르키예의 에베소(WH): 그리스 로마 도시, 사도 요한이 묻힌 성 요한 대성당 성모 마리아가 승천하기 전 성모마리아의 집.
- 튀르키예의 야야 소피아(WH): 기독교 교회→ 모스크→ 박물관→ WH→ 2020년 그랜드 모스크



현대 서양과 현대 아시아의 차이

아시아

공통의 “역사” 도 아니고 문화적 유대도 아니다

- 일본 제국의 “최대판도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사실상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군의 팽창주의 발현에 불과) → 아니오!



와다 산조

“열렬한 아시아인을 위한 만다라”
1940(和田三造 《興亜曼荼羅》 1940 国立近代美術館)

“대동아공영권”

발리, 인도, 태국, 미크로네시아, 한국,
중국의 건물과 의상 중에 중심에는
흰색 대형 대리석 좌대와 일본을
상징하는 조각상이 위치한다.

- 그렇지만 전혀 일본 양식이 아니며,
2명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탄
빅토리아(로마 승리의 여신)를
주인공으로 하여 이러한 맥락에서 조차
고전적인 그리스-로마 전통을
떠올리게 한다.

· 현재 아시아에서는?
그 안에서 아시아의 집단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공통된 “고대 그리스·로마” 의 존재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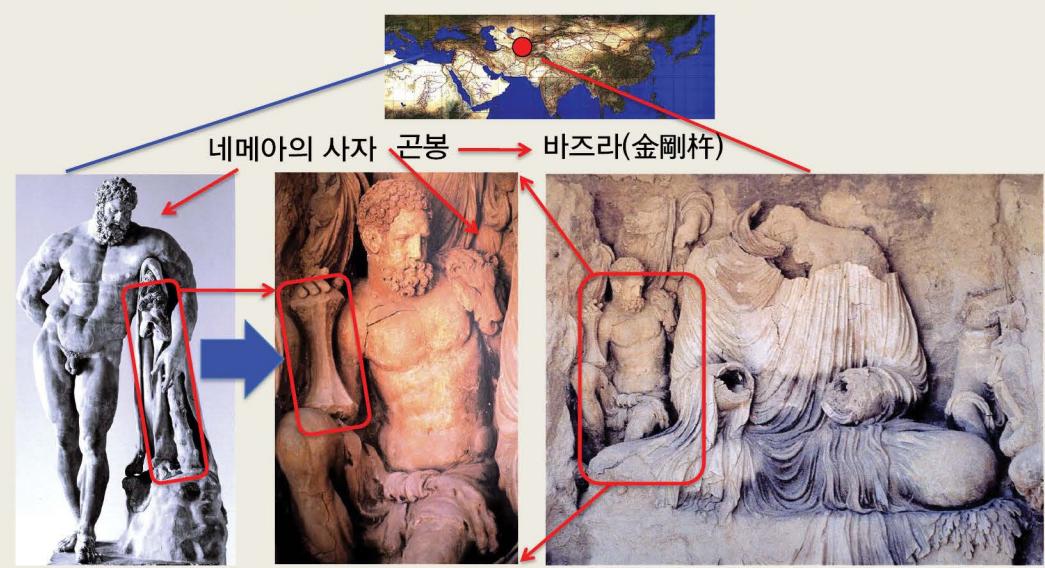
서양: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원한 “유럽 역사”

EU(유엔연합)

- 5월 9일 = 유럽의 날
- 환희의 송가 = 교향곡 제 9번 마지막 (4) 악장 D 단조 Op. 125 (Freude, schöner Götterfunken, Tochter aus Elysium ...) 유럽연합의 국가(anthem)
- 유럽 노스트라
- 유로파이나: “5000만개 이상 항목” 의 디지털 전환에서 문화유산 부문 (<https://www.europeana.eu/en>)
- 문화유산은 유럽에 중요하다 유럽 문화의 수도들 (1985~)
- EU 문화유산상 (2002~)
- 유럽유산라벨 (2013~) ≠ WH
- 크리에이티브 유럽 (2014~)
- 유럽 문화유산의 날
- EU 문화유산상 /유로파 노스트라상 (2002~)
- EU 현대건축상
- EU 문학상
- EBBA (European Border Breakers Awards)
- EU 프릭스 MEDIA
- 유럽의 해: 2018년 “유럽문화유산의 해” (#EuropeForCulture) – “우리의 유산: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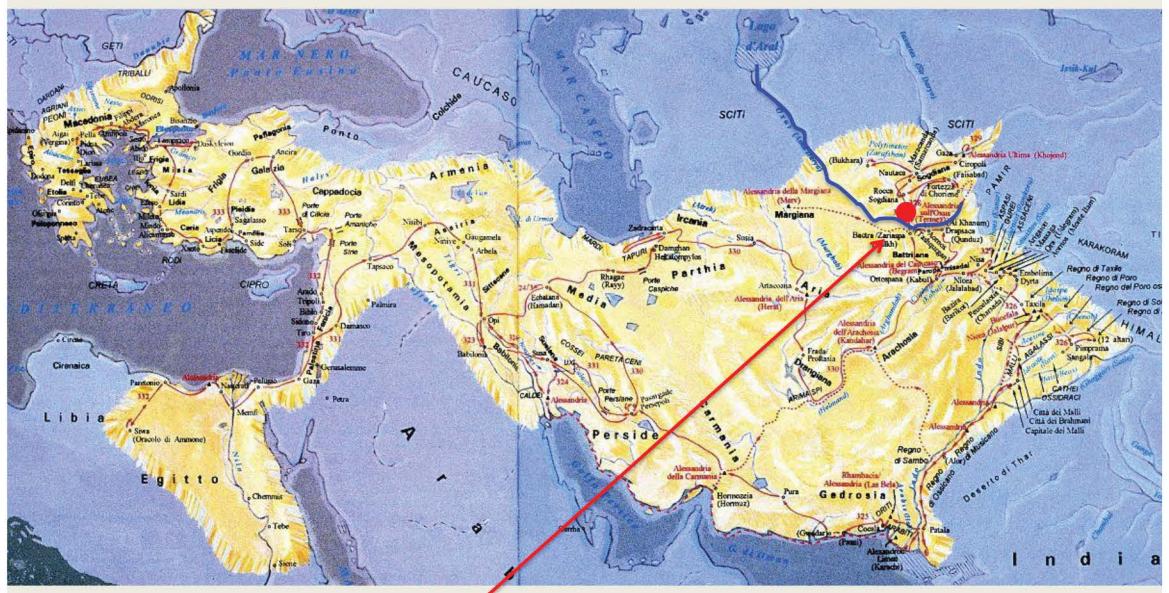
동과 서, 전체 장면을 보고 조망한다:
아니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

러디어드 키플링, 동양과 서양의 노래 (1889)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라 둘은 절대 만날 수 없으며,
지구와 하늘이 곧 신의 심판석에 설 때까지
하지만 동쪽도, 서쪽도, 국경도, 번식도, 출생도 없다
강한 두 사람이 마주서면 지구 반대편에서 모이게 된다.



《휴식 중인 헤리클레스》 리시포스 작

하다(Hadda), 아프가니스탄 《불상과 함께 있는 헤리클레스》



캄피르 테파(Kampyr Tepa) : 역사도시
~알렉산더가 베소스를 쫓아 이곳에서 강을 건넌다

3.Ртвеладзе, Александр Македонский в
Бактрии и Согдиане, Tashkent 2002

《키스하는 연인;
Kissing couple》
캄피르
테파(Kampyr Tepa)에서 발굴
1c BCE-1c CE



캄피르 테파

~아무다라 (옥수스) 강변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
그레코-쿠샨 시, 건너는 지점 (얕지 않음)



아크로폴리스 서부 (북에서 남으로)
~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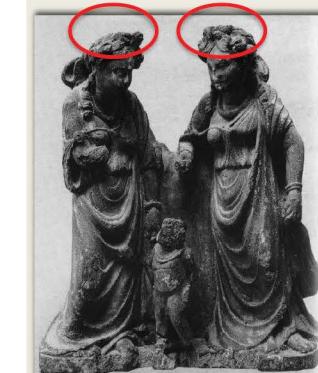


인도' 아하차트라' 「미투나」 송가 시대(200-100BC)



《키스하는 연인;
Kissing couple》

도상
— 인도 간다라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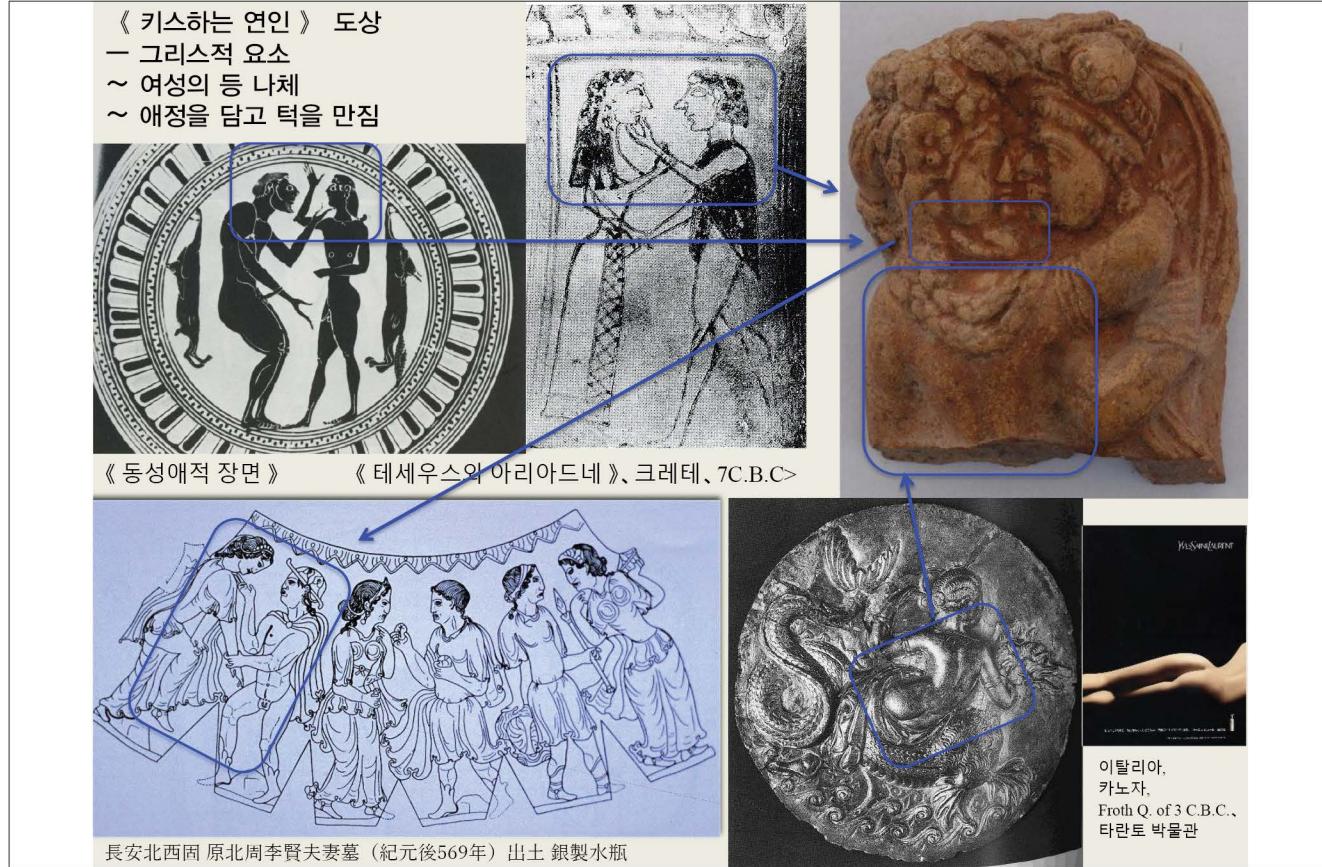
《솔로몬의 심판》
타리出土, ca.171~203 A.D.



《판치카와 하리티 (鬼子母神像)》
사프리·파로르出土, 페사와르 박물관



《보살》 (束髮型一端環狀髮タイプ)



“역사” 의 세 가지 개념

(1) 신이 정해준 역사: 언약

(2) 정치 권력이 정의한 역사: 正史

(3) 고대 그리스의 역사적 이야기: *ἱστορία*
~1차 자료 = WH, ICH, MoW



1차 자료로만 사용: 사실성 제외

- Lord J.E.E. 달버그 액턴 (1834-1902)

“회피 또는 분쟁을 넘어선 역사는 의견이 아니라
문서에 기초해야 한다.”

= “1차 자료”

(근대사에 대한 강의, 1930, p.17.)

- 기억의 일반화, 도덕화, 미덕화(도덕적 덕목으로
변하는)를 피한다

1차 자료로서 중요성의 계층구조: 모든 것은 지역 정보가 있는 부동산에 기초한다 =WH

호메로스 숭배(=MoW)가 마지막이다.



호메로스의 신격화, 영국박물관

부동산



- 벨 신전, 팔미라, 시리아
- 서기 32년에 건축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3216360/ISIs-blow-2-000-year-old-Temple-Bel-Palmyra-Syria.html>)

부동산 보존과 기록 디지털 수단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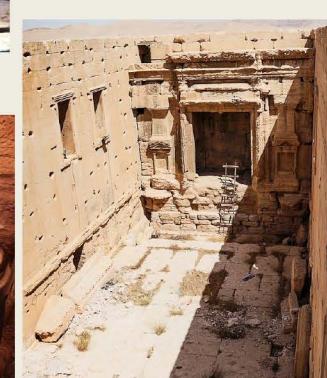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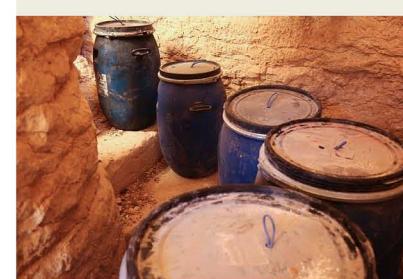
캄보디아 앙코르에서
“디지털 바이온” 개요



3D 유적지 모형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유적지를 스캔, 정렬,
병합하였다.

(K. Ikeuchi et al., “대규모 부지 모형화를 위한 플라잉 레이저 거리측정 센서와
바이온 디지털 기록을 활용한 프로젝트에서 활용도”, Int J Comput Vis (2008) 78: 207–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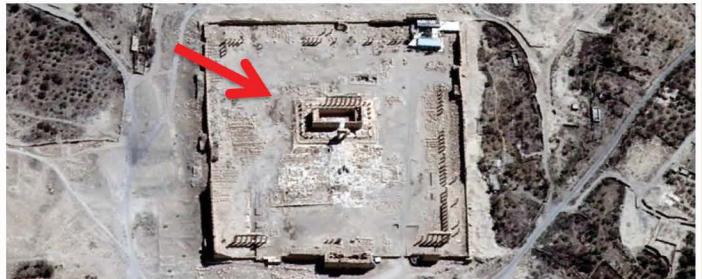
팔미라 벨 신전, 2015년 “IS” 에 의해 폭파 및 파괴되었다.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3229268/Pictured-ISIS-destruction-2-000-year-old-temple-Palmyra-left-just-one-arch-standing.html>)

팔미라 벨 신전, 2015년 “IS”에 의해 폭파 및 파괴되었다.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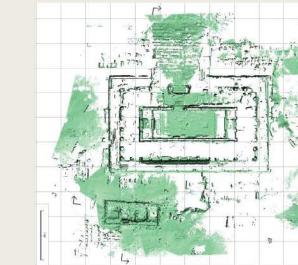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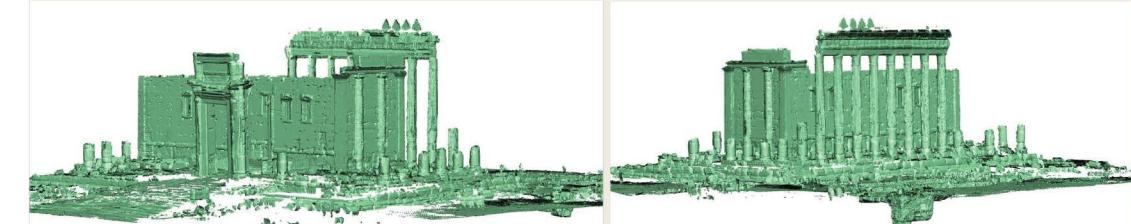
후



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위성 이미지 인쇄물
Airbus DS 제공,
UNITAR-UNOSAT,
인쇄물 / 로이터 통신
@UNESCO
@UrtheCast
@UNITAR

(출처:
www.nbcnews.com/storyline/isis-terror/ancient-syrian-temple-bel-destroyed-after-reports-isis-blast-un-n419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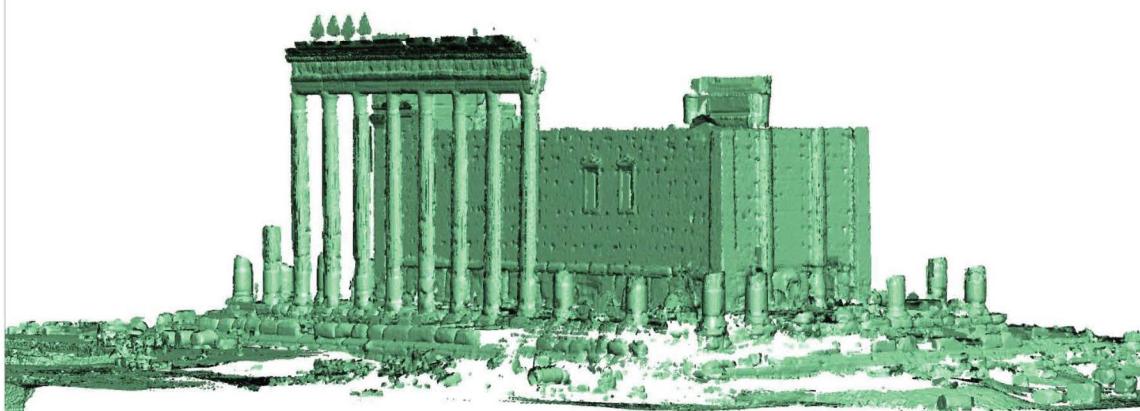
부동산



- 팔미라 벨 신전 3D 데이터 2010년 스캔
- 키요히데 사이토 교수(일본 나라현 가시하라 고고학 연구소)와(주)ACCORD의 작품(오사카, 일본)
- 신전의 3D 데이터만 표시.
- 미래에 신전을 지을 때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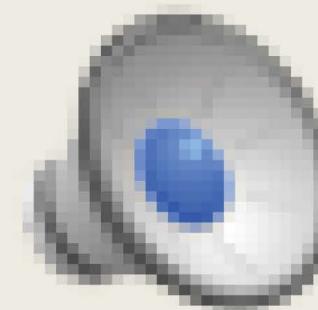
부동산

- 팔미라 벨 신전 3D 데이터 2010년 스캔.
- 키요히데 사이토 교수(일본 나라현 가시하라 고고학 연구소)와(주)ACCORD의 작품 (오사카, 일본)
- 신전의 3D 데이터만 표시.
- 미래에 신전을 지을 때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부동산

- 팔미라 벨 신전 3D 데이터 2010년 스캔.
- 키요히데 사이토 교수(일본 나라현 가시하라 고고학 연구소)와(주)ACCORD의 작품 (오사카, 일본)



"세대간 윤리"

- 주권은 미래 세대에 있다는 원칙.
- 과거의 자산으로 구성된 현재를 소유하는 것은 미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유산을 보존한다.
 - 보존과 활용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임마누엘 칸트: “너는 너 자신의 인격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Handle so, daß du die Menschheit, sowohl in deiner Person als in der Person eines jeden andern, jederzeit zugleich als Zweck, niemals bloss als Mittel brauches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1785, Verlag L.Heimann, 베를린 1870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츠루 하가 (Mitsuru HAGA)
mitsuru.haga.d5@tohoku.ac.jp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I: 사례연구

인도네시아에서 세계로: 기록유산에 담긴 문화 다양성의 조화

이맘 구나르토

- 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장

인도네시아 기록유산의 문화적 다양성의 조화

이맘 구나르토(IMAM GUNARTO)

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장
인도네시아 세계기록유산(MOW) 국가위원회 위원장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부의장

인도네시아 기록유산 사명

시간의 연장
a. 가능한 오래 전 과거로 돌아간다
b. 가능한 현재에 가까워야 한다

영역의 연장
a. 인도네시아 - 군도 - 지역 - 국제를 다룬다
b. 중앙 및 지역 기록원의 균형

질을 개선한다
a. 역사적 의의,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b. 고유성
c. 내용의 완전성, 다양성 및 종류
d. 인도네시아의 존재와 주권에 대한 증거

다양성 안에서의 통합

방침

인도네시아 대통령 지시
(2021년 6월 9일)

젊은 세대들이 자국 문화에 애정을 갖도록
풍부한 문화예술을 기록화하고 매력적으로 재현할 것

LAW 43/2009
Gov Reg 28/2012

ANRI Reg 20/2021
Nat Lib Reg 2/2023

MOW 관조-제사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시해령

국가의 집단
기억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규정

국가의 집단 기억
으로서 기록물과
필사본에 대한 규
정

MOW로서 기록
유산의 신청 절차
에 대한 규정



MOW와 MOWCAP 목록에 인도네시아 기록 유산 등재



연도	제목
2004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기록보관소의 기록물 (VOC 기록물)
2011	라 갈리고(La Galigo)
2013	나가라크레타가마(Nāgarakṛētāgama) 또는 왕국 순행기(巡幸記)(1365)
2013	바바드 디포네고로(Babab Diponegoro) 왕자의 자전적 연대기
2015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기록물
2015	보로부두르 보존 기록물
2017	판지 이야기 필사본
2017	인도양의 쓰나미 관련 기록물
2023	수카르노 연설 '신세계를 구축하다' 기록물
2023	제1차 비동맹운동 정상회담 기록물
2023	히가얏 아체 – 15-17세기 인도네시아 아체의 삶에 관한 세 개의 필사본

연도	제목
2008	나가라크레타가마(Nāgarakṛētāgama) 또는 왕국 순행기(巡幸記) (1365)
2022	수하르소 의사의 재활원 기록물
2024	Indarung I: 동남아시아 최초 시멘트 공장 (1910-1972) 기록물
2024	인도네시아 설탕 연구소 기록물 1887-1986
2024	탐보 투앙쿠 이맘 본줄(Tambo Tuangku Imam Bonjol) 필사본

신청자

네덜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기록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세르비아, 인도, 이집트, 알제리
인도네시아

신청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가 목록에 인도네시아 기록 유산 등재

세계기록유산 국가목록 (기록물)

연도	제목
2022	블리퉁 유네스코 세계 생태공원 기록물
2023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종합개발계획 기록물 1958-1969
2022	카트리니 기록물 : 성 평등을 위한 투쟁
2023	ASEAN 형성에 관한 기록물 1967-1976
2023	세이크 유수프 알 마카사리 알 반타니 기록물 (1626-1699)
2024	20세기 초 라센 바티 무역망 기록물 (1900-1942)
2024	2002년 발리 폭탄 테러의 인도주의적 비극에 관한 기록물
2024	A.K. 가니 박사 기록물 개척 항공 기업 N.V. 인도네시아의 민간 항공 개척자 (1951-1957 중부자바의 윤회에)
2024	중부 자바의 윤회에 관한 기록물 1950-1999
2024	강황 식물표본 기록물 : 인도네시아 약료식물에 대한 지역지식과 기술
2024	영웅 기념비 기록물 (1951-1997)
2024	세마랑 구시가지 재활성화 기록물 1983-2022



신청자

블리퉁지방정부
인도네시아국가개발계획부
Rieke Diah Pitaloka
ANRI
ANRI
ANRI
렘방지방정부
바둥지방정부
A.K.가니 꿀렌방 박사 박물관
중부 자바의 지방정부 인도네시아 보건부
수라바야시정부
세마랑시정부

인도네시아 국가 목록에 인도네시아 기록 유산 등재



세계기록유산 국가목록 (기록물)

연도	제목
2022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UGG) 찔례루 – 팔라부한라투 (Ciletuh Palabuhanratu)
2022	수하르소 의사의 재활원 기록물
2022	길랑섬 난민 수용소 기록물 “인도네시아 인본주의의 모습”
2022	자바섬 중앙부 칠리차프에서 세가라 아나칸 지역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기록물 1996-2000
2022	마타람 디케 ((Mataram Dike) 기록물
2023	Indarung I: 동남아시아최초시멘트공장(1910-1972) 기록물
2023	스튜디오플즈망구네가란(Studiefonds Mangkunegaran) 기록물
2023	자바섬출애관한기록물: 망구네가란댄스아트, 1861-1944
2023	식민지시대에 교육인프라개발에 대한기록물(1874-1929)
2023	PT 가람기록물 1924-1961
2023	1893-1982년 인도네시아수수농장연구센터기록물(P3GI)
2023	인도네시아수도옥아카르타기록물 1946-1949

신청자

서부자바지방정부
중앙자바 지방정부 BP 바탐;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 ; 인도네시아 외교부 ; 인도네시아

국민군
칠리차프지방정부
옥자카르타 특별지역 지방정부

PT 세멘 파당 Tbk.

푸리망구네가란
푸라망구네가란
중앙자바주정부

동부자바주정부
동부자바주정부

옥자카르타 특별지역 지방정부

인도네시아 국가 목록에 인도네시아 기록 유산 등재



세계기록유산 국가목록 (필사본)

연도	제목
2022	탐보 투앙쿠 이맘 본줄(Tambo Tuangku Imam Bonjol) 필사본
2023	상향 식사 칸당 카레시안 (Sang Hyang Siksa Kandang Karesian) 피라본
2023	합자흐 판소리의 시 필사본
2023	세이크 유수프 알 마카사리 알 반타니 (Sheikh Yusuf Al-Makassari Al-Bantani) 필사본
2023	카카원 수타소마 (Kakawin Sutasoma) 필사본
2023	세이크 부르하누딘 올라간 (Sheikh Burhanuddin Ulakan)의 유산 필사본
2023	멘타위스 연대기 (Mentawis Chronicle) 필사본

신청자

서수마트라주정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세계기록유산 국가목록 (필사본)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파딩파리만 리젠키 교육문화청
렘바가 수라우 지적재산 보호 (SURI)
케라톤 족자카르타 하디닌그라트
옥자카르타 특별지역 주정부

인도네시아 국가 목록에 인도네시아 기록 유산 등재



세계기록유산 국가목록 (필사본)

연도	제목
2024	푸스타하 라클락(Pustaha Laklak) 탐바르 니 헬리트(Tambar ni Hilit) 필사본 심부르 카하야 법 (The Law of Simbur Cahaya)
2024	스리탄중 나뭇잎 필사본
2024	키둥 브와나 위나사 카르야 이다 파단다 느구라 (Kidung Bwanā Winaśā Karya Ida Padanda Ngurah)
2024	보 산가지 카이 (Bo' Sangaji Kai)
2024	아토리오롱 보네 (Attoriolong Bone) 나뭇잎 필사본
2024	프림본 텅게르 (Primbon Tengger) 나뭇잎 필사본

신청자

북수마트라주 국립박물관
군도 필사본 협회(Archipelago Manuscript Society),
북수마트라 위원회 남수마
트라 마나사 위원회

남수마트라주 도서관 서비스

바뉴왕기 오마세움 박물관
바동 섭정 기록물과 도서관 서비스
기리야 만드하라 페마론(Giriya Mandhara Pemaron), 문구
마을(Munggu Village), 명위, 바동
그리야 게데 벨라유(Gria Gede Belayu), 마르가, 타바난"
삼파라자 박물관 재단
"안디 암사르 암알(Andi Ansar Amal)
남 솔라웨시 주 도서관과 기록물 서비스"
"동부자바주 도시관과 기록물 서비스" 동
부자바주 문화관광부

시간 측면 MOW와 MOWCAP



나가라크레타마가



바바드 디포네고로(Babad Diponegoro)



수카르노 연설: "신세계를 구축하다" 기록물

1365 > ... > 1602 > ... > 1825 > ... > 1955 > ... > 1960 > ... > 2004



더치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Dutch East India Company)의 기록물 (VOC 기록물)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인도양의 쓰나미 관련 기록물

주제 측면



시간 측면 MON



나스카 상황 식사 칸당
카레시안



수타소마 카카원 필사본



인도네시아 수도 유크아르타 기록물 1946-1949

1518

>

... >

1823

... >

1851

... >

1900

... >

1946

... >

2002



세이크 부르하누딘 울라칸(Sheikh Burhanuddin Ulakan)의 유산 필사본
20세기 초 라셀 바티 무역망 기록물 (1900-1942)



2002년 발리 폭탄 테러의 인도주의적 비극에
관한 기록물



2002년 발리 폭탄 테러의 인도주의적 비극에
관한 기록물



시간 도전과제

- 인도네시아에는 국가적으로 인정 받는 문화유산이 218곳이 있다.
- 인도네시아는 유네스코로부터 총 6곳을 세계유산으로 인정 받았다



유파 비문(475 M)



페타 캐레(Petta Kere)
선사시대 동굴, 레양레이
마로스



Ciauteun 비문(7세기)

유파 비문(475 M) 페타 캐레(Petta Kere)
선사시대 동굴, 레양레이 마로스 Ciauteun 비문(7세기)

인적 자원에 관한 도전과제

- 인식 부족
- 역량 부족
- 단기 정치체계



Situs Batu Tulis Wangkal, Prasasti Songenep.
"Nya Sepat Roro Hahak Telung Tunggal"
artiinya tiga kekuatan menjadi satu raga.
Batu andesit sekitar tahun 1217 Ca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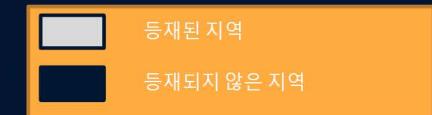


영토 도전과제



등재된 인도네시아 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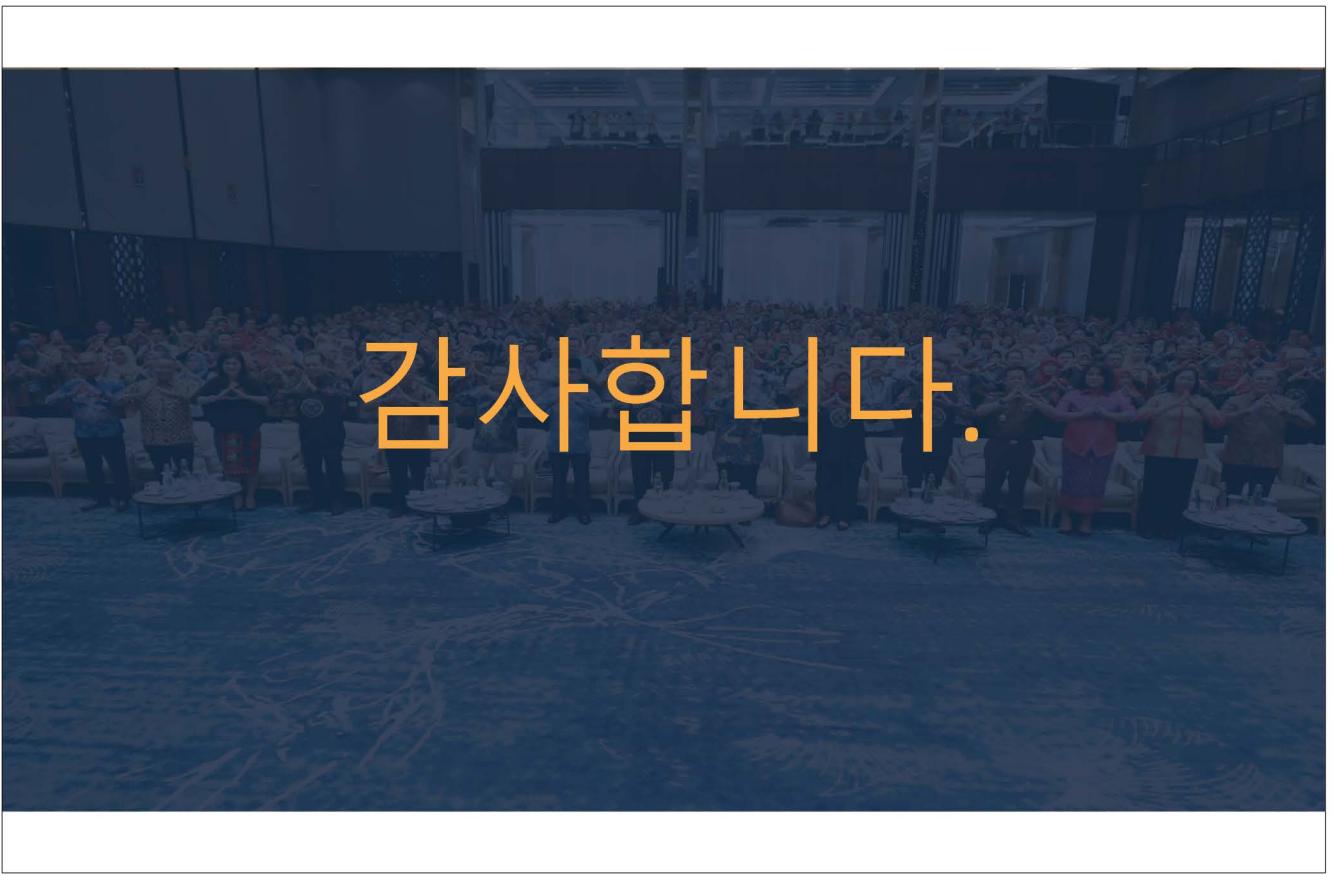
- 국제 목록 11건
- 아태지역 목록 5건
- 국가 목록 38건(기록물 24건 + 필사본 14건)



결론

- MOW 발전 미션은 Bhinneka Tunggal Ika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국가 원칙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시간, 영토, 주제의 다양성은 지역사회에 온전히 살아 있는 기억을 확립하여 국가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될 것이다.
- 국가 및 지역 지도자와 정치인의 지원

강보증
2024-10-10 04:40:06
발전 미션은



감사합니다.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I: 사례연구

알울라 사례 연구: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360도 모델을 향해

호세 이그나시오 갈레고 레비야

- 알울라 왕립위원회 자문위원



알울라(AlUla) 사례 연구: 유산 보호 및 관리의 360 모델을 향하여

1. 알울라에 대한 기본 사실들

- 리야드(Riyadh)에서 북서쪽으로 1,000km에 위치
- 인구: 45,000명
- 면적: 25,000 평방 킬로미터 이상
- 국가 크기
- 경이로운 인류 및 자연 유산을 간직한 곳
- 20만 년이 넘는 인류의 역사
- 7,000년 이상 연속적으로 인류가 정착한 곳도 있음
- 세계유산 1개 (헤그라 고고학 유적지) + 잠정 목록에 등재된 4개의 추가 항목, 그중 일부는 30개 이상의 항목이 있는 연속 유산임
-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2건, 2023년 1건 등재
- 1개의 생물권 보전 지역


3

알울라(AlUla) 사례 연구: 유산 보호 및 관리의 360 모델을 향하여

오늘 논의 내용:

1. 기본적 사실
2. 일반 시나리오
3. 천년의 유산, 알울라
4. 유산과 개발
5. 우리의 접근 방식
 - a. 행정 조직 창설
 - b. 계획에 대한 통합
 - c. 우리의 기록유산 프로그램
 - d. 보존의 도전과제



알울라(AlUla) 사례 연구: 유산 보호 및 관리의 360 모델을 향하여

2. 일반 시나리오: 알울라와 변화하는 세계

1. 2017년 중반에 설립된 알울라 왕립위원회(RCU)는 24,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개발하여, 환경적·역사적 가치를 고려한 변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알울라 왕립위원회는 사우디 정부의 핵심 기관으로, 알울라 지역과 카이바르 및 타이마 지역의 특정 지역에 대한 통치 기구이다.
3. 왕립위원회(RCU)는 여러 부처(지방 행정, 관광, 문화, 농업, 스포츠, 미디어 등)의 권한을 담당하고 있다.
4. 알울라를 국가 내 분권화된 지역으로 조성하며, 비전 2030 목표 달성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로 하기 위해, 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 관광지 개발이 핵심 과제이다.
5. 알울라 왕립위원회는 헤그라 고고학 유적지의 관리 기관이다. 헤그라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적지이지만, 이는 알울라, 카이바르, 타이마 지역에 있는 35,000개가 넘는 유적지 중 일부에 불과하다.

알울라(AIULa) 사례 연구: 유산 보호 및 관리의 360 모델을 향하여

3. 천년의 유산 알울라: 개발 과정에서의 추가 노력

구석기 시대 후기 선사 시대 고대 북아라비아 왕국 (다만 험지/리마한 험지) 나바테아 왕국 초기 이슬람 시대 후기 이슬람 시대 21세기

c. 200,000 BCE c. 12,000—1000 BCE c. 1000 BCE—0 c. 100 BCE—300 CE c. 622 CE—1100 CE c. 1100 CE—20 C 5

혹은 그 이전

unesco
Regional Committee
unesco
Memory of the World

المدينة الملكية لمحمية العلا
Royal Commission for AlUla

알울라(AIULa) 사례 연구: 유산 보호 및 관리의 360 모델을 향하여

5. 우리의 접근 방식: 360 모델을 향하여

1. 어떻게 하면 유산을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경제적 개발 프로그램 중 핵심 주체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핵심 포인트: 유산을 개발 촉진자 및 계획의 이해 관계자로 활용

2.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핵심 포인트: 360 모델의 통합: 기본적인 행정 메커니즘 구축 + 지식 기반 형성 + 구체적인 실행 도구 마련

3. 이 과정에서 등재된 유산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핵심 포인트: 유산을 통합적 가치 사슬의 핵심 도구로 활용.
우리의 차별점은 통합적 접근 방식

360°

unesco
unesco
unesco
unesco
unesco
unesco

المدينة الملكية لمحمية العلا
Royal Commission for AlUla

알울라(AIULa) 사례 연구: 유산 보호 및 관리의 360 모델을 향하여

4. 유산과 개발: 난제를 해결하는 길

- 어떻게 유산을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경제적 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의 핵심 주체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 이 과정에서 등재된 유산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3 단계 통합 과정:
1. 이해
2. 계획
3. 개입
4. 통합 과정
5. 협력
6. 실행

Tayma
SHARAAN NATURE RESERVE
Old Town
Dadan
Valley of The Arts
MUGHAYRAH DESERT & HIGHLANDS AND JABAL SHAYHUB

unesco
Regional Committee

المدينة الملكية لمحمية العلا
Royal Commission for AlUla

알울라(AIULa) 사례 연구: 유산 보호 및 관리의 360 모델을 향하여

5. 우리의 접근 방식: 360 모델을 향하여

a. 행정 조직 창설

유산 관리 실행 계획

- 지역 유산 관리 기구 설립
- 유산 영향 평가 / 유산 교육 프로그램
- 2014년 사우디 유물 및 박물관법 및 시행 규정에 기반한 정책 및 절차 수립 및 시행
- 개발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직접 평가
- 유산 운영에 관한 승인된 공급업체 등록제도 시행
- 보존 및 관련 작업에 대한 현장 관리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운영 요약

- 조사 및 과학 연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 캡 분석 결과를 위한 특정 프로그램: 예) RCU-유네스코 기록유산 프로그램
- 전략적 파트너십: 유네스코, ICOMOS, IUCN, 세계은행 등과의 협력
- 유산 관리 계획
- 독립형 + 통합형 보존 프로젝트 및 개발 지역과 비개발 지역에 대한 일상 운영
- 보존 가이드라인

360°

VISION ٢٠٣٠
الرؤية ٢٠٣٠
KINGDOM OF SAUDI ARABI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5. 우리의 접근 방식: 360 모델을 향하여

The map illustrates the AlUla region's proximity to several key locations: AlMuatham (요새), MP5: Tayma, ASHAR, Qaraqir, Equestrian 마을 (보로구마을), AlMutadil, 문화 오아시스 지구 (MP1/Hub 1), Wadi Alfann, Mughayra & Abu Zarab, and MP4: Khaybar 유산 구역. A circular inset provides a detailed view of the central area, including the "시간 여행 (Journey Through Time)" site and surrounding landmarks like MP1, MP2, and MP3.

b. 계획에의 통합

알울라, 세계유산의 중심지

- 알울라 마스터플랜(MP) 1: 시간 여행
- 알울라 마스터플랜 2: 도시 공동체, 지원 구역, 도심 속 오아시스
- 알울라 마스터플랜 3: 샤란
- 마스터플랜 4: 카이바르 유산 구역
- 마스터플랜 5: 타이마

범례

- 프레임워크 관문
- 마스터플랜
- 세부 마스터플랜 수립
- 사전 마스터플랜

알울라(AIUna) 사례 연구: 유산 보호 및 관리의 360 모델을 향하여

5. 우리의 접근 방식: 360 모델을 향하여

d. 보존의 도전과제

Q: 35,000개 이상의 유산을 어떻게 보존할까?

A: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일은 아무도 할 수 없겠지만...

- 1. 이해:** 이미 수행된 조사를 통해
 - 우리는 자산의 유산 가치를 알고 있다.
 - 우리는 자산의 보존 상태를 알고 있다.
 - 해당 정보를 GIS 및 데이터베이스에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 2. 계획:** 관리 도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설계
 - 우리는 주관적 관찰이 아닌 객관적 위험을 우선시하며, 개발자에게 보존 의무를 부여한다.
 - 먼저 활성화된 유적지에 집중하는데, 이는 모든 종류의 악화 요인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 활성화되지 않은 유적지에 대해서는 항목을 특성별로 그룹화하고 필터링할 수 있다.
 - 전체 유적지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3. 개입:** 도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실행
 - 보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활성화된 자산
 - 개발자 비용 부담: 악화를 가속화하는 행동을 통제
 - 특정 그룹 프로젝트 진행 예정(예) 암각화 보존 프로그램
 - 행정, 대중 인식 제고 및 정보 관리가 핵심

36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VISION 2030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KINGDOM OF SAUDI ARABIA

**요약으로
제한에
대한
모티브
(360°)**

알울라(AIUna) 사례 연구: 유산 보호 및 관리의 360 모델을 향하여

5. 우리의 접근 방식: 360 모델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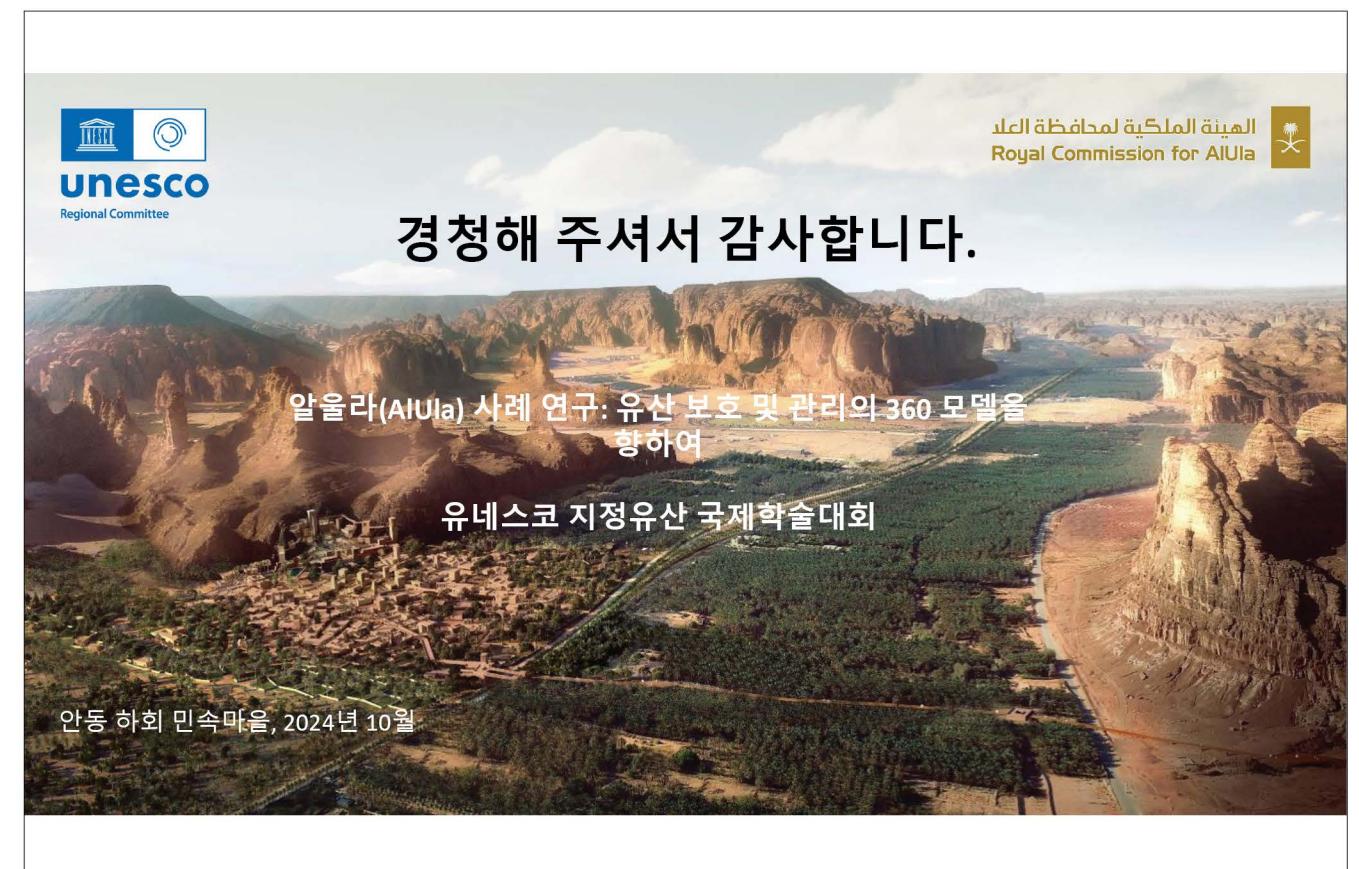
c. 기록유산 프로그램 (RCU – UNESCO)

전략적 원칙:

- 다문화 유산 개념, 다양한 접근 방식 통합
- 윤리적 원칙과 기본 메커니즘 설정을 우선시
- 뛰어난 변화를 유지함으로써 특징 보존
- 가치와 호환되는 제안을 수용하여 유산 보존
- 전체 프로젝트 기간에 걸친 참여형 및 360도 접근 방식

3 단계 과정

- 이해**
 - 기초 연구, 격차 분석, 행동 계획 수립을 위해 기록 기관들, 정치 활동가,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 계획**
 - 기록 기관 식별
 - 공공 행정 요구 사항 및 부족한 구조 식별, 예: 기록유산 위원회 / 국가 목록
 - 프로그램 설계
- 개입**
 - 공공 행정 기구 설립
 - 네트워크 메커니즘 구축
 - 연구 및 보존 프로그램 시행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I: 사례연구

태평양 섬의 지정유산

시피리아노 네마니

- 이타우케이 사무국, 문화·유산·예술부 디렉터

초록

시피리아노 네마니
이타우케이 사무국, 문화·유산·예술부 디렉터

태평양 섬의 지정유산 - "오세아니아 방식"의 접근법과 방법론 재고하기

광활한 태평양의 유산 자원의 성격, 범위, 등재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발표에서 태평양을 괴롭혀온 역사적 토대, 특히 그들이 아는 방식,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의 견해, 그들이 가르치고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바누아, 페누아, 호누아 등 지역 공동체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국제목록에 자원을 등재하려는 시도는 도전이다. 유네스코 2003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보호 협약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태평양 등재유산은 종종 지역 공동체와 무관한 지속 불가능한 거래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아마도 오늘날 태평양 원주민 공동체에게 표준이 된 탈식민지화 접근법을 통해 전략을 제고하고 등재유산을 재검토하는 것이 태평양 등재유산을 다루는 "오세아니아 방식"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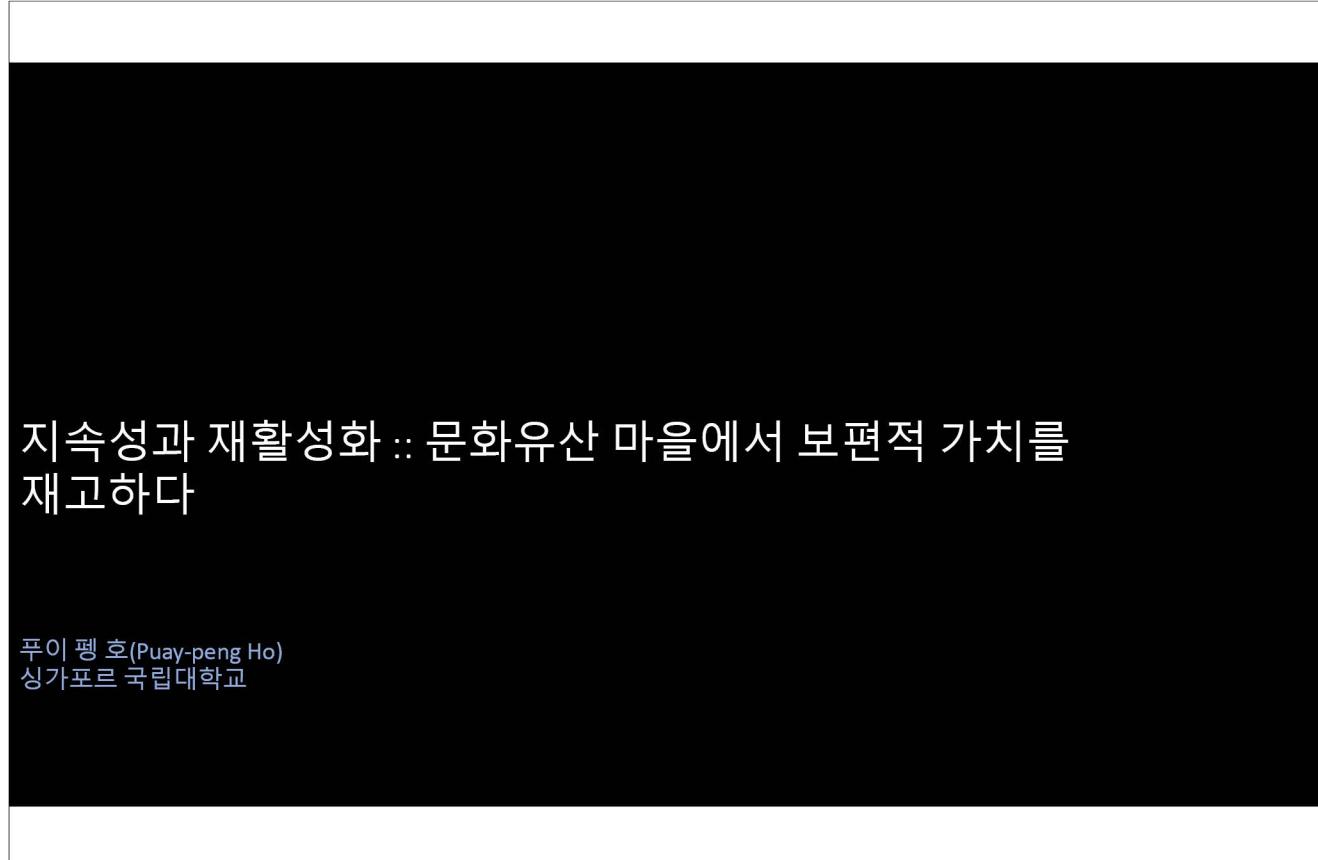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I: 사례연구

중국의 민속 마을과 건축 보존에 대한 심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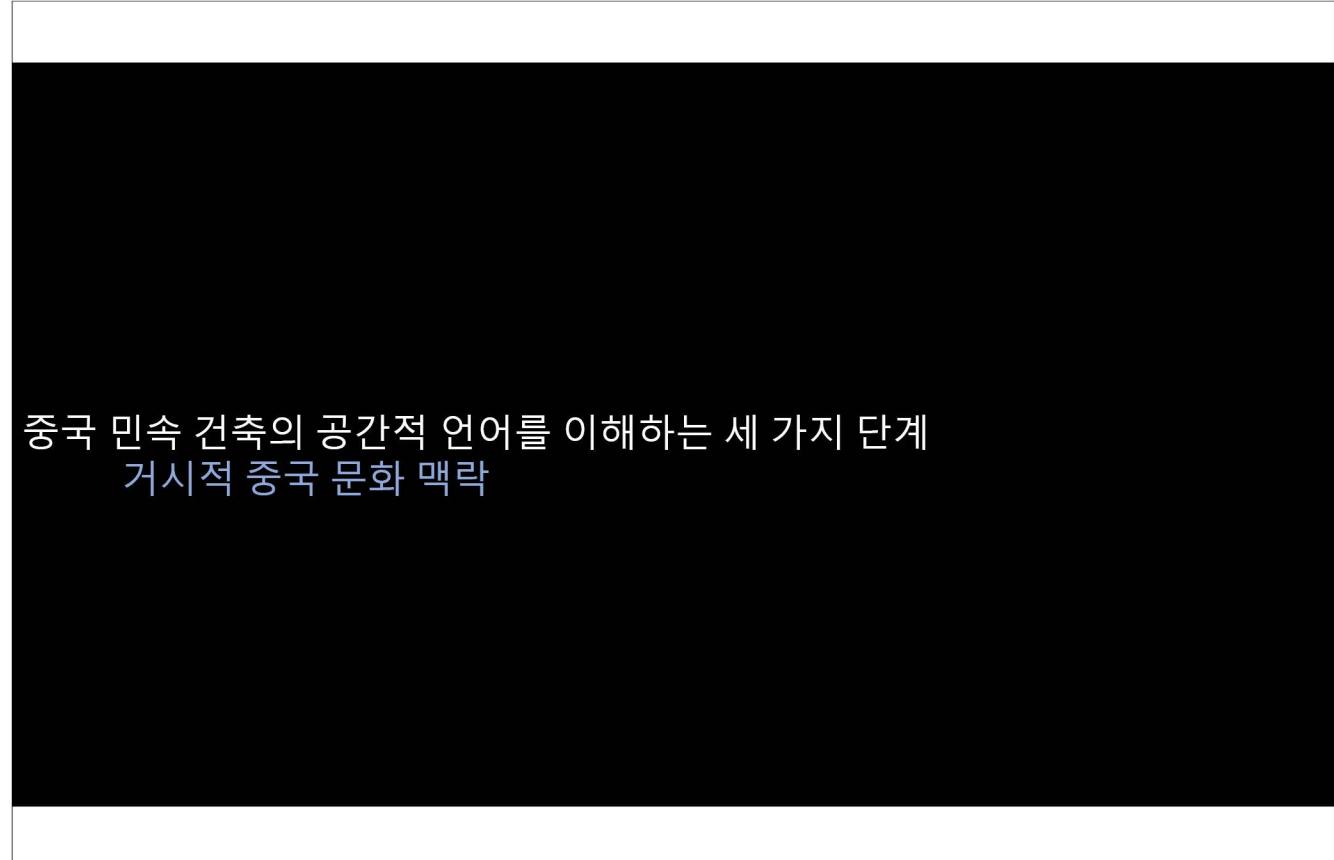
푸이 펑호

-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지속성과 재활성화 :: 문화유산 마을에서 보편적 가치를
재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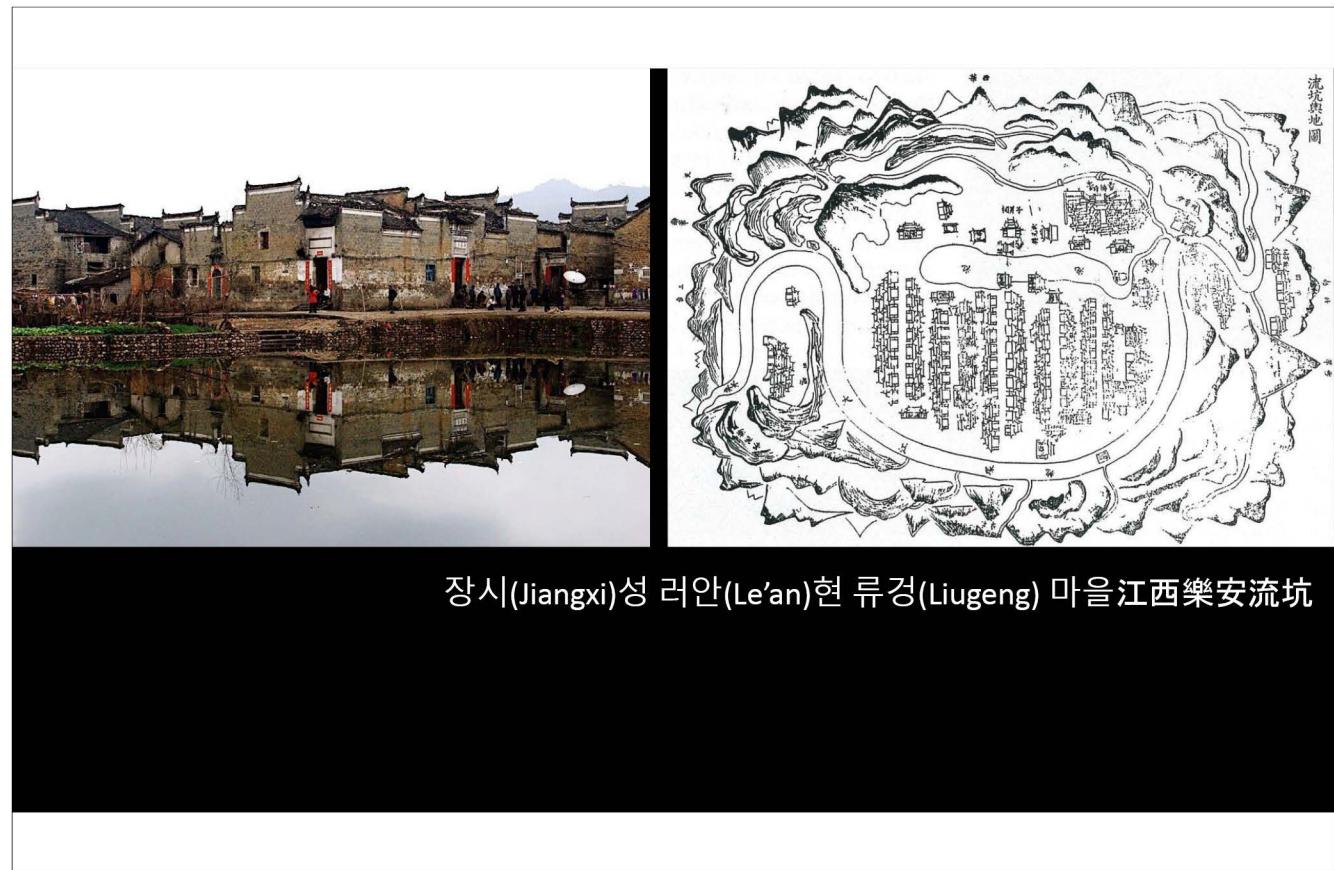
푸이 펑 호(Puay-peng Ho)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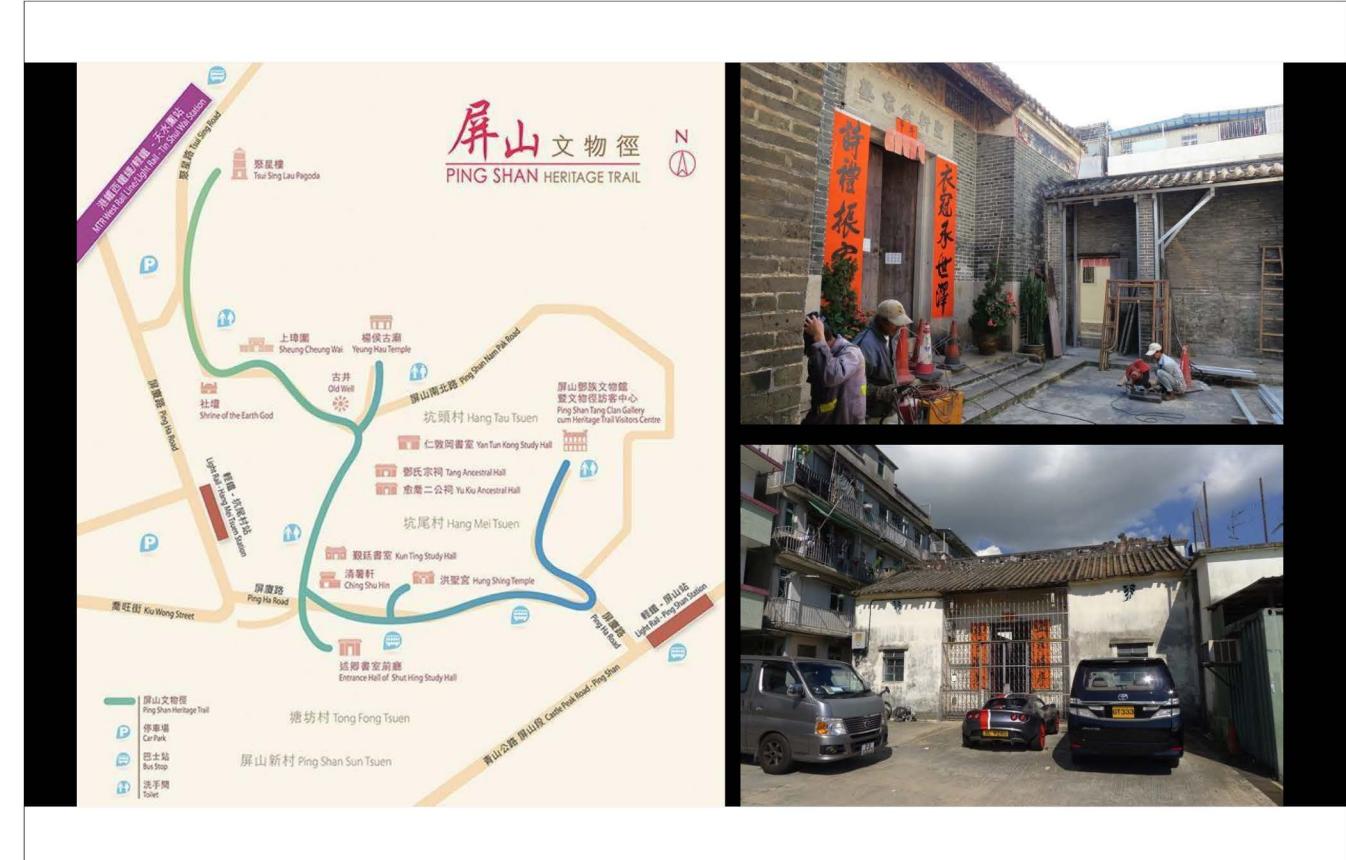
중국 민속 건축의 공간적 언어를 이해하는 세 가지 단계
거시적 중국 문화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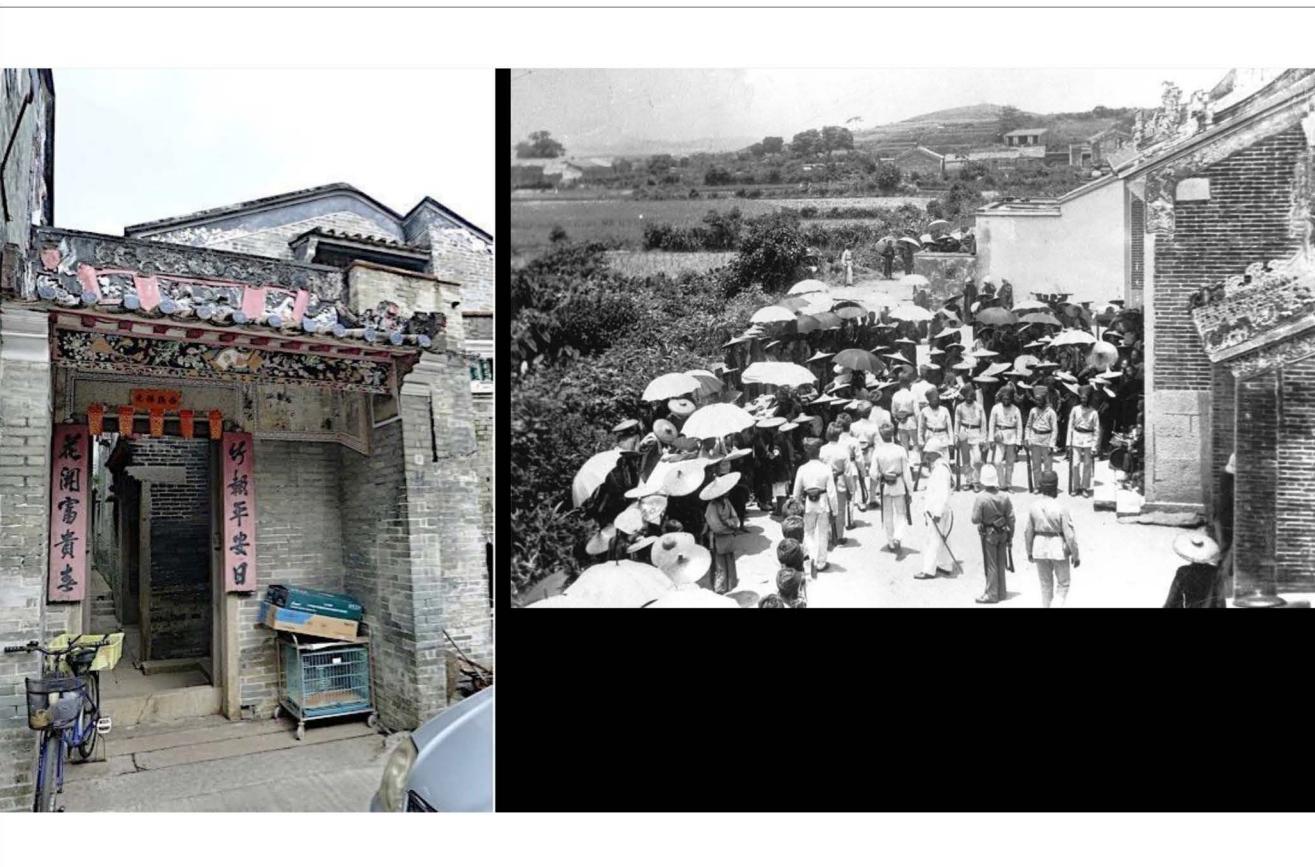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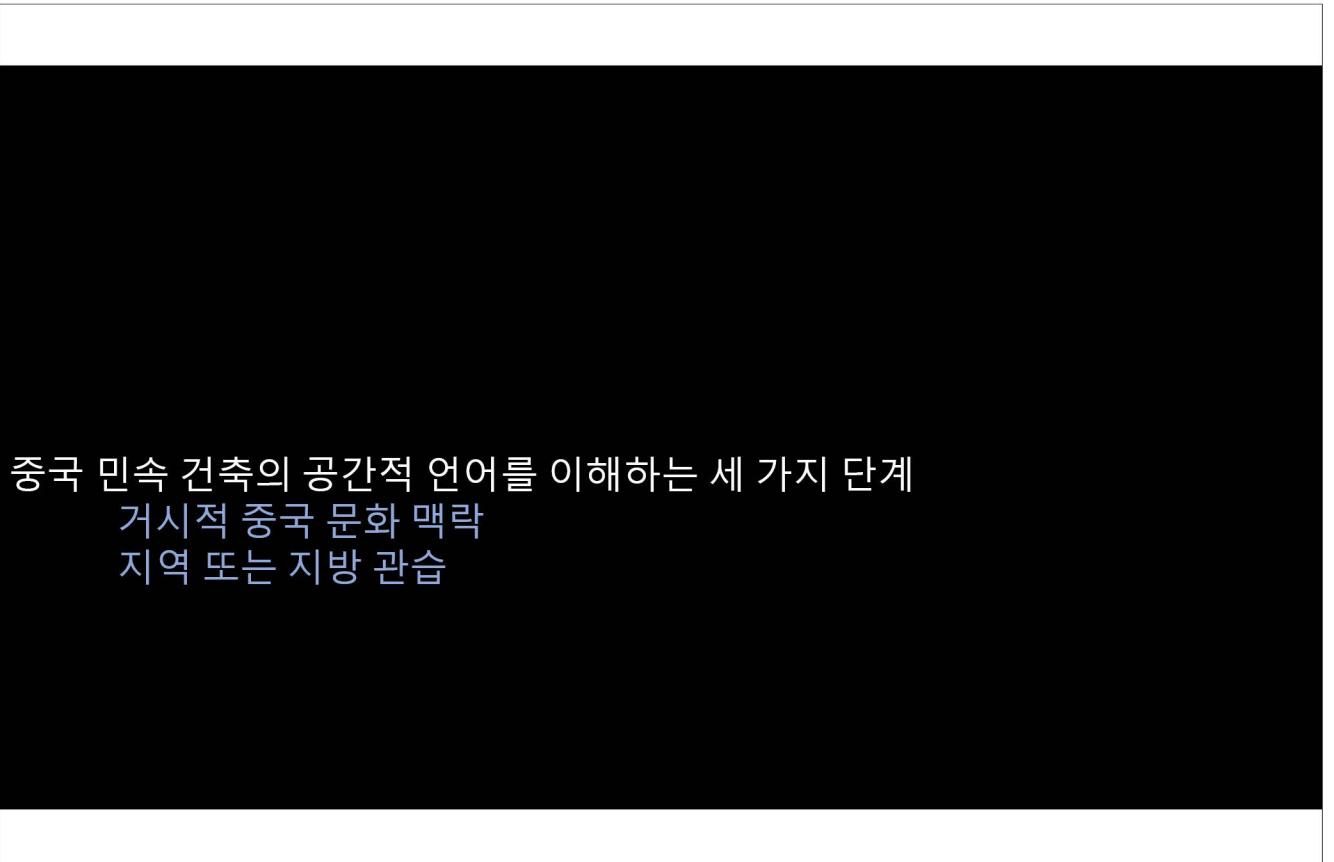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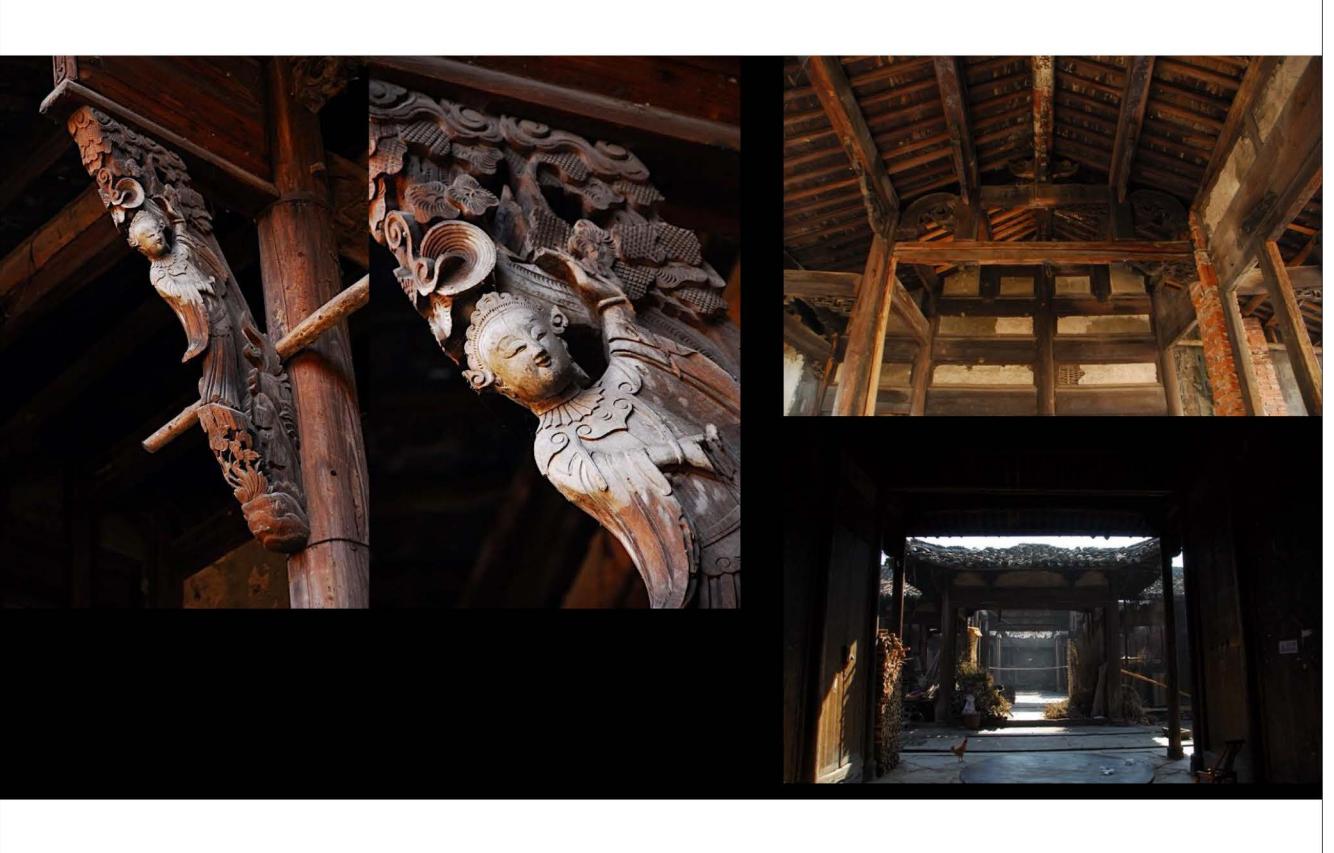
푸젠(Fujian)
성 렌청
(Liancheng)현
페이텐(Peitian) 마을
福建連城培
田



장시(Jiangxi)성 리안(Le'an)현 류경(Liugeng) 마을 江西樂安流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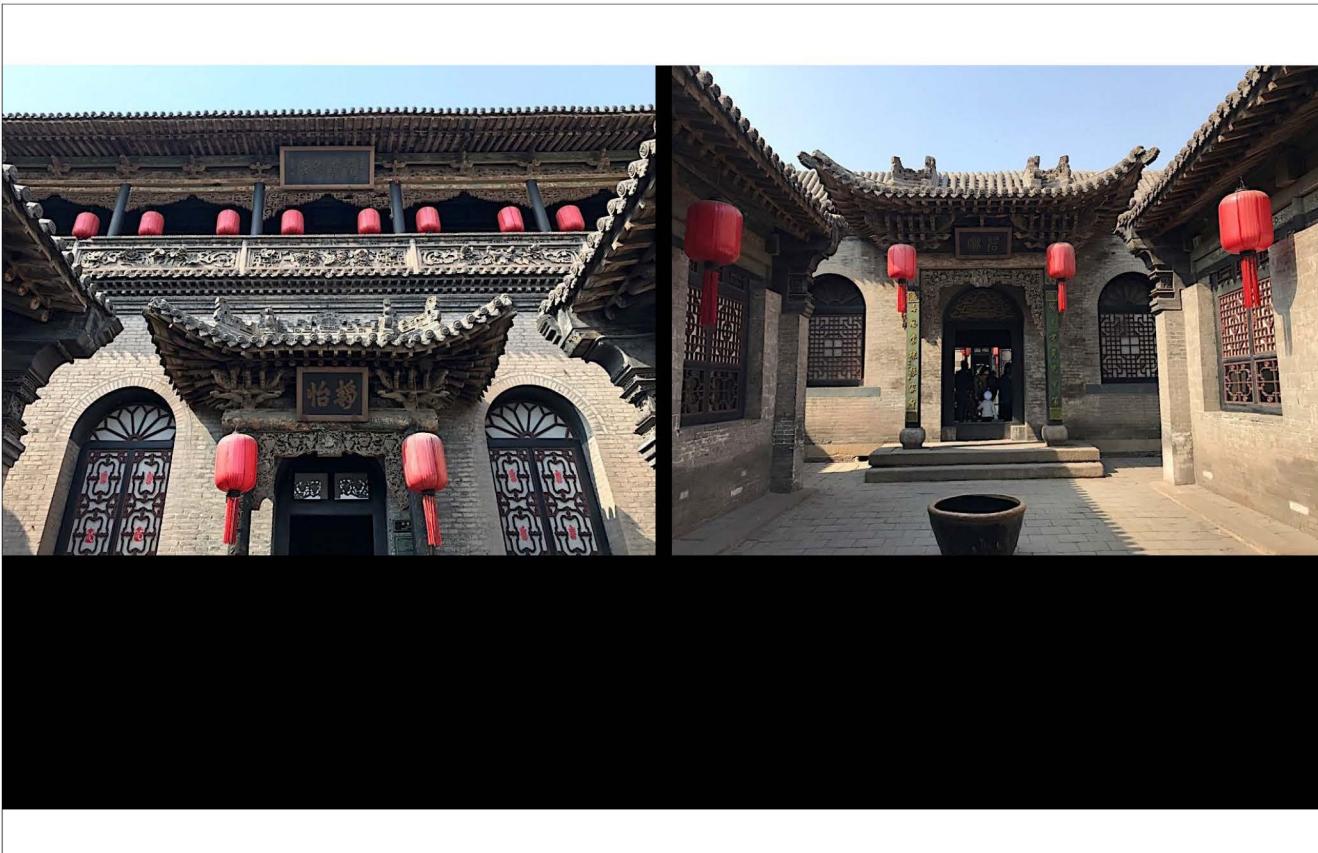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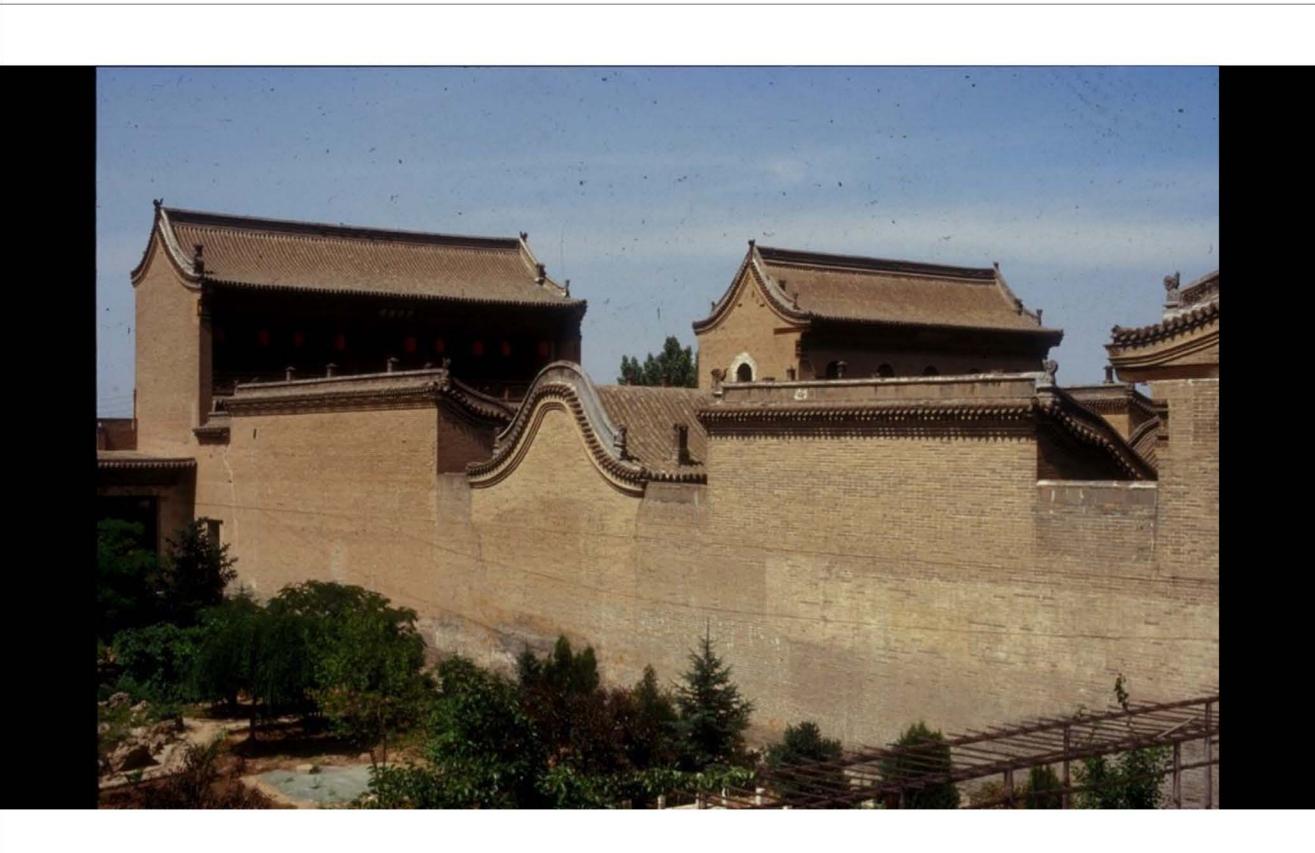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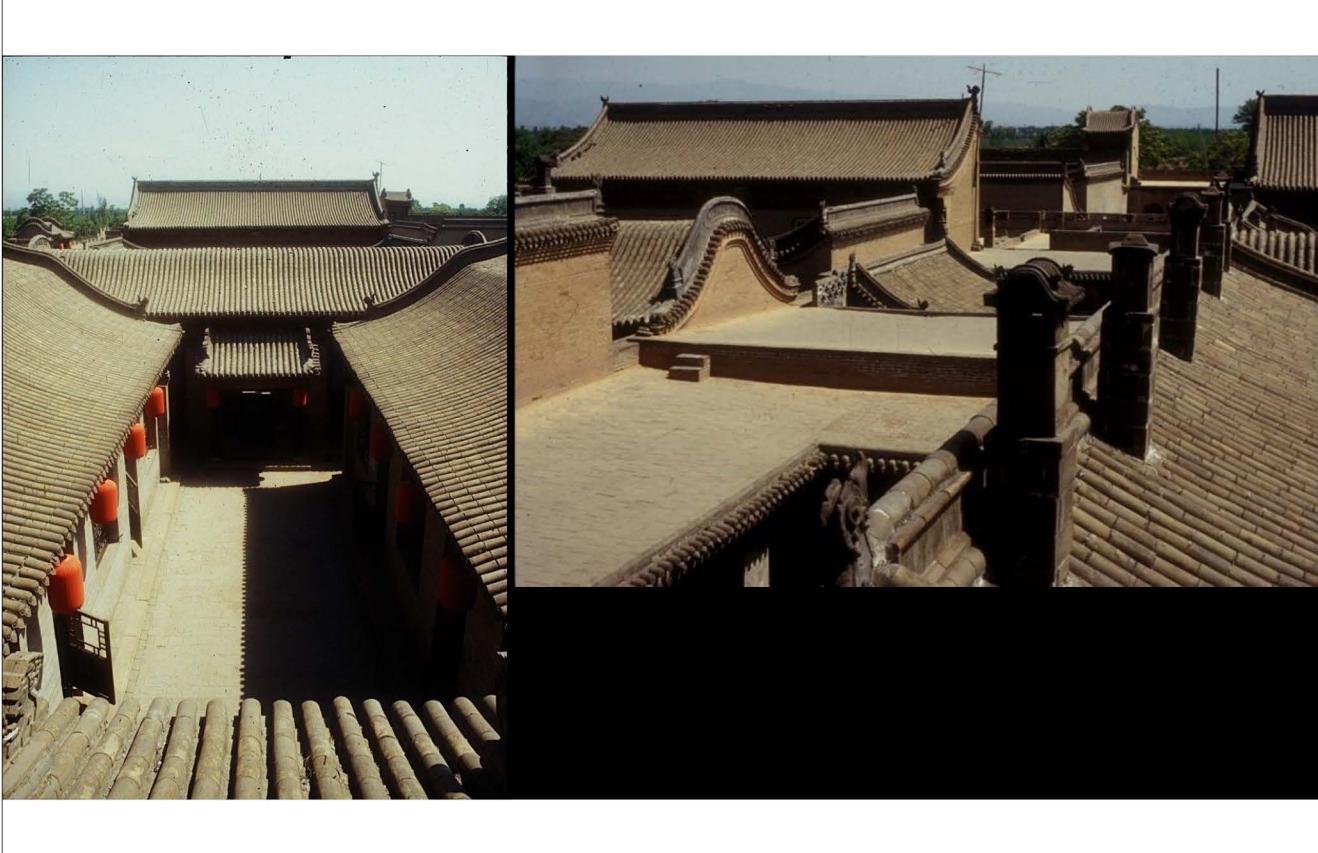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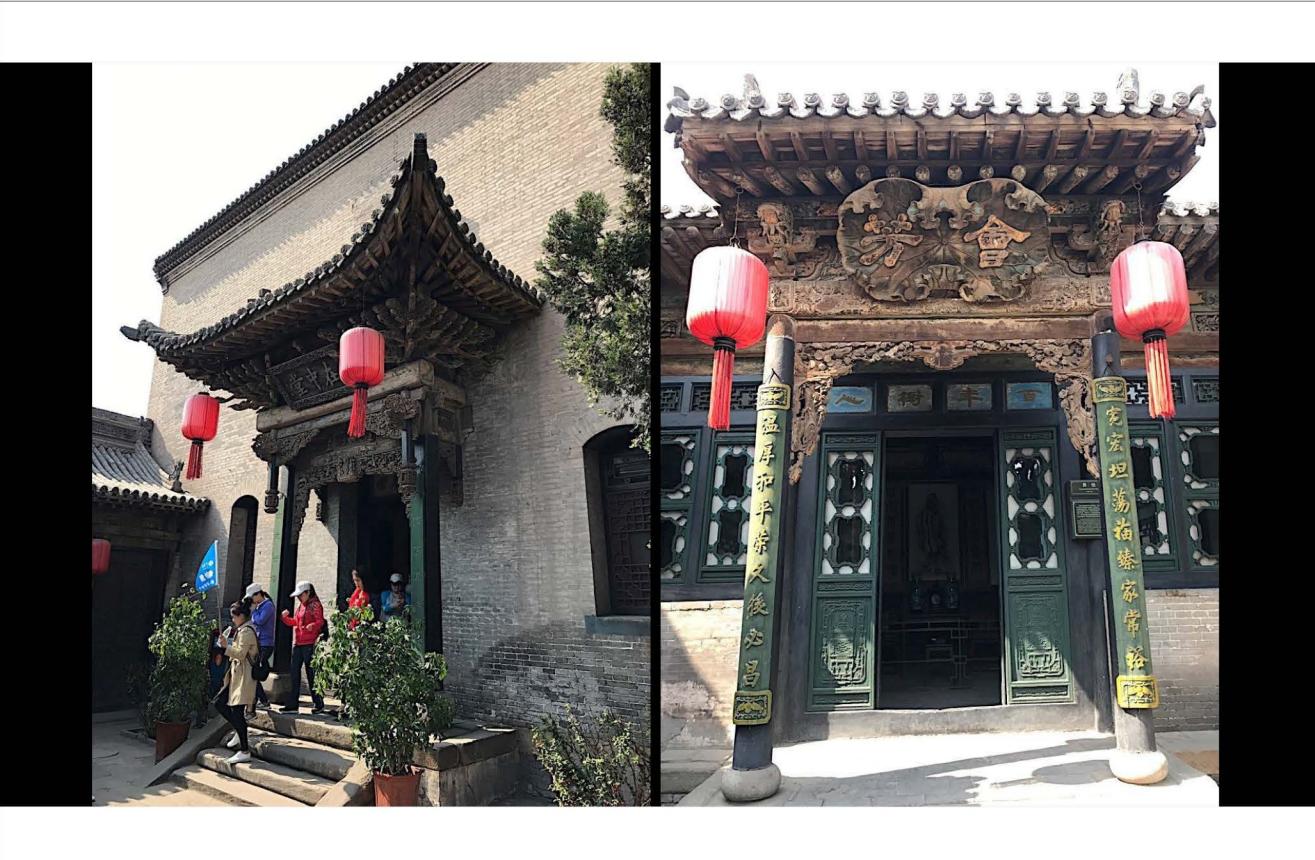






차오(Qiao) 가
문의 요새화된
주택, 치센
(Qixian)현, 푸
젠성, 18세기
山西祁縣喬家大
院。乾隆年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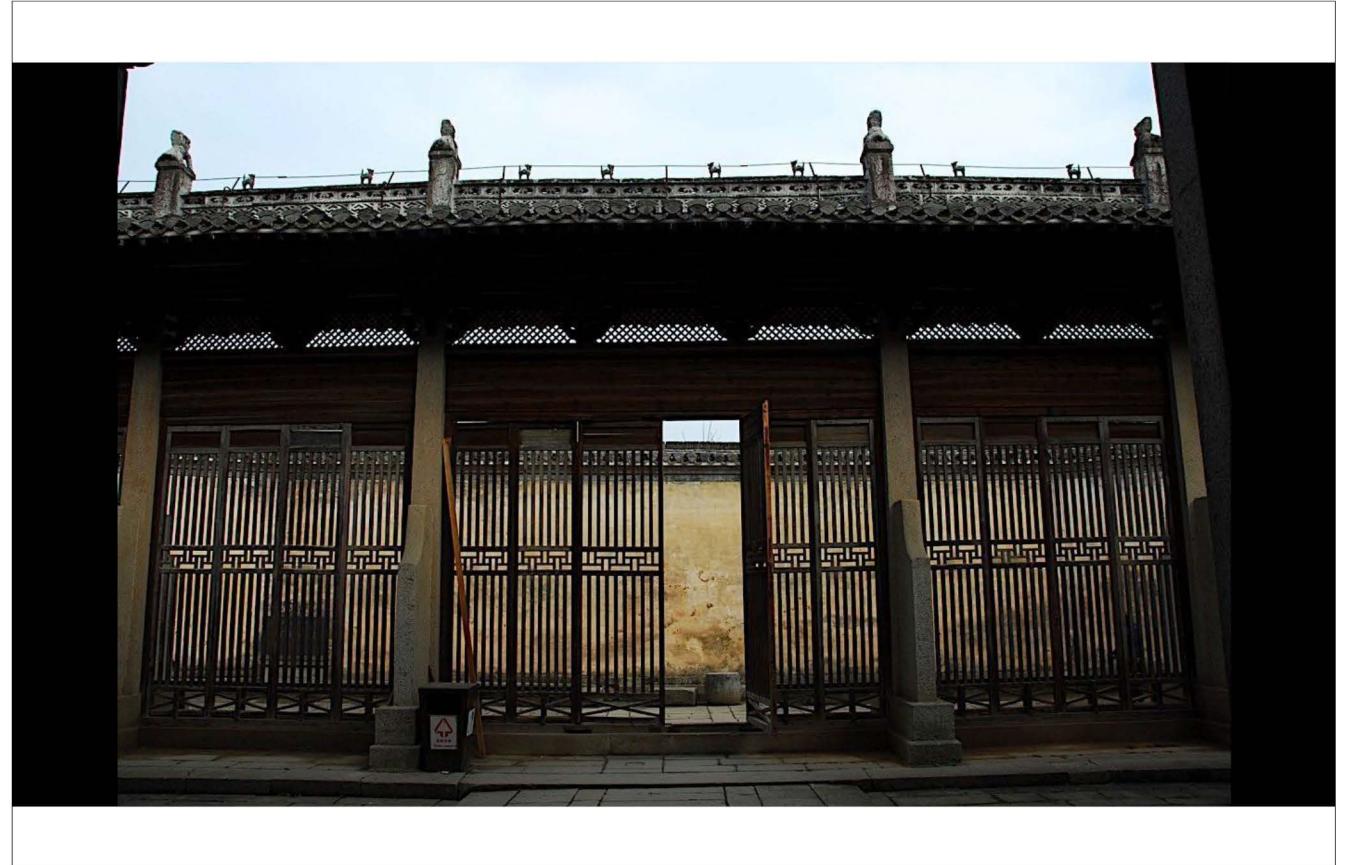


중국 민속 건축의 공간적 언어를 이해하는 세 가지 단계
 거시적 중국 문화 맥락
 지역 또는 지방 관습
 개인의 특이성과 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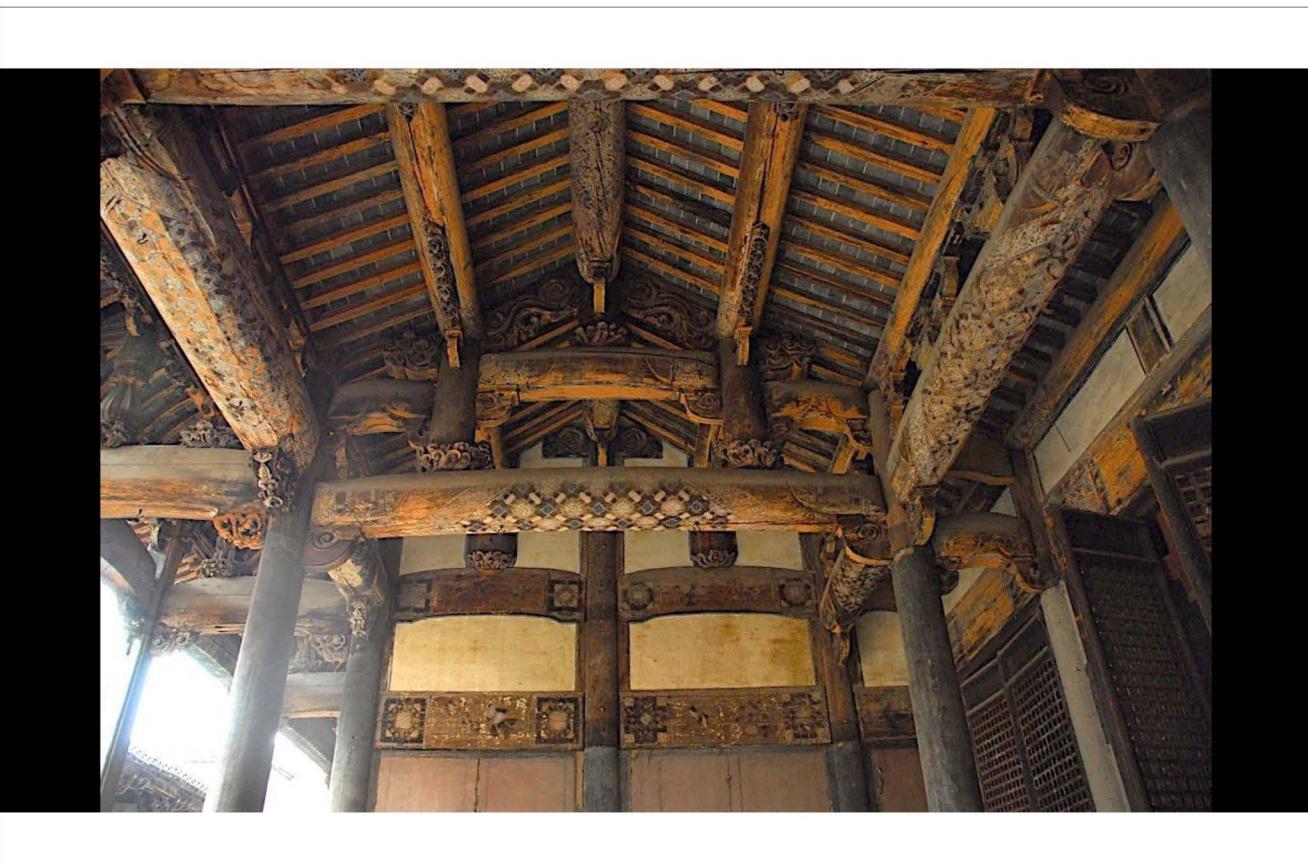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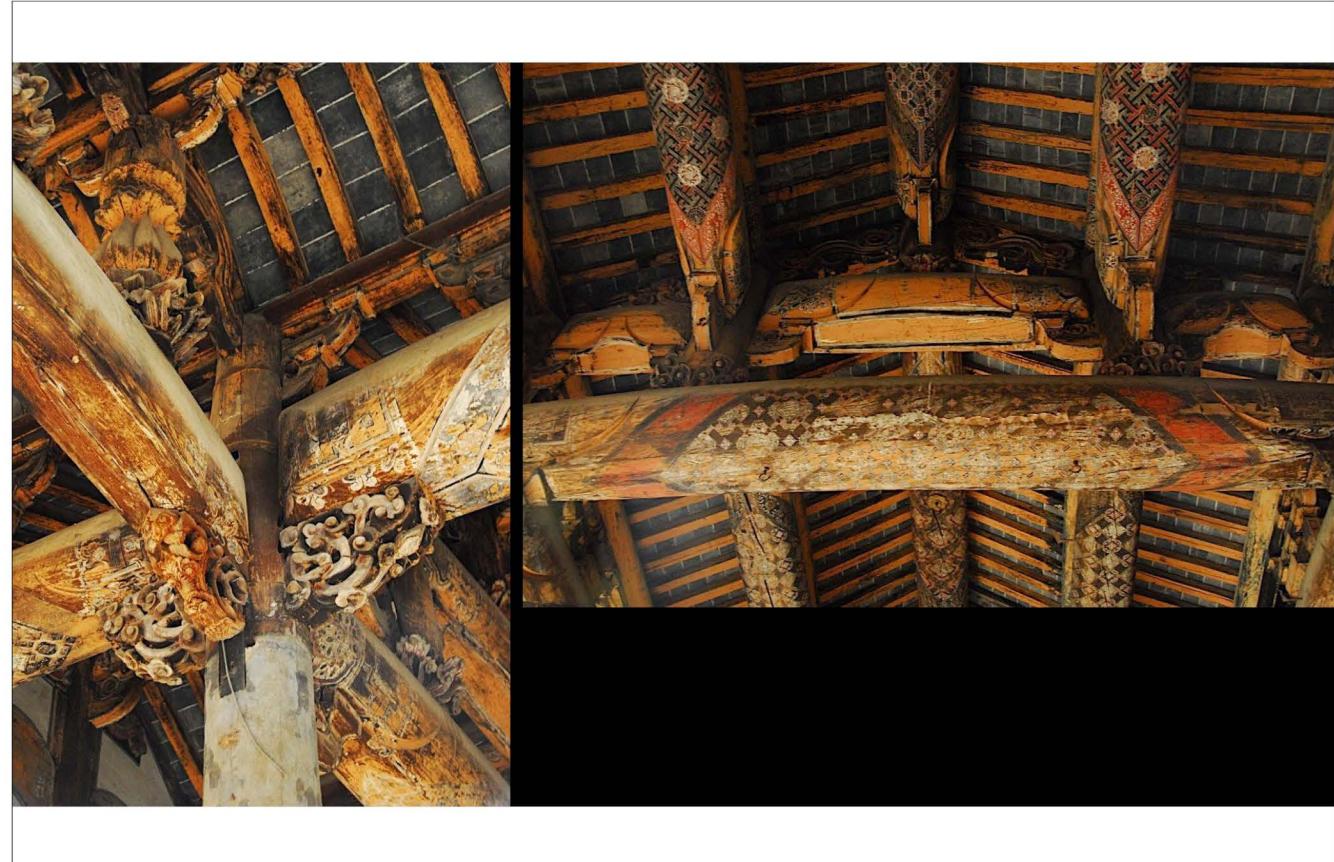
창춘(Chang chun) 사당,
 안후이(Anhui)성,
 셰센(Shexian)현,
 청칸(Cheng kan) 마을,
 12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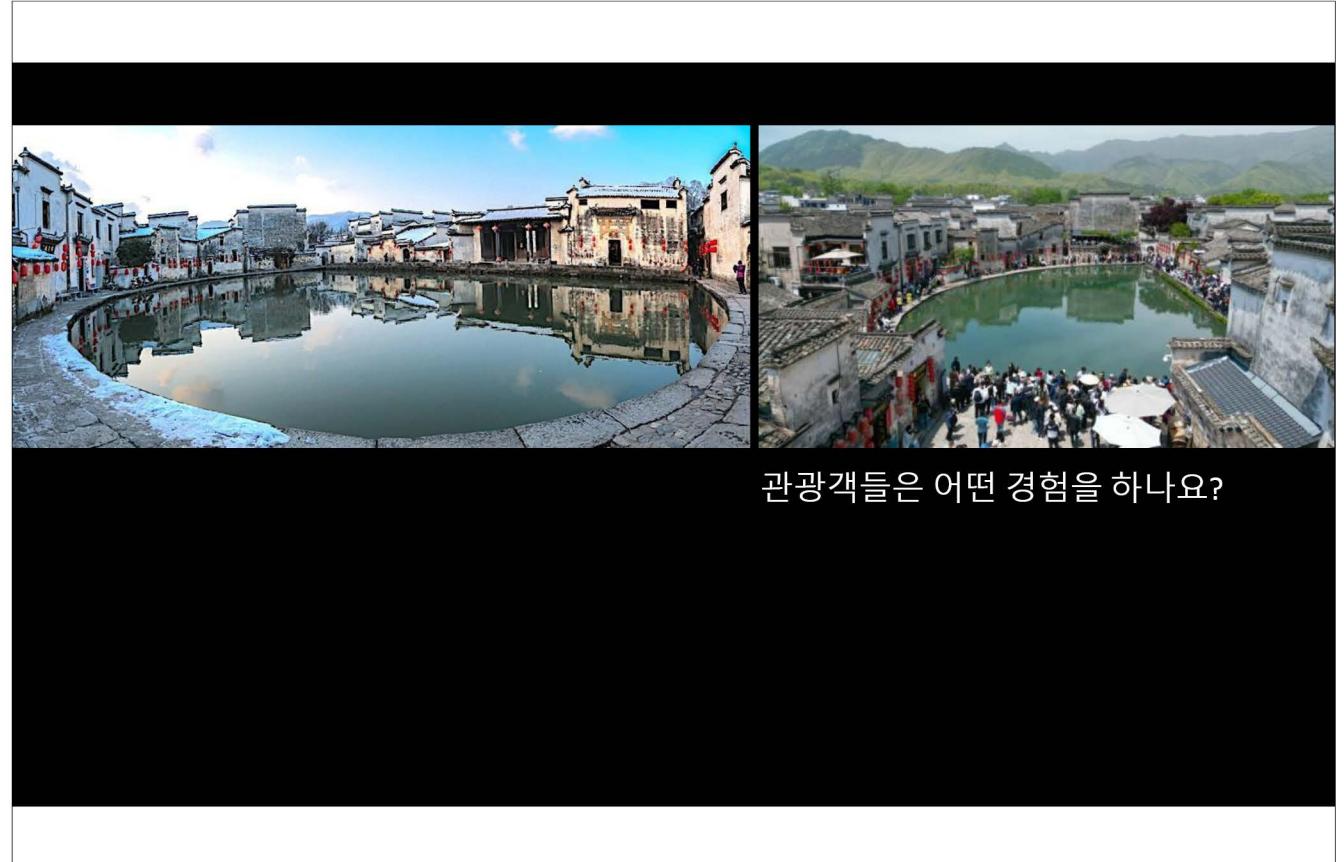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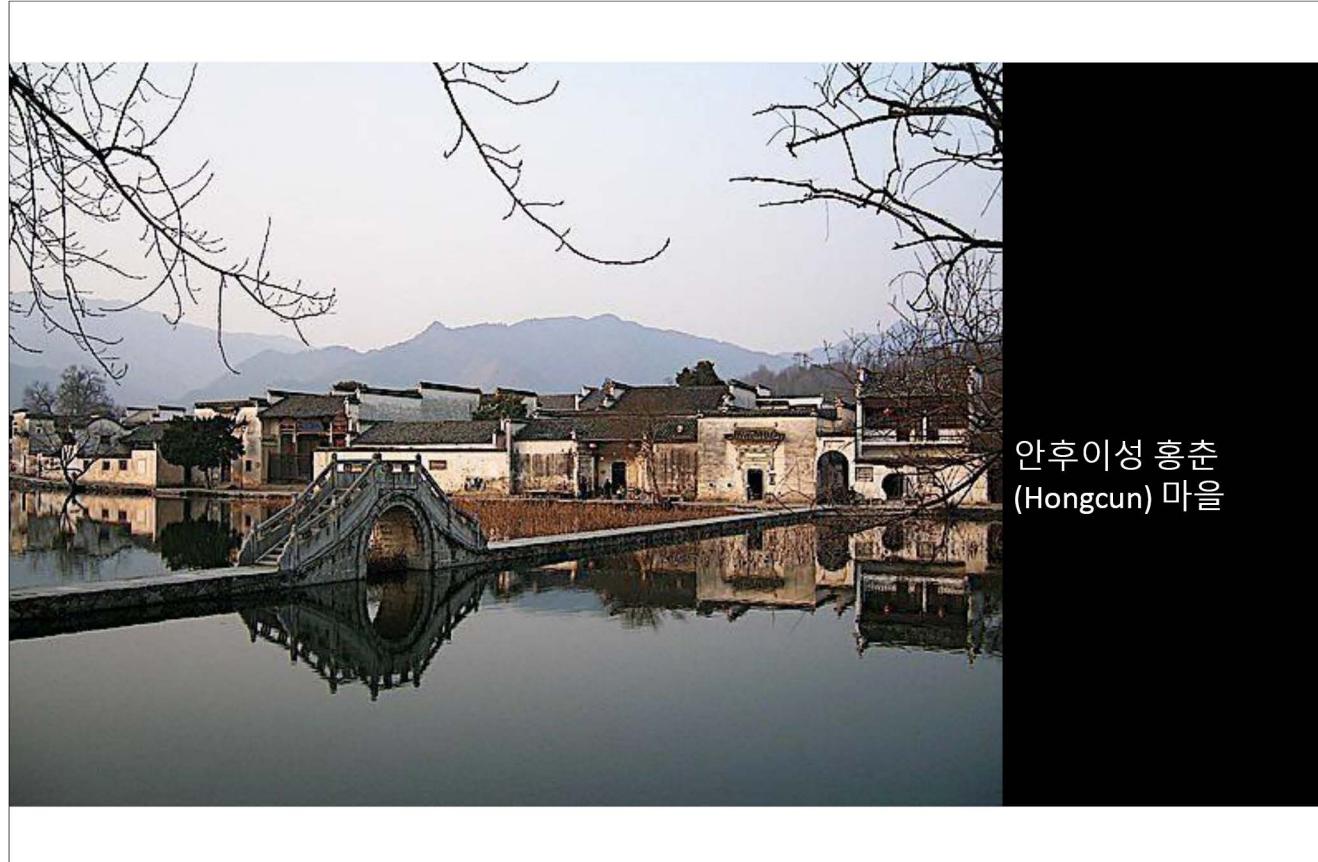


Luo Dongshu(Luo Dongshu) 종묘, 청간(Chengkan) 마을 1542-1617
 安徽歙縣呈坎羅東舒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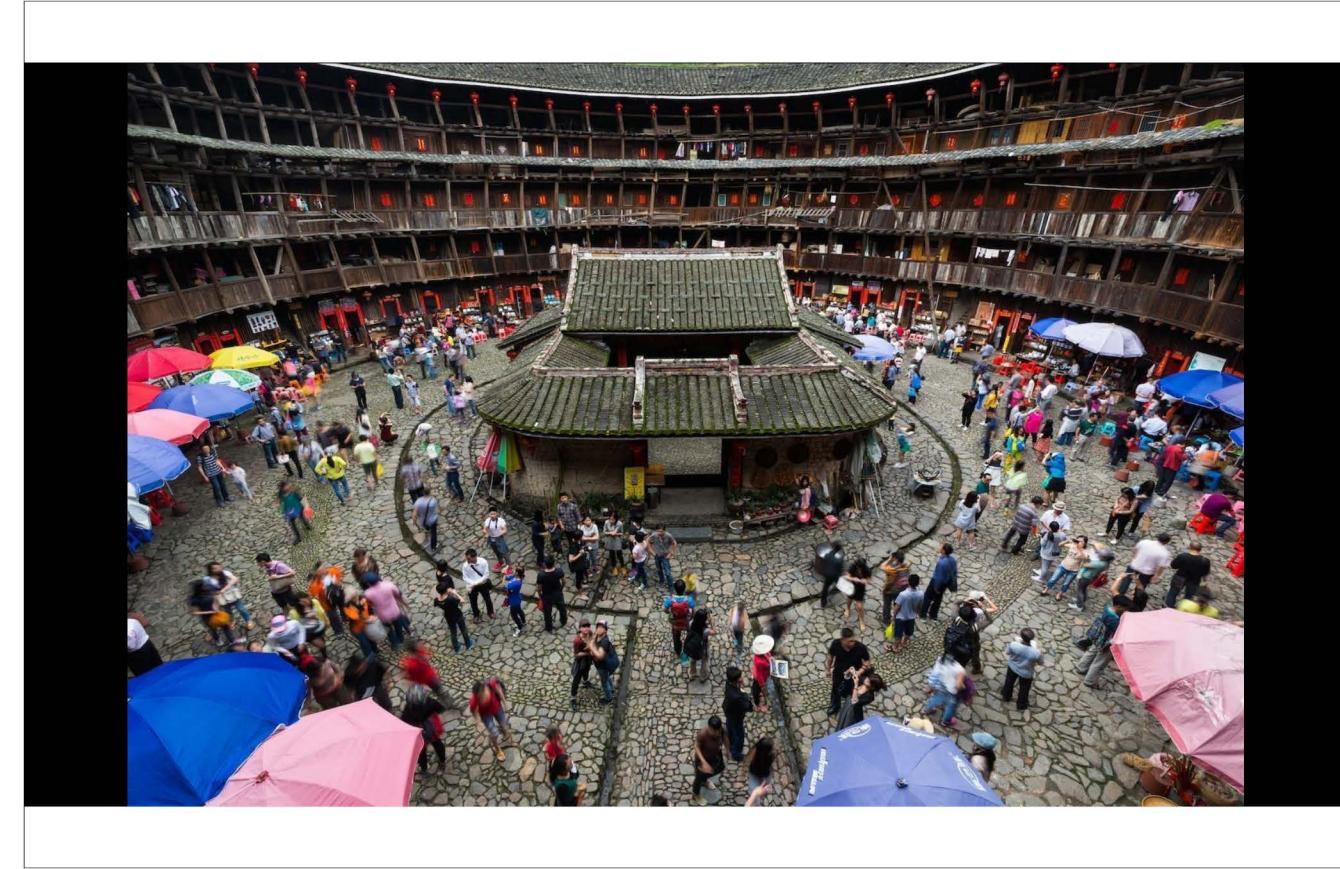


세계유산 등재로 인한 문제점
관광객 수 증가
마을 생활의 진정성 부족
박물관화





푸전 토루의 마을



NATIONAL GEOGRAPH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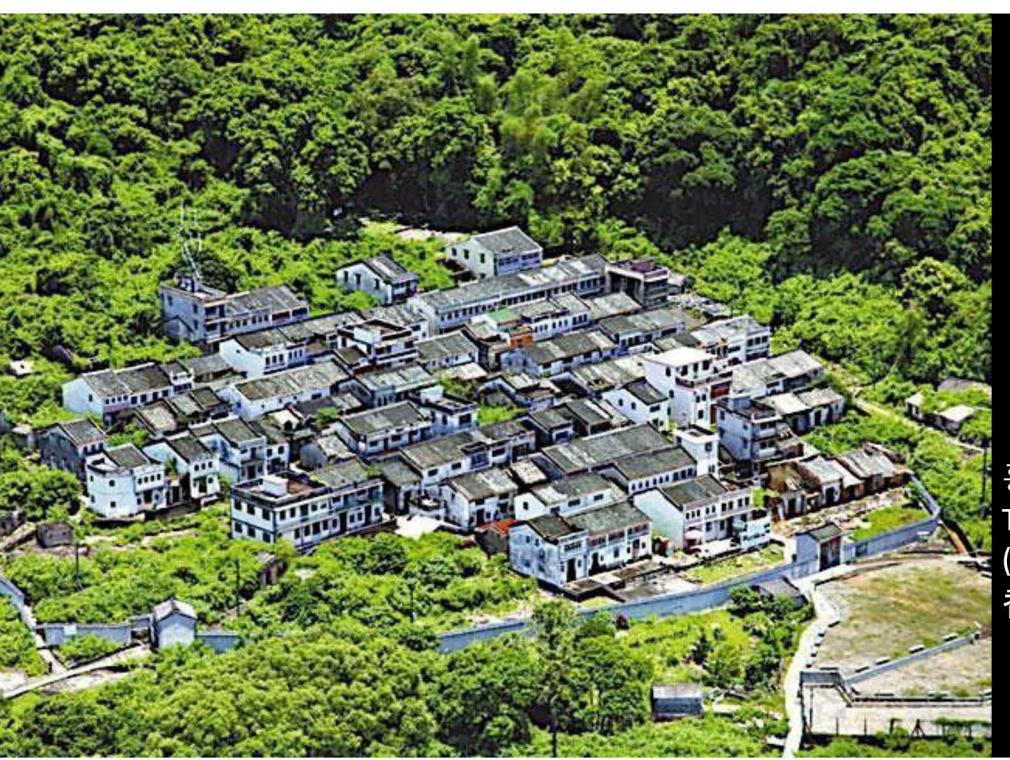
LOGIN Newsletters SUBSCRIBE MENU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history/article/150102-hakka-china-tulou-fujian-world-heritage-culture-housing>

중국 남동부 푸젠성의 토루(earthen building)는 14세기에서 15세기경 중국 중부에서 이 지역으로 남하한 허카(Hakka)족이 지은 전통 주택입니다.
PHOTOGRAPH BY MICHAEL YAMASHITA, NATIONAL GEOGRAPH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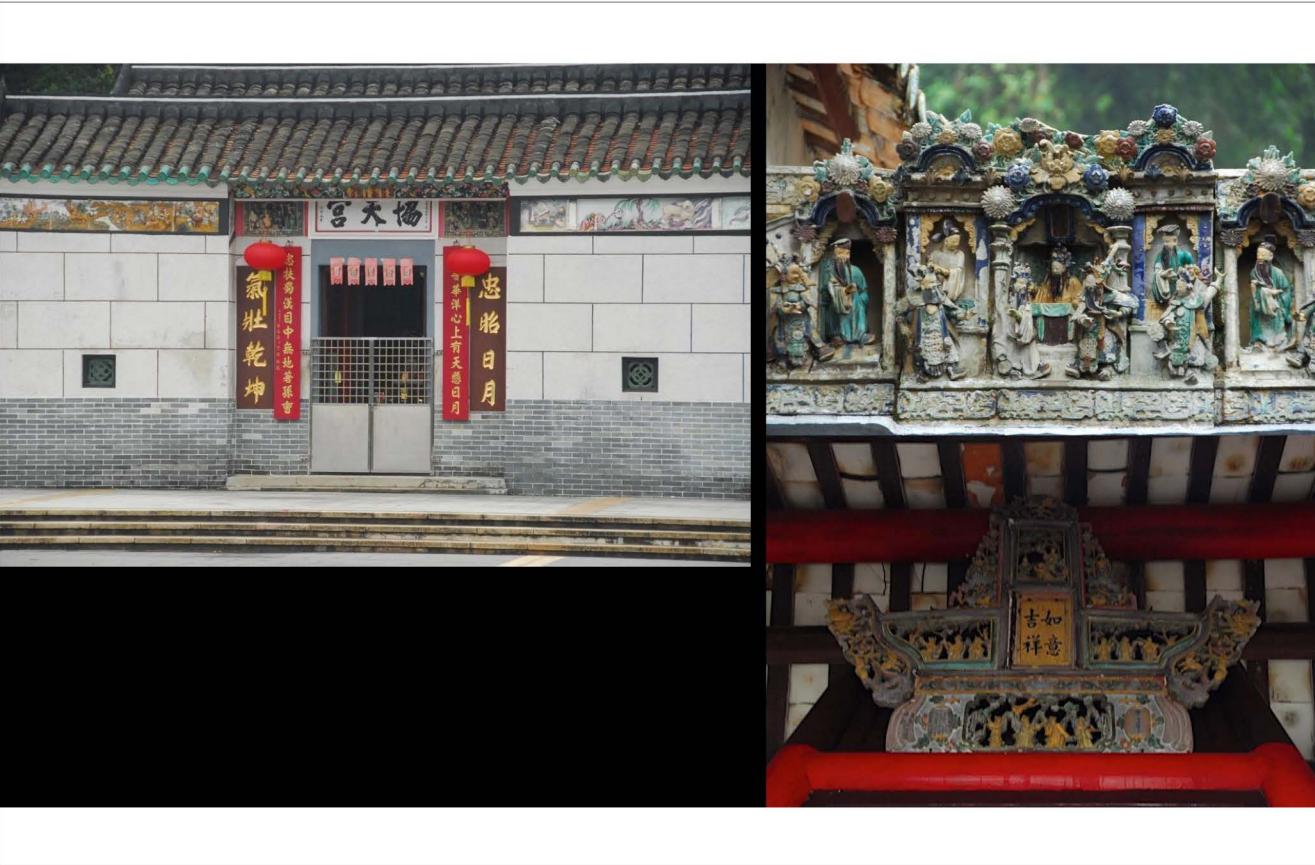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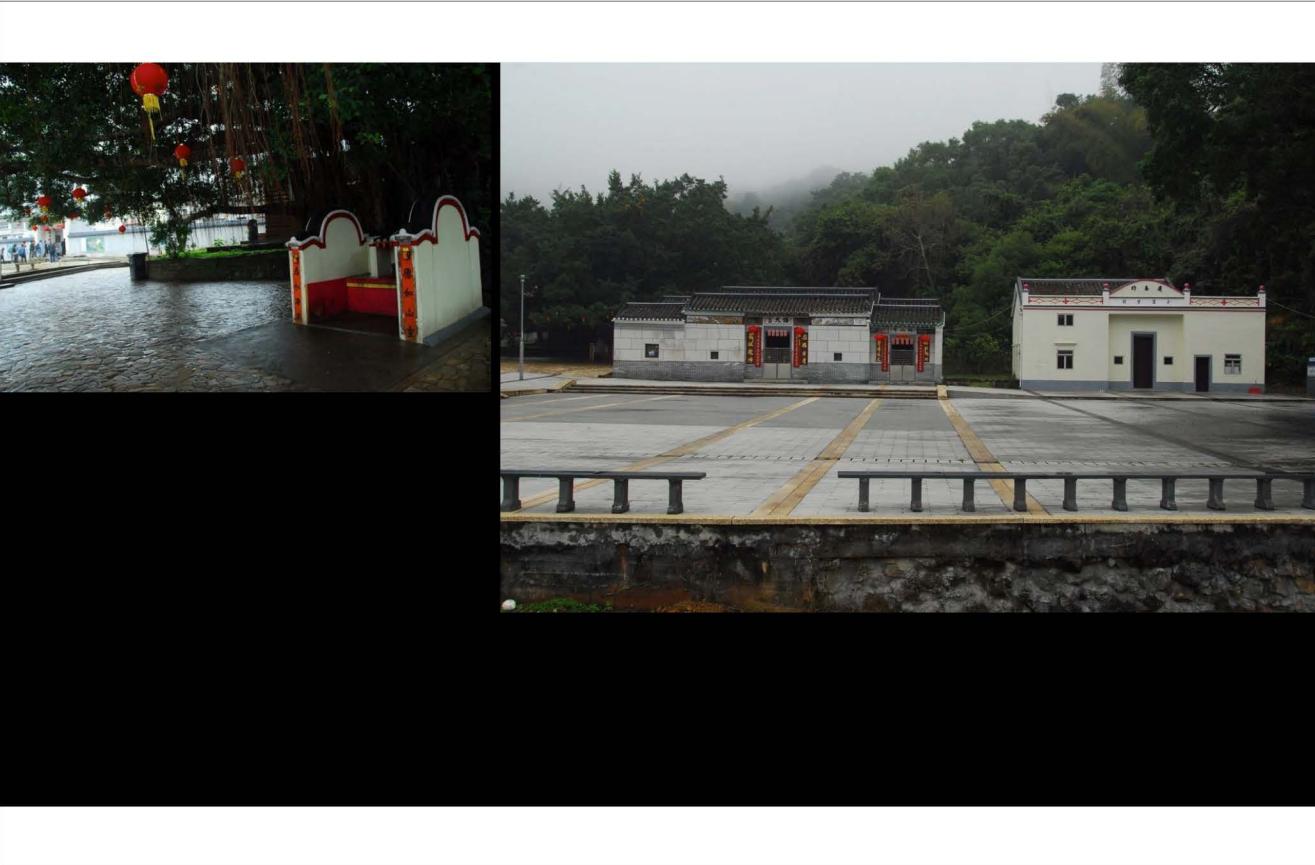
중국의 산간 요새,
주민은 줄고 관광객은 늘다

Tom O'Neil 작성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history/article/150102-hakka-china-tulou-fujian-world-heritage-culture-housing>



홍콩 사타우콕(Sha
Tau Kok) 라이치우
(Lai Chi Wo) 마을
香港沙頭角荔枝窩村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I: 사례연구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지역 유네스코 기록유산 프로그램

카트린 블록

-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부의장

유네스코 라틴아메리카·カリ브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MoWLAC)

Catherine Bloch
MoW 멕시코위원회 위원장

MoW 국제자문위원회 (IAC) 부의장

유네스코 지정유산 국제학술대회 세계: 안동하회마을,

2024년 10월 16-18일

한국국학진흥원(KSI), MOWCAP 사무국 주최기관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원으로 대한민국 안동시 주최

라틴아메리카·カリブ해 지역

- 바하마와 멕시코부터 가이아나,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확장된 영역을 포함한다. 약 6억 7000만 명의 주민(2016), 800만 이상의 평방 마일을 포함한다.
- MoWLAC 회원국은 규모, 인구, 자원, 역량이 상당히 다양하다.
- 회원국들은 과거 식민지였으나 독립한지 가장 오래된 국가들은 지식과 유산 기관을 더 오래 발전시켜왔고, 등재 신청부터 등재까지 선두에 위치해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라틴아메리카·カリブ해 지역위원회는 2000년 6월 창설되어 2002년 등재를 시작하였다.

이후 약 2년마다 총회를 열어왔다.
총회는 멕시코(2회), 에콰도르(2회), 칠레, 바베이도스,
브라질, 바하마,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페루,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었다. 퀴라소, 파나마,
볼리비아는 2020년, 2021년에 가상회의를 가졌고, 제12회
총회가 열렸던 아루바에서 2023년 총회가 개최되었다.





라틴아메리카·カリ브 국가 공동체 (CELAC)

33개의 MoWLAC 회원국들이 세계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다.

- ▶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칠레, 도미니카연방,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은 스페인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나 이 지역 회원국들은 포르투갈어, 불어, 네덜란드어를 구사한다.
- ▶ 카리브해에는 16개의 주권국, 12개의 섬 또는 속지(dependencias)가 있다.
- ▶ 카리브해 국가들은 대부분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들이다. 가장 큰 섬은 쿠바, 히스파니올라(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푸에르토리코가 있다.
- ▶ 프랑스는 카리브해에 프랑스 주(department),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 생바르텔르미, 세인트마틴섬이 있다.
- ▶ 네덜란드에는 앤틀레스 섬들이 있는데, 네덜란드령 카리브로 알려진 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이 포함된다.
- ▶ 카리브해에서 영국의 해외영토에는 앵귈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몬세라트가 포함된다.
- ▶ 미국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가 있다.

MOWLAC에 포함된 26개의 국가위원회

아루바	바베이도스	벨리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拉斯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신트마르턴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2018년 MoWLAC 카리브해 국가의 목록

* 트리니다드 토바고	10	* 아이티	2
* 앤티가바부다	0	수리남	4
* 자메이카	6	가이아나	3
* 세인트루시아	3	몬세라트	1
* 바베이도스	6	퀴라소	1
* 세인트마르턴	2	바하마	2
* 벨리즈	1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
* 도미니카공화국	4	도미니카 연방	1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0	앵귈라	0
* 쿠바	8	그레나다	0
* 아루바	0	케이맨 제도	0
* 세인트키츠네비스	0		

* 국가위원회가 있는 국가

목록 수에 따라 정리한 MoWLAC 국가 (18개)

	개인	공동	총계
• 볼리비아	28	2	30
• 콜롬비아	20	5	25
• 아르헨티나	20	2	22
• 우루과이	12	2	14
• 트리니다드토바고	13	0	13
• 자메이카	9	2	11
• 에콰도르	7	3	10
• 바베이도스	8	0	8
• 칠레	4	2	6
• 코스타리카	6	1	7
• 도미니카공화국	4	0	4
• 수리남	4	0	4
• 엘살바도르	1	3	4
• 과테말라	3	0	3
• 가이아나	3	0	3
	1	2	3

▶ 카리브해 국가들은 유산 관련 기관이 오래되지 않았고, 대표성이 낮다. 군소 도서 개발국(SIDs)의 기록 역사가 최악의 구성 및 보존 상태를 보이면서 대표성이 가장 낮았다.

▶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신청 방법은 공동등재다. 1817-34년 영국령 카리브 해 지역의 노예 명부는 2011년 9개국 이상이 신청하였다.

MoWLAC 국가의 세계 목록

- ▶ MoWLAC는 총 496건의 세계기록유산 중 세계적으로 77건의 목록을 보유 중이며, 그 중 일부는 공동등재에 해당한다.
- ▶ 아랍 국가 17건
- ▶ 아프리카 국가 35건
- ▶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 154건
- ▶ 유럽과 북미 국가 274건

2023년 11월 기준 제23차 MoWLAC 총회에 23건이 새로 등재되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에서 30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니카라과에서 부록을 제출하였다.

2018년까지 유네스코
라틴아메리카·カリ브해
세계기록유산(MoWLAC)은 공동 및 단일
등재를 포함해 총 233건의 기록물을
등재하였다.

2023년 11월, 칠레 산티에고에서 열린 MoWLAC 회의에서 브라질 출신 비토 폰세카(Vitor Fonseca)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 기록 유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 ▶ 사람들은 도서관이 기록 유산인지 알지 못한다.
- ▶ 유산을 보호하는 데에는 정보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 ▶ 세계기록유산 목록은 목록 그 자체다.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존, 생산, 정보기술이 필요하다.
- ▶ 목록은 모든 기록의 보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황:

-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기록 유산은 매우 풍부하지만 세계유산기록에서는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과소대표되고 있다.
- ▶ 열대국의 시청각 기록, 음악 기록, 식민지 교회의 합창곡집, 카리브 섬의 설탕 재배지 지도와 계획서 등 일부 유산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
- ▶ 보호와 보존에 대한 공통된 문제를 알아내려면 지역 간 회의가 유익할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요구에 민감해지는 것도 중요하다.
- ▶ MoWLAC는 기록 유산의 보존, 보호,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가상 관측소(virtual observatory)를 열었다.
- ▶ 위험도가 높은 58건의 문서와 위험도가 중간 수준인 70건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끝내기 전에...

MoWLAC 목록에서 가장 많이 추구하고, 제시, 수용 및 등록된 주제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지역 및 국가 위원회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의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기록 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진하기 위해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겠다.

최근에 여러 유네스코 지역, 기타 국제 기관, MoWLAC 회원국들 간에 이루어진 활동의 두 가지 실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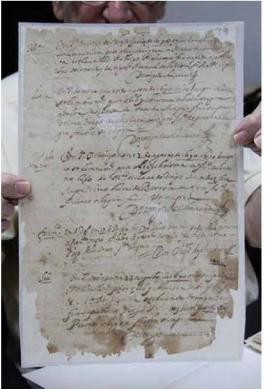
- 수개월 전에 칠레 산티에고에서 MoWLAC, ICDH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스페인의 이베르아카이브(Iberarchivos), 칠레 국립기록보관소 간에 이루어진 상호작용. 세계유산기록에 대한 제안서 정교화에 집중하여 이베르아카이브 회원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촉진하고자 워크숍이 개최됨.
- 멕시코 국가위원회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최초로 학생과 학자를 위한 MoW 지식센터를 만들었다.

어떤 대상을 저장하는 데에 가장 관심이 있는가?

- ▶ 자국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역사는 어떤가?
- ▶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전 역사, 노예 무역 기록, 본래의 인구



도미니카 공화국 노예 세례 기록부 (1636 - 1670)



또 무엇을 보존하고 싶은가? 영화, 음성 기록, 사진, 디지털화된 문화상품을 통한 우리의 최근 역사...



또 무엇을 보존하고 싶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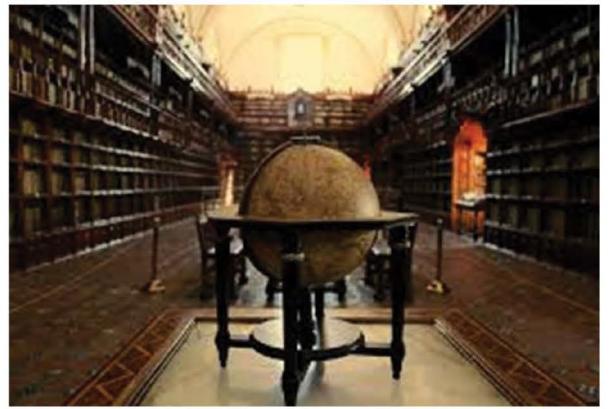
- ▶ 우리의 문화유산: 성배로부터 유산 기록, 페루의 보호자 산 마르틴 / 멕시코의 소르 후아나 이네즈 데 크루즈(Sor Juana Ines de la Cruz) 기록물 / 볼리비아 다큐멘타리스트 조지 루이스(Jorge Ruiz)/ 도미니카공화국의 프래디크 리자르도(Fradique Lizardo) 음성 기록물 / 쿠바 영화 포스터



13년간 옥중에서 작은 수첩에 연감을 써서 나무신발에 숨겨둔 게릴라 운동가 호세 티스코니아 바치의 일기(Diary of the Uruguayan exguerrillero Jorge Tiscornia Bassi). 후에 그는 우루과이 대통령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멕시코의 최초 국제 목록,
팔라폭시아나 도서관입니다. 15-18세기 컬렉션.

Convocatoria 2024

Registro Memoria del Mundo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ierre

19 agosto

documentos de naturaleza archivística, bibliográfica o audiovisual.

unesco Comité Mexicano de Memoria del Mundo

The slide is a call for applications for the World Memory Register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t features the UNESCO logo and text in Spanish. A photograph of library shelves filled with books is visible on the right side of the slide.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I: 사례연구

얽힌 서사: 중앙아시아의 역사, 문화 그리고 기억

아이자킨 코조베코바

-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대학교 교수



얽힌 서사 : 중앙아시아의 역사, 문 화, 기억

아이자킨 코조베코바 (Aijarkyn Kojobekova)
박사, 부교수,
시민사회 이니셔티브 UCA 감독, 키르기스스탄

역사와 집단 기억

역사와 집단 기억은 그 특성과 경계를 잘못 이해하곤 한다

- 과거 사건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파헤친다
- 주요 차이와 상징적 순간을 강조한다
- 역사에서 사회적 시간은 별개의 범주로, 범세계적 관점을 제시한다

모리스 알박스
(Maurice Halbwachs),
기억의 사회적 틀 (1925)

역사

서론



중앙아시아의 역사 및 문화 경관은 국가 정체성과 기억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야기에 의해 형성된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역사, 집단 기억, 기록 유산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살펴보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이념적으로 구성되고 이의를 제기하며 보존되는지 살펴본다.

타슈켄트, 오랜 삶의 방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된다.
율리아 펠리페이(YULIA PELIPAY) 기록 보관소. 타슈켄트
영서 배경 URL: [HTTPS://CA-PHOTOARCHIVES.NET/PHOTOS/23934/](https://CA-PHOTOARCHIVES.NET/PHOTOS/23934/)

기억과 기록유산



기록유산

국가의 기억에 대해 중요한 요소로써 역할을 하고, 고문서 기록, 필사본, 그 외 자료를 통해 이야기를 보존한다. 중앙 아시아의 기록유산은 풍부한 역사를 반영하지만 과거의 이념적 조작과 정치적 전환으로 인해 상당한 격차가 남아 있다.

사회적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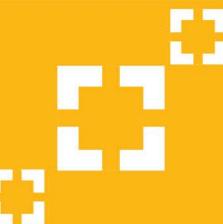
- 공동의 이야기
- 개인과 사회 간 역동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누가 기억해야 할까?
누구에게 중요할까?

지역사회 내 다양성 (전문가와 대중, 고립된 집단, 도시 및 농촌 인구 등)

바스마치
<https://e-history.kz/ru/history-of-kazakhstan/show/9229>
(Qazaqstan tarihy)

과거의 재고/재해석을 위해 구술 역사를 부활시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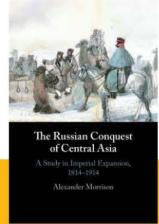
구술 역사는 중앙아시아에서 특히 정치적 이념에 의해 소외되거나 재형성된 이야기를 비롯해 과거를 되찾고 재해석하는 도구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

지역 내에서 개인적인 이야기와 지역적 경험에 중점을 둔 구술 역사 프로젝트를 부활시킴으로써 공식 역사에 균형을 제공하고 기록물에 나타나는 간극을 채운다.

중앙아시아 국가의 구술 역사 프로젝트는 전통 역사적 서사에서 보통 누락되는 목소리를 강조하여 집단 기억을 풍요롭게 한다.

전략





기억
기념
기억의 날
회의
전시회
기념물
기억의 장소

망각
도시, 도로 등 재명명
흑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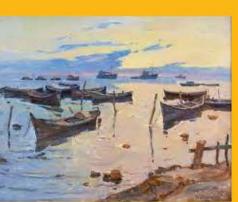
침묵
민감한
인기가 없는
편하지 않은

전략

각 중앙아시아는 기록 원본 보존부터 기록의 디지털화까지 기록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왔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문서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공통된 과거를 기억하고 반추하는 과정에 국민을 관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공식 담론** (기념식, 기억의 날)
- **공동 학술 프로젝트**(소그드 문자 목록 – 실크로드의 기록 유산 (IICAS-ICDH))
- **시민운동**(1916년 키르기스스탄 봉기의 희생자를 기리는 행진)
- **예술**(누쿠스 소재 사비츠키 박물관에서 열린 “물의 기억” 전시회에서 아랄해와 아무다랴강(우즈베키스탄)을 주제로 하여 유명한 지역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전시)

기억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기억 기관




국립 기록 보관소,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기관들은 기록 유산과 집단 기억을 보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전시품의 전시, 기록 발간, 공공 토론회, 축진을 통해 대중이 과거와 의미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기억 기관은 공식 및 비공식 역사의 보존을 보장하기도 하며, 지역의 복잡한 역사적 태피스트리에 대해 균형 잡힌 이해 또는 이념적인 이해를 촉진한다.

중앙아시아 속 기억과 기억에 대한 국제 정치

기억에 대한 중앙아시아의 정치는 고립되어 있지 않고, 국가가 과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재해석하는지를 형성하는 더 넓은 세계적 절차를 반영한다.

지역에서 발전하는 기억 경관은 세계적 역학과 교차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역사, 기억, 정체성 간 복잡한 관계를 강조한다.

정체성

역사의 선택적 기억과 해석을 통한 개인 및 집단 정체성 구성으로, 국제 문화 및 정치적 힘으로 형성되는 절차.

집단 정체성의 발현

기억은 세계적 정체성 정치로 가득한 국가 및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재정의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기억의 민주화

역사적 대화에서 지분이 큰 세계적 운동을 반영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포용적인 기억으로 만들려는 노력.

중앙아시아 속 기억과 기억에 대한 국제 정치

역사의 객관화와 기억의 주관화

사실적이고 객관화한 과거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억의 경험 간 긴장

직선적 및 순환적 역사

반복과 재발하는 패턴을 강조하는 역사의 순환적 관점과 직선적 진행을 지향하는 역사의 공존.

포함과 제외

기억 정치는 누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누구의 이야기가 소외되는지 결정하며,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포함과 제외 패턴을 반영한다.

현재의 역사

과거의 사건은 현재 정치 및 사회적 맥락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정체성 형성과 국가의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cribed Heritage Conference

주제발표 III: 사례연구

유네스코 체제와 대한민국의 무형유산 정책

허용호

- 신경주대학교 교수



유네스코 체제와 대한민국의 무형유산 정책

허용호



1. 유네스코 체제의 형성과 대한민국의 참여

- '유네스코 체제'의 개념 정의
- 유네스코 체제의 형성 과정
-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종목

-3-

목차

1. 유네스코 체제의 형성과 대한민국의 참여
2. 무형유산의 소유의식 발현과 관련 논란
3. 무형유산에 대한 위계적 사고의 강화와 해체
4. 유네스코 체제와 대한민국 무형유산 정책의 변화
5. 연대와 평화의 매개로서 무형유산 전유
6. 유네스코 체제의 미래 전망

'유네스코 체제'의 개념 정의

- 체제(Regime) : 일반적으로 체제는 “국가와 사회 간 관계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칙과 규범”이지만, 유네스코 체제에서의 체제란 “국가 간의 층위에서 행위자들(actors) 간의 협상을 통해 산출되는 것”. (Regina F. Bendix, Aditya Eggert, Arnika Peselmann, (eds), *Heritage Regimes and the State*,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2012, pp.12~13.)
- 유네스코 체제(UNESCO regime) : ‘유네스코 차원에서 국가 사이의 협상을 통해 형성된 무형유산 관련 논의와 실천’을 의미.
- 이러한 유네스코 체제가 근래에 전 지구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개별 국가 차원에서 유네스코 차원의 무형유산 관련 논의와 인식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임.

-4-

유네스코 체제의 형성 과정

- 1973년 볼리비아 정부가 민속 보호를 유네스코에 요청.
- 1989년 '전통문화와 민속의 보호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 1998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결작 선정에 관한 규약 선언'(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 2001년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결작' 선정 시작(2008년 프로그램 종료).
-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2006년 협약 발효(2023년 현재 182개국 협약 비준).
-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프로그램 시작.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과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 선정 공표.

-5-

2. 무형유산의 소유의식 발현과

관련 논란



사이버외교사蝎단 박크 베포 포스터

- 단오 소유권 논란
- 농악 종주국 논란
- 아리랑 소유권 논란
- 논란의 원인
- 논란 해결의 전망

-7-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종목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마리당영등굿(2009), 치용무(2009)
- 가곡(2010), 매사냥(2010), 대목장(2010)
- 줄타기(2011), 택견(2011), 한산모시짜기(2011)
- 아리랑(2012), 김치와 김장문화(2013), 농악(2014)
-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 씨름(2018)
- 연등회(2020)
- 한국의 탈춤(2022)



348

단오 소유권 논란 (2005년 강릉단오제 등재 과정의 논란)

- 한국에서 중국문화를 자기 문화로 하려 한다.
- 단오는 중국 고대 중국에서 기원. 한국이 이를 빼앗아 갔다.

- 단오 시기와 명칭은 중국 기원이 맞지만, **한국의 강릉단오제는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

- 무형유산의 원조국이나 종주국으로서의 소유권 주장.

- 문화의 과정적(process) 성격, 글로컬(glocal)한 속성을 주장.

-8-

349

농악 종주국 논란 (2009년 중국 조선족 농악무 등재 전후의 논란)

- 농악무는 한국인들의 농경생활에서 유래. 19세기 말 중국에 유입된 이후 주목할 만한 발전을 함.
- 농악대 편성, 복색 등에서 중국 내 다른 민족들의 영향 수용.
- 농악무는 중국 내 조선족의 중요한 무형유산으로 전승됨.

- 농악은 한국에 고유한 것. 중국조선족 농악은 한국에서 옮겨간 것.
- 한국이 원조인 농악을 중국에서 등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문화의 과정적, 글로컬한 속성 주장.
- 단오 논란에서 한국 측 입장과 동일.

- 무형유산의 원조국이나 종주국으로서의 소유권 주장.
- 단오 논란에서 중국 측 입장과 동일.

-9-

논란의 원인

유네스코의 이상

- '국경을 넘어서서 인류 공통의 지혜를 평화적으로 공유한다.'
- 이는 다양한 공동체의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이상.

유네스코 이상 실현의 현실적 장애

- 장애 발생의 가장 핵심적 이유는 유네스코 자체에 있음.
- 유네스코는 국가를 단위로 하는 조직. 따라서 국가 중심의 사유와 사업 실행이 이루어짐. 이것이 문제의 원인.
- 특정 무형유산의 등재 신청을 국가가 하고, 국가가 주체가 되어 그 무형유산을 보호·관리·소유하게 되는 현 구조상 국가 간의 갈등은 항존. 국경을 넘어서는 무형유산을 국가라는 경계 안에 넣으려 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임.
- 더구나 무형문화유산협약 자체에 남아있는 보수적 문화인식의 잔영("한 문화집단의 전통에 기반하여 창조된 것")은, 유네스코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반목과 다툼을 낳을 수밖에 없음.(한 문화집단=국가'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

-11-

아리랑 소유권 논란 (중국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목록화 전후의 논란)

- 조선족 민요 중 아리랑이 국가급 목록에 등재됨.

- 농악처럼 뻣뻣길지 모른다는 위기감 고조.
- 선점해야 한다는 조급함 표출.
- 우리의 것이니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소유의식 표출.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10-

논란 해결의 전망

논란 생성의 인식 양상

- 무형유산을 특정 국가 혹은 집단이 소유한다는 인식이 여러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
- 특정 무형유산에 대하여 특정 국가나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

논란 해결을 위한 인식 전환

- 국가 간의 갈등이나 집단 간의 알력의 해결책은 인식의 전환이다.
- 무형유산이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특정 집단이나 국가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협약'에서 유념해야 할 두 언급('전통과 현대의 공존'/'포괄성')

- "무형유산은 과거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집단이 참여하는 오늘날의 농촌 및 도시 문화의 관습을 나타낸다."
- "이웃 마을에서 유래한 것이든 세상 저편 어느 도시에서 전해진 것이든, 아니면 삶의 터전을 옮겨 다른 지역에 정착한 이들이 현실에 맞춰 변화시킨 것이든 모두가 무형유산이다."

-12-

3. 무형유산에 대한 위계적 사고의

강화와 해체



-13-

- 유네스코 체제에서의 위계 의식과 그 해체 양상
- 대한민국 무형유산 담론에서의 위계 의식
- 대한민국 무형유산 담론에서의 위계 해체 사례

대한민국 무형유산 담론에서의 위계 의식

무형유산 간의 위계 설정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종목' > '국가 지정 무형유산' > '시도 지정 무형유산' > '비지정 무형유산'
- 공식적으로 위계 존재 불인정. 하지만 각 무형유산 간의 서열 의식은 만연함.(승격, 승급)이라는 표현 존재)

유네스코 '연대 등재' 공동체 간의 위계 상존 양상

- **농악 전승 조직의 이원화:**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시 31개 전승공동체가 참여했지만, 농악 관련 연대 조직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농악 종목 조직'과 '시도 지정 농악 종목 조직(대한민국농악연합회)'으로 이원화됨.

유네스코 등재 이후의 위계 의식 강화 사례

- **무형유산 간 위계 강화:** 기존의 비지정 무형유산, 시도 지정 무형유산, 국가 지정 무형유산의 위계에 유네스코 등재 무형유산이라는 또 하나의 상위 서열 종목이 설정되는 양상을 보임.
- '결작'이라는 표현 유지: 현재에도 '마지막 결작'이라 부르는 전승자들 존재. 뛰어남과 우수성을 강조하려는 의도.

-15-

유네스코 체제에서의 위계 의식과 그 해체 양상

'유네스코 인류 구전문화 및 무형문화유산 결작'

(2001-2005)

- '결작'(Masterpieces)
- 선정기준:
 - '뛰어난 가치'(exceptional value)
 - '훌륭한 가치'(outstanding value)
- '절대적 우수성'이라는 서구적 미학과 지식 논리를 따라 규정.
- 세계유산(유형유산)의 기준 적용.
- 무형유산에 대한 위계 의식이 함축되어 있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긴급보호목록'

(2006-현재)

-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
- 선정 기준:
 -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문화 다양성 / 독특함 / 토착적
 -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소멸의 위험
- '절대적 우수성(뛰어난 가치, 훌륭한 가치)'이라는 시각 극복.
- 무형유산 간의 위계 배제, 질적인 차이 불인정.



-14-

대한민국 무형유산 담론에서의 위계 해체 사례

31개 농악 전승공동체의 연대 등재

- 2014년 등재.
- 이 과정에서 국가 지정과 시도 지정을 막론하고 31개 전승공동체가 동등하게 참여.

18개 탈춤 전승공동체의 연대 등재

- 2022년 등재.
- 국가무형유산 13종목과 시도무형유산 4종목 전승공동체가 동등하게 참여.

6개 출다리기 전승공동체의 연대 등재

- 2015년 4개국 공동등재.
- 대한민국은 국가무형유산 2종목과 시도무형유산 4종목 전승공동체가 동등하게 참여.

비지정 무형유산 전승공동체의 참여

- 아리랑(2012)이나 연등회(2020) 등재에서는 비지정 무형유산 전승 공동체도 포함됨.
- 지정/비지정 무형유산을 막론하고 다수의 아리랑 전승공동체와 연등회 전승공동체가 등재 과정에 참여.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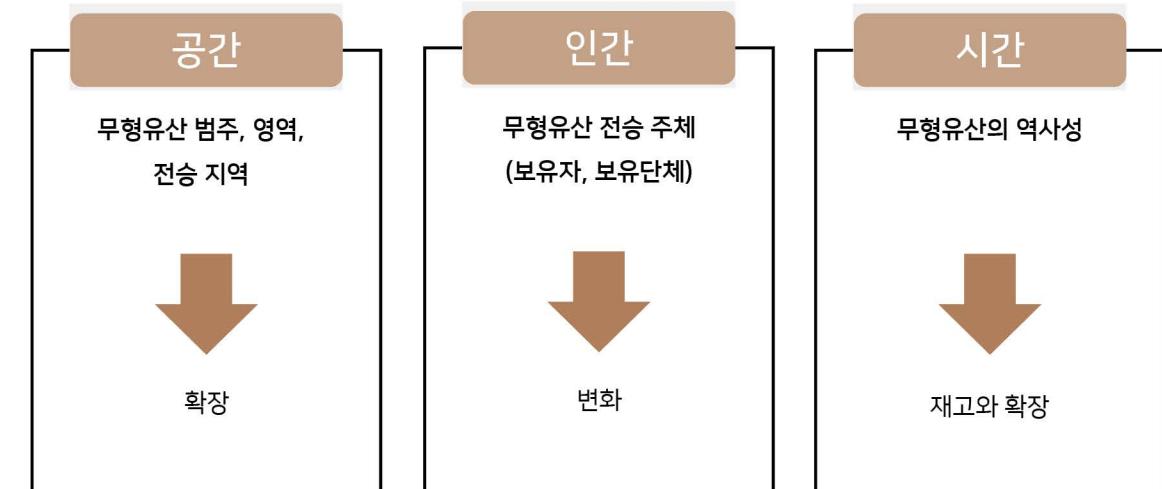
4. 유네스코 체제와 대한민국의 무형유산 정책 변화



-17-

- 무형유산 정책의 변화와 유네스코 체제
- 공간·인간·시간으로 정리한 무형유산 정책의 변화 양상
 - 무형유산 공간 축의 확장
 - 무형유산 인간(주체) 축의 변화
 - 무형유산 시간 축의 확장과 재고
- 국가유산체제의 형성

공간·인간·시간으로 정리한 무형유산 정책의 변화 양상



-19-

무형유산 정책의 변화와 유네스코 체제

- 최근 7~8년 간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흐름은 급격한 변화를 보임.
- 이러한 변화는 유네스코 체제의 직간접적 영향에서 기인한 것임.
- '무형유산 영역 확대와 분류 체계의 변화', '살아있는 무형유산의 강조와 주목' 등이 두드러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이후에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된 경우도 등장.
 - 아리랑: 2012년 대표목록 등재, 2015년 국가무형유산 지정.
 - 해녀(해녀문화): 2016년 대표목록 등재, 2017년 국가무형유산 지정.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2016),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무형유산법)]으로 개정(2024).
 - 무형문화재 범주의 확장과 새로운 유형의 종목 등장: 전통지식 관련 종목, 보유자 없는 종목, 보유자가 전국민인 종목 등.
 - 새로운 용어 등장: '전형'(2016), '국가무형문화재'(2016), '미래무형유산'(2021), '국가유산'(2022), '전승공동체'(2022), '공동체종목'(2022), '자율 전승형 보유단체'(2022), '국가유산체제'(2024).

-18-

무형유산 공간 축의 확장

- 무형유산 범주가 예능/공예(기능)의 두 범주에서, 7개 범주로 확장됨.
 -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범주('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를 염두에 둔 확장:
 - '무형유산의 전달 수단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공연예술'(performing arts), '사회 관습, 의례, 축제 행사'(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전통 기술'(traditional craftsmanship).
- 전승 지역도 특정 지역 중심이 아니라, 전국 차원으로 확장된 종목이 지정되기 시작함.
 - 아리랑(2015), 씨름(2017), 김치 담그기(2017), 온돌문화(2018), 장담그기(2018), 활쏘기(2020), 막걸리 빚기(2021) 등.
- 무형문화재 공간 축 확장의 미래 전망
 - 국외 유래의 종목이나 국외 지역 전승 종목 역시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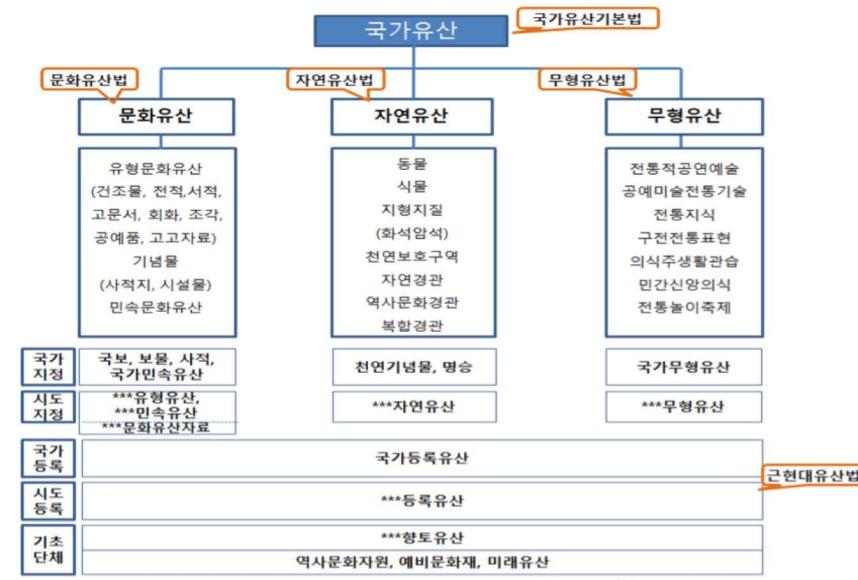
-20-

무형문화재 인간(주체) 측의 변화

- 보유자 없는 단체('자율 전승형 보유단체')의 등장: "보존회원 전체가 기·예능을 공유하는 보유단체".
 - 대동놀이류 종목(영산줄다리기, 영산쇠머리대기, 기지시줄다리기,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안동차전놀이 등)
 - 농악 일부 종목(남원농악, 김천금릉빗내농악, 구례잔수농악)
 - 수륙재(삼화사수륙재, 아랫넓수륙재, 진관사수륙재) 등.
- 보유자 없는 종목('공동체 종목')의 등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한 종목".
 - 생활문화적 속성이 강한 종목. 지역민 혹은 국민 대부분이 보유자라 할 수 있는 종목.
 - 아리랑(2015), 제다(2016), 씨름(2017), 해녀(2017), 김치 담그기(2017), 제염(2018), 온돌문화(2018), 장 담그기(2018), 전통어로방식-어살(2019), 인삼재배와 약용문화(2020), 막걸리 빚기(2021), 떡 만들기(2021), 갯벌어로(2021), 한복생활(2022), 윷놀이(2022), 설과 대보름(2023), 한식(2023), 단오(2023), 추석(2023), 동지(2023) 등.
 - 이러한 종목을 전승하는 전승 주체를 '전승공동체'라고 법률에 명시함.
 - 전승공동체: "무형유산을 지역적/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

-21-

국가유산체제의 형성



-23-

- 문화'재'→문화'유산'
- '중요'→'국가'
- '원형'→'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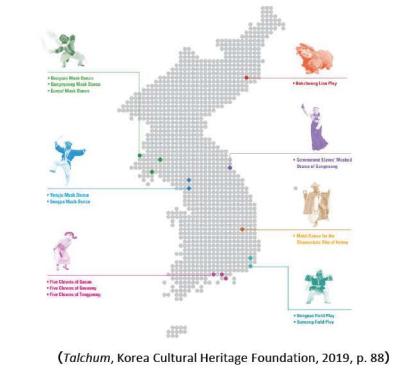
무형문화재 시간 측의 확장과 재고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생활문화적 성격을 띤 종목들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 아리랑, 씨름, 김치담그기, 온돌문화, 5대 명절 등.
- 무형유산 지정 지표 가운데 '역사성'에 대한 문제제기.
 - 역사성이라는 것이 절대적 기준인가? 상대적 기준인가?
 - 절대 기준이라면 1876년 개항 이전 형성된 종목만이 대상. 그 이후에 형성된 것은 무형유산으로 역사성이 없는 것인가?
 - 상대 기준이라면, 이미 140년이 경과.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유산이 생성되기도 함(창극, 국극, 신무용, 지역축제, 연도 등).
- 무형유산 지정의 역사적 하한선을 전근대 혹은 전통시대로 한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 근현대에 복원된 무형유산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배제하거나 저평가함.
 - 일부 복원 무형유산은 지정되기도 함. 이에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됨.
 - 근현대에 생성된 무형유산은 배제됨(창극, 국극, 만담, 신무용 등). 그래서 지속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짐.
- 근현대 무형유산 관련 논의 시작.
 - 50년 미만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작(2024. 09.15. 시행).
 - 무형유산 분야에서도 관련 논의 진행 중.

-22-

5. 연대와 평화의 매개로서

무형유산 전유(appropriation)



(Taichum,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2019, p. 88)

- 전승 공동체의 조직화를 통한 연대 양상
- 평화의 매개로 무형유산 전유 시도
- 평화를 위한 무형유산 전유의 과제

-24-

전승 공동체의 조직화를 통한 연대 양상

한국의 탈춤 (2022년 등재)

- ‘한국탈춤단체연합회’와 ‘세계탈문화예술연맹’(IMACO) 중심 역할.
- 한국탈춤단체연합회의 정통성과 대중성.
-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 전문성과 재정 지원.
- 등재 과정에서 연대 조직의 강화가 이루어짐.



줄다리기 (2015년 공동등재)

- 등재 과정에서 ‘한국전통줄다리기전승단체연합회’ 조직.(2014)
 - 시·도와 국가 지정을 망라한 줄다리기 전승 공동체 단일 조직.
- 2015년 등재 이후 조직 강화, 활성화
 - 공동등재국(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과 활발한 교류 및 연대 활동.
 - 국제 줄다리기 연대 조직 논의.
 - 국가간, 지역간 줄다리기 문화의 이해 수준이 높아짐.

-25-

평화를 위한 무형유산 전유의 과제

유네스코와 평화

- 유네스코 헌장(UNESCO Constitution):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쌓아야 할 곳도 바로 인간의 마음속”.
- 유네스코 체제의 이상은 평화 그 자체. 평화를 최상의 가치로 두고 있음.

평화와 무형유산

- 인류가 만들어 낸 최고의 무형유산은 평화.
- 평화에 복무하는 한, 무형유산은 단순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평화이다.

무형유산 전유를 통한 한반도 평화 기여의 과제

- ‘휴전’ 상황으로 긴장감이 남다른 한반도에서는 평화국면을 무르익게 하거나, 평화국면을 열어젖히는 무형유산 전유가 요구됨.
- ‘남북한이 각각 등재한 종목의 통합 혹은 공동등재’(아리랑, 김장문화), ‘남한 혹은 북한이 단독 등재한 종목을 한반도 차원으로 확장하는 확장등재’(탈춤, 능악, 냉면 등) 시도 필요.

-27-

평화의 매개로 무형유산 전유(appropriation) 시도

한국의 탈춤 (2019년 남북한 공동등재 방안 제안)

- 2019년 탈춤 등재 방안의 하나로 제안:
 - ‘한국의 탈춤에서 한반도의 탈춤으로’
-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는 무형유산의 증거를 탈춤 공동등재를 통해 보여주자는 취지.
- 등재 준비에서부터 함께하면서,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의 선도적 역할 수행 시도.
- 실제 실행은 되지 못함.

씨름 (2018년 남북한 공동등재)

- ‘남한과 북한 각각 등재 신청’ → ‘심사 과정에서 공동등재 논의’
 - ‘남·북한 공동등재 결정’.
- ‘평화 지향의 유네스코 헌장에 부합하고 무형유산을 통한 국가 간 협력의 가장 모범적 사례로 평가’됨.
- 2018년의 ‘남북한 정상회담’(4월, 5월), ‘북미정상회담’(6월), ‘평양공동선언’(9월)으로 이어지는 긴장 완화 국면과 밀접한 관계.

-26-

6. 유네스코 체제의 미래 전망



- 유네스코 체제 비판과 ‘무형유산주의적 사유’
- 유네스코 체제에 제기된 문제 해결의 실마리
- 유네스코 체제의 역동성
- 유네스코 체제의 미래 전망
- 보통: ‘복합유산’ 논의의 제기

-28-

유네스코 체제 비판과 ‘무형유산주의적 사유’

유네스코 체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

-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비판적 견해가 제기됨.
- ‘국가주의적 지향’ ‘국가 중심의 등재 시스템’, ‘유네스코 지향과 실제 운용의 괴리’ 등.
- ‘무형유산을 국경 안에 가두어 버리는 구조적 문제’, ‘공동체 규정의 모호성’, ‘동일한 무형유산의 국가별 등재 인정’ 등.
- 비판적 견해에 공감하지만, 공통으로 ‘무형유산을 고립된 것으로 보는 무형유산주의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무형유산주의적 사유’의 반성적 인식

- 유네스코 체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은 무형유산에만 있는 것이 아님. 무형유산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치, 경제, 역사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
- 엄밀하게 본다면 무형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나타나는 갈등은 돌발적인 것이 아님. 이미 공동체나 국가 사이에 내재하고 응축되어 있던 것이 무형유산 등재라는 상황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것임.
- 따라서 문제의 해결 역시 무형유산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 무형유산 차원의 문제만을 단독으로 해결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닌 것임.

-29-

유네스코 체제의 역동성

유네스코 체제의 역동성

- 유네스코 체제는 ‘국가 간의 쟁위에서 행위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산출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유네스코 체제가 고착되고 정체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음.
- 협정이나 규약, 운영 지침 등을 철칙화하여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시키려 하고, 실제 변화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음.

-31-

유네스코 체제의 역동적 변화 사례

- 문화유산 범주의 확장
 - 세계유산(1972) → 세계기록유산(1975) → 무형유산(2003).
 - ‘역사적 대상을 자체’에서부터 ‘환경’, ‘무형의 가치’, ‘전승과 향유 주체’ 등으로까지 범주가 확장되고 있음.
- ‘결작에서 ‘대표목록’으로 변화
 - ‘유네스코 인류 구전문화 및 결작’(2001)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2008)으로 명칭 변경.
 - ‘결작 관련 논란’을 통해 보다 진전된 성과를 낳음.
-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서술 항목이나 강조점의 변화

유네스코 체제에 제기된 문제 해결의 실마리

제기된 문제와 해결의 실마리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과정에서 나타난 제 양상에서 문제와 그 해결의 실마리가 공존함.

- 등재 과정에서 나타난 무형유산의 소유권 강화와 경쟁의식, 무형유산의 위계화 등의 문제는 ‘줄다리기 전승 공동체의 조직화’나, ‘씨름·탈춤 등재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연대와 평화의 매개로서의 무형유산 전유’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음.
- ‘아리랑, 연등회, 줄다리기, 농악, 탈춤’ 등의 등재 과정에서 나타난 전승 공동체 간의 위계 해체 양상 역시 주목할 만함.
- 무형유산의 소유권 강화와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이라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음.
- 무형유산의 위계 의식이 발현되고 고착되고 있는가 하면, 그 해체의 양상 역시 나타나고 있음.
- 무형유산을 통한 경쟁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면, 조화를 이루는 양상 역시 공존하고 있는 것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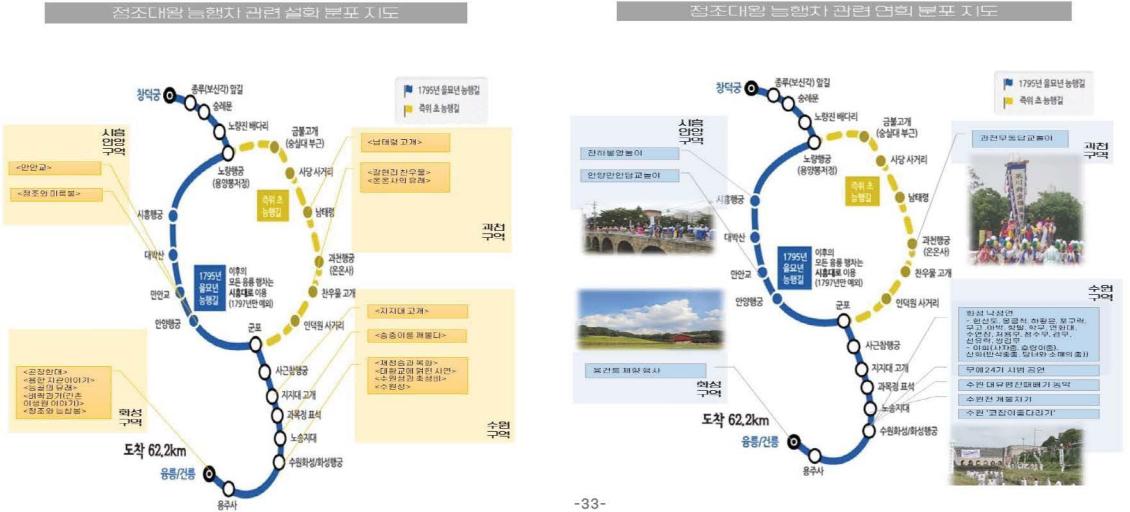
유네스코 체제의 미래 전망

- 지속적인 논쟁과 대화 속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지향한다면, 유네스코 체제와 관련한 논란은 오히려 장려할 만한 일.
- 진전된 체제를 구성하는 유네스코의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임. 유네스코가 한 단계 진전하는 상황으로 나아갈 있는 교두보가 될 수도 있는 것임.
- 유네스코 체제의 문제와 희망이 공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희망적인 사례 몇 가지에서 찾을 수 있음.
- 유네스코 체제의 가변성, 나아가 역동성을 고려해 본다면 그 희망의 사례를 유네스코 체제 지향이나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모범사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특정 종목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 체제의 지향과 운영 그 자체에서도 찾아야 할 시기가 됨.
- 덧붙여 유형유산(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유산(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무형유산(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어우러지는 ‘복합유산’ 관련 논의 또한 유네스코 차원과 국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시기가 됨.

-32-

보론: '복합유산' 논의의 제기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복합유산의 존재 양상)

'정조대왕 능행차': 1960년대부터 경기도 수원을 중심으로 전승된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적 재현 축제



-33-

보론: '복합유산' 논의의 제기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복합유산의 존재 양상)

정조대왕 능행차의 복합유산적 성격

- 정조대왕 능행차는 어느 하나의 성격을 띤 유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속성이 있음. 각각의 유산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함. 이는 정조대왕 능행차와 설화, 정조대왕 능행차와 연희의 관계에서도 동일함.
-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존재 양상이 정조대왕 능행차가 동작적으로 매개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임. 무형유산으로서 정조대왕 능행차는 유형유산인 용릉과 화성의 제 기능을 하게 만들고, 기록유산인『원행을묘정리의궤』를 살아 움직이게 만듦. 기록유산과 유형유산은 정조대왕 능행차의 매개를 통해서만 비로소 자기 역할을 함.
- 세계유산인 화성과 용릉 등을 장소로 삼고, 기록유산인『원행을묘정리의궤』를 기준 시간과 재현 규범으로 해서, 그 시공과 전형 속에서 노니는 것이 정조대왕 능행차라 할 수 있음.
- 설화와의 관계에서 역시 유사함. 연희와 관계에서 정조대왕 능행차는 발전소의 역할을 함.
- 이러한 존재 양상을 바탕으로 정조대왕 능행차를 '문화유산복합체' 혹은 '복합유산체'라 칭할 수 있음.

-35-

보론: '복합유산' 논의의 제기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복합유산의 존재 양상)

정조대왕 능행차와 다른 문화유산과의 관계

- 정조대왕 능행차는 무형유산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정조대왕 능행차는 그 연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재현 상관물이 존재함. 원행을묘정리의궤와 화성능행도병임.
- 정조대왕 능행차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에는 화성이나 용릉과 같은 사적 역시 일정한 역할. 이렇게 본다면, 정조대왕 능행차는 하나의 단일한 특정 유산으로 수렴할 수 없음. 정조 관련 설화나 연희 분야에서도 유형유산과 깊은 연관 속에서 생성되거나 복원되고 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화성이나 용릉을 중심으로 본다면, 정조대왕 능행차는 세계유산의 '무형 상관물'이라 할 수 있음. 유형유적인 화성과 용릉의 기능을 보여주는 역할을 정조대왕 능행차가 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원행을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본다면, 정조대왕 능행차는 기록 유산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상관물이 되는 것임.

-34-

보론: '복합유산' 논의의 제기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복합유산의 존재 양상)

'복합유산'의 제기

- 문화유산복합체 혹은 복합유산체라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특징은 이에 걸맞은 새로운 유산 영역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함.
- 물론 현재에도 유네스코 복합유산이라는 유형이 존재하기는 함. 하지만 그 복합에서 무형유산은 빠져있음.
- 명실상부한 복합유산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조대왕 능행차와 같은 특징을 담아낼 수 있는 국내외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임.
- 하회마을과 하회별신굿탈놀이 역시 복합유산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복합체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어쩌면 복합으로서 유산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임. 일반적인 현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을 정책과 제도가 쪼개어 놓았음. 이제 정책과 제도가 쪼개어 놓은 것들을 그 존재 양상에 적합하게 포괄하는 일이 필요함.
- 정책과 제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못했던 복합유산이라는 영역 설정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도래한 것임.

-36-

참고문헌

- 남근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체제의 성립과 전략적 수용」, 『비교민속학』 63, 비교민속학회, 2017.
- 도슨 문제리,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차이에서 융합으로」, 『뮤지엄 인터내셔널: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전망』 221/222(한국어판 특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 로저 자넬리, 「동아시아 공동무형문화유산의 보편성과 특수성」,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강릉시, 2009.
- 류계옥, 「중국 조선족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현황 및 중국 조선족 농악무」,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동아시아 공동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편성」(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발표자료집), 2009.
- 무니르 부쉬나기, 「총론」, 『뮤지엄 인터내셔널: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전망』 221/222(한국어판 특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 문화재청·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한국어판 2009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목록」, 문화재청·아태무형문화센터, 2010.
- 문화재청·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한국어판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해설집」, 문화재청·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2010.
- 송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소고」, 『남도민속연구』 17, 남도민속학회, 2008.
- 신동욱, 「무형문화유산 가치 변화 연구-한국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9.
- 아이카와 노리코, 「무형문화유산협약 제정에 관한 역사적 개관」, 『뮤지엄 인터내셔널: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전망』 221/222(한국어판 특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37-

참고문헌

- 허용호,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민속극의 전승과 보존」, 『비교민속학』 39, 비교민속학회, 2009.
- 허용호,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에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 국내의 경우」,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전승·보전 그리고 인벤토리」, 함한희 역음, 문화재청, 2012.
- 허용호, 「가면극 속의 장애인들」, 『구비문화연구』 37, 구비문화학회, 2013.
- 허용호, 「움직이는 전통. 변화하는 시선-밀양백중놀이 장애표현과 그 형상화 시선 연구」, 『공연문화연구』 28, 한국공연문화학회, 2014.
- 허용호, 「원형'에서 '전형'으로, 그 지향과 한계」, 「2015년 무형유산학회 제1회 학술심포지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검토」, 무형유산학회, 2015.
- 허용호, 「원형'의 신화, '전형'의 논리」, 『무형유산학』 1-1, 무형유산학회, 2016.
- 허용호, 「유네스코 체제하의 강릉단오제」, 『민속학연구』 39, 국립민속박물관, 2016.
- 허용호,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는 무형유산-한반도 차원에서 가면극을 사유하기-」, 『탈춤, 인류 보편의 가치를 품다』(2018 IMACO 국제학술심포지엄), 안동시·IMACO, 2018.
- 허용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추가 공동등재를 위한 방안 모색」, 「2019: 국립무형유산원 학술대회: 북한의 무형유산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국립무형유산원, 2019.
- 허용호, 「세계 차원의 전통예술 사유에 대하여-유네스코 체제와 한류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34,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예술연구소, 2021.
- 허용호, 「유네스코 체제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비교민속학』 75, 비교민속학회, 2022.

-39-

참고문헌

- 아마시다 신지, 「문화유산논란: 국제화시대 문화자원의 인류학」,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동아시아 공동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편성」(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발표자료집), 2009.
- 안미정, 「문화의 세계화와 민족주의 담론: 제주해녀(장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117, 2020.
- 이경업,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재인식과 계승 방향」, 『남도민속연구』 29, 남도민속학회, 2014.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칭)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문화재청, 2011.
- 임돈희,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작성」, 『무형문화유산 목록 조사연구』, 강릉시·강릉문화재단, 2006.
- 임돈희 외,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 유산제도와 그 의미」, 『비교민속학』 26, 비교민속학회, 2004.
- 장정아, 「민간문화유산'에서 '위대한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1-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8.
- 정상우, 「무형문화유산 독립법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15년 무형유산학회 제1회 학술심포지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검토」, 무형유산학회·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2015.
- 정수진,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정치학」, 『실천민속학연구』 26, 실천민속학회, 2015.
- 한경구,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지역 내 문화정책」,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편성」(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강릉시, 2009.
- 한국문화재재단, 「살아있는 유산을 찾아서」, 한국문화재재단, 2020.

-38-

참고문헌

- Ahmad, Yahaya, "The scope and definition of heritage: from tangible to intangible",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2(3), 2006.
- Bendix, Regina F., Aditya Eggert, Arnika Peselmann, (eds), *Heritage Regimes and the State*,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2012.
- Eriksen, Thomas Hylland, Between universalism and relativism: A Critique of the UNESCO concept of culture, Jane K. Cowan et al eds. *Culture and rights: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Foley, Kathy, "No More Masterpieces: Tangible Impacts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Bordered Worlds", *Asian Theatre Journal*, Vol. 31, Number 2, 2014.
- Wright, Susan, "The politicization of culture", *Anthropology Today* 14, 1998.

-40-



감사합니다

